

초기위의  
근근

| 2006 제11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산문집 |

동백꽃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 차례

## 01\_서울특별시

- 퍼즐맞추기 ... 11
- 마음에 화상을 입는 날 ... 13
- 영상편지 후속편 ... 18
- 남북화합, 평화적통일을 기다리며 ... 22
- 금강산에서 바라본 통일꽃 ... 25
- "금수"가 말하는 통일 ... 28
- 어느 비둘기의 이야기 ... 31
-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 34
- 죄와 벌 ... 37

## 02\_부산광역시

- 우리는 한민족 ... 43
- 조금 더 가까이 ... 45
- 웃음꽃 ... 48
- 민족 통일을 위해 ... 50
- 나와 나의 손이 만나면 통일 ... 53
- 분단에 조종을 울리기 위하여 ... 55
- 통일 한마당 ... 58
-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61
- 하나 된 한반도, 우리는 한민족 ... 64

## 03\_대구광역시

- 또 하나의 친구 ... 69
- 다함께 부르는 <반갑습니다> ... 71
- 자석의 같은 극인 두 친구 ... 74
- 달려라 우리꿈 2호 ... 76
- 철길 위의 동백꽃 ... 78
- 내 친구 리은혜 ... 81
- 통일을 이어주는 다리 ... 84
- 함성 ... 87
- 하나의 철길로 이어진 동쪽 끝나라 ... 90

## 04\_인천광역시

- 하나가 되어 ... 95
- 통일의 길 ... 97
- 할아버지의 약속 ... 100
- 우리함께 외쳐요 ... 102
- 허리띠를 풀자 ... 105
- 길 ... 108
- 나와 내가 한마음이 되어 ... 111
- 새의 날갯짓 ... 113
- 철마는 달리고 싶다 ... 115

## 05\_광주광역시

- 통일의 바람 ... 121
- 통일은 우리의 문제,  
바로 내 문제이다 ... 124
- 분단역사 50년의 끝은 ... 128
-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노력을 해왔을까요? ... 131
- 신조선의 미래 ... 133
- 다시 하나가 된 두 조각 ... 137
- 하나된 한반도를 꿈꾸며 ... 139
- 평화통일 ... 141
- 통일의 등불 ... 143

## 06\_대전광역시

- 나는 통일전망대 전속 모델 ... 149
- 망각의 선물 ... 152
- 통일, 우리의 몫이다! ... 156
- 도라산역을 아시나요? ... 159
- 사랑으로 피우는 염원의 꽃 ... 162
- 쪼개어진 배는 뜰 수 없다 ... 165
- 북한 미술품 속에  
그려진 한마음 ... 168
- 온 가족이  
만날 날을 기다리며 ... 171
- 제약 없는  
금강산 여행을 바라며 ... 174

## 07\_울산광역시

- 할아버지의 손가락 ... 179
- 기와집 할아버지 이야기 ... 181
- '송환'을 넘어서 '통일'로 ... 185
-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 188
-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 190
- 할아버지의 눈물 ... 193
- 외할아버지 어깨의 총 자국 ... 195
- 우리들의 숙제 ... 197
- 우리는 가족입니다 ... 200

## 08\_경기도

- 하늘 높이 경적소리 울리며 ... 205
- 내일도 맑음 ... 208
- 어느 여름날의 꿈 ... 211
- 통일이 오면 ... 214
- 통일을 여는 대화 ... 217
- 유서(遺書) ... 220
- 단군의 후손이어  
통일을 이루자 ... 223
-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 226
- 작은 물방울이 되어 ... 229

## 09\_ 강원도

- 큰아버지의 선물 ...235
- 남북공감 ...237
- 꽃과 같던 할머니 ...240
- 민족의 상처 위에  
통일 반창고를 ...244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247
- 금강산, 할머니와  
나의 이야기 ...250
- 슬픈 할아버지의 기억 ...253
- "통일토피아"로 ...256
- 통일을 향한 발걸음 ...259

## 10\_ 충청북도

- 할머니의 슬픔 ...265
- 슬픔을 넘어서 ...267
- 통일, 우리가 해낼게요! ...272
- 허리 굽은 할머니 ...274
- 분단된 나라, 헤어진 가족 ...276
-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날까지 ...278
- 피난길에 생긴 일 ...281
- 눈물이 강이 되어 ...283
- 그리움..., 그리고 햇빛 ...286

## 11\_ 충청남도

- 2006 통일 인삼엑스포를  
꿈꾸며 ...291
- 반쪽의 콩이 한 알의  
콩이 되기까지 ...293
- 민들레 흙씨에  
담은 내 마음 ...296
- 퍼즐 맞추기 ...300
- 더블 코리아의 힘 ...304
- 오랜 기다림의 끝 ...307
- 꿈은 이루어진다! ...311
- 내 조국 조선 사람들에게 ...314
- 통일을 원하지 않던  
너에게 띄운다 ...317

## 12\_ 전라북도

- Why Two Corea? ...323
- 금강산 달님에게 빌어본 소원 ...326
- 두바퀴에 통일을 싣고 ...329
- 헤어짐이 없는 그날 ...332
- 할아버지 이야기 ...336
-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어주소서 ...338
- 통일된 2020년도  
우리 반의 모습 ...341
- 무관심은 이제 그만 ...344
- 우리가 심은 씨앗이 맺은  
통일이라는 열매 ...346

### 13\_전라남도

- 함께 외치는 '대한민국' ...351
- 옷겨도 옷지 못한 이야기 ...354
- 나는 대한민국  
국민 이명복입니다 ...357
- 57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360
- 조심스런 여행 ...362
- 할머니의 선물 ...365
- 생각의 벽을 허물자 ...368
-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 주세요 ...371
- 가슴 속의 통일 ...373

### 14\_경상북도

- 우리 가족들의 작은 통일 ...379
- 향숙과 마라톤 ...381
- 소녀의 손수건 ...384
- 우리는 한민족 ...389
- 우리 만날 날을 기다리며... ...392
-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고향 ...394
-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397
- 작은 전쟁의 아픔 ...400
- 통일을 위한  
청소년들의 각오 ...402

### 15\_경상남도

- 백두산으로 가는 구름 ...407
- 이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요? ...409
- 탈북후, 그들은 행복한가? ...412
- 두산이에게 쓰는 편지 ...414
- 슬픈 솜바꼭질 ...416
- 탈북자 ...419
- 백두산 ...421
- 플라나리아 대한민국 ...423
- 엄마, 탈북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425

### 16\_제주도

- 나에게 새로 생긴  
소원 한 가지 ...431
- 노랑게 익어가는 마음 ...434
- 혈관 속에 흐르는 ...437
- 꿈꾸며 사랑하며 ...440
- 우리 모두 하나 되어 ...442
- 나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444
- 이유없는 전쟁 ...446
- 돼지야, 돼지야  
쑥쑥 자라거라 ...448
- 통일한국의 반쪽, 북한 ...451



## 서울특별시

# 01

- 퍼즐맞추기 ...11
- 마음에 화상을 입는 날 ...13
- 영상편지 후속편 ...18
- 남북화합, 평화적통일을 기다리며 ...22
- 금강산에서 바라본 통일꽃 ...25
- "금수"가 말하는 통일 ...28
- 어느 비둘기의 이야기 ...31
-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34
- 죄와 벌 ...37







## 퍼즐 맞추기

홍대사대부속초 6  
최서운

4학년 때 처음 산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였다. 완성만 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짓어대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었다. 난 완성된 그림이 그려진 상자를 바라보며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한줄기의 세찬 바람이 불어와 퍼즐을 책상에서 밀어냈다. 곧 주웠지만 아이들의 발에 밟혀 얼룩이 지기도 했다. 퍼즐을 줍던 나는 화가 났다.

집에서도 수난은 계속 되었다. 난 오랜만에 맞추는 퍼즐이라 꼭 완성하고 싶었다. 그래서 동생을 방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동생은 엄마께 고자질을 했고, 엄마는 바로 퍼즐을 엮어버리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었다. 퍼즐 맞추기는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다.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나가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다 맞추면 볼 수 있는 그림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몇 조각을 남기고 다 채워 갈 때면 승리의 쾌감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맞추지 못한 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재미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하고 싶은 의욕도 점점 떨어진다.

나는 퍼즐을 하다 불현듯 두 조각난 우리 땅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이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조각을 맞추려고 헤매는 사람들처럼 크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50여 년 전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과 헤어진 가족을 둔

사람들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쩌면 나머지 사람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만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매년 한 조각씩 찾아 통일이라는 퍼즐의 빈 공간을 채워 넣는다. 그런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퍼즐이 다 완성되지 않은 걸 보니 방해꾼이 있는 듯하다. 퍼즐을 할 때 방해꾼은 많은 영향을 준다. 퍼즐을 맞추는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퍼즐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

사실, 난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다. 퍼즐을 맞추고 싶지 않아 옳지 않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의 생각 말이다. 퍼즐을 맞추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맞추려는 것도 문제다.

만약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룬다면 어렵게 맞춘 퍼즐은 금방 망가질 것이다.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남길 것이고,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 제2의 이산가족이 생길 것이다. 그 유가족들은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짓눌려 살게 될 것이다.

어느 하나가 이겨야 끝날 전쟁, 그러나 누구에게도 진실 된 승리는 없다. 그래서 난 평화통일을 했으면 한다. 침대처럼 포근하고 안정된 평화통일 말이다.

과연 통일이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추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그래도 기다림은 끝이 있다. 퍼즐 맞추기처럼 모양을 맞추고 색깔을 맞추듯 마음을 맞추고 행동을 같이할 때 통일이라는 완성된 그림이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 조각을 찾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써 가면서 한 방법씩 시도해 봐야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마지막 퍼즐조각은 우리 7천만 한반도 국민의 마음이 통일에 모아질 때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난 이제부터 무조건 하는 통일이 아닌 남·북한이 행복한 통일을 꿈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친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만약 통일이 되거든 북한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줘”

내 마음이 벌써 통일 후를 생각하는 것을 보니 통일은 이미 눈앞에 와 있나 보다.



# 마음에 화상을 입는 날

- 내게는 너무 따뜻했던 하루 -

구정중 3  
최수현

서울시 마장동 한 뒷골목, 아침부터 풍겨오는 소, 돼지의 피비린내처럼 나의 아침도 비릿하게 시작된다. 자유라는 환상을 쫓아 “따뜻한 남쪽나라” 로 온지도 벌써 13개월이다. 그동안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도 지나갔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도 지나갔으며, 일년 중에 가장 쓸쓸했던 내 생일도 지나갔다.

무작정 남쪽, 남쪽만을 향해 허우적거렸던 그날 밤, 흠을 만진 나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오열했다. 함께 고통을 견딘 내 동료들과, 하지만 몇 밤을 자유의 틀에서 보낸 뒤의 내 아침을 상상하진 못한 채였다. 아니, 이렇게 되리라고는 미처 짐작치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 터를 잡은 나는 양복쟁이를 꿈꿔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은 인간 오두식이 아니라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뒤늦게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취업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숨겨도, 면접관은 나를 탈락시켰다.

내 담당형사가 그에게 내가 탈북자라고 귀띔해주었던 것이다. 물론, 친절한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에는 국정원과 각종 관공서, 기업들이 중고 컴퓨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그 컴퓨터로 나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한 가지, 그 세상이 우리를 “세금 먹는 회충”이라고 한다는 한가지의 “진실”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리도 불필요한 존재였던가?

그래, 이리도 완벽한 땅에 나란 존재는 싱가포르 공원의 담배꽂초처럼 느

꺼질 것이다. 상한 고기에서 나는 비린내처럼, 새하얀 눈 위의 발자국처럼…, 그렇게 오늘 아침도 비릿하게 시작되었다.

“꽁꽁꽁”

문짝 부수는 소리, 하지만 내겐 이야기를 할 대상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리다.

“여어! 웬일이야?” 짐짓 귀찮은 듯

“웬일이긴 무슨, 오늘 같이 오두산 가기로 했잖아, 또 잊은 거야?”

“그렇지…, 그래…”

“빨리 나와.”

꽁, 다시 문이 닫히고 나는 어둠에 빠져든다. 그날 밤, 함께 눈물을 흘렸던 김씨는 북에 동생들을 두고 왔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왔다. 그렇게 나만 살겠다고 홀린 듯이 이곳에 왔는데. 꼭 아버지를 찾아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그 수많은 당부와 어머니의 주름살은 비린내만 풍기고 다니는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비참함만을 더하고 있다. 행여 끌려가거나 앓으셨을지…, 저 혼자 살겠다고 아버지 핑계대고 떠나온 자식, 미워할 기력을 있으실지….

꽁, 다시 문짝 부수는 소리. 그리고…, 두 시간 뒤

“키 야~~호”

너무나도 많은 날. 오두산 통일전망대 위에 올라서니 개성이 흰히 내다보인다.

“우리 은실이랑 은호도 저 어딘가에 있겠지?”

“동생 내팽개치고, 어미 떠난 것들이 뭐 좋다고 여길 올라와?”

김씨에게 괜한 화풀이를 한다.

“그래서 온 거 아냐. 우리 잘 있습니다. 하려고.”

“우리만 잘 있으면 뭐해. 개성 바라보면 뭘 해. 다 지방으로 끌려내려 갔을지도 모르는데.”

“짜식, 싱겁기는…, 거, 걱정 마. 너 어머니, 너 아버지 보기 전엔 절대로 개성집 떠날 분 아니니까.”

“.....”

뒤편 대꾸를 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래, 그럴 거야 하고 되려고 또 되려있던 지난 날들의 기억, 그 자기만족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 가자.”

침묵, 가슴의 침묵.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대한 침묵.

“..... 그래.”

또각. 또각 또각.

“가슴이..., 아리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또. 또각. 또. 또각.

“만약 우리 어머니, 평생소원이라곤 한개 밖에 없었던 우리 어머니, 이대로 영영..., 영..., 못 만나면...”

뚜벅. 똑. 뚜벅.

“그러면..., 그 소원 못 들어드리면...”

쿵!

“어이쿠!”

“아얏!”

“아...,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응..., 젊은이들이구만 그려.”

“예.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응. 괜찮여. 어? 이거...”

“앗. 할아버지, 저 무릎이...”

“어이구!”

“병원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됐어, 귀찮여. 늙은이가 주책은..., 울다가 못 봐서 그랬어.”

“그래도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할아버지는 연방 손사래를 치셨다.

“됐다니까 그려.”

“할아버지, 이거요, 균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허허. 이거 참. 우리 마누라 보면 큰일 날 일일 텐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돈 썼냐고 마냥.”

“하하. 할머니가 구두쇠신가 봐요.”

“응. 그랬지”

“그럼, 지금은 안 그러세요?”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

“북에 있다우. 내 마누라.”

“정말요? 저희도 북에서 왔어요, 할아버지!”

“그려? 거 잘 되었구만 기래. 나도 원래는 북쪽 사람이야. 전쟁 통에 거일로 끌려 왔지만”

“그러세요...”

“그래. 북은 어때?”

“아유, 여기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응... 그래? 살기가 많이 힘든가?”

“못 배운 사람은 매일 고생이죠.”

“그래? 그럼 많이 힘들겠구만.”

“.....”

“나... 북에 두고 온 처량 자식 놈 말이야.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어찌 되었나 모르겠어.”

“그럼, 이산가족 신청해보셨어요?”

“날..., 잊었을까봐.”

“그털 리가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개성 고향집에서 제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누라도..., 그럴까?”

“그럼요.”

“그래… 자식 늙은 어떻게 되었을지…, 살아있다면 오십이 넘었겠구만.”

“……”

“마누라랑 나랑 애 이름도 저냈었어. 무식한거 한 땀해서 이 애는 머리로 먹고살라고. 그렇게 지어놨지. ‘두식’ 이라고, ‘오두식’. 우습지? 허, 전쟁이 뭘지…”

“오…,”

남쪽의 세상은 아직 나에겐 차갑다. 불친절하다.

“두…,”

하지만 가끔은 너무 따뜻해서 화상을 입을 것 같다. 세상은 조금씩 친절해질 거라 믿는다.

세상은,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남아있기에 그 어딘가에서도 살아갈만한 것 같다.

“식…,”

많이 힘들었지만, 힘들겠지만, 지금 내 눈을 채운, 뿌영게 보인 이 노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울겠다. TV에서 보면서 함께 울었던, 함께 울고 싶었던 그 장면에 드디어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간절히 통일을 바라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 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이기에.

### <작품후기>

우리가 하나임을 오늘에야 정말로 느끼게 되었다. 보잘것없는 작품이지만, 북쪽에, 남쪽에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다.



# 영상편지 후속편

등촌고 1  
이인경

오늘 파주를 오는 내내 웬지 낯설지 않은 게 김포와 닮아 있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지난주 일요일 엄마와 조조로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갑자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직접 기르신 농산물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나는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어 적지 않게 실망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게 되어 기뻐다. 그리고 온 가족이 김포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시원하게 펼쳐진 김포의 들녘은 어느새 초록 옷으로 갈아입어 있었다. 언제나처럼 쏟아지는 햇빛이 축복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이 평화롭고 빛나는 김포는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의 터전이며 나의 고향이다. 어디를 봐도 정겹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할아버지 댁에서 우리는 새로 일구어놓은 밭으로 향했다. 초여름인데도 제법 머리가 따끈따끈해질 만큼 더웠다. 새 밭에는 여러 종류의 곡식들이 할아버지의 자식들처럼 머리를 쭉쭉 내밀고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조그만 얼굴과 주름투성이의 손은 이 밭에 흙들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황해도 ○○○ 입실면에서 태어나셔서 작은할아버지와 6·25 때 아군으로 참전하셨는데 지리산 전투에서 한쪽다리에 총상을 입으셔서 13센티미터 정도 잘라내셔야 했다고 한다.

그 후에 3·8선이 그어졌고 이후로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고향땅을 밟



오시지 못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고향과 비교적 가까운 김포에서 사셨는데 애기봉 아래에 샬터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다. 그때는 애기봉에 올라가면 고향마을이 잘 보였다고 한다. 매일 애기봉에 올라 고향을 보시고 그나마 위안을 얻으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물과 미루나무 집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때 이후 지금의 집으로 이사하셨고, 일년에 몇 번씩 우리가족은 행사처럼 문수산으로 갔는데 그때 집 앞에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다는 포플러 나무를 우리도 같이 보았다.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문수산을 오르실 수 없으시다. 너무나 가슴이 텅 빈 것 같다. 지팡이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없는 문수산은 이제 나에게 단팥을 두고 온 허탈감만 주고 있다.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애뜻한(?) 사이이다.

엄마, 아빠 직장생활로 나와 내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보아 주셨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는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너무나도 익숙하다. 오늘도 돌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마술이라도 부릴 듯한 나무 지팡이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분신이다. 언제나 할아버지 곁에서 빛나는 조연을 하다보니 가족처럼 느껴진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무 지팡이로 쓰실 나무를 구하셔서 해마다 마당의 빨랫줄에 매달아 놓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으신다. 그래서 예비지팡이들이 줄을 지어 있는 셈이다. 할아버지의 앙상한 마른 손과 지팡이의 나무 곁은 언제나 대비되어 보인다. 그러나 지팡이가 완성되면서 할아버지께 꼭 어울리는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된다.

할아버지의 숨씨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손을 잡고 김포 들녘을 거닐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다보면 어느새 나의 귀는 토끼 귀처럼 쫓긋해지곤 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꿈꾸듯 상상해 본다. 신선한 산소가 대지처럼 흐르는 날 황해도의 들녘을 지니는 장면을...

우리 가족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해 두었는데 아직 우리 차례는 멀었나 보다. 우리는 TV에서 이산가족상봉 장면이 나오면 같이 울며 많이 부러워한다. 이산가족 상봉때 북의 가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아니 통일이 되어 직접 만나면 더욱 좋지만) 미리 몇 년 전에 가족사진을 찍었다. 대가족

이어서 결혼식장을 빌려서 촬영을 했다. 김포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우리 가족 모두가 빛나게 웃고 있다. 사진이 한 눈에 들어온다. 바로 이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사진의 진짜 주인을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해에는 작은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더욱 우리 가족을 안타깝게 했다. 혹시 이산가족 상봉이나 통일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 본다.

지난 12월 할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보내는 영상편지”라는 비디오 촬영을 하셨는데 북한의 고향에 보내진다고 한다. 테이프를 우리는 보고 또 보았다. 우선은 우리 할아버지의 온화하고 편안한 그러나 굵은 주름이 무척 가슴 아프게 하는 작은 얼굴과 좁은 어깨가 나를 사로잡았다.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

말씀 중간 중간에 목이 마른신지 계속 물을 마시셨는데 목 타는 갈증이 아니라 너무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갈증이었다. 인천 부둣가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작은할머니와 하셨다는 이야기 대목에선 허허허 웃으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배어있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 분들이 80세 때부터는 생일날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울었다. 목마른 할아버지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마지막에 우리 가족사진이 장대하게 펼쳐졌는데 나도 내 동생도 소개해주셨다. 이북의 가족이 만약에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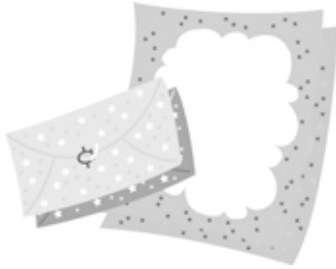
우리는 테이프가 다 돌아가도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꿈꾸듯 영상에 잠겨있다. 영상편지 후속편인 이산가족상봉 장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북에 계신 고모할머니 두 분과 작은할아버지들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과 우리 가족들이 만나고 있다.

우리는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내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 받고 있는 듯한 영상화면이 이어지고….

이제 가족사진 속의 사람들이 고향마을의 광활한 들판을 배경으로 황해도 고향마을 텃마루도 보이고, 누런 황소도 보이고, 아무리 봐도 예전 김포

들녘과 너무나도 흡사한 살랑거리는 바람에 미소 짓는 풀밭에서 아주아주 행복해 하는 가족들이 과도처럼 넘실거리며 대지를 뒤덮는다.

모두가 뛰고 뒹굴고 행복해 보이는...





## 남북화합, 평화적 통일을 기다리며 ...

자운초 6  
이하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기는 제1회 한민족 평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옛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진 축제현장에서 흥분된 기자가 보도하는 뉴스를 상상해본다. 가슴 아픈 분단의 현장에서 상상만으로도 코끝이 찡해지는 감격스런 미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 가수가 북한공연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사람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그들이 웬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물론, 그들이 가수의 열창에 크게 호응을 하거나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차츰 리듬에 맞춘 박수가 나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관객까지 어느새 서로 한마음의 자리로 변해 있었다. 우리의 가수가 북한주민과 함께한 열정의 무대가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감동스럽고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요즘 북한은 국제적으로 위협적인 존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 핵실험 준비 등으로 국제적인 테러국가로 인식되어 고립된 상태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핵포기를 하도록 국제적 협력관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민족인 우리가 앞장서 북한이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북한 상호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밑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둘러보는 사진과 어떤 한반도 정세변화가 있더라도 남과 북이 개성공단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내용을 보았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성산업단지를 조성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평화의 터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개성공단 건설은 남북합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같은 외모를 가진 동일민족이면서도 오랜 세월동안 분단되어 살아오면서 쓰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를 정도로 마치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린 북녘의 사람들!

분단이란 이름 앞에 아직도 우리는 “육지의 무인도”라 불리는 고립된 땅,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최근 탈북자의 미국 망명 사건 등 모두가 지구상에 하나 밖에 없는 분단된 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안타깝고도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울타리를 없애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산가족 상봉, 보다 자유로운 남북한 방문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확대해 간다면, 통일은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하나로 평화통일이 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듯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보다 더 힘 있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의 그날이 오면 우리 한민족은 지금보다도 훨씬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만 보고 돌아서야 했던 안타까운 마음 대신, 눈앞에 보이는 저 길로 평양을 지나, 백두산에 올라 “야호”라고 고향처럼 볼 수 있는 그날!

남북한이 하나 된 붉은 악마가 월드컵에서 함께 목청껏 응원해 볼 수 있

는 그날!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과 철조망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되어 비무장지대가 수많은 외국사람들의 발길로 붐빌 수 있는 날, 그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남과 북은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화합이야말로 통일의 그날을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 금강산에서 바라본 통일 꽃

봉영여중 3  
박새롬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생 통일 체험 한마당”에 학교 대표로 선정되어 금강산에 가게 되었다. 한 나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갈 수 없었던 북한을 가게 된다니…, 풍선처럼 부푼 기대와 긴장감을 가득 품고서 금강산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처음 버스를 타고 금강산호텔까지 가는 동안, 서로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매우 서먹했다. 그러나 남한CIQ를 통과하고, 2박3일간 우리를 이끌어줄 조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다.

얼마 정도를 더 달리고 북측CIQ에 도착하여 짐 수색을 받았다. 남한과는 달리 무표정으로, 아직 어린 학생들조차도 불신하는 눈으로 우리를 대하는 북측군인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허물지 못한 이 장벽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렇게 북측CIQ를 통과하여 우리가 묵을 숙소에 도착하였다. 매우 삼엄한 분위기 일거라 생각했는데, 남한과 다름없는 구조와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곳은 나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첫날이어서 그런지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대신 2박3일간 낯선 땅에서 함께 하게 될 친구들과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나누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허무하고도 그러나 새 경험을 얻은 금강산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둘째 날, 오전 8시부터 당일 행사에 바빠 움직였다. 첫 행사는 가장 기대

하던 시간…, 금강산에 오르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정말 새로운 풍경에 눈이 절로 멈추어 졌다. 가을 하늘 보다도 높고 푸른 하늘, 우뚝 솟아 금강산의 기세를 드높이는 나무들, 우리가 먹는 물보다도 깨끗하고 끊임없이 칼칼 흐르는 물….

이 모든 경치들이 내 마음 속의 던적스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듯 하였다. 더불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금강산의 경치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약 3시간 정도를 금강산과 함께 하고, 그 아름다움과 경진함을 뒤로 한 채 금강산에서의 발걸음을 돌렸다. 금강산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은 후, 교예 관람을 하러 옥류관으로 향했다.

북한 최고의 교예단이라 불리는 “모란봉 교예단”을 본다는 것에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되었다.

좌석에 앉고 얼마 뒤 교예가 시작되었는데, 역시 그들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니 더한 기대를 품게 해주었다.

등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듯이, 땅에 보이지 않는 줄이 있는 듯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최고의 교예를 펼쳤다. 남한의 서커스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약 1시간가량의 교예가 끝나고, 우리와 그들은 쉬이 등을 마주하지 못했다. 머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손을 쉴 새 없이 흔들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 하고 옥류관을 나왔다.

저녁을 먹고, 어제와 같이 숙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매우 섭섭해 했다.

다음날, 마지막 날이라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기고 아침을 먹은 후, 버스에 올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남겨둔 그곳을 떠나려니 마음 한 구석이 땡 뚫린 듯하였다.

버스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서의 마지막 행사인 “삼일포”를 관광하러 갔다. 버스에서 내려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걷다보니, 깨끗하고 넓은 호수가 보였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맑은 호수와 정



경을 한층 더 높여주는 듯했다.

삼일포를 바라보며 작은 돌계단을 올라 “봉래대”로 향했다. 그곳에서 북한 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는 우리를 이끌고 조금 더 건너니 삼일포의 모든 경치가 뻥히 보이는 곳에서 봉래대의 유래와 양사언 선생의 시를 읊어주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보았던 군인들과는 달리 발그레한 볼과 입술을 가진, 북한의 고유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한 그 언니의 웃음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삼일포관광까지 마친 채, 2박 3일간의 금강산 여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우리는 분명 하나였다.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진실된 가족과 핏줄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땅에 떨어져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구름이 된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라는 구름 아래 잠시 작은 눈송이로 나뉜 것뿐이다.

한반도라는 구름을 만들기 위해 우리와 같은 작은 눈송이들의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교류 등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우리는 통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반드시 피어야 할 꽃인 “통일꽃”을 피워야 한다.

겉보기에는 못난 꽃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풍성할 꽃인 “통일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서로를 향한 발걸음은 조금씩 전진할 것이다.



## “금수”가 말하는 통일

서초고 1  
신영선

「오늘은 우리 “한반도 금수계”에 있어 기록으로 남을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50여 년 전, 마치 “폭우”가 내리는 듯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폭탄 아래서 뿔뿔이 흩어진 금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모르게 진행되는 이 모임은 오늘밤 12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 됩니다. 전국의 모든 금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안내를 맡은 토생원이었습니다.」

“흠, 근 50여 년 만에 이런 모임 안내를 하려니 어색하고, 목도 아픈 것이 이젠 저도 늙었나 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이 산중의 왕, 호랑이는 그대보다 나이 많음에도 이 감격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그대도 다시 힘을 내어 다른 동물들 오는 것을 챙겨주게나. 어서 가게나!”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접한 이 기이한 장면은 바로 “제1차 남·북 금수모임”이 개최되고 있는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물들은 원치 않게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난 이래 계속 “만남”의 기회를 찾으려 애쓴 보람을 오늘에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곳 금강산은 우리 동물들로 가득해지겠지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우리 모두는 헤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또 호랑이님과 저를 포함한 6금수는 각각 남과 북의 대표로서

다음 모임의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재결합을 다짐하며 인간들이 하는 양으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인간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대화는 그 무엇보다 심도 있을 것이며, 그들 인간들이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조목 조목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임이 시작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시지요.»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곳, 금강산에 모이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박수가 나오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금강산을 뒤흔든다. 모든 금수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환호를 한다.

먼저 호랑이가 일어나 에헴!,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연다.

“제1회 남·북 금수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의 재결합을 도모 합시다!”

호랑이의 우렁찬 발언에 뒤이어 토생원이 말을 한다.

“호랑이님의 말씀대로 이번 모임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재결합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노력합시다. 오늘의 모임은 통일을 위한 우리 금수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우리의 힘을 모아 힘 있는 한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들 만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만세 ‘를 외친다. 기쁨의 기운이 땀도는 가운데 웅성거림이 찾아들어간다. 순간 누군가가 그 앞발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말을 한다.

“나는 노루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인간들에 의해 자행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원치 않게 떨어져 사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만남 이후에 또 다시 각자의 집을 찾아 또다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의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고, 삶의 마지막 여행 삼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냥 몇 달이고 계

속 이곳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금수들,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때 호랑이가 다시 나서며 좌중을 추스른다.

“우리라고 웬들 아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헤어지기 싫다 해서 제멋대로 이곳에 머물고자 하면 도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때, 하늘 위에서 참새의 ‘쩍쩍’ 울음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그에 주목한다.

“나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나 남과 북을 제멋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을 날다가 듣게 된 한 학생의 말이었죠. ‘통일은 해서 뭐해? 통일하면 우리만 더 가난해지잖아?’ 라더군요. 물론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다른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가상시뮬레이션 결과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드는 비용이 막대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남한이 손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학생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지금 남·북이 군사유지비로 쓰고 있는 돈 역시 막대하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손해’ 운운하면, 우리의 재결합 역시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말이죠!”

모든 금수들이 일제히 동의를 표한다. 토끼가 다시 일어나 휴식을 알리며 한 마디를 한다.

“참새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손해를 따지고, 이익을 따진다면 우리의 재결합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길었군요. 모두들 잠깐 쉬고, 다과를 먹읍시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 합시다.”



# 어느 비둘기의 이야기

수색초 6  
유 희 준

저는 작디작은 비둘기입니다. 날아다니며 이곳저곳 여행하기 좋아하는 작은 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를 꼭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전 일본의 한 무역선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뜻한 알껍데기 속에서 형제들과 소곤소곤 어디로 여행할지 이야기도 했지요. 저는 무역선이 길고 긴 항해로 어떤 나라에 도착하자 그제야 깨었습니다. 알껍데기 바깥세상은 참으로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무역선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제가 무역선으로 인해 오게 된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정든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두루 여행하다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구요? 이유는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 한국이 두 동강나 금수강산도 울부짖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이란 곳을 보았습니다. 제가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벽저벽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푸드득 하고 난간 위로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나를 괴롭히는 개구쟁이 꼬마가 아니라 늙으신 할아버지와 이제 웅알이를 하는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나는 경계를 풀고 할아버지 곁으로 살며시 다가갔지요.

“하나야…, 여기가 바로 내가 말해준 오두산 통일전망대란다. 히히히, 그것 참, 사람들이 ‘코앞, 코앞’ 하더라니, 정말 북한 코앞이로구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고 불린 아기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서 눈을 빛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평양이란다. 우리 손녀딸도 알겠지? 으응, 그래, 그래…, 맞다, 맞아…, 하나도 같 거다. 우리 하나도 꼭 같 거다. 음…, 그래, 하나야! 우리 통일되면…, 정말 우리나라 통일되면, 그때 평양냉면 먹으러가자. 으응…, 그럼 맛있지 맛있구말구…, 국물은 시원하고 면은 쫄깃쫄깃한 것이 아주 최고다.

아아…, 통일 되어서 평양냉면 먹는 거랑 하나 시집가는 모습 보는 것 하구 소원이 또 하나 있단다.

바로 저기 저 땅에 계시는 할아버지 누나…, 누나가 꼭 보고 싶구나. 그때 나는 꽤 어렸었는데 큰누나는 나 챙긴다고 이리저리 손이 부르뜨도록 일했지. 그때 난…, 난…, 나는 말이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이내 뜨거운 볼에서 볼로 자꾸만 흘렀습니다.

하나는 조용합니다.

“할아버지 우는 모습이 이상하지? 그때 헤어진 우리 누나 보고 싶다. 꼭 안아드리고 싶다. 통일되는 거 있지, 이 할아버지 큰 욕심일 수도 있지만 같은 민족이…,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통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지. 암…, 그렇구말구.

지금은 내가 북녘 땅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 강에 넘쳐흐르게 흘리지만, 언젠간 꼭 통일 된다.

그렇게 되어야지….”

나는 비둘기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할 수 없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네 이름 ‘하나’ 말이다. 이하나, 예쁜 이름이지? 그래, 그래…, 우리나라

도 네 이름처럼 ‘하나’를 이루어 내라고 지어준 이름이란다…, 꼭 이루기 바란다.”

저는 통일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슬픈 이야기를, 이산가족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 드리기 위해 여기 북녘 땅에 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세요. 민족이 나누어진 이 가슴 아픈 이야기….

끝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여의도중 2  
함영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 금강산에서 언니를 만난 적이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이 편지가 언니에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월کم투 동막골”이란 영화를 아세요? 그 영화는 단 2시간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북측의 인민군과 남측의 국군이 싸우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월کم투 동막골”은 함께 동막골에서 사는 인민군 3명과 국군 2명, 그리고 동막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서로 적이지만 동막골에서는 형, 아우하며 함께 살아가요.

그들의 웃음과 울음은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해요.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50년 전, 우린 서로를 아주 미워해서 갈라졌지만 그 미움은 진짜 미움이 아니라는 것어요. 우린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워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데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실제로는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우리 맘은 벌써 오래전에 통일되었는데 말이에요.

언니도 우리나라를 그럴 때에는 한반도로 그리시지요? 제 친구들도 모두 한반도로 그려요. 아무도 북측 땅을 왜 그리냐고 묻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알아요. 우리는 한민족이고 다만 이념이 다를 뿐이라는 것어요.

제 친구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성당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종교얘기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아이가 나랑 다른 종교라고 미워한 적도 없구요. 이산가족들은 다만 이념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한 핏줄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념이 다르다고 미워할까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미워하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날에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언니는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요.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저는 부모님이랑 오래 떨어져있으면 못살 것 같은데, 그들은 50년 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가족을 기다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슬픈 현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견뎠던 그들에게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산가족만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언니는 남산의 서울타워를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타워인데요.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직접 함흥에 가서 냉면도 먹고 싶고요. 백두산 경치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고 싶어요. 북측 어린이와 학교도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를 수 없는 소망에 불과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요. 제 소원은 통일이 되면 모두 이를 수 있거든요. 우린 끊임없는 대화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해요. 서로를 또 미워하지 않게, 서로를 아주 그리워할 때요.

요새 청소년들은 통일에 부정적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가끔 통일의 필요성이 뭐냐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그들도 북측 사람들을 그리워할 거예요. 또 자원이나 기술면에서 북측과 남측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잖아요.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문호도 개방하면 북측 경제도 ‘팔짝팔짝’ 오를 거예요. 이런 책은 현재를 우선시 하되 미래를 꼭 설계하라고 해요. 우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에는 슬픈 현실이 사라지도록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통일교육도 강화해야 해요.

언니!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린 50년 동안 많이 느꼈어요. 이젠 몸으로 느낄 차례예요. 우리의 애국가가 백두산 꼭대기에서도 한라산 꼭대기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게 우린 통일의 필요성을 알려야 해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날엔 이산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는, 외국보다 철저한 CIQ를 지나지 않는 그런 통일 된 하늘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죄와 벌

풍문여고2  
모아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죄를 지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된 것이고, 큰 벌을 받았다면 바로 남과 북의 분단이 아닐까 싶다. 한날 큰 전쟁으로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워야 했고, 그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으며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처럼 가족과 이별해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버텨온 지 어언 50여년….

아직 기다림만이,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만이 50여 년의 그 빈자리를 채울 뿐이다.

2001년, 더운 여름이었다. 여름방학을 틈타 시골로 내려간 나는 오랜만의 자유에 흠뻑 취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물장난을 치고 올챙이를 잡으며 그렇게 더운 여름을 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부터 분주한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은 시간, 다른 날 같으면 농사를 지으러 채비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대신 오색빛 한복으로 곱게 차려 입으신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나는 그저 의아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서랍 속 낡은 사진과 종이 한장을 꺼내시더니 이내 꽃봉우리가 터질 듯 말 듯한 울음을 터뜨리셨다. 너무나 한순간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단지 내가 꺾까봐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아침이 밝고,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구들과 함께 밥상에 앉았을 땐, 할머니의 주름살 속에 빨갭게 충혈 된 눈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급히 아침을 드시고 거울 속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새벽녘부터 그 궁금증을 저버리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의 대답은 낯설고 어색한 말이었다. 바로 오늘이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그제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안절부절못하며 기다린 오늘이 바로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란다. 연지분을 살짝살짝 바르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그리 실감나지는 않았다. 항상 나를 혼내던, 지난날 커보였던 할머니의 강한 모습과 달리 울고 있었던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보여서... 그래서 어색하고 그 모습들이 너무나 낯설 뿐이었다.

드디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떠나시고 우리 가족들은 텔레비전 앞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열세 살 꼬마아이가 지켜본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슬펐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이처럼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텔레비전 속 그들 또한 오열을 하며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지난날의 모습대신 늙어버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자꾸만 내 가슴속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감히 기쁘다 표현할 수도, 슬프다 표현할 수도 없는 눈물이 떨어질 뿐이다.

50여 년 동안 그리움이 아픔으로 번져버린 지금 그들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을, 사랑을, 말을 토해내고 있었다. 보고 싶지만..., 잘 지냈냐고..., 사랑한다는 말들 대신 그들은 뜨거운 포옹으로 대신한다. 수백 번 수천 번 외쳐 봐도 지금 함께하는 그 순간을 채우진 못한다. 그저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이 소중할 뿐이다. 텔레비전 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비친다. 화장은 눈물로 지워져버렸고 눈물은 발끝까지 타고 흘러 모 든 걸 적셔버렸다.

과연 무슨 말이 필요할까..., 지금 할머니는 어떤 말이 하고 싶으실까..., 50여 년 동안 사진 한장과 편지로 버텨온 지금..., 할머니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 두 손을 꼭 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이 내 물음을 대신한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법,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돼버렸다. 한시도 놓지 않은 지금 이 손을 영원히 놓기 싫다. 그 모습은 또 한번 나를 울렸고 모두를 울렸다. 나는 이별을 모른다. 이별을 해보지 못해서, 이별을 한 적이 없어서, 하지만, 그 아픔은 느낄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름,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늦은 저녁 함박웃음을 머금고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한장과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신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시면 이번엔 눈물대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아파한다. 그 사람이 젊든 늙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지난달 내가 보았던 그 장면들은 사랑으로 울고 웃었던 사람들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고, 큰 벌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할머니의 서랍 속엔 이제 낡은 사진과 편지, 또 다른 사진과 편지와 함께 한다. 할머니는 또 다시 그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틸 것이다.

그것이 십 년이 걸리든, 이십 년이 걸리든, 사랑했던 추억이 다시 만날 날까지 할머니와 함께일 테니...





## 부산광역시

- 우리는 한민족 ...43
- 조금 더 가까이 ...45
- 웃음꽃 ...48
- 민족 통일을 위해 ...50
- 너와 나의 손이 만나면 통일 ...53
- 분단에 조종을 울리기 위하여 ...55
- 통일 한마당 ...58
-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1
- 하나 된 한반도, 우리는 한민족 ...64







# 우리는 한민족

교리초 6  
진혜빈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국토가 하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도와서 잘 살게 하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서로 달라진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서로 노력해서 통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남한이 할 일은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역량을 배양하는 마음가짐과 통일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일과 북한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면 그저 대답뿐이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남한이 한마음이 되어 통일하려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통일을 하자!' 라는 생각이 새겨져 있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한만 통일을 이루려는 자세를 하고 있다면, 통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명 다시 전쟁이 일어나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 오는 이질감을 줄여야 합니다.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잦은 왕래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대화를 열고,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소질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 차츰 가까워져야 합니다.

가까워짐으로 해서 통일이 되고, 가족도 되고, 친한 친구도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그럴수록 북한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 조금 더 가까이

망미중 2  
최윤정

‘수없이 계절은 바뀌어도 변치 않는 단 하나. 그대를 향한 내 그리움. 그리워 너무 그리워. 우리의 이별은 너무 길다. 이제 만나야만 한다. 서운한 마음은 모두 잊자. 우리는 하나니까...’

국어선생님께서 당선소식을 전해 듣고서 나는 다시 통일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였다. 내가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긴 한가? 하고 의문점도 들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으로 갑자기 이 노래가사가 들어왔다. 동포들과 통일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이곡은 가수들의 연합으로 불리어진 ‘그날이 오면’이다. 조용히 듣고 있으면 이산가족들의 기도소리 같기도 하고 칠천만 국민의 소망 같기도 하다. 특히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가사 때문이다. 사랑사랑 거리는 나무들의 합창 같은 이 노래의 주인공인 통일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우린 요즘 아주 많이 발전된 남북한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시로 신문의 1, 2면을 남북한의 협상 및 북한의 정세로 채우기도 하고 매일같이 뉴스의 헤드라인에도 북한은 등장한다. 그만큼 우리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 남한 측에서는 자주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접촉할 기회도 많아졌고 통일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의선 철도, 서울역에서

행신역까지 시공 중이며 용산에서 문산까지의 총 노선은 2008년도쯤이면 개통될 것이라고 한다. 우린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철도까지 만들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우린 길의 반듯함을 보았을 뿐 쉽사리 깨어질 수 없는 벽은 보지 못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경의선 철도, 이번 6월 15일 김대중 前대통령이 방북하면서 그 영향으로 지난 5월 25일 경의선 철도는 남북한 각각 100여 명의 손님을 싣고 시범운행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안타깝게도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북측의 변론은 바로 남북의 군사적 보장이 없다면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웬 말인가? 평화와 소망의 꿈을 실은 경의선 철도에 군사적 보장 없이는 안 된다니 솔직히 나로선 어이없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그 숨겨진 의미는 바로 신뢰였다. 평화적 통일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인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특성상 협상문화가 잘 발달 되지 못하였기에 서로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우린 경의선, 물자수송,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외향적인 모습만 보았지,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벽을 발견치 못했던 것이다.

언젠가 '공동경비구역 JSA'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북한군 2명과 남한군 2명은 서로 친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 친구 사이였다. 절대 금가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가? 바로 서로의 총에 맞고 죽게 된다. 그들 사이에도 소리 없고 보이지 않는 '우린 분단국가이고 별개의 사람이다.' 라는 벽이 존재했던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좋은 모습보다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통일로 향하는 방법인 보이지 않는 벽부수기의 첫 번째 과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다. 서로의 안정적인 협상아래 경의선 철도 문제로 해결하고 더욱더 많은 정상회담을 가져 속전속결 신뢰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젠 실현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책이나 홍보물로서 통일이 된 후의 세상을 그리지 말고 학생 체험단을 자주 파견하여 실감나는 현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해 절반으로 나뉘어져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살아왔다. 이젠 서로가 감싸주고 아픔을 치유해줄 때이다. 하루빨리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수고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 콧 틀어 막힌 ‘그날이 오면’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야겠다.

‘우리의 소원은 단하나, 다시 만나야만 한다. 너와 나 두 손 꼭 잡고서 기쁜 노래를 부르자.’

우리가 진정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통일노래를 부르자.’





## 웃음 꽃

동아고 3  
김기현

46억여 년 전 우주에 지구가 태동한 이래 어떠한 생물체로부터 현재에 이르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 중심의 사회로 지구촌이 변화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태초에 인간은 자연과 친화되어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그 생명을 유지해 오던 것을 소규모 각 군락들의 집합체로써 바로 국가를 이룬 것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잠자리와 굶주림의 해결이 우선 과제였을 것이므로 개인보다는 단체로써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쉬웠으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이 해결되면서부터 차츰 집단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간에 있어서도 국가라는 하나의 개인이 지구촌에서의 각자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형태로 발전되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1950년 남북전쟁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각자의 이익에 맞는 대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구촌내 강국들의 영육들의 산물이라 하겠다. 그로 인해 한민족인 우리는 현재 남과 북이 반쪽씩 나누어 수많은 이산가족을 양산한 채 50여 년을 혈육의 정에 그리워하며 평생을 한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한민족의 고통을 어느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어느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언젠가 아버지께서는 TV에서 방영중인 '아침마당' 이란 프로그램에서 오래전 헤어졌던 가족을 찾기 위한 프로에서 상봉하던 가족들이 흘리는 회한

의 눈물을 보시고는 끈끈한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어릴 적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쟁으로 인한 조부모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6·25 전쟁 당시 조부님께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셨는데 피난도중에 3살 박이 여아를 공산당의 총에 잃었다고 하시면서 당시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라서 피붙이가 바로 앞에서 죽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땅에 묻어주지도 못하고 온 것이 칠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멍이 되어 해마다 그날이 오면 복환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녀을 잃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야가 분열되어 국가의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니만 5·31 지방선거 후 그 후유증으로 이제는 여당 내에서조차 분열양상을 띠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 호흡을 함께 해야 할 여당이 자중지란에 휩싸여 있으며 야당은 야당대로 이합집산이 되어 국민의 결집과 국가의 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제2의 친일세력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결과가 또 다시 아니 온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참으로 국가의 앞날이 풍전등화요, 국민의 고통이 점점 가까워져 옴을 느끼게 되어 절로 몸이 떨리고 또 떨리기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당 및 각 사회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악의 무리를 과감히 배척하고 국력을 결집시켜 지구촌 어느 국가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깊이 반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조부모님과 같은 뼈아픈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민족이 통일되어 하나 될 때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나 웃음꽃 피우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민족 통일을 위해

대상초 5  
박대순

1950년 6월 25일, 반만년이라는 우리 민족의 길고 긴 역사 동안 처음으로 겪는 민족 간의 이념 대립 전쟁의 시작일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끼리 싸우던 때도 있었지만 외세의 침략 때는 항상 단결하여 수많은 싸움 아래서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고려가, 왜의 침략을 조선이 막아냈듯이 말입니다.

전쟁의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들. 모두가 '이념 대립'이라는 말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의 주장이 아닌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작은 이기주의로부터 시작되었을 이념 대립이 이렇게 큰 지우고픈 우리 민족의 오점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6·25 라는 사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 받아 부르짖는 사람들,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정, 그것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와 평화, 그리움에 목말라 그 사슬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아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우리가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토고' 전이 끝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2002년의 4강 신화와 더 높은 곳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 우리



나라는 지금 월드컵의 열기에 빠져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소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태극전사들의 심금을 울려 그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거듭나기 위함이지요. 4800만 국민의 응원소리에 우리 태극전사들은 얼마 전의 토고 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9800만 국민의 응원이라면 두 배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10년의 남아공월드컵 땀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 함께 뛰고, 응원하고 열광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도해 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떠돌아다녔던 사진 한장은 그것을 본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조선 아이들 친구가 되고 싶다는, 떨면서 쓴 듯한 쪽지 한장, 그리고 한가운데의 종이가 찢어 약간 찢어진 듯한 모습. 북한의 통일 갈망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김정일에 의한, 김정일 만을 위한 정치... 살은 빠져 가는데 몸속의 내장만 남아, 배만 튀어나온 흉한 몰골. 그들의 꿈을, 자유를 찾아 탈북 하는 주민들..., 하지만 삼엄한 경계에 희망 대신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거짓은 필수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 탈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것이 목숨만큼 귀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곳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일, 그것을 이루려면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였던 우리 조상님들. 그러나 요즘은 공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가 빠진 이 수렁에서 하루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린 우리가 바라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그것은 모두의 애국심에서 비롯됩니다. IMF 극복, 새마을운동 등의 최근의 일은 비록 남한의 국민만이 단결한 것이었지만 그때 생겨나는 그 큰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문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군역 기피 문제가 그 예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말의, 그런 형식적인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과 언어, 정서 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룩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한지 어언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남한과 북한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지난 지 2세대나 지났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이 장벽은 한민족 모두가 함께 없애 나가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구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장벽을 깨트려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저는 하얀 도화지에 빨간 선이 없는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형상은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형상인데 제가 그린 호랑이는 어쩐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큰 호랑이가 다시 '어흥!!' 하고 포효하는 소리는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귀기울여 보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통일은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산도 하늘 아래의 산, 어서 그 정상을 밟길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 너와 나의 손이 만나면 통일

대전리중 1  
김소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오고 있다. 전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한국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어떠한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안타깝기만 한 그러한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으로 서로 등 돌리고 지낸 지 힘겨운 시간 동안 우리는 싸운 채로 한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형제 같았다. 서로의 마음조차 이해하고 감싸주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 버렸다. 그렇게 차갑게 서로의 손을 놓아 버리고는 다시 그 손을 잡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 손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로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최근 북한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의 무선 인터넷으로 북한의 미술품이 경매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읽었을 때에는 정말 놀라웠다. 아니, 놀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왜 이제야 시작되었는지 내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 메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경매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하지만 미술품이 아닌 남한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조각품과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국보급인 중요한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 자료가 부족해 연구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로 반가웠다. 북한이 열지 않고 있던 마음

을 이제는 조금씩 열어주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교류를 통해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고 싶다.

그런데 그 손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월드컵 경기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측에 부탁했던 북한의 소원을 받아들여 북한에서도 월드컵을 보고 있다. 그리고 토고와의 첫 대결에선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기쁘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싸워서 등 돌리고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이기길 바라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억울하다.

하지만 몇 번의 교류로 바로 통일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몇 년간은 더 고생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오고 아픔을 견뎌온 만큼 앞으로의 역경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통일이라는 골문에 통과할 것이다. 우리는 한 핏줄로 연결된 한 민족이니까 언젠가는 화해하는 형제처럼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화해의 손을 뻗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만 있었지만 이제 교류도 많이 하고 조금씩 가까워졌으니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 거다. 이제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유일한 분단국가였기에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픈 기억을 밑받침으로 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 그 기억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는 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가짐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우리의 소원대로 통일이 눈앞에 펼쳐질지 모른다. 우리 모두 통일을 향해 달려가자!



## 분단에 조종(弔鐘)을 울리기 위하여

사직여고 3  
황은미

‘쇼비니즘’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광신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주의를 표현하는 말인데, 나는 요즘 우리의 통일을 부르짖는 모양새가 마치 그와 같아 보인다. 국민들을 채찍질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통일을 사용하고 그 결과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든다. 양국의 정책합의는 계속 어긋나기만 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를 열정적으로 몰아붙였던 통일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단순히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아니면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실미도」에서 선보였던 그런 분단의 아픔들의 해소였을까? 무엇을 위해서였건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통일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나라들이 존재한다. 여러 민족이 한 데 섞여서 이루어진 국가도 있고, 여러 언어들에 공존하는 국가도 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우리에게 통일의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민족으로도, 언어로도 남한과 북한을 묶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에게 분명 통일의 정당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고, 그들도 원한다.’ 라는 것이다. 비록 사상과 국가라는 분수계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멀리 떠나보낸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항상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산가족들만이 느끼는 감정이라 하기

도 한다. 그러나 같은 민족과 역사로 묶여 있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은 자식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아서 끝내 영향을 미치고 잡아당기는 힘이다. 우리의 통일의 목적은 바로 이 잡아당기고 놓아주지 않는 힘을 하나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부모와 자식을 이어줄 연결고리를 만들 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통일의 방향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멘과 같은 내전도, 필리핀과 같은 전쟁도, 독일과 같은 내적 분열도 없는 완전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나는 문화외교가 그 방안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오직 지도부들의 결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시민들의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현 정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우선 남북한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깃들어야 한다. 이것을 문화외교가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화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본과 한국은 36년 동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겪고 난 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한류’ 열풍이 불면서 그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로 많이 곱끄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발전된 관계를 이루었다. 북한과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북한과 우리의 문화를 한류처럼 강하고 오래도록 나누고 느낀다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느껴가며 통일의 그날을 꿈꾸게 될 것이다.

2005년을 대표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 영화는 바로 「웰컴 투 동막골」이다. 그 영화에서 남한 병사들과 북한 병사들은 순수한 마을 ‘동막골’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화에서처럼 남북한의 '순수한 합일'을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그 이유로 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넘어서 순수하게 통일을 논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왜냐하면 통일의 목표도, 통일의 방법도 남북한이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논의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의 종을 올리는 길. 그것은 바로 사상과 경제라는 질곡에서 벗어나 순수로 회귀하는 일일 것이다.





# 통일 한마당

양정초 6  
양진화

「통일소녀님이 접속하셨습니다.」 꽃잎들이 나풀나풀 춤추며 손등에 앉았다. 박새가 반갑다는 듯 노래했다.

「통일소녀 :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풀꽃 : 난 북한말이 남한과 비슷해도 어려운 것 같아. 좀 가르쳐줘.

그렇게 나는 꽃님을 통해 북한말을 조금씩 배워갔다. ‘방조하다’란 서로 돕다 라는 뜻이다. 그밖에 ‘날래날래’, ‘얼음 보숭이’, ‘궁겁다’ 등의 단어를 알게 되었다.

꽃님은 저 삼팔선 넘어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북한 친구이다.

컴퓨터를 즐겨하던 나는 어느 때처럼 채팅 방들을 기웃거리며 말상대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New! 통일 한마당’이라는 새로운 채팅 간판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더니, ‘소년단’, ‘금수강산’ 등 약간 이상한 가명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통일의 문턱 앞에...’라는 제목을 클릭했다. 나와 이야기할 친구의 가명은 ‘통일소녀’였다.

「통일소녀 : 반갑습니다. 저는 평양에 사는 꽃님입니다. 학년이 어찌 되십니까?

풀꽃 : 아..., 저는 6학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북한에 사나요?

통일소녀 : 네. 평양 진읍에 삽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됩니까?

나는 당황하고 말았다. 6학년을 모른다니?



「풀 꽃 : 5학년의 위 학년인데…」

통일소녀 : 잠시 어무니께 여쭙 보겠습니다.」

나도 일요일이라 집에 계신 아빠께 여쭙어 보았다.

“아빠, 북한엔 6학년이 없어요?”

“으, 응? 아! 북한말이니? 그래. 북한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중학교가 2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학년이란다. 오! 아~ 아깝다.”

아빠는 한국 : 토고 축구경기 재방송을 보시느라 정신없으셨다.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자, 아빠께서 또 말씀하셨다.

“참! 이번 월드컵 때는 정부의 허락으로 북한에서도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구나!”

“정말요? 야, 잘됐다!”

「통일소녀 : 풀꽃님? 나가셨습니까?

풀 꽃 : 아!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죠? 아빠께 북한에 대해 좀 여쭙보느라.

통일소녀 : 괜찮습니다.

풀 꽃 : 그 보다, 정말 북한 사람 맞아요? 혹시 돈벌려고 일부러….

통일소녀 : 아, 아닙니다! 여기는 요즘에 새로 생긴 곳이라요. 남한, 북한 정부가 통일을 대비해 우리들을 좀더 친하게 하려고 특별히 만든 곳이라요.

풀 꽃 : 그렇구나. 참! 넌 몇 학년이니?

통일소녀 : 저는 5학년 입네다.

풀 꽃 : 너도 초등학교 최고 학년이구나. 우리 친구할래? 난 양진화야.

통일소녀 : 아! 좋습니다. 남한 동무가 생겨서 기분 좋습니다!

풀 꽃 : 응! 나두.」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편지를 주고받기로 하고 퇴장했다.

가슴이 방망이질 했다. 아무도 모르는 북한친구와 이야기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잠시 덮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창문 사이로 비치는 밝은 달을 보며 ‘통일소녀’ 라는 북한친구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꽃님의 편지가 왔다. 자

기도 나를 만난 게 꿈만 같다며 앞으로도 채팅 방에서 자주 만나자고 했다.

알고 보니 우리 반 친구들 몇몇도 '통일 한마당' 채팅 방을 알고 있었다. 난 이 통일 한마당 채팅 방이 남·북한 어린이들이 조금이나마 친해질 수 있는 통일로 가는 또 하나의 좁은 길로 느껴졌다. 그래서 반장으로서 친구들에게 통일 한마당 채팅 방을 자주 이용하자고 말했다. 친구들 모두 재미 있겠다며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우리들이 나누는 한두 마디 대화가 밑거름이 되어 '통일'이라는 나무가 커다랗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또 미래의 일꾼인 우리가 통일 1세대가 되어 허리를 다친 한반도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우지만 말고 남·북한 모두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며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독일처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좋은 점을 통합시킨 '공민주의'도 괜찮을 것 같다.

무엇보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꽃님을 남한으로 초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구경을 가고 싶다. 벌써 꽃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 그것은 바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 주고, 또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등주여중 3  
박현진

6·25가 있는 지 근 50여 년.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 세월은 남과 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하게 만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급기야 한민족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것이 바로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은 최소 855조원에서 최대 3940조원에 달한다.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분단비용은 한 해를 기준으로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이 든다. 단기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분단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을 훌쩍 넘어선다. 분단비용의 가중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재의 남북 경제력으로 당장 통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대로 통일문제를 방치해 둔다면 어느새 분단비용은 건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분단비용을 부담하던 국민들은 통일비용의 막대함을 인식하여 더욱 통일을 뒤로 미룰 것이고 결국엔 영구적으로 분단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3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제일의 GNP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러시아도 전환기적 혼란을 수습하면 다시 세계강국으로 급성장할 것이고, 일본 또한 현재의 경제 강국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분단된 우리의 한반도 역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 세계

강국 사이에서 생존의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분단비용을 감수하며 이들 강국사이에서 경쟁은 물론 그들 틈에서 있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한반도의 경제성장과 선진국을 향한 발돋움 위해서 우리는 하루 빨리 남북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분단비용이 교육, 복지사업, 과학기술연구 등 다른 측면으로 쓰인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분단된 국토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젊은 인재들도 다른 분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제기하며 통일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산가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미 이전에 수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 사례였다. 즉,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현황인 것이다. 통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이산가족 때문에 전 국민이 통일비용의 부담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한다. 만약 그들이 부모, 형제들과 50여 년을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해도 과연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통일된 한반도를 누릴 권리가 있는 엄연한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다. 민족의 분단의 역사와 맞바꿀 만큼 통일비용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문제만을 거론하여 통일을 짓밟는 반대자들의 단절된 생각을 뿌리 뽑고, 서로 단결하고 통합하여 분단의 역사를 묻고 새롭게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통일문제의 현황은 예전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않다. 남한에서 북한을 위한 물자공급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통일을 이룩하기에는 부족하다. 6년 전의 남북정상회담에서와 같이 남측, 북측 각각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의 여러 문제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여 타협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논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한 몸 편하기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겠다. 나는 내 살아생전 38도선 이북에 가고 싶다.” 위 글은 통일을 위해 힘쓰셨던 김구 선생님의

이 쓰신 글이다. 살아생전 38도선의 이북에 가고 싶으시다던 김구 선생님의 바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 통일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선조들, 지금도 가족을 애타게 그리고 있을 이산가족들, 그리고 한반도의 무궁한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하나 된 한반도, 우리는 한민족

문현여고 1  
전 지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외국인의 질문에 한국인이라 답하면, 바로 그 다음 질문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 “북한사람인가요? 아니면, 남한사람인가요?” 라는 물음이다. 그나마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뒤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만,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북한사람과 남한사람 사이에 굽고 깊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분단에는 여러 나라들의 치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결코 모든 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1950년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게 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소련군이 아무런 후심 없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다고는 할 수 없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 사상의 대립으로 인한 충돌의 장소를 우리나라로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부터의 분단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전상태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이해관계도 여전히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 분단의 주체인 남·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이 우리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뜻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지금 서로 힘을 합쳐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은 꼭 되어야 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겪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시기를 통일준비의 시기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자국민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같은 많은 단점이 있는데 왜 굳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제시할 답변은 많다.

우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문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아직 한국의 문화는 완성되지 않았고, 남·북한에 남아있는 고유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통일이다.

그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멀리 보면,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격차가 커서 한동안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합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각각의 국방비가 줄어들고, 군역의 부담도 줄 것이다. 한번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그 기간을 더 앞당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대외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선진국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얘기할 때 잠시 국방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남한에는 곳곳에 미군기지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한반도에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힘으로 제압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자유무역, 평화무역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허용하는 것도 적지 않다. 계속해서 소위 선진국,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남아 있을 순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의 아픔이다. 이 이유만으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남·북한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은 실시간 방송도 했지만,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줬다.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마음이 쩡하고 안타까웠는데, 직접 겪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헤어져 있던 50여 년에 비해 이산가족 상봉기간은 너무나 짧았다. 그들이 계속 함께 살게 해주고 싶었다.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이별의 시간에 그들은 오열했고, 많은 이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제2의 한국전쟁을 막고, 경제·문화·사회적으로 부국한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슬픔을 씻어주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분단국가 코리아가 아닌, 진정한 한민족 코리아로 기억하기를, 한반도 국기를 걸고 당당히 세계대회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언젠가는 그런 통일의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이 글을 마친다.





## 대구광역시

03

- 또 하나의 친구...69
- 다함께 부르는 <반갑습니다> ...71
- 자석의 같은 극인 두 친구 ...74
- 달려라 우리꿈 2호 ...76
- 철길 위의 동백꽃 ...78
- 내 친구 리은혜 ...81
- 통일을 이어주는 다리 ...84
- 함성 ...87
- 하나의 철길로 이어진 동쪽 끝나라 ...90





## 또 하나의 친구

동춘초 6  
원정현

**이사** 오기 전, 우리 반에는 조금 이상한 친구가 한명 있었다. 이름은 창남이었다. “김창남” 말씨도 조금 달랐고, 체구도 작고, 목소리도 모기소리만 한 부끄럼이 많은 아이였다. 발표시간이 되면 쭈뼛쭈뼛 말도 하지 않고 항상 고개 숙이고 있던 아이, 난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하고 바보처럼 취급해 버리거나 “야! 조선족 바보, 너희 집 어디냐?” 하고 놀릴 때면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질하며 비웃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TV에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가족을 보게 되었다. 탈출하게 된 동기는 너무 가난해서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뺨뺨 마른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걸어 나오는 부분이었다. 너무 배고파서 오직 배불리 먹을 작정으로 친척도, 가족도, 친구도 뒤로 한 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찾아온 사람들….

북한은 쌀 수확량이 적어 거의 쌀밥은 못 먹고 옥수수밥을 먹는다고 한다. 교육은 무료로 시켜주지만 너무 배가 고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도 있다 한다. 아이들은 일하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는데 쌀밥은 먹어 본 적이 없고 밥을 먹을 때면 딴 생각 없이 게걸스럽게 먹는다고 한다. 아, 얼마나 배가 고프았으면…, 난 엄마가 늦게 오셔서 밥 먹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배가 고파 헉헉거리는데….

창남이가 바로 탈북자 가족이었다. 우연히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충격적 얘기, 창남인 부모님을 따라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 왔

다고 한다. 배불리 먹으려고 목숨을 걸고 한 여행..., 탈북. 잡히면 죽도록 두들겨 때 맞고 감옥으로 보내진다는데 용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탈출한 부모님과 창남이, 그런 창남이를 우린 벌레 보듯이 했다. 우리와 똑같은 창남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선족이라 놀리고, 말 못하는 바보라고 놀리고...

갑자기 창남이가 보고 싶어진다.

생활, 환경, 문화가 달라 남한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불쌍하다하는 생각으로 동정만 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며 업신여기는 눈길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밥은 먹지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남한의 사회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

창남인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의 놀림을 묵묵히 받아주었던 친구...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건만 왜 우린 항상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고 있는 것일까?

창남이가 얘기하던 수영생각이 난다. 수영장에 같이 갔더니 자기는 가슴헤엄은 잘 하지만 나비헤엄, 빨헤엄을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게 뭐냐고 어리둥절하면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가슴헤엄은 평영이고 빨헤엄은 자유형, 나비헤엄은 접영이라 가르쳐 주었다.

그때는 웃느라 생각 못했지만, 곧 통일이 될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서야...

비록 통일은 늦더라도 외국인에게 친절하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친절해야겠다. 말씨와 문화가 다른 것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속상해 하며 말이라도 생활습관이라도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창남이도 내 친구다.

목숨을 걸고 남한을 그리며 온 소중한 내 친구다. 그런 창남이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일 때 통일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이 무성한 통일의 나무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창남이 같은 북에서 온 탈북자 가족을 더 따뜻한 눈길로, 더 따뜻한 손길로, 또 하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것이다.



# 다함께 부르는 ..반갑습니다

신기중 3  
곽이슬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이상한, 아니 조금은 특별한 한 친구를 만났다. 새 학기의 들뜬 마음에 젖어있던 우리에게 그 아이는 충분한 충격이었다.

“자, 오늘은 전학생이 있다. 아마 이 친구는 너희들이 특별히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돌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도록.”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우리 반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 아이에게로 향했다. 검정색의 어깨까지 오는 머리에 우리와 똑같은 대구○○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그 아이는 우리와 달라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어디가 아파 보이지도 않았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 이제 네가 너 자신을 소개해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아이는 교탁 앞으로 가더니 우리를 쓱 둘러보고는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입니다. 작년 북한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중학교에서 모두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 아이는 꾸벅 인사했고 우리는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뭘해, 전학생 무안하게. 빨리 박수 안쳐?”

그 말을 들은 후에야 우리는 박수를 치며 그 아이를 맞았다.

“야, 재 정말 북한사람일까?”

“뭐 그렇겠지, 좀 무섭다.”

쉬는 시간, 보통 전학생이 오면 우르르 몰려가 옛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 정상인데 이 아이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 이 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개중에는 반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이 아이와 짝이 된 나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우리 반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아이가 전학을 온 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애초의 선생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 아이는 완벽한 우리 반원이 되었다. 처음에 힐끔힐끔 거리던 아이들은 음악시간 그 아이가 부르는 북한의 노래에 관심을 표현했고, 이 아이가 무섭다던 아이들도 체육시간 그 아이가 표현하는 날갯짓에 빠져들었다. 처음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아이는 이제 우리와 함께 웃으며 중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북한인’ 이라는 틀에 그 아이를 끼워 맞춰 생각했던 우리들은 그 틀을 지워버리고 우리와 다름없는 한 소녀인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 이제는 그 누가 보아도 그 아이는 우리의 친구였다.

어느새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우리는 마지막 중학시절을 확실히 보내기 위해 모두들 교과서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날의 한 자습시간에 내 옆에 앉은 그 친구가 나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나, 또 전학 가.’

이 쪽지를 받아본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이를 쳐다보았고, 그 친구는 씩 웃어 보였다.

‘아빠가 터 좋은 일자리를 구하셔서 가게 됐어.’

좋은 이유였지만 마음이 아팠다.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반장한테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일 수업 듣고 가게 됐어. 여태까지 너무 고마웠어.’

고맙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그

날 내내 고민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보내주어야 할까 하고….

다음날 아침 독서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들 모두 갑작스러워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는 정성들여 편지를 썼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모두 음악실에 모였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많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래를 잘 모르는 그 아이에게 우리는 우리도 잘 아는 <반갑습니다>를 불러주기로 했다. 나의 반주에 맞춰 우리 반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 친구 역시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가버렸다.

우리는 그 친구가 간 뒤 시험을 치렀고 모두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갔다. 오늘은 모처럼의 휴일이다. 그리고 그날 함께 노래 부른 아이들 만나는 날이다. 그날 반장이었던 나는 오늘 그 친구의 친구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 <반갑습니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 자석의 같은 극인 두 친구

제일고 1  
신혜인

2004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결승전에서 북한 응원단과 함께 응원했던 기억이 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우리는 친구”라고 외쳤을 때 벌써 통일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나는 남한과 북한을 보며 마치 ‘자석의 같은 극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같은 성분, 같은 성질을 지닌 두 자석은 서로를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핏줄, 한 민족인 남한과 북한 또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단원인 남한과 북한은 ‘자석의 모순’이 진리인 양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취미, 같은 흥미를 가진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주며 잘 지내고 있다.

함께 있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친구 두 명’이 자석을 따르며 분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순 된 양상을 떠던 또 다른 국가, 독일은 1990년 드디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두 친구의 만남은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 전 체결된 FTA협정으로 경쟁력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은 우리나라 경쟁력의 증대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경쟁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공업발달도 두 친구의 협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인구증가로 얻어지는 노동력의 확보는 남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업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이의 실례가 2004년 설립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에서 빛을 발한 두 친구의 협력'은 세계시장에서의 자리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 세계화로 인해 많은 전통문화가 손실된 남한에 비해, 북한은 이를 비교적 잘 수호하고 있다. 통일은 잃어버린 고유의 문화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익의 측면 외에도 이산가족의 상봉,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 정서적 측면에도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자식의 모순을 가진 '두 친구'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극의 자식 하나가 필요하다. 민족의식의 함양과 이해타산적인 태도의 배제는 다른 극이 되어 친구를 이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될 것이다. 이해관계를 떠난 우정을 통해, 두 친구는 '자식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든 찰흙으로 공예를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찰흙공예를 하며 겪는 가장 곤란한 점은 빨리 굳어버린다는 것이다. 일단 굳어버린 뒤에는 다시 뭉칠 수 없으며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한반도 또한 시간을 더 지체한다면 동질감은 더욱 상실될 것이고, 통일은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남·북한의 아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같은 팀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친구!”





우수상

## 달려라 우리꿈 2호

구암초 5  
설혜인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친구가 있어. 그건 바로 우리꿈 2호야. 우리꿈 2호는 나만 아는 비밀의 방에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꿈 2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게.

내가 우리꿈 2호를 발견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내가 통일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야.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혹시 ‘도둑일까?’ 하고 무서웠지만 나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가 난 곳으로 가 보았지. 그곳은 내 방이었어. 나는 두리번거리다 책상 밑의 작은 문을 발견했어.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문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그곳은 아주 커다란 창고였어. 그런데 어디선가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발밑을 보니 어느 조그만 장난감 기차를 밟고 있었던 거야.

“어머, 미안해. 그런데 장난감 기차가 말도 하네.”

“뭘, 나는 장난감 기차가 아니야! 나는 우리꿈 2호라고!”

“그래? 미안해 우리꿈 2호야. 그런데 넌 어디서 왔니?”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북한과 남한의 철길이 조금씩 완성될 때마다 내 몸이 점점 커져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달릴 수 있다고 하셨어.”

“우와~! 신기하다.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꿈 2호는 할아버지, 우리꿈 1호에 대한 사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우리꿈 1호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우리나라 철길을 달렸던 분이라고 했어.

나는 이 시간 이후에도 비밀의 방에 가서 우리꿈 2호의 이야기에 푹 빠지고는 했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셨던 우리 꿈1호는 대단한 분이셨지. 북한의 높고 우뚝 솟은 백두산, 여러 가지 꽃과 나무들이 잘 어우러진 금강산, 맑은 물이 흐르는 대동강 등 우리꿈 2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뭐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뉴스에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철길을 놓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 꿈2호에게 갔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게 조그맣던 우리꿈 2호가 조금 더 커진 거야. 이 이후에도 우리꿈 2호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 아마도 철길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모양이야.

나는 지금도 우리꿈 2호가 커져가는 것을 보고 통일 그 꿈을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우리꿈 2호가 우리나라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외쳐보아요.

“달려라 우리꿈 2호!”





## 철길 위의 동백꽃

노변중 2  
장수연

눈동자가 보였다. 밤하늘에 박힌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한 눈동자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힌 눈 꼬리가 반달처럼 예쁘게 휘었다. 그 따스한 눈동자가 한동안 나를 응시한다. 밤하늘을 닮아 칠흑같이 검은 눈동자 아래에 말그레 분홍빛으로 물든 뽕얀 뺨이 보였다. 살구 빛 얼굴 가장자리에 작게 오물거리는 붉은 입술이 보인다. 겨울날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처럼 빨간 입술이 작게 달짝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다. 잘 들리지 않았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한없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부드럽게 미소 짓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지고 크게 확대된 동공이 애처롭게 떨려왔다. 앙상하게 마른 팔뚝이 흔들거리며 손을 두 귀로 가져갔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면을 때리는 무시무시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까아악!”, “따르릉..., 따르릉” 익숙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저 너머에서 아련히 들려왔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호흡이 가빠왔다. 몸을 일으키자 희뿌연 어둠 속에서 유독 반짝이는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붉게 반짝거리는 전화기가 꿈속의 소녀의 붉은 입술과 겹쳐졌다. ‘아..., 꿈이었구나.’ 아직 몽롱한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자 손끝에 매끝매끝한 전화기의 감촉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아, 그래. 짐은 다 싸놓았다만..., 내일 비행기로 온다고? 그래, 그래 알았다. 기다리고 있오마.”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목소리가 아득히 울려 퍼졌다. 2년만의 재회..., 이제 이 집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이

다.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 걸까..., 주변의 사물들이 천천히 주위를 빙글 빙글 도는 것만 같았다. 창문 넘어 희뿌연게 동이 트는 게 보였다. 눈이 부셨다. 아침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꽃잎이 보였다. 흐려진 눈앞으로 유독 붉게 물든 동백꽃이 새벽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떨어졌다. 저 동백꽃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여전히 붉고 아름답게 흐드러지며 하얗게 언 땅으로 고고하게 내려앉았다. 얼마나 그리운 진한 향수에 묻혀 그대로 서 있었을까...,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사이로 소녀의 살구 빛 얼굴이 비춰졌다. 등골이 서늘했다. 소녀는 이제 늙어버려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 벽에 빌붙어 걸음을 옮기는 초라한 행색을 비웃듯 비틀린 입매가 나를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 왜, 왜 이제야..., 내일이면 영영이 땅을 떠날 지금에 와서 왜..., 열려진 창문으로 차가운 한기가 엄습해 오자 온몸에 오한이 일었다. 그리운 얼굴은 저기 저 동백꽃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40년은 더 된 그 바래고 바랜 추억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리움이 왜 이제 와서..., 뽀얀 햇살처럼 깨끗한 미소를 짓는 소녀의 얼굴이 눈물로 흐려졌다. 왜 이제 와서..., 부르튼 발이 아파왔다. 등 뒤로 옷가지며 냄비며 바리바리 싸서 아련하게, 하지만 확실히 울리고 있는 대포소리에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온통 새하얀 눈뿐인 산길을 달리며 보이는 것이라고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 몇 구가 전부였다. 구더기가 들끓는 그 역겨운 모습에 토악질을 할 사이도 없이 숨이 턱에 차게 달리고 또 달렸다.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기차가 보였다. 아! 저것만 타면. 이미 증기를 뿜어대는 기차를 둘러싸고 우리와 마찬가지로의 피뢰침한 물골을 한 피난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더...,” 저편에서 아련히 울리던 대포소리가 어느 틈에 바짝 다가와 쫓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귀신같은 물골의 핏발선 붉은 눈이 뒤따라오는 것이 얼핏 보였다. 다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달음질쳤다. 기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슨 정신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밀려 시체가 뚱뚱 떠내려가는

핏빛 강에 처박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닿을 듯 말 듯 손잡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겨우 손잡이를 잡고 기차에 올라타자 그제야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제 그녀만 올라타면...,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 몸을 트는 순간 기차가 무너질 듯 흔들렸다. 세상이 거꾸로 돌고 눈앞이 뒤집혔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핏덩이를 뱉어내고 비틀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조금만! 바로 눈앞에 그녀의 흔들거리는 눈동자가 보였다. 다급히 내미는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아..., 조금만, 조금만! 머리 바로 위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다. 산을 넘어 매뚜기 시체에 달려드는 개미떼처럼 붉게 물든 하늘을 까맣게 채운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끝과 손이 맞닿았다. 그때 그녀의 두 눈이 커지며 동공이 바르르 떨렸다. 끈이어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그녀의 비명이 귓가를 찌렁찌렁 울렸다.

텅 빈 집안을 차가운 겨울바람이 쓸고 지나갔다. 쓸쓸한 물골이다. 문 앞에 중요한 것만 쏙아 챙겨놓은 여행 가방만이 이곳에 한 때 사람의 채취를 품고 있었다고 외치는 듯했다. 짹짹 갈리진 얼굴을 타고 메마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왜 그때 그녀와 함께 뛰어내리지 못 했을까..., 그녀를 혼자 두고 지금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있을까..., 마지막 기차의 기적 소리가 바람소리를 타고 스쳐지나갔다. 이제 저곳을..., 다시는 가지 못할 그곳을 그녀가 숨쉬고 있을 그 땅에..., 아, 단 한번만이라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온몸을 할퀴고 지나갔다. 남은 거라고는 '늪어 쓸모없어져 버린 몸뚱이뿐...', 모든 것은 그때 그 철도에 멈춰져있었다. 저기 저 철조망을 넘어 그곳에 흐드러져 붉게 핀 동백꽃 속에서 동백꽃을 닮은 그녀가 환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이다. 아..., 그녀의 흔들리는 비명소리가, 그 손끝이 아련히 다가왔다. 다시는 가지 못할 저 너머로 그녀의 미소가 잘게 부서졌다. 오늘도 저기 저 북녘 땅을 향하는 기차의 기적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 내 친구 리은혜

정화여고 2  
김세연

내가 살고 있는 대구의 A지구는 소위 신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도시 인근의 숲과 저수지가 군데군데 있어 아름다운 시골을 연상시키는, 여느 산 속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산토끼와 이름모를 곤충, 새들이 살기 좋은 이 지역도 도시가 확장되면서 아파트가 점령하는 거대한 신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오후가 되면 큰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풀을 뜯거나 도토리 알맹이를 찾으러 숲 속을 헤매는 산토끼 대신 유명상표가 옆구리에 부착된形形色색의 셔틀 버스가 아이들을 삼켰다가 뱉는 교육특구 도시다운 풍경이 연출될 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어두운 점은 애써 못 본 척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글을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역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고층 고급아파트와 큰 백화점스포츠센터에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이곳에서 불과 1백 미터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H아파트라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A지구 사람들은 H아파트를 같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다.

H아파트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소문처럼 내가 그 아파트 주변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공터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저씨들과 베란다에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령 고장난 자전거나 붉은색 고무대야, 시래기타래 같이 시골 할머니 집에서나 그것

도 광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물건들이 불쌍스럽게 큰길을 향해 얼굴을 뺨죽이 내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언니와 나, 우리 자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 대신 “너희 공부 안하면 나중에 저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고 말하곤 하셨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집이 조금만 부유했더라면 명문대학으로 진학했을 거라는 아버지의 푸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나가 큰 부상을 입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시며 원망 투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동네에서 제법 큰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가게에는 전구나 빗자루 같은 소소한 물건에서 이젠 쓰이지 않을 것 같은 연탄집게까지 말 그대로 만물상처럼 많은 물건이 구비돼 있었다. 이 물건의 대부분은 그 H아파트 주민이 사용할 게 분명한데도 아버지는 은근히 그쪽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다. 아버지의 근면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던 우리 집에도 큰 시련이 닥쳐왔다. 섬유사업으로 성공했던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엄마 몰래 보증을 섰던 우리 집도 몰락하게 된 것이다. 이날 언니와 나는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엄마의 비명과 흐느낌을 새벽까지 엿들어야 했다.

이 일로 나는 집안일을 핑계로 야간자습시간에 빠지고 부모님 몰래 A지구 초입에 있는 치킨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 애를 만난 건 여기서였다. 나는 가끔 친구들과 손님으로 드나들곤 했던 이곳에서 유님들의 시중을 들어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또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새 식구로 들어왔다. 가게 매니저는 우리에게 그 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지만 나는 바쁜 와중이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며칠을 지나면서 보니 그 애는 여느 아이들과 달리 유달리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다. 웃도 웬지 모르게 촌스러워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많이 달랐다. “너 언변 조선족 처녀니?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내가 조선족 처녀를 운운한 것은 아무래도 그 애의 옷이 촌스러웠기 때문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적응을 못해 표정이 어두울 거라는 내 예상과 달리 그 애는 깜짝 놀라며 나를 훌 한 구석으로 이끌고 갔다. “난 새터민이야. 바로 옆 H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 애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며 “그럼 탈북자니?” 하고 물었다. 그 아이는 매우 곤혹스런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당분간 남에게는 비밀로 해줘.” 라고 말했다. 그 후로 나는 그 애의 신상에 대해 입도 병긋하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비교적 친해졌다. 그 애의 이름은 리은혜인데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최고 통치자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도 은혜라고 했다. 탈북하기 전에 외갓집에 있던 다섯 살 아래의 여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해 동생은 북쪽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도시의 예쁘고 생기발랄한 아이들을 보니 북에 두고 온 동생 생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우리 집은 아버지 빚보증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전쟁으로 부상을 입긴 했지만 여태껏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보다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밤하늘의 별을 보고 꾸벅 절을 했다.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어 은혜의 가족도 외할머니와 동생이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깊게 빌었다.





# 통일을 이어주는 다리

문성초 6  
정승경

“와! 아버지, 저기가 정말 북한이에요?”

“그래, 저 철조망을 보면 알 수 있잖니, 눈앞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은 어때니?”

4학년 때 가을날, 우리가족은 통일 전망대에 갔었다. 큰아버지 맥이 속초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주 가보았지만 전망대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다. 동생은 아버지가 사준 망원경으로 눈부시게 푸르른 바다를 보며 수도 없이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하지만 불과 약 50여 년 전에는 이 아름다운 곳이 참혹하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둠의 곳이었겠지. 그런데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다리가 완성되어 서로 왕래하며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도로를 통한다면 통일에 향한 발걸음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다리를 보며 아버지의 설명을 듣던 그때, 한구석에서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 옆에는 아버지 나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아저씨께서 할머니를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저씨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내려가자며 손을 이끌었다. 저 도로라도 완성되면 북한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전망대에서 가깝고도 먼 북한을 바라보시며 수도꼭지처럼 하염없이 우셨다. 결국 그 아저씨도 할머니 옆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다.

“아마 저분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을 거야. 이곳에선 이렇게 북

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단다. 저런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건 너도 알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저분들이 가족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날이 와야 할 텐데….”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나왔다. 이산가족들은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는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때 아버지와 절친한 이웃사촌인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분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버지와 정말 친한 분이셨다. 할아버지는 6·25 때 군인으로 참전해서 많은 공을 세운 참전용사셨다.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젊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셨다는 자부심은 늘 가지고 계신다.

“그래, 박형님(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지께선 6·25 전쟁에 참여하셔서 단지 살아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셨다고 한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많은 공을 세우셔서 높은 계급에 올라설 수 있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술을 드실 때 눈물을 흘리시며 긴박했던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셨다고 한다. 또 옆자리에 앉아 계신 아저씨들의 목을 끌어안고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하시며 노래를 부르셨다고 한다. 그때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속 상처와 쓸쓸한 마음을 달래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진실 된 마음은 누가 알았을까.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싸웠을 때의 할아버지의 마음을… 나 또한 할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 원망스럽고 싫었을 것이다. “형님께서 그 꽃다운 나이에 참혹한 전쟁터에서 싸우셨다니,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이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서예도구는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 그때 난 너무 어려서 상처투성이인 할아버지의 손에서 선물을 건네받고 히히 웃으며 좋아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말이다. 입학하면서 이 서예도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감

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비록 오래되어서 붓에서 털이 빠지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벼루가 무거워 들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할아버지께선 붓글씨를 쓰시면서 6·25에 대한 마음을 달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전망대에서 보았던 그 할머니는 사랑거렸던 가을바람에 통일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 보내셨겠지. 어머니께서 갈아주신 먹으로 새하얀 화선지에다 '통일'이란 글자를 쓰고 또 쓰면서 이 두 분, 아니 우리나라 이산가족 모두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우리 민족이 간절히 원하는 통일이 오기를 기원해 본다.





# 함성

종리종 3  
함 주 실

**푸른** 5월이 가고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왔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곧 다가오는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 때문에 잔뜩 들떠있는 분위기다. 각 방송사들은 월드컵 특집 방송을 하고, 각종 기업들은 '신화를 다시 한번'이라는 문구들을 내걸며, 지금 온통 월드컵에 관심이 가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알리고자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신화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월드컵이 일명 세계인이 축제라고는 하지만 몇 개의 나라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한 민족으로서 서로 같이 함성을 지르며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우리나라, 남한만이 축제 분위기다. 이런데도 월드컵이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을까? 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안에서 만도 한쪽은 월드컵으로 들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러하지 않고, 정말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월드컵이 되려면 어느 한 나라도 빠뜨려선 안 되는 것이다.

우린 이 월드컵을 북한과 함께 같이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얼마 전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철도 경의선의 시험 운행을 북측의 거절로 취소가 되었던 일이 있었다. 여기서 우린 왜 북측은 한반도를 이어주는 그 큰 의미를 가진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은 섭섭한 감정을 가졌다. 우리

의 생각엔 경의선 시험 운행이 남과 북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하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도 있는 분명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 민족인 북측이 시험 운행을 취소한 일에 더욱 섭섭한 것이다. 경의선의 시험 운행이 좋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너무 우리 생각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의선을 다시 이으려 공사를 시작할 때 중학생인 내가 들은 바로는 북측에서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승낙한 의미로 알고 우리 남한이 공사에 착수한 거라 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남측이 북측에게 시험 운행 때 승차하는 승객들의 명단을 교환하자 했을 때도 북측은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고, 또 그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북측은 정말 처음부터 경의선 복원을 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이번 일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음번엔 조금 더 북측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노력했던 또 다른 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경의선 시험 운행과 같이 꼭 그렇게 큰일만이 노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적·정치적 차이를 극복해 냈을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50여 년간 계속 되어 온 분단으로 남과 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이룰 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나뉘 버린다는 것은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다를 게 없다. 통일을 이룩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결해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들의 정부에게만 바라고 있어선 안 된다.

군사력, 인구증가 등과 같이 통일이 되면 좋은 점들을 얻고자 한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요즘 통일에 관한 교육방식이 통일은 꼭 되어야만 한다는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남과 북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역시 인제야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

엔 정부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다른 문화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들 말고도, 어른들 모두가 서로의 격차를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좀더 관심을 가진다면 언젠가 몇 년 후의 월드컵에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 하나의 철길로 이어진 동쪽 끝나라

다사고3  
김혜영

“여러분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 속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질문은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동쪽 끝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란 뜻이며, 위로는 신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대륙과 아래로는 4개의 섬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곳, 그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 나라의 산과 들은 너무나 아름다워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다.’는 뜻의 금수강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예의가 바르고, 흰색의 옷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이라고도 불렸으며, 전쟁이 났을 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뭉쳐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이 상쾌한 아침의 나라는 1897년, 나라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이 작은 나라는 아래에 위치한 섬나라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끝없는 운동은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독립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주었고, 독립 운동가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독립은 세계의 두 번째 대 전쟁이 끝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곧 분단의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북쪽 끝의 아주 추



운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 그 새로운 사상이 이 작은 나라로 들어왔기 때 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이 실현될 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서로의 사상의 차이가 한 민족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독립 의 기쁨을 마음껏 느끼기도 전에 사상의 실현을 위한 두개의 정부로 갈라 져, 5년 후에는 전쟁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휴 전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현재까 지 세계의 분단국가들이 모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이 작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북의 한 소년은 17살에 아버지께서 누이를 시집보낼 때 쓰러고 숨겨두었 던 소 판돈을 들고 가출했었습니다. 가출 후 소년은 남으로 내려와 남에서, 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출한지 66년 후 이 소년은 소 501마리를 끌고 고향인 북을 방문하기 위해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소 500 마리에서 한 마리를 더 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소 떼의 행렬이 계속될 것이 라는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년은 이 일로 북의 최고집권자와의 만남도 가졌고, 북과 남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체육관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나라는 최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개의 정부가 있고, 세계에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남 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선 이 나라가 어디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오천 년의 무궁한 역사를 지닌 나라, 우리나라, 대 한민국입니다. 일본의 36년간 식민지 지배도 이겨내었던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뭉쳐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런 우리나라 가,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민족이 사상의 대립으로 갈라진 상태가 더 이상 길어질 리 없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야 할 통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통일이 빨

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봉횟수를 늘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읽분들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크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세계의 여러 나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빅’

좋아, 3분 50초 정도 걸렸네? 빨리 읽었을 때 이 정도 걸렸으니까, 발음 연습이랑 천천히 읽기 연습을 좀 하면 시간은 그럭저럭 충분하겠어. 아···, 어쨌서 난 이런 것까지 늦는 걸까? 선생님께 보여드릴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늦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니까.

응, 그건 그렇고, 이제 제목만 정하면 이것도 끝인데···.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지도에서 봤을 때, 동쪽 끝! 일본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나라이고, 아메리카대륙은 유럽 쪽에 더 가까우니까.

최근에 경의선 이야기가 이슈화된 적이 있으니까, 제목에 이걸 좀 넣어보면? ‘동쪽 끝나라 철도이야기?’ 아냐, 이건 아닌 것 같고···, 순서를 좀 바꾸고 다듬어야겠다.

그럼, 어디보자, ‘하나의 철길로 이어진 동쪽 끝나라!’ 오오! 좋은데? 그럼, 제목은 이걸로 결정!

헉! 벌써 11시야? 지금 안 자면 내일 지각할 텐데···, 하지만···, 연습은 어찌지?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

아냐! 딱 두 번만 읽고 자자. 천천히 발음에 주의해서 두 번만···. 제발, 내일은 진짜 지각하면 안 되는데!

## 인천광역시

04

- 하나가 되어 ...95
- 통일의 길 ...97
- 할아버지의 약속 ...100
- 우리 함께 외쳐요 ...102
- 허리띠를 풀자 ...105
- 길 ...108
- 너와 내가 한마음이 되어 ...111
- 새의 날갯짓 ...113
- 철마는 달리고 싶다 ...115





# 하나가 되어

용정초 5  
정세봄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갑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걸스카우트여서 수봉공원에 있는 현충탑으로 기념식을 하러간 일이 생각나 북한 도서가 있나 찾아보다가 '반갑습네다' 라는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 사투리가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걸표지만 봐도 북한과 남한이 버스를 타고 오가는 것처럼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텔레비전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인터넷에서 북한의 재미있는 말들을 찾아보곤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북한말에는 참 재미있는 말도 있고 속담도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는 '기필코'가 북한말에는 '불필코'이고, '알쏭달쏭하다.'가 '새리새리하다.' 또, 속담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가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라는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것 같은 말이 많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한가요음반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북한의 노래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친숙한 것을 보면 역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휘파람',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 등 우리의 귀에 친숙한 노래와 북한가요가 10여 곡이 수록되어 우리나라 가수들도 같이 참여할 거라고 합

니다.

또 며칠 전 남북 경제 문화 협력재단은 또 6·15 기념행사로 광주에서 개막식과 축하행사를 하고, 개막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기차가 부산, 목포를 출발해 개성과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파리,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이룩할 것인가? 등에 대해 흥금을 털어놓고 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떨어진 지 벌써 5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사이가 좋아지는지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남한과 북한의 대통령이 만나는 일 등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난 50년 동안 허리가 잘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 발만 내밀면 금방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해님의 내기’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뜻한 해님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바람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해님이 따사로운 햇볕을 내리 쬐자 나그네는 옷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북한 땅에 따스한 햇볕을 쏘아 부어 북한과 남한의 잘린 허리가 하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통일의 길

청량중 3  
김 마리아

역사는 끊임없이 흐른다. 현재는 과거로, 미래는 현재를 거쳐 과거로의 흐름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찰나의 순간순간이 이어져 길고 긴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까지나 역사뿐이지 않고, 과거는 언제까지나 과거이지 않다.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미래가 되어 돌아온다. 이 엄청난 챗바퀴 속, 각자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리곤 한다. 아니 그것을 아주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다. 애를 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를 되찾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들 한다. 허나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정확한 모순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잠시 잠깐의 망각으로 만족해 버리는 것, 내가 망각해 버린 현실이 더 큰 망각을 필요로 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 다시금 나를 좌절과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크고 작은 일일까지 적용시킨다.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런 당치않은 어리석음으로 분단의 굴레조차 잊어버리려 하고 있다. 50여 년간 별다른 생각 없이 남한과 북한. 단일민족이자 두 국가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화롭다는 듯이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분단의 현실은 극한의 위기에 처해있다. 6자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발사와 핵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이 요즘에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이 문제는 가볍지 않았다. 전쟁의 시작부터가 모두의 앞날에 장애물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굴레란 벗어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장애물은 뛰어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결코 그 때문에 발을 묶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좌절할 때 희망의 불씨는 더 크게 타오르는 법이다. ‘유일한 분단국가’, ‘단일 민족 두 국가’ 등 우리나라를 칭하는 말이다. 고조선 시대부터 일제치하 때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단결성은 정말 대단했다. 권력다툼으로 인한 몇몇 차례의 다툼이 있긴 했지만 철저히 지켜온 유교의식을 바탕으로 외세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해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분단의 아픔과 참혹한 전후의 잔상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우리들의 애국심은 모습을 감추었고 어느덧 통일에 대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는, 심지어는 북한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힘을 합쳐 무력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실 나 역시도 얼마 전까지는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나마 역사를 좋아하는 터라 한국의 근대사에 관한 책자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광복, 외세의 간섭, 그 후 이어진 위기의 시기와 전쟁, 그리고 분단에 이르는 모습들을 접하긴 했었다. 서양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또 내부의 사상의 대립 속에서 나라가 나뉘는 아픔을 느끼긴 했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그리 많이 느끼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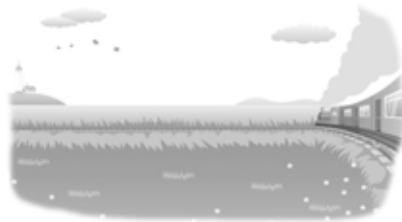
그런데 요즘 6자회담이 결렬되고 핵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북한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아마 그 영상을 본 때가 시범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북한과 남한 사이가 약간 서먹했던 때였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보다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하고 일을 할 의욕이 사라져 버린 모습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충격을 받은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북한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반찬투쟁을 하고 학교나 학원에 가기 귀찮아할 때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교육



의 혜택은커녕 배급되는 식량만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민족이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땅에 철조망을 치고 남쪽과 북쪽,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후회했다. 북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나를...,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친구의 입장에서라도 이렇게 괴로운데 친자식과 형제, 부모로서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김혜자씨의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서는 세계에서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많은 고아와 난민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나눔의 중요성을 말하며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민족, 한 핏줄인 저들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을까?

통일을 함으로써 남한이 져야하는 부담은 상상하기 힘들다. 독일도 통일 직후 계속되는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우리도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전쟁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어찌면 국가가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미래가 되어올 우리의 과거를 알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헤쳐 나갈 수 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한다. 굴레란 벗어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다툼과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 되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통일의 길을 걸어 나가자!





## 할아버지의 약속

인성여고 2  
김새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뜨거운 여름을 알리며 맴맴 거리던 매미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냇가에서 먹 을 감던 아이들도 없다. 푸근한 인심으로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없다. 모두가 죽었다. 세상에는 구슬픈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같은 형제끼리 총을 쏘 아대는 이곳에선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 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얼굴엔 슬픔만이 가득할 뿐이다. 세상에는 온통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온다.

우리 역사에 상처를 남긴 6·25 전쟁도 어느덧 50여 년이 지났다. 세상은 변했다. 웅기중기 모여 있던 판잣집 대신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자리 잡았 다. 모든 게 새롭게 변했다.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엔 전쟁이란 없었던 듯하 다. 우리의 지난 역사의 아픔이 그저 과거인 듯이 가족을 잃은 슬픔, 어둠의 상처보다 우리의 무관심이 사람들을 더 슬프게 한다. 시간은 약이라고 했던 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둠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간다.

우리 가족도 6·25 전쟁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친가 쪽의 작 은 할아버지는 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 북한에 계신다. 어렸을 때 다른 어떤 형제보다 사이가 돈독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의 슬픔이 더 클 지도 모른다. 우리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엄격하고 냉철하신 분이시다. 가족에게 나약한 모습 한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시다. 그런 데 할아버지는 동생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훔치신다. 그러면서 늘 “우리

경식이, 내 동생 경식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칠혹 같은 어둠이 할아버지를 더없이 약한 존재로 만든 것이다. 눈물로써 어찌 지난 50년의 세월을 대신 할 수 있을까?

2003년 8월 15일 수차례의 탈락과 신청 끝에 할아버지는 꿈속에서나 그려보았던 작은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동생을 만나자마자 말없이 오열하셨다는 할아버지, 동생을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겠다고 되뇌곤 하셨는데 50년의 장벽은 할아버지를 병어리가 되게 했다. 허무하고 안타깝기만 했던 50년의 아픔은 4박 5일 동안 풀기에는 너무도 짧았다. 할아버지는 그때 작은할아버지와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 같이 뛰어놀던 금강산에 가자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죽기 직전까지도 약속한 날만을 생각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자유의 몸이 되어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길고 길었던 50년의 세월을 대신한 약속이었기에 할아버지의 가는 길은 아마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들, 폭격으로 사지가 잘려나가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 역사의 생생한 목격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빠지지도 않을 대못을 박고 있다. 바로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신문이나 TV로 6·25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해도 그 효과는 한 순간 뿐이다. '장애인이다.', '소외계층이다.' 손가락질보다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준 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지난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개선과 작은 사랑이 있다면 통일의 역사를 새로이 쓸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이 개방되어 남한 사람들의 정취가 묻어나고 있다. 금강산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교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문화를 개방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 하루빨리 장벽을 없애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말이다.



우수상

## 우리 함께 외쳐요

심곡초 5  
백수진

“대~한민국, 짹짹 짹 짹!” 은 나라가 월드컵 축구 응원으로 한 마음이 된 요즈음이다. TV 화면 속이 아니어도 붉은 옷에 붉은 띠를 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곤 한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북한에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는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더더구나 이번 2006년의 월드컵 축구 대회는 독일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동서로 갈라져 살고 있던 독일은 벌써 하나가 되어 이렇게 세계인들을 맞아 축구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노력했다던 독일 국민들이 정말 부럽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저렇게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며칠 전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북쪽 사람들이 광주에 도착해서 기념행사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가 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통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걸까? 내 조그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다.

왜 이렇게 통일과는 다른 일들을 자꾸 하는 걸까?

얼마 전에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가 완공되었는데도 북한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범운행을 못했다고 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난 도

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보니 5학년이 되도록 나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도덕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같은 민족, 핏줄이란 말의 의미도, 6·25 전쟁도 그리 실감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지난 현충일에 가족과 함께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다.

6·25 전쟁 당시에 임진강변의 모래밭은 남북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란단다. 그쪽을 바라보며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에서 본 끔찍한 장면을 떠올렸다.

우리는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땅을 볼 수 있었다. 북한 땅은 해염을 쳐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자꾸만 내 가슴을 답답하고 안타깝게 했다.

전시실로 가보니 북한 친구들의 교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책상과 결상, 칠판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했지만 웬지 딱딱하고 자유스러운 것 같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보니 한쪽에 향을 피워 놓은 분향소가 있었다. 몇몇 어르신들께서 북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모두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다.

엄마께서는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의 그리운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곳이라고 하셨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기에 우리 가족은 밤길로 달려갔었다. 우리들을 보시며 한층 밝아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분향소가 필요할까? 평화로운 이 땅에서 같은 형제끼리 서로 싸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하다. 하긴 동생 현선이와 다툼 때면 나는 다시는 말도 안하고 살 것처럼 동생이 밉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린 언제 그랬었냐는 듯 서로 껴안고 깔깔대곤 한다. 형제자매 사이란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왜 남한과 북한은 55년이 지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나라를 지키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는 평화통일 위해서는 먼저 강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기에 국민 모두가 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학원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뀌었다.

통일 전망대에서 돌아오던 그날, 엄마께서는 나에게 ‘서울에서 평양까지’ 라는 노래를 불러 주셨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오만원...’ 그 노래를 들으며 통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언제쯤이면 택시를 타고 평양엘 갈 수 있을까? 2010년, 아니 2014년쯤엔 갈 수 있을까?

그 2014년에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지금처럼 외치고 싶다 .

“대~한민국, 짹짹 짹 짹!”





## 허리띠를 풀자

능허대종 1  
최유진

2005년 11월,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여태까지 12번씩이나 맞았던 이산가족 상봉인데 만날 때마다 흘리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 헤어질 때 흐르는 아픔과 아쉬움의 눈물은 한결같은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TV앞에 앉아서 상봉 장면을 지켜보았다.

처음엔 ‘왜 울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는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성장했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단군조상 아래에서 피를 나눈 한민족 형제들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그것도 허리를 잘라 3·8선을 그어놓고 우리 손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과 함께 민족의 비원을 만들다니...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을 합쳐 약 170만여 명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에서 남과 북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남과 북의 사이가 많이 개선되었다. 남한이 북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서로의 영토에도 드나들 수 있다.

북한군들을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 얼굴을 새빨간 색으로 범벅해 놓던 옛날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굉장한 개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어서 통

일을 해야 한다. 여태까지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 때문이라도 서로의 땀을 향해 보냈던 안타까운 시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통일을 하려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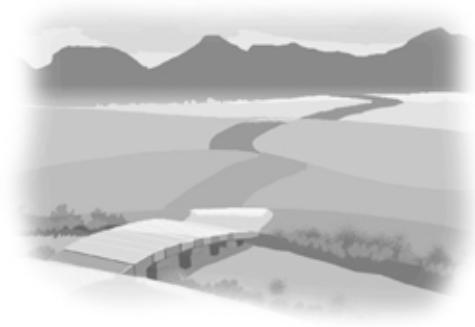
첫째로,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통일의 주역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화해와 나눔의 의식을 갖도록 하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가 북한에게 원조하고 도와주는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니까 아예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곳에 사용되는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된 민족의식을 가지려면 화해와 나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주민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포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화해의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널리 알고 있는 통일사례 중에서는 현재 한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독일이 있다. 동·서독 통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완성되었다. 독일 통일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었다. 동·서독은 분단 양측이 화합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동독보다는 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서독이 동독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독일 국민들 모두가 통일을 한마음으로 염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때 적화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논의해서 이루는 자주적 통일만을 바랄 뿐이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적 정서이기도 하고,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함이기도 하며,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



는 꼭 평화통일 즉, 자주적 통일로써 달콤한 열매를 거두어야겠다. 우리도 독일의 경우를 거울삼아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의 숨통을 죄어 막았던 허리띠를 풀고 남한과 북한 국민들이 손잡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우수상

# 길

문일여고 2  
임성주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아이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시던 선생님께서 말을 꺼내셨다.

“선생님이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을 갔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풀밭에 들어갔었어.”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은 금새 푹뭉뭉해졌고, 선생님은 생글 생글 웃으시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손짓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요?”

“내가 들어갔던 곳이 북쪽 땅이었나 봐. 만약 북쪽 군인들의 눈에 띄었다 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라고 하시며 몸서리를 치셨다.

한 나라이고, 한 민족인데도 서로의 땅을 밟지 못하는 현실, 실수로 땅을 밟은 것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되고 마는 현실에 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이 남과 북의 교류가 늘어났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속엔 아직도 불신과 경계심이 도사리고 있다.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인데도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50여 년이라는 세월?, 과거 민족전쟁의 후유증?,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이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문학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6·15남북공동선언 몇 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보러 간 적이 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내 옆에 앉아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나와 내 친구에게 말을 거셨다.

“너희들이 여기엔 무슨 일로 왔니?”

“음악회 보러 왔어요.”

“이게 무슨 음악회인지 아니?”

“…….”

“쯧쯧쯧…….”

나와 내 친구들은 대답할 수 없었고, 할아버지께서는 혀끝을 차시더니 이내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부끄러웠다. 어떤 의미를 가진 음악회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숙제를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나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나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책임전가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곳에 있던 이들의 반 이상이 나와 같은 입장에 있었고, 음악회를 감상하는 이들 보다는 매점 앞을 서성이는 사람이 더 많았다.

나 역시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통일’의 문제로 울분을 삭이고 흥분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라는 말만 내뱉을 뿐, 그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그동안 어른들이 지니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전쟁의 후유증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만 서서 이야기한다. 겉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들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다. 50여 년이면 강산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만큼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것은 아니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언어, 정치, 문화, 경제 등…….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내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처지는 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태도를 바꾸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하나 된 우리 민족을 찾기 위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전쟁으로 인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땅속에서 웃으며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너와 내가 한마음이 되어

담방초 5  
김지수

북한에도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너에게 글을 보낸다.

지수야, 안녕!

얼굴도 모르는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쑥스럽기는 하지만 통일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 써보려고 해.

지수야, 우리는 얼마 전에 부여로 수학여행을 갔었어. 부여는 백제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배우고 왔던 기억이 있어.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국사 선생님이 꿈이야. 그래서 나는 수학여행이 좋아. 왜냐하면 역사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다음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가고 싶어. 그런데 힘들겠지? 너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었니? 너도 경주나, 부여를 가서 역사를 배우고 싶지 않니? 우리가 서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북한과 남한을 가로지른 휴전선이 생긴 지도 56년이란 세월이 흘러 우리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통일을 꿈꾸는 너와 나의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 몇 년 전에 평양학생예술단이 서울에 와서 공연을 했었잖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잘한다고 박수를 쳤지만, 나는 어린 꼬마들이 기계가 움직이듯 하는 공연에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 발표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런 문화적 차이로 조금의 갈등이 있겠

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면 이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한민족의 후예답게 기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다고 확신해. 지금이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어서 여기저기서 붉은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을 너도 TV를 통해 보고 있겠지?

2010년도에 열리는 월드컵 땀 붉은 물결이 북한에도 넘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같이 응원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 됨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수야, 우리의 생각이 정치하는 어른들께 전해져 대립하고 있는 선을 없애고 화해의 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지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그날까지 우리의 본분에 충실 하자꾸나.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





## 새의 날갯짓

구월여중 3  
장 희 진

나는 한반도의 잘록한 부분, 즉, 비무장 지대에서 살고 있는 '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비무장 지대는 북한과 남한이라는 조그마한 두 나라의 쉼터입니다. 하지만 이 쉼터에는 두 나라 모두 들어갈 수 없어 우리 새들의 천국이 되었죠.

이 두 나라는 예전에는 하나였다고 하던데 지금은 왜 따로 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운데 말이죠. 할아버지 새가 젊었을 적에 주위에서 싸우라고, 싸우라고 하니깐 정말 꼭두각시처럼 대판 싸우고는 지금까지 냉담하다고 하더군요.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죠.

이 두 나라의 쉼터에서 살면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두 나라 각각 양측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통일전망대라는 것을 세워 이상한 것으로 서로 사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더군요. 꼭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는 광경과 겹쳐 보였어요. 하나이면서 서로를 그렇게나 모르다니...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가끔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쉼터를 지키는 두 나라의 군인들 때문이에요. 총을 가진 군인들이 무섭게 서로를 노려보는데 언제 우리를 쏠지, 아니면 언제 상대 군인을 쏠지 몰라 우린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렇게 군인을 세운 걸 보면 또 전쟁을 벌일 생각인가 봅니다. 그럼 이 쉼터는 또 다시 피바다가 될텐데..., 이제는 주위에서 아무도 싸우라고 안하는데 서로가 싫은 걸까요?

하늘을 높게 날다보면 양쪽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을 아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보통 50, 60년은 떨어져 있어야 만날 수 있다더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라면 너무나 그리워 다시는 하늘을 날 수 없을 지도 몰라요.

그 대단한 사람들은 다들 호호백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상봉하기 전, 그들은 매우 긴장된 얼굴로 그리워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보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하고 서로를 부둥켜안기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 솟구쳐 올라와 눈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 벽차오름을 견디지 못하고 난 엉엉 울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을 갈라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원망이 내 속에서 자꾸만 커져 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또 다시 이별의 시간이 오자 그들은 아쉬운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 것털로 그들의 손을 영원히 묶어 두고 싶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마냥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위해서 어서 빨리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끝으로 나는 더 높이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썩터에서 나른하게 날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날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가 빨리 죽어 '새'로 다시 태어나 두 나라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고요. 난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새라고 해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경의선이라는 이름까 말까한 철도와 금강산으로 향하는 배가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는 모습에서 내가 본 통일이라는 벽찬 희망을요.





# 철마는 달리고 싶다

계산여고 2  
이소현

어느덧 분단된 지 50년이 흘렀다지만 나만의 시계는 멈춰버린 듯 제자리에 서 있다. 황폐했던 옛 땅에는 어느새 높다란 건물들이 자리 잡았고, 험벗었던 산도 나무가 울창한데 왜 나만 홀로 이곳에 버려져 있는 것일까? 5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벌써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철골들이 나의 몸이 되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나에게 창문과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무엇이 될까?’ 하는 궁금증을 품어가며 나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칙칙 푹푹 철거덩”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듯 이쪽저쪽을 살펴보다가도 내 소리만 듣고 나면 지레 겁을 먹고는 달아나기에 바빴다. 어떤 사람은 빨래를 삶아 먹은 소리 같다며 귀를 막고 숨기도 하고 어떤 꼬마 아이는 무섭다며 엄마 품에 안겨 울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요란하게 이 세상에 등장하였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이곳저곳을 다녔다. 타는 사람도 가지각색이었다. 내 몸에 가뿐히 올라타며 신난다고 소리쳐 대는 아이들부터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상인, 누구를 주려는지 많은 짐을 드신 할머니, 수줍은 미소를 가진 예쁜 숙녀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오르고 내렸다. 그 중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태워야 했던 사람들도 있다. 사나운 눈빛으로 뻗뻗한 제복과 섬뜩한 칼을 무슨 자랑 마냥 앞세우고는 으스스하며 올라타는 그들에게는 인간

의 품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향해 왔다. 사람들은 모두 이들만 지나가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때리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해 가는 일은 비밀비재하였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끔찍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의 무능력함에 탄식하고 있던 중 “대한민국 만세!”라는 함성소리와 함께 태극기의 물결을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 모두 기뻐했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 나 또한 뿔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이번에는 ‘양키’라고 불리는 노란 머리와 푸른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내 몸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전처럼 두려움에 떠는 일은 없었기에 편한 마음으로 철로 위를 시원하게 내달렸다.

이렇게 평화롭던 시간도 잠시…, “우르르 쿵쿵” 저 멀리서 대포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북쪽이니, 남쪽이니 너무나 숨 가쁘게 내 몸에 오르기에 바빴고, 그런 그들을 신고 분주하게 달려야만 했다. 가는 역마다 인산인해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나의 몸에 오를 수가 없어 기약 없는 이별을 하는 이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먼저 가 있어. 엄마는 바로 다음 열차 타고 갈 거야. 알았지?”

“엄마…,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응?”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향하는 소녀의 그렁그렁한 눈망울, 잃어버린 딸을 찾는 목이 멘 여인, 굶주린 아이들, 사람들의 울음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세상은 점점 어둠이 깔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시간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듯 정신없이 달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느낄 수 없었다. 나의 몸에는 사람이 아닌 딱딱하고 차가운 각종 무기와 전쟁을 위한 그 무엇들이 실렸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들의 조잘거림이 아닌 쿵쿵대는 총과 대포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정겹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피 흘리며 서로를 겨냥하는 사람들과 한쪽에서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아야만 했다. 그 해의 새파랗던 여름 하늘은 연일 “우르르 쿵쿵” 소리의 폭격으로 회갈색 빛을 보여주었다. 쉼 새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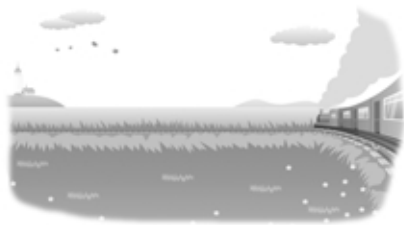
날아드는 총탄에 내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아름답던 바깥 풍경도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곳이 마을이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총포탄의 소리는 국도를 점차 피폐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달렸다. 계속해서 이렇게 달릴 줄만 알았던 어느 날 나에게 신는 무기들의 양이 줄어들었고 대포소리도 줄어들었다. 휴전에 접어든 것을 알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정지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그렇게 50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정지상태이다. 내가 왜 이곳에서 멈춰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언제 움직이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나의 몸은 세월의 풍파 속에 지치고 늙어 약해져 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북쪽 땅과 이 남쪽의 땅을 있는 힘껏 달리고 싶고, 그 옛날 사람들의 체취를 느끼고 싶다. 세상은 많이 변했겠지만 내가 지나던 여러 역들과 정겹던 풍경이며 사람들의 냄새 하나하나가 그립다. 그 옛날 내 몸에 사람들을 태우고 힘차게 한반도를 누비던 그 시절이 그립다.

바로 저 앞, 철조망만 뚫고 지나면 그 옛날 내가 달리던 그곳인데 왜 갈 수 없을까?

나는 언제쯤 달리게 될까?

나도 이젠 달리고 싶다….





## 광주광역시

05

- 통일의 바람 ... 121
- 통일은 우리의 문제, 바로 내 문제이다 ... 124
- 분단역사 50년의 끝은 ... 128
-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노력을 해 왔을까요? ... 131
- 신조선의 미래 ... 133
- 다시 하나가 된 두 조각 ... 137
- 하나된 한반도를 꿈꾸며 ... 139
- 평화통일 ... 141
- 통일의 등불 ... 143





## 통일의 바람

을곡초 6  
김현지

학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데리러 온다고 하신 엄마가 바쁜 일이 있어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다. 나의 다리와 눈과 발바닥은 피로에 절어있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도로는 막히고,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아파오는지….

횡단보도 앞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저 건너 현수막에 “6·15 정신 이어 받아 민족자주 이룩하자!”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 계속 생각하다보니, 피로도 잊은 채 어느덧 집에 다다랐다.

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전을 펼치고 ‘자주’ 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자주: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일,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그런 자주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현수막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오는 도중, 버스를 타며 창문을 열었다. 버스의 납작한 창문 사이로, 나는 바람의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그리고 바람 때문에 뒤로 날리는 머리카락들을 느끼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가며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옷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땐, 시원하면서도 간지러웠다. 이때, 난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바람은, 나의 기분을 풀어주는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 저기 저 무등산에서? 아니면 저기 저 한라산에서? 또 아니면 저기 3·8선 넘어 우리나라의 나머지 반쪽이 살고 있는 곳 ‘북한’ 그

곳에서의 산, 백두산일까?

이 바람은 백두산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 리가 없다. 우리의 동포, 같은 민족, 친구, 가족..., 북한 사람들 아니 북에 사는 아들, 딸들은 이런 것이다. 그래야만 바람이 좋을 수 있다. 따뜻한 가족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편하게 해 준다.

비록 지금은 이산가족과 3·8선 끊어진 경의선이 우리나라의 찢어짐을 증명하고 있지만 언젠간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3·8선 그것은 없어지고 경의선 위로 기차가 지나갈 것이다.

물론 아무런 노력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좀 더 통일에 대한 깊고 심각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북한과 남한의 다른 점은 없고 모두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그들도 보고, 우리가 보는 저 달을 그들도 보고, 별도 보고 바람도 느낀다. 우리도 그들도 다같이 느낀다.

하지만 이제 손에 손잡고 얼굴을 맞대며 보고 싶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통일의 기쁨을 누리고 같이 달빛을 온몸에 받고 싶다. 그 통일의 바람은 우리 옷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며 간지럼을 피우겠지.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의 그 밝고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공통점을 찾겠지. 눈도 같고, 코도 같고, 입도 같은 우리의 얼굴에서 서로의 얼굴에서 비록 하는 말과 사상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한 핏줄인 걸...,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고파 하며, 느껴주는 대한의 한 핏줄인 것을...

이렇듯 우리는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또, 이 「통일」의 바람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밝은 명칭으로써 우리나라를 이어 줘야하지 않을까? 평화로이 통일하여,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난다는 것. 마음 깊숙이 증오와 원한이 섞이지 않은 채 오직 기쁨의 마음으로만 손을 잡는 것, 가족이 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강제로 어느 한쪽이 통일을 시켜 버리면, 강제로 통일이 되어 버린 쪽은 그 나라를 미워하지 않을까?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랑의 마음도 증오에 덮여 가려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없지 않은가?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가족인 것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겉으론 아닌 척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더 이상 한 핏줄이 아니다.

때론 멍청하게 퍼다 주는 것, 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바보처럼 다 줘버리는 것, 그렇게 우리도 북쪽에 사는 형제에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퍼다 줘 보자. 사랑을 퍼다 줘 보자. 어쩌면 우리의 사랑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찢어져 있던 우리나라가 꿰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사랑이 실과 바늘이 되어,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는 꿰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대한의 아들, 딸들이여! 이제는 그 영광스런 통일의 기쁨을, 통일의 눈물을 느끼도록 노력해 보자!





# 통일은 우리의 문제, 바로 내 문제이다

상일중 2  
유진선

**요즈음** TV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주몽'은 시청률이 아주 높으며 '연개소문', '대조영' 등도 제작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고구려의 역사를 다룬 TV드라마가 많아진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과거 고구려의 찬란했던 역사를 상기시켜줌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주려는 뜻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썩기를 막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간의 우리는 역사 중 가장 자랑스럽고 영토가 넓었던 시대가 고구려 시대일 것이다. 시베리아와 만주, 요동반도까지 우리의 영토였다.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역사인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둔갑시키고 있는 '동북아공정'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뭘까?

최근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자기네 문화가 아시아 최고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한반도의 통일 후 만주와 간도의 영토분쟁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과거 고구려의 땅이었던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개입할 의도를 가지면서 또 한반도가 통일되면 1909년 일제강점기 후 일본과 중국의 밀약으로 체결된 간도협정으로 가져간 간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해 영토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즉, 중국은 간도영유권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더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그간의 우리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 속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일은 아직 시기상조란 입장도 있고, 매우 어렵고 난처하다는 입장도 있다.

북한은 머지않아 자연스레 붕괴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고 소련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쿠바나 중국, 베트남이 있지만 중국도 민주주의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 중 자유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음은 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중 많은 수가 극도의 빈곤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자유를 향한 목숨 거는 탈출은 굶주림에 대한 저항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는가?

이처럼 북한 내부에서도 공산주의 붕괴 조짐이 짙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현재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많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 요인은 있다. 남북 양쪽에서 서로 팽팽히 권익에 대한 줄다리기를 놓지 않는다면 통일의 시기는 더 늦어지지만 할 것이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남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이 많다고 한다. 같은 형제를 돕는데 왜 이리 인색한지 모르겠다. 물론 북한을 돕느라고 남한 내의 빈곤층에 대한 구조의 손길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통일이 되면 통일된 후에 어차피 들어갈 돈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중국에 지을 것이 아니라 북한에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한다. 북한은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저출산 문제와 군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또 한반도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로 많이 들어가는 국방비를 줄여서 경제적 투자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 통일을 앞당기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우려도 있다. 벌써 중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동북아공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 등을 통해 시민단체가 나선 적도 있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을 통해 통일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대학생들이 만나 학술토론회도 만들고 이산가족 상봉은 더 자주 열어야 한다. 작년에 정동영씨가 통일부장관을 역임할 때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한 적이 있다. 통일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모은바 없이 그저 막대한 세금만 날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낱 친구를 사귀더라도 친구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상례이다.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통일문제는 친구를 사귀는 문제처럼 해법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앞으로 들어갈 돈이 7조라고 한다. 무리한 간척사업으로 갯벌을 없앨 것이 아니다. 그 돈으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M&A만 보더라도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겠는가? 통일은 기업의 인수합병과는 다르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 국민과 정부가 통일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나설 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통일문제에 대해 다 알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알고 있는 문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시되기에 서로 미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음을 합치고 몸을 합치는 것도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을진대 하물며 50년 넘게 따로 살아온 두 국가가 합치는데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고 하지 않는가? 열 번도 안 넘어가면 스무 번 찍고, 스무 번도 안 넘어가면 도끼날을 봐주고 하여 통일은 내 문제, 우리들 문제임을 인식하여 노력하면 통일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최우수상

# 분단역사 50년의 끝은

서강고2  
김혜인

한 노인이 통일전망대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노인과 함께 있던 어린 여자아이는 노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묻는다.

“할아버지, 왜 그래? 어디 아파?”

손녀인 듯한 아이에게 노인은 북한을 가리키며 묻는다.

“우리 은샘이는 저기가 어딘지 알고 있니?”

“응! 여기 오면서 아빠가 말해줬어. 저기는 북한이라는 곳이라고…”

“우리 은샘이 똑똑하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북한에 관련된 옛날이야기 해줄까?”

“응! 나 듣고 싶어”

“옛날에 우리 은샘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마을, 이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들은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어린 두 동생들과 살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박재서이고 나이는 17살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못 다닌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부모님도 없이 살아가는 처지라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동생들인 지영과 인서 또한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산군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 일어났다.

공산군은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공산군의 갑작스런 침입으로 군사가 부족한 남은 서둘러 군사를 모집했다. 아니, 모집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동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대상자는 17세의 고등학생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었다. 재서 역시 전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재서는 마을의 김씨 아저씨에게 지영이와 인서를 부탁했다.

“아저씨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애들을 맡아주세요.”

“걱정 말고 재서, 넌 살아 돌아올 걱정이나 해라.”

재서는 떠나기 전에 지영이와 인서에게 약속 하나를 했다.

“지영아, 인서야!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응. 오빠….”

“전쟁 동안 김씨 아저씨랑 같이 다녀야해.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 마을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알았지?”

지영이와 인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마을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재서는 전쟁터로 걸음을 옮긴다.

전쟁터의 모습은 참혹하였다. 여기저기 쓰러져있는 시체들, 재서는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었고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토록 싸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들 필사적으로 싸웠다.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하지만 남한은 공산군에게 밀려 계속 밀로 가게 되었고, 결국 부산으로까지 밀려왔다. 이대로 질 수는 없었던 남은 미군과의 연합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을 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기세를 몰아 공산군을 압록강 부근까지 밀어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점차 밀려 서울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계속 대립하던 상황 속에서 두 정부는 휴전을 하게 되어 한반도 한가운데에 휴전선이 생기게 되었다.

재서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동생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동생들을 부탁드렸던 김씨 아저씨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 후 5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

라보던 노인이 재서였다.

“은샘아. 이야기 어땠니?”

“너무 슬퍼… 할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아니, 이제 곧 만난단다.”

“정말? 잘 됐다.” 재서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지어졌다.

재서는 이산가족상봉으로 지영과 인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날 재서는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만남의 장으로 향했다. 재서의 눈에 한 줄기의 눈물이 흐른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지영과 인서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늙어버린 동생들을 본 재서는 다 자신의 잘못 같았다.

“지영아…, 인서야…” 재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형…, 건강하셨어요?”

“오빠…, 오랜만이네요.”

세 남매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세 남매는 5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을 설 새 없이 하였다. 하지만 만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재서가 남한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다.

“지영아, 인서야! 꼭 다시 만나자. 꼭 통일이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형님.” “그래요.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남한으로 돌아가던 재서는 생각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다니…, 하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히 여겨야지. 그렇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짧다면 짧은 이 50년의 분단역사는 언제나 끝을 맺을지…”





##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비아초 5  
김규희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으로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마침내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함께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남북의 두 정상들이 만나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군의 도움을 받은 북한군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발생한지 3년 1개월 만에 휴전선 위의 판문점에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제 연합군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1984년 여름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나서 북한 적십자가 수재물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와 1991년에는 남북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협력하기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 했으나,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남북의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998년 11월 18일 한국 기업 현대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

님과 정부의 '햇볕 정책' 이 함께 힘을 합쳐 금강산 관광선이 북한을 향해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분단 50년 역사에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6·15 남북 공동 선언문' 을 발표했지요.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 보유 문제로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정말 힘든 남북통일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모든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진짜, 진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산가족의 슬픔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땅이 넓어집니다.

셋째,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방비가 줄어들어서 남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독도를 지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 통일을 꼭 이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도 생기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만 이해하고 양보해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마음가짐만 잊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조선의 미래

양산중 3  
박자경

“대한민국”, “붉은 악마들의 함성 속에 드디어 날쌔돌이 김태훈 선수가 코너킥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아까의 페널티킥 실축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코너킥이 뭐래요?”

오늘도 역시 질문이 끊이지 않는 북한 동무 전학생 은실이입니다. 선생님이 몇 번을 말해주니, 코너킥은 구석차기라고….

“언니, 구석차기 맞제. 그럼 페널티킥은 11미터 발차기 맞제요?”

역시 똑똑한 북한 동무 모범생 진실이입니다. 북한에서 전학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우리말에 익숙지 못한 은실리와 진실이. 교사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줄곧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제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2014년, 남과 북이 ‘신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일이 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지 약 60년 만에 남측과 북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2010년 6월 15일 전 세계의 환영과 축복 아래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3·8선을 철거하며 불렀던 통일의 노래와 함성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여행, 백두산 여행, 경의선 회복, 민간인 왕래 등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은 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남과 북이 드디어 ‘신조선’이라는

또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로 남한의 정치·문화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된 북한은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을 깨끗이 버리고 남한의 이주 정책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찌 보면 남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으로 통일을 빨리 이룩하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성급하였다는 일부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며 문제점이 아주 많았지만 많은 것을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다보니 이제 제법 통일국가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남았지만 말입니다.

‘딩동뎡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국어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특히 북한동무 은실이와 진실이는 선생님 설명 잘 듣고 하루빨리 한민족의 국어가 익숙해 졌으면 해요.”

한민족의 국어 다시 말해 남한의 언어, 통일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룩한 것은 남한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것이 남한의 것으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국어까지... 언어만큼은 북한의 언어, 우리의 말이 살아있는 순수한 한민족 언어로 통일되었으면 했던 나의 바람은 그냥 작은 희망이었나 봅니다.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수학여행 장소를 고르던 아이들이 다 결정했나봅니다.

“우리 북쪽으로 여행가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통일된 후에도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아직 북쪽에 가 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을 거쳐서 금강산, 백두산까지 북쪽을 여행할 원대한 계획을 세운 아이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진실이가 일어나서 친구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동무들, 우리 마을가서 내 동무들과 함께 놀자. 꼭!”

희망찬 진실이의 말에 우리 모두 함박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한반도. 4년 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섬' 국가였습니다. 한반도라고 자랑하였지만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상 우리 남한은 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서로 교류를 하여 큰 발전을 이룬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와 배를 통하여 교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육로보다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당당한 '신조선'으로서 육로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해 나가는 신조선의 모습은 이미 예정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들뜬 얼굴, 힘찬 발걸음입니다. 광주에서 출발해 평양을 지나고 금강산 여행을 마친 우리는 백두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평양까지 한번에 올라오니 정말 빠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코스 백두산을 올라가 보아요.”

힘들지만 정상에서 중국 만주별관을 바라보고 싶다는 아이들은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세희 동무, 안녕!”

숨을 헹헹 거리며 올라가던 진실이와 은실이가 한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온 친구 김세희였습니다. 같이 광주로 이주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함께 내려오지 못한 친구 세희, 세희는 통일이 되고 나서 날이 발전하는 평양 모습을 자랑합니다.

“어제는 우리 집 옆에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글썽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

모두들 세희의 이야기에 폭 빠진 사이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선생님요. 저기로?”

세희의 안내에 따라간 곳에서 우리는 만주별관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육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힘껏 소리도 질러보고 이곳저곳 둘러보고 나서 평양

시내를 구경하였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나오는 평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내 못지않게 발전해 있는 평양시내는 누가 북한사람이고 남한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나 봅니다. 말부터 행동, 양식까지 어느 것 하나에 맞추려하지 않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여도 하나같이 보이는 것은 한민족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2010년 6월 15일, '신조선'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된 후 신조선에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한 많은 인내심과 노력 말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만주별판을 보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분단된 국가가 아닌 하나의 한반도를 가진 나라로서 세계의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광주에서 서울을 건너 평양을 지나 금강산, 백두산을 넘어 만주별판으로 그리고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말입니다.





## 다시 하나가 된 두 조각

국제고 2  
이인애

1950년 6월 25일,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옛날부터 한 민족을 강조하며 함께 살아온 모습은 사라지고 분단이라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한 나라에 두 이념이 존재하고, 같은 민족끼리 왕래도 못하고 눈앞에 둔 고향을 가지 못하는 슬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비극은 이산가족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낳았다. 50년이 넘도록 가족을 보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셨던 분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다.

할아버지께서는 16살 때인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오셨다고 하셨다. 다른 가족은 나중에 간다고 하여 할아버지의 삼촌과 단 둘이서만 오신 것이다. 세월이 지나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 오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고 계속 메아리치셨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때에는 얼마나 좋으셨던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때의 신문기사가 할아버지의 서재에 붙여져 있다. 이산가족 상봉 때에는 텔레비전을 보시며 우셨었다. 바로 그런 고통을 내가 옆에서 보며 커왔으니 모든 고통을 알 수는 없었지만 약간은 알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겪으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아주 큰 상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우리나라 해방 당시에 자주적으로 즉,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광복을 했었다더라면 이런 비극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독일 또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됐었지만 다시 통일이 되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다. 공동체 생활을 해오며 아름다운 풍습을 이루며 생활해왔던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시간이 지나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북쪽의 아이들이 남쪽에 와서 공연을 했던 모습은 지금까지 계속 머리에 남아있다. 북쪽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색달랐다. 그러나 우리 남쪽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 같은 민족인데도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다. 친근감, 동질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 가까워지고 싶었다. 다같이 하나가 되어 거리감 없이 지내고 싶었다.

50년 만에 만난 가족을 부둥켜안으며 슬프게 울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산가족 상봉 직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었다.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아니 분단이란 게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마음속에 한을 품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통일 하나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찢어진 종이를 붙이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을 맞추듯이 차근차근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주기도 하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분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차이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더 좋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어간다면 통일된 우리나라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인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세계에도 평화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 옛 조상들의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이루며 계승해 나가면서 남과 북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져 하나가 될 것이다.





# 하나된 한반도를 꿈꾸며

광주서초 6  
김민지

지난 겨울방학에 난 보훈캠프에 참가하여 소중한 경험을 했었다. 솔직히 난 보훈캠프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통일에 반대했었다. 반대 이유로는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문화가 달라 언어적 차이로 의사소통 일 잘 되지 않고 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마찰이 빚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훈캠프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리며 싸우신 애국선열에 대해 배우고 나니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스러워졌다. 우리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애국선열들이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슬퍼할까? 생각하니 통일을 반대하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남북 평화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번 현충일에 TV에서 특선 영화로 'The 간 큰 가족'이란 영화를 보았는데 이산가족이 상봉하여 서로 부둥켜안고 펄펄 우는 모습이 너무 서러웠다. 영화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것이고 더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프다.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는 가장 행복해 질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먼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물이나 '통일신문' 등을 발행하고 북한과 서로 문화교류를 하여 문화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나란히 입장을 하고 평양의 예술 공연단은 서울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남한의 가수들은 북에 가서 공연을 펼쳤다. 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직접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의 가족 중에는 이산가족이 없지만 TV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안타깝고 슬펐다. 북한의 식량 부족난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남북 알아맞히기 대회' 같은 방송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된다면 휴전선이 사라지게 되고, 비무장지대는 천연의 생태공원으로써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국내외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산가족들은 자유로이 만나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막대한 국방비를 절감해서 신약 개발 첨단 과학,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여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월드컵 대회에서도 성적이 더욱 향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남북한이 함께 영화·음악을 제작발표하고, 학술, 기술, 정보 등을 교환하여 함께 번영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가슴깊이 외쳐본다.

“하나 된 한반도를 꿈꾸며…”



## 평화통일

대성여중 3  
최혜림

**행인**은 햇볕이 너무 강하게 쬐자, 옷을 다 벗으려 했다. 그러나 몸매가 엉망이었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워 그의 코트 단추만 풀었다.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행인은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바람이 남자가 코트를 벗으려 하는 것을 보고 이 햇빛 쬐는 가운데 자기가 조금만 불어주면 다 벗을 거란 생각에 바람을 불었다. 하지만 이는 더 역효과를 불러와 행인은 집에 들어가 버리려 했다.

2000년 6월 15일, 당시 10살이었던 나는 뉴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싸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는 줄 알고 떨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너무 자라버린 건지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의 햇볕정책에 구름이 드리워진 건지, 통일이란 단어가 어느새 멀어져 버린 것 같다. 물론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적교류는 17만 명을 넘어섰고, 개성공단의 운영과 함께 교역액도 10억 달러를 돌파한 지도 오래다. 그러나 이제는 광주 시내에서 '휘파람' 노래를 듣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껴안는 모습을 본 지도 오래되었다. 한민족의 관계가 왜 신뢰를 바탕으로 두지 못하고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는 것일까? 전에 열차운행 사건만 해도 그렇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열차 시험운행을 '군사적 보장조치와 남한의 불안정한 정세'를 트집 잡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 내막에는 북한

의 ‘안 좋은 몸매’와 ‘햇볕에 대한 신뢰 부족’이 원인이 된 듯하다. 또한 이는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경제적 도움을 무기삼아 부분 대립하는 모습까지 만들어 냈다. 6·15공동선언 6주년을 맞은 지금 나는 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15공동선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통일을 인정하고 연합국 2체제로 이끌어 나가자.’ 이것이야말로 두 나라가 어느 쪽에도 흡수되지도, 얹고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이루려면 한반도 간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된다. 인적·물적 교류만이 아닌 문화교류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노래, 같은 사람에 열광하고 같은 리듬에 맞추어 춤출 수 있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찬가? 하지만 이리기에는 서로 이해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감싸안고 어루만져줘야 할 이유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변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세계의 강대국들 속에 끼어 그들의 전쟁터가 되어 왔던 불운한 한반도, 국제정세는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며 자국의 실리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의 이기주의를 깨고 하나 된 한반도뿐만 아니라, 하나 된 지구촌이 되기를 나는, 내 친구들은, 가슴 아픈 이산가족들은, 세계의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심장은 간절히,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두 글자만으로도 가슴에 위안이 되는 평화와 통일이란 단어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쉴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 통일의 등불

수피아여고 1  
이지민

지울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내일이면 잊겠지..., 이제는 지워지겠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이제 50여 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여전히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슴속에 맺혀두었습니다.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져 한나라가 두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것처럼, 담을 쌓아두고 사는 것처럼 정과 인심이 사라지고 점점 심해져가는 가난과 폐허가 된 나라를 돌보느라,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백발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전쟁으로 몸을 다친 사람들도,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사람들도 그렇게 전쟁을 원망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묵묵히 그리워할 뿐입니다.

모두가 분단된 나라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그리움을 알아주진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웅장한 기상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의 모진 세월에서 독립을 한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이라는 뼈저린 아픔과 상처로 민족 간의 전쟁으로 두 번째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한 민족이라는 우리의 강한 믿음과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 나라라는 것을 표하기에는 역부족인 걸까요? 분단된 나라 안에서 가족을 그리워

하는 이산가족들은 뭐가 그렇게 문제나며, 언성을 높이며, 당장이라도 3·8선을 걸어 헤치고 북한으로 가서 흩어진 가족들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야 평화적 통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일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간절하게 통일을 원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만 싶은 여고생의 통일염원은 작은 등불에 지나치지 않겠지요, 우리 모두가 통일의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부터 생각하게 되고,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정부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 진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통일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서 사는 것 역시 힘들겠지만, 우리의 작은 등불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통일의 햇불을 밝힐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등불을 밝히며 통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등불은 사회적, 경제적, 두 나라의 문화차이 극복 등으로 무겁기만 하고 그 등불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통일염원의 등불을 밝히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별 문제없이 통일을 단순한 나라합병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평화적이고, 정신적인 통일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땅의 달콤한 단비와 같은 존재이고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만큼이나 상쾌하고 시원한 존재이니까요.

이번 2006년 월드컵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태극전사를 응원하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이른가 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과 토고의 첫 경기 때 아마 북한동포들도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많은 응원과 용기를 아낌없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고 이미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통일을 기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우리의 한반도 허리에는 거칠고 매서운 철조망 대신 아름답고 어여쁜 무궁화와 목란으로 수놓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과 남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통일을 원하고 있듯이 17살 여고생의 작은 등불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자랑스럽게 밝히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06

- 나는 통일전망대 전속 모델 ...149
- 망각의 선물 ...152
- 통일, 우리의 몫이다 ...156
- 도라산역을 아시나요? ...159
- 사랑으로 피우는 염원의 꽃 ...162
- 찢개어진 배는 뜰 수 없다 ...165
- 북한 미술품 속에 그려진 한마음 ...168
- 온 가족이 만날 날을 기다리며 ...171
- 제약 없는 금강산 여행을 바라며 ...174





# 나는 통일전망대 전속모델

현암초 6  
황호성

몇 년 전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가족은 동해를 찾았다. 동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통일전망대를 돌아온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군데군데 철조망을 쳐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아름다운 경치가 있음에도 보기에 안 좋았다.

강릉에서 이틀을 보내고 통일전망대로 갔는데 실수로 그만 옷을 버렸고 어머니께서는 기념품 가게에서 하얀 티셔츠를 사서 입혀주셨다. 가슴에 통일전망대라고 크게 쓰여 있어서 좀 쑥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옷이 숙소에 있어서 갈아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셔츠를 입고 통일전망대에서 아버지를 따라 동전을 넣고 망원경으로 북한 땅이라는 곳을 바라보았다.

많은 관광객들도 북한 땅을 향해 서서 북녘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북쪽 땅을 망원경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볼 것도 별로 없었다. 먼저 다녀온 정동진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고 경포대처럼 큰 소나무도 없이 산도 아름답지 않은 통일전망대가 왜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실망한 내 표정을 읽으신 아버지께서는

“저곳이 북한 땅이란다. 우리 땅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로도 가슴이 아픈데 북한이 고향이거나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저렇게 가까이 에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하니 얼마나 슬프겠느냐? 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하시며 말끝을 흐리셨다.

나도 덩달아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 떠오르지 않았다.

전망대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목에 사진을 건 사진사 할아버지가 자꾸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졸라대셔서 아빠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한 장 찍기로 하였다.

북한 바닷가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보이는 즉석 사진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통일전망대를 떠나왔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다.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일부러 올라오셔서 계모임에서 통일전망대에 갔었는데 우리 가족사진이 통일전망대에 확대돼서 걸려있더라는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즉석사진 한 장만 찍었는데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온 사진 속의 인물은 우리 가족이 틀림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입은 티셔츠에 통일전망대라고 쓰여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은 통일전망대 전속모델이니까 통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겠네.” 하시며 웃으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발발된 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으며, 국토가 반으로 나뉘어져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민족의 숙제로 남아 있다.

통일로 가는 자세에 대한 공부를 하며 우리는 서로 화합이 필요하며 북한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도와주고 평화유지에 앞장서며, 북한에 대하여 많이 알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막연하고도 좀 어려웠었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생

각해 보았다.

그것은 우선, 예의 바르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몸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공부 잘 하는 것, 지난 해처럼 영어연극대회에서 1등도 하고,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 등을 우선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 국력을 키워간다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말이다.

부모님을 졸라 이번 여름방학 때는 다시 한번 통일전망대에 가봐야겠다.

나는 지금 6학년이고 코밑에 조금씩 수염도 나고 있다.

통일전망대 전속모델이 된 우리 가족사진을 보고 오면 통일에 대한 각오가 더 생길 것 같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도 더 많이 깨달을 것 같다.





## 망각의 선물

대화중 2  
이 레

“큰아빠! 정말 가실 거예요? 아직 몸도 완전치 않으신데요.”

봄 전 큰아버지께서 북한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적잖이 놀랐다.

북한 이야기만 나와도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흥분하시던 큰아버지께서 3일 밤낮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물바다가 된 평양에 수해복구 팀으로 가시겠다고! 더군다나 큰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걱정이 되었다. 지난해 봄, 중장비 제작회사에 근무하시던 큰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셨다. 삼십년 장기근속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베테랑이었지만 제품 출하를 앞두고 점검을 위해 크레인에 올라간 사이 신입사원이 이동 스위치를 작동하는 바람에 추락 사고를 당하신 것이다.

의사선생님은 안전모를 쓰신 덕분에 특별한 상처는 없으나 머리의 충격 때문인지 기억력이 손상 되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정말이었다. 큰아버지께서는 나도, 형도, 심지어 큰엄마까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 날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큰아버지께 세상살이와 삶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일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았고 갓난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썼고 큰아버지 눈에 비쳐지는 세상살이와 우리가 커가는 모습이 실망스럽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행히 큰아버지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하나하나 터득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현실은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고지식하고 성격이 불같았던 큰아버지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는데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 씀하실 땐 고마움과 감사함이 묻어나왔다. 가끔 흐뭇하신 얼굴로 지그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들이 내 아들과 조카라는 사실이 무척 대견스럽고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난날 큰아버지와 있었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이어졌던 사촌형의 가출 사건까지도 우리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가슴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맛보았다.

사실 사고 전의 큰아버지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으셨다. 반공단체의 열성회원이신 큰아버지는 정부의 북한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화를 내시며 반대하는 시위에 적극 가담하셨다. 참여 정부에서조차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이어지는 남북대화와 계속되는 민간교류, 북한 지원 정책은 큰아버지에겐 참기 힘든 상황이었다.

“도대체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우리 국민들은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실업자의 증가와 극한 양극 대립이라는 사회위기 속에서 노숙자가 넘쳐나는 마당에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나 알아?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적화통일 한다는 놈들이야!”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로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사람은 대학생인 사촌형이었다.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며 비교적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촌형은 큰아버지의 부정적인 비판에 가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버지! 북한이 계속 곤경에 처하면 이판사판으로 전쟁을 일으킬지 몰

라요! 지금 북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씩 도와주면서 대화노력을 하다 보면 저들도 곧 개방을 할 것이고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될 텐데. 지금의 햇볕정책이 앞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게 될 거예요.”

“아! 이놈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배웠다든 젊은 것들이 저러니 큰일이 다 큰일…, 지금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다 전쟁 준비시켜 주는 거야!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온 나라를 북한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놈아!”

성격이 불같은 큰아버지의 욕설에 더 이상 사촌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가 버리곤 하였다.

통일문제와 기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두고 지역 간, 세대 간, 또는 빈부 간에는 남남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 집안에서 겪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고 전, 큰아버지께서 기억을 잃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모두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큰아버지의 불만과 불평이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켰고 결국 사촌형은 가출을 해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큰아버지를 부정적이며 적대감과 증오심 가득한 삶으로 살게 했을까?

가끔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은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가 총상을 입고 불구가 되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어렸을 적 그 일로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없이 어린 동생인 우리 아빠와 함께 세상을 힘겹게 살아오신 큰아버지의 북한 공산군에 대한 증오심이 큰아버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나 사고 후 완전히 달라진 큰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대화가 있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실감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사고 후 3개월이 지나 외형상으로 건강한 큰아버지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가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큰아버지는 사고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하시면서도 증장비에 관한 지식은 모두 알고 운전까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마 삼십 년 동안 해온 일이기에 본능적으로 몸에 터득된 것 같다. 그 후 회사의 배려로 다시 조심스럽게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큰아버지는 이전의 비판적 말투와 부정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겸손한 태도와 긍정적인 언행으로 동료들과 상급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폭우로 인한 대동강 범람이라는 사상 초유의 평양 수해 복구를 위해 북한에서 요구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 그리고 기술전수를 위해 기술자를 요청해 왔을 때 회사에서 큰아버지를 적극 추천한 것만 보아도 달라진 큰아버지의 모습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 가신지 삼일이면 돌아오신다는 큰아버지께서 그동안 적십자 단체에서 자원 봉사까지 하시고 보름 만에 집에 돌아오신다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큰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큰아버지께서는 보름 동안의 북한지원 수해복구를 통해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을까? 설사 예전의 기억이 되돌아오실지라도 6·25 전쟁이 끝난 지 오십 년이 훌쩍 넘은 과거사에 얽매었던 지난 일들을 잊으시고 지금 굶고 있는 배고픔에 동포와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지역 주민들 속에서 적대감도, 증오심도 벗어던지고 평화통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간교류와 정부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큰아버지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통일, 우리의 몫이다!

만년고 1  
양세영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강인한 생활의지와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산업의 발전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하였고, 우리들은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슴속에 남아 있는 큰 과제가 있다. 그건 바로 한민족의 통일이다.

매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금강산 체험과 대북 물자 교류 등을 통해 북한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관련된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고, 1년 후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하여,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전면으로 부각되어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산가족들을 들 수 있다.

1945년의 8·15광복과 1950년 6·25 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산가족은 1953년 이후에도 계속된 남·월북, 탈북으로 그 수는 증가하여 현재는 123만 명에 달한다.

인간에게 있어 피붙이와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만큼의 큰 고통은 없다.

북에, 또는 남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남북 간 화해협력의 상징이다. 헤어진 가족들이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산 1세대들의 노령화와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산가족들을 귀찮은 골칫거리로만 생각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누려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국방비 문제이다. 해마다 국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통일이 되면, 휴전선의 군대를 해산시켜, 국방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방비를 교육이나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자원 활용을 위해서이다. 북한에는 많은 지하자원은 있지만, 공업기술이 낙후하여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남한에는 자원은 풍부하지 않지만 공업기술과 자본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탈냉전, 화해협력의 시대로 되어가고 있으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고도가 남아있다. 한반도가 통일될 때, 전후 50년 동안 지속하여온 냉전체제는 비로소 완전히 청산된다.

넷째, 대륙으로의 진출에서 육로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쉽게 진출할 수 있어 수출입에 대한 물류비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점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일국가가 되면, 국토는 22만km<sup>2</sup>로 영국, 루마니아와 비슷한 세계 38위이고, 인구는 7천여 만 명으로 세계 12~13위가 된다. 또, 국토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세계 5~10위 권내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스포츠에서도 세계 5~6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통일국가가 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기나 국가, 나라의 꽃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며, 표준어의 기준과 화폐의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북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북한과의 통일은 한국에게 피해만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대북 물자 수송이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기아위협에 직면한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남북화해를 위한 평화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믿음과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더욱더 나아가, 북한 학생 돕기와 같은 통일 행사에 참가하는 등,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통일의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민족 통일 의 모습인 것이다. 1989년 서독과 동독을 지켜보더라도 결국 독일통일의 주체는 통일비용을 기꺼이 분담하고 정부를 총력 지원해준 국민이자 민중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사실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동북아의 불안감 해소와 평화의 완충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는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의 비원인 통일은 결코 다른 국가의 힘에 의해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이뤄져서도 안 된다. 이걸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남북의 민중들이 하나 되어, 노력해 나아간다면 한반도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 도라산역을 아시나요?

새일초 5  
김소현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목적지는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젊은 시절 군대 생활을 하셨다는 파주, 문산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최전방에서 북한땅을 바라보시며 군대 생활을 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마치 그곳에 이미 가본 것처럼 임진각, 도라산역 등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 나들이는 더욱 설렘니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문산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먼 거리였지만 벌써부터 들뜬 마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산에서 또 버스를 타고 임진각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임진각은 실향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려서인지 나는 아직 실향민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자유의 다리 너머로 보이는 북한땅을 바라보니 야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인데 갈 수 없다니! 나의 고향이 만약 북한인데, 남한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 갈 수 없다면, 그래서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없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향민의 마음이었겠죠?

TV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도 보았고, 남북 회담을 하는 장면도 보았지만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가까이 보이는 북한땅을 바라보니 이제야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임진각에서 도라산역으로 갈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라산역으로 가는 버스는 아무나 탈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까운 만큼 경계가 심했습니다. 무장한 군인 아저씨들이 버스에 들어오셔서 신분증 검사도 하시고 곳곳에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도 이렇게 경계를 서야 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라산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설명해주는 가이드 아저씨도 계셨는데 웬지 외국인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분단국가에 단지 관광을 위해 왔겠지만, 정말 이산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나라를 흥분 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관광버스를 탄 외국인을 만났더라면 자랑스럽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단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라산역에 도착을 하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작고 아담한 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까지는 55.7km인데, 개성까지는 14.2km! 개성까지 정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도라산역 선로 위의 빨간 정지 표지판은, 남에서 북으로 가고 싶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잔인하게 둘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가이드 아저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철길을 따라 계속 간다면 신의주까지 갈 수 있고, 또 며칠 밤낮을 계속 달린다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비행기를 안 타고도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난 벌써 유럽에 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라산역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라는 전광판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도라산역이 마지막 역이라는 생각으로 정지 팻말에 막혀 우리가 북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도라산역을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또 이곳을 찾는 날, 북으로 신의주를 거쳐, 한 발 더 나아가서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문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았는데,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내동생과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동생과 나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수상

## 사랑으로 피우는 염원의 꽃

탄방중 2  
원 다연

“대~한민국, 짹~ 짹~ 짹! 지금 전국은 축구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다. 붉은 옷을 입고 전국 곳곳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구호는 6월을 뜨겁게 달군다. 그런데 6월을 열정의 붉은 색으로 떠올리게 된 것은 불과 4년 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고 난 후의 일이라고 한다. 그 전까지 6월은 암흑의 달이며, 공포의 달이고, 슬픔의 달이었다. 6·25라는 민족의 비극이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또 붉은색이 상징하는 의미도 달랐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붉은색으로 떠올렸고 ‘빨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북한을 적이 아닌 이웃이고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붉은색은 ‘단결, 화합,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나의 바람이 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6월을 통일의 달로 기억될 수 있을까?

얼마 전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 있었다. 식물을 키우며 떠올린 생각이다. 꽃집 앞을 지나는데 키 작은 식물 하나가 내 걸음을 붙들었다. 눈썹이 화분이 닿을 만큼 몸을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니 주인이 나와서는 말을 건네 왔다.

“사랑초예요. 이름도 예쁘죠? 사랑만 주면 꽃으로 보답하는 식물이지요.”

그 말에 나는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2,000원을 꺼내어 우리 집 베란다로 화분의 자리를 옮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 나는 ‘사랑만 주면’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다. ‘사랑’을 화분에 주는 물의 양과 비례한다고 생



각한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며 듬뿍 물을 주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축 늘어져버린 화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등 뒤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지. 적당히 줘야지.”

나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사랑초가 몸살을 앓았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 다행이도 기운을 회복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이 오면서 나는 시험공부에 신경 쓰느라 몇 주 동안 사랑초를 들여다보지 못했다. 아니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다 말라 죽었네.”

동생 창연이의 목소리에 번쩍 눈이 떠진 나는 베란다로 뛰어갔다. 사랑초는 갈색으로 몸 전체가 빛바랜 채 바짝 야위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그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죽어 갔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사랑초는 가르침을 주려고 나와 짧은 인연을 맺었던 것 같다.

‘사랑은 지나치면 깊은 곳, 뿌리부터 썩어 버리고, 사랑이 부족하면 되돌리기 힘든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

‘통일’. 이 낱말을 대할 때면 사랑초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든다. 지나치게 서로에게 간섭을 하고 개입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오히려 뒷걸음을 칠 수 있다. 반면에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문화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멀어지면서 영원히 등 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조율을 통해 벌어진 거리를 좁히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화해와 단결’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의 뜨겁고 가슴 저린 역사를 만들어 냈고, 반세기 만에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 냈다.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용천의 열차 폭발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작년 5월 28일에도 파키오니아 코나가 비료 5천 50톤을 싣고 북한의 지원을 돕기 위해 전북 군산항에서 북한으로 항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식

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해 오는 일에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여론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게 그렇게 인심 쓸 필요는 없다. 또 우리가 보낸 물자가 가난한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특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 동포인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바라볼 일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우리 경제도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을 지원할 때 반세기 동안 담아 놓았던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내준 식량과 비료, 의약품이 서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다리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나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당장 손해가 되는 일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가이며,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인 것이다. 서로 상처 내기에 앞장섰던 과거를 씻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근차근 마음을 열어주고 만남을 유지해 간다면 통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차곡차곡 사랑과 관심을 받아먹고 자란 사랑초가 예쁜 꽃을 피우듯, 우리 한반도에도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빌어본다.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로 새로 산 사랑초가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게 바른 사랑을 주어야겠다.

통일을 생각하면서...



# 쪼개어진 배는 뜰 수 없다

대전여정보고 3  
오희영

어렵פות이 옛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기 전 부모님께서 맞벌이하신 탓에 동생과 둘이서 집을 볼 때가 많았다. 집 앞에서 작은 천(川)이 있어 동생과 자주 그곳에 나가 패트병에 개미를 잡으며 놀거나, 바람에 휘날리는 전단지를 주워 종이배를 만들어 띄우며 놀았다. 언제나와 같이 동생과 난 집 앞 천에 나가 전단지를 주워 종이배를 접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호기심이 들었다. 이 종이배는 종이라서 뜨는 것일까? 아니면 종이배의 구조가 물 위에 뜨게 하는 어떤 구실을 하는 걸까? 호기심을 풀기위해서 종이배를 만든 후 반으로 찢어서 띄워보았다. 처음에는 반쪽뿐인 종이배가 잘 뜨는 듯싶더니 서서히 기울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모든 사물은 반으로 쪼개지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때 난 깨달았다. 종이배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도 반으로 쪼개지면 온전치 않을 것이다. 분명히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었던 남북 분단도 예외일 수 없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불신과 대립을 이루었고, 모두 국내외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권위주의적이고 사회동원을 강조하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에서 민족 문화를 꽃피워 온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가져왔다. 민족적 차원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적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가? 한반도에는 국민총생산액 GDP의

60~70%가 국방비를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한을 치기 위함이다. 이 많은 비용 중 우리나라가 지불하는 비용이 5~10%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부 지원 비용이 3%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재력을 더 나은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 시대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따라서 그들이 민족, 동포 이렇게 외치는 것은 계략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 자신들의 이념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6·25 전쟁을 일으켜 남한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참히 말살시켰다. 북한에는 지금도 굶고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조차도 쌀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나라의 국민보다 공산체제를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원조해주는 식량들로 하여금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족 공동체로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 경향들도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체제 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체제 붕괴론적 입장인데, 우선 체제 안정론적 입장은 철저한 지배자의 절대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체제 붕괴론적 입장은 나라에 대한 불신, 계급갈등, 식량문제, 탈북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변수를 붕괴의 조짐으로 온 것이다. 체제 안정론은 체제 붕괴론과 절충되어서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기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라 정치권력의 사회적 성격

과 유지 존속의 방식도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북한 정치 권력의 성격, 유지 존속의 방식이 변화할 때까지 앞을 멀리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둘째, 통일이 된 후의 불편한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통일에 대하여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가 통일이 된 후 불편한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천 년 전부터 하나라는 의식 아래 살아온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처음에 조화를 이루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더욱 강인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잠시 동안의 불편함으로 인해 장기간의 단절은 오랜 시간 뒤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셋째,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이며, 하나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당면해 있는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통일 의식, 통일의지를 지녀야 한다.

넷째, 북한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지만 우리와는 매우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의 문화, 관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방비로 사용되는 생산액 감소, 무기의 수입 감소는 물론 수출이 증가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관광산업의 발달 등이 있다. 이처럼 통일 문제에 가져야 할 우리들의 자세로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다보면 일이 더 꼬여 통일에 다가가기는커녕 한 발짝 물러나게 될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가다보면 통일이 되기 전 문제점을 바로 잡고, 통일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민족, 한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산, 금강산을 어떠한 정해진 날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 왔으면 좋겠다.



# 북한 미술품 속에 그려진 한마음

중앙초 6  
신 보 라

지난 5월 20일, 토요일이었다. 나는 '선화기독교 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북한 미술품전'에 다녀왔다. 북한의 작품을 보며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열려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는데 그 길이 무척이나 상쾌하였다. 문득 북한 작품은 어떤 미술품일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더 해져만 갔다. 북한 작품이 더 기대되었다.

버스에서 내려 상큼한 풀 냄새가 나는 길을 지나 미술관에 도착하였다. 미술관이라면 넓을 줄 알았는데 전시관은 좁은 한 칸뿐이었고 전시물은 스물두 점의 작품뿐이어서 규모 면에서 조금은 실망을 하였지만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내용이 우리나라의 옛날 미술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둘러보니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더 정성을 들인 것 같은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백두산 천지'였다. 천지 연못의 하얀 물결을 하나하나 직접 수놓은 것이 보기에 정성이 가득 들어 보였다.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연의 하얀 물결 사이로 찬란한 은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흰 눈이 가득 쌓인 백두산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말고도 나의 눈에 띈 작품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그 작품의 배경에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하계 올

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과 북한 대표 선수단이 한마음으로 뽀뽀 뽀뽀  
쳐서 외쳤던 ‘우리는~ 짹!', 하나다~ 짹!', ‘조국~ 짹!, 통일~ 짹!’  
이라는 응원구호와 흡사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 민족이 주변 국가들의 외세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분단은 되었  
지만 북한도 조국 통일을 바라는 속마음은 서로 한마음이었다.’는 생각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다음으로 ‘독립운동’이라는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 작품에는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남북이 서로 한마음으로 뽀뽀 뽀뽀  
쳐서 독립운동을 한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 나는 그 작품을 보며 남한과 북한  
이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아, 드디어 통일이 왔습  
니다! 고대하며 기다렸던 평화통일이요!’라고 한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날  
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술 작품 감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선생님, 저희들 집에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하셨죠?”라고 말을 하  
였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맞아! 약속했었지. 그럼 우리 지하철역 중에서도 제일 멋진 대전 시청역  
에서 타고 갈까?”

“네,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잠시 후에 대전 시청역에 도착하여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 가는데, 아래에서 은은한 멜로  
디가 들려 왔다.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 고등학생 언니들 이십여 명이  
바이올린과 첼로로 협주곡 ‘유모레스크’를 연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연  
주를 모두 듣고 지하철 타는 곳으로 향했다.

지난 3월에 개통된 대전 지하철 시청역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꿈의 궁전처럼 멋지게 꾸며진 대전 시청역에서 우리는 판암행 지하철을 탔  
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께

“선생님,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나요?”하고 여쭙보았다. 그러자 한 친구  
가 말하였다.

“어떻게 북한에 지하철이 있겠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와 친구가 이런 말을 주고받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단다. 1호선과 2호선 밖에 없지만 말이야. 선생님이 북한 지하철 사진 보여줄까?” “네!” 하고 나와 친구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선생님께서서는 가방에서 ‘넌 평양, 난 대전!’이란 엽서 중에서 북한 지하철 사진을 한 장 꺼내서 보여 주셨다. 북한 지하철의 천정에는 무지개 같은 반원 모양의 형광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멋있어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미술관에서 나누어 준 팸플릿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이번 전시회에서 내가 느낀 점을 말해주는 듯한 글이 있었다. 그 글은 바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민족은 하나다!’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말이었다.

그 글을 읽고나니 나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비록 미술품 속에 그려진 한마음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예술품을 통해서 부터라도 한마음을 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보람있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북한 미술품’ 속에 그려진 한마음의 말이 내 귓가에서 메아리치며 들려왔다.

‘우리는 하나다!’





## 온 가족이 만날 날을 기다리며

호수돈여중 3  
정혜원

‘이산가족’이라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유는 나의 둘째, 셋째 작은할아버지들께서 북에 계시기 때문이다.

2000년도, 50여 년만의 만남이라 하여 남북 제1차 이산가족 상봉 때에는 텔레비전만 틀면 어느 채널이든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라든지, 가족들의 인터뷰 장면 등 이산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로만 방송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 또한 이산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외증조할머니, 할아버지, 고모할머니들께서는 제 1차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셨다.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북에는 둘째, 셋째 작은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둘째 할아버지의 생사는 확인이 되었으나, 셋째 작은할아버지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증조할머니는 아들을 만나실 생각에 들떠 계셨으나, 셋째 아들의 생사가 확실치 않아, 걱정을 하시며 만남의 날만 손을 세어 가시며, 지내시곤 하셨다. 상봉의 날 약 한달 전부터 강경 외갓집에서는 여러 방송국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 KBS 기자분들은 우리 가족만 계속 따라다니며 우리 가족에 대해서만 취재를 하곤 했다. 덕분에 나도 뉴스, 신문 등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많은 인터뷰를 해가며 방송을 타곤 했다.

남쪽에서 북에서 오는 가족을 맞을 경우, 행사장 안에서는 가족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적으로 가족과의 만남에서는 가족 수가 정해져 있

지 않아, 우리 엄마께서는 직접 플랜카드를 만드셔서 우리 가족과 서울에 사는 사촌언니, 오빠들은 만남의 장소인 위커킬호텔에 찾아갔다. 마침 북에서 오신 손님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오시는 길이라고 하여, 호텔 정문에 나를 비롯한 사촌언니, 오빠들은 작은할아버지를 환영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가 다른 가족들보다 뒤다 보니, 많은 기자들의 인터뷰 대상이 되곤 하였다. 북의 손님들을 태운 단체버스가 도착하고, 많은 북한 사람들이 가슴에 북한 국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새겨진 배지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 달고서,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다. 어렸을 적 북한 사람들은 모두 무섭게 생겼고, 매우 무뚝뚝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나에게 나의 눈앞을 하나 둘씩 지나가는 북한 사람들은 그런 나의 고정관념을 한번에 깨기 시작했다. 비록 웃음은 북쪽에서 가르쳐준 교육으로 예의상 지었는지 몰라도 원래의 선한 모습은 속일 수 없지 않은가? 어린 나이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매우 반가운 손길로 흔들고 있었다.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작은할아버지이셨다. 다 나이가 어린 우리들을 향해 지어 주시는 환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은 외갓집에 놀러오는 손자, 손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영락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엄마, 아빠, 이모 등 어른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고는 다시 호텔 안으로 향하셨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실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날, 이제 버스를 타시고 공항으로 가셔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호텔에서 손님들의 짐 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짐을 다 싸신 분들은 버스에 짐을 싣기 위해 한 분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하셨고, 경찰 아저씨들은 북으로 가는 가족을 보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찰 아저씨들께서 서로 손을 잡고 가족들을 둘러쌌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경찰 아저씨들의 양해를 구해, 경찰 아저씨들 사이로 할아버지께서 들어 오셔서 어쩌면 두 번 다시는 찍지 못할 가족사진을 찍었다. 연세가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께서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시고, 두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눈물만

흘리시곤 했다. 마지막까지 경찰 아저씨들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아버지는 우릴 향해 손을 흔드셨고 밝은 웃음을 띄어주셨다. 나는 어린 나이에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남북통일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친구들과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통일을 바라는 아이들이 다수였지만 통일을 적극 반대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던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친구들의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돕는 일이 많은데,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일을 하고 서로 같이 돕고 격려하면서 공존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비록 상봉 후 2년이 흐른 어느 날 할머니는 어쩌면 두 아들이 잘 보일지도 모르는 하늘로의 여행을 시작하셨지만, 치매로 항상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지만 아들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치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흔이 넘은 할머니의 흥겨운 춤사위를 볼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림기도 하고, 적십자사의 고마움이 가득하여 할머니의 여행을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었다.

외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는 헤어지면서 서로 시계를 교환하며, 돈독한 우애를 자랑했다. 다행히 북에 있는 작은할아버지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고 집도 가까이 있어 자주 만난다고 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한 분은 대학교 교수로 다른 한 분은 통신사 기자로 근무하신다고 하시니 두 분 다 성공하신 게 아닌가?

앞으로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통일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 제약 없는 금강산 여행을 바라며

동방여고 2  
이정인

**우와!** 올해 들어서 부쩍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무얼 하면서 보냈는지 모르게 벌써 5월이다.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확정이 되고나서 제주도가 아닌 실망 반, 북한이라는 설렘 반으로 언제쯤에야 6월이 올까 기다렸는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북한에 가는데도 정식 여권은 아니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임시 '여권'이라는 것을 발급 받기 위한 여권사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도 뭐 우리나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권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참 싱숭생숭했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분단의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와 닿았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어서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껴지던 곳이 갑자기 확 멀어져 버린 순간이기도 했다.

게다가 여권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것, 핸드폰이나 라디오 등 그 외의 몇 가지 소지품에서도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나에게서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의 먼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안타까우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이산가

족 상봉이나 정상회담에 대해서 뉴스나 신문에 나올 때마다 항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하신다. 그리고 아빠는 개천군청년회라는 북한 출신 제 2세대들의 모임을 갖고 계신다. 모임을 가지실 때마다 북한에 대한 여러 말씀들도 함께 나누시고 북한에서 들여온 술 등을 접하시면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고향을 꿈에서도 그리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여행이니 백두산 여행이니 하는 것을 선뜻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셨는데 내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니 나보다도 아버지께서 더욱 반가워하셨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당신께서 가보는 대신 내가 가본다고 말이다. 극히 제한된 금강산에 다녀오는 건데 뭘 그리시나..., 하면서도 웬지 모를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참 아팠다. 북한이 많이 개방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북한 여행으로라도 위안을 삼으려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남북분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꺼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많이 어렸을 때지만 1996년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 있던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던 날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로써 우리나라는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이면서도 둘로 나뉘어져 여행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게다가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자발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서독과 합의한 평화적 통일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독일이 한없이 부러워진다.

이번 여행은 통일 한국의 금강산이 아니라 북한의 금강산 여행이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여권사진을 찍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번 금강산 여행은 여권도 필요 없고 제약도 없는 자유로운..., 그런 우리나라 통일 한국의 금강산 여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 울산광역시

07

- 할아버지의 손가락 ...179
- 기와집 할아버지 이야기 ...181
- '송환'을 넘어서 '통일'로 ...185
-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188
-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190
- 할아버지의 눈물 ...193
- 외할아버지 어깨의 총 자국 ...195
- 우리들의 숙제 ...197
- 우리는 가족입니다 ...200







# 할아버지의 손가락

연암초 6  
이민희

“이제 떠칠 후면 남과 북이 한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50년 만에 남북철도가 이어진다면 떠들썩했다. 덩달아 내 마음도 떠들썩해졌다.

6·25 전쟁이후 50년 만에 개통된다는 철도소식은 나도 모르게 반가웠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북한과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게 조금 낯설고 어색하지만 반갑다는 기분이 더 앞섰기 때문이다.

6·25 전쟁은 힘도 없는 북한이 통일을 하려고 일으킨 전쟁이다. 이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6·25 전쟁에 참가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6·25 전쟁이야기를 해 주셨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신다면서 항상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민희야 이것 좀 보렴.”

나는 할아버지가 내미시는 손을 보았다. 손은 주름살 사이에 때가 많이 낀 채로 굳은살이 많이 있었다. 그 사이로 손가락이 보였다. 손가락은 단지 3개뿐이었다. 나는 나와 다른 손을 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할아버지 손이 이상해요.”

그때 어린 나이였기에 때문에 이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상해? 이상하지? 손가락 2개는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없어졌어. 참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

할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가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라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던단다. 그때 할아버지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 있었어. 하지만 그 동생에게 북한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동생을 구했어. 구했지만 할아버지 손에 대신 맞았지.”

나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표정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영광의 상처가 더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영광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남겨두고 6·25 전쟁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가끔씩 나에게 할아버지와 6·25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바로 북한 친구들이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북한 친구들을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그리워진다.

북한 친구들을 보면서 6·25 전쟁을 원망하기도 한다.

6·25 전쟁은 아무도 무르게 자취를 감추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약하고 아픈 게 아니다. 강하고 튼튼하며 밝다. 이런 마음을 알고 꼭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일이란 이 한 단어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단어가 힘들게 하기보다 기뻐해 주고 고맙게 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통일이란 단어가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한 걸음 한걸음씩 다가가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올 것이다.





# 기와집

## 할아버지 이야기

학생여중 3  
문 희

우리 큰아버지 댁 근처에는 기와집에서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서 그 할아버지를 보기만하면 슬금슬금 도망을 갔다고 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그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찌푸린 얼굴에 다리를 절며 다니셨기 때문에 어렸던 나에게서는 무서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이상하게도 추석이나 설날에 아들, 딸, 친척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었다. 다른 집에서는 옷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할아버지 집은 언제나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 이유는 내가 5학년이 될 때 알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설날에 큰아버지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희야! 이 음식 저기 기와집에 사시는 할아버지 집에 갖다 드리고 와 줄래?”

“기와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네가 무섭다고 피해 다녔던 그 할아버지서.”

“네? 아, 그 할아버지..., 저 이제는 그 할아버지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왜요?”

“기와집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이 안 계시잖니.... 큰아빠랑은 아는 사이니까, 이 음식들 맛 좀 보시라고 드리는 거야. 즐거운 명절을 설음식 없이 보

내기는 조금 아쉽잖니? 근데 오래전부터 가져다 드렸는데 몰랐구나.”

큰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야 기와집 할아버지께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명절에 기와집 할아버지 집에 아무도 안 오는 거구나… 기와집 할아버지 많이 쓸쓸하시겠다. 그런데 왜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금방 기와집 할아버지 집 커다란 파란대문 앞에 도착했다. 팔을 뻗어 벨을 누르니 할아버지께서 특유의 찌푸린 표정을 지으시며 문을 열어주셨다.

“누꼬? 여 웬일이고. 누가 심부름시켰나?”

저기…, 이거요, 큰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드시라고 주셨어요.”

“니 큰아배가 누꼬?”

“어른들께서 문선생님 이라고 부르시던데요.”

“아…, 문선생! 문선생이 니 보냈나? 내가 문선생 좀 알지. 흡제? 좀 들어 갔다 가라. 뭐 이런 걸 다 주노. 참 사람도…”

그러시면서도 그 할아버지께선 음식을 받아 드시고는 기쁘신 표정을 지으시며 웃으셨다.

기와집 할아버지 집은 깔끔하고 고풍스런 느낌이 났었다. 민속촌에 가면 있을 법한 기와집이 우리 큰아버지네 동네에선 이 할아버지 집, 딱 한집밖에 없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기와집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벽들로 지어진 다른 집보다 기와집 할아버지 집이 훨씬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다.

마루에 앉자 할아버지께서 눈깔사탕을 먹으라고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거 들고 오느라고 옥봤데이. 안 무겁드나?”

“별로 안 무거웠어요. 큰아버지 집 바로 옆인데요, 뭘…”

“문선생 참 고마운 사람이데이. 내가 명절음식 못 먹는 거 알고 매년 음식 챙겨주고…, 휴, 할망구라도 살아있었으면 문선생이 번거롭지 않을 텐데…, 참! 니 국민학생이제? 그러면 6·25 전쟁도 핵교서 갈쳐 주드나?”

“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가르쳐주셨어요.”

“이 할배가 6·25 전쟁 때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러시면서 할아버지 당신께서 겪으셨던 전쟁이야기를 해주셨다.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에 참가하셔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셨다. 그런데 어느 날 피난 가던 할아버지의 외아들이 폭격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시고 할머니께서는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옆친데 닮친격으로 할아버지의 여동생과 사촌마저 실종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휴, 다 이 못난 늙은이 잘못이지. 이 늙은이가 잘못했어… 가족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나라는 어찌 지킨다고 내가 그랬을꼬… 아들한테 좋은 옷, 음식 못 멕여주고, 할망구한테 돈 한번 제대로 못 쥐어줬는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벌을 주시고. 아이고 현웅아… 내 아들 현웅아… 어찌다 어린 니가 와 먼저 갔노? 왜 할망구랑 먼저 갔노?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루를 치면서 우셨다. 할아버지께선 너무 힘드시고 괴로웠던 시간을 겪으셔서 항상 쩡그리고 계셨던 거고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하셨던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피해 다녔다니…,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할아버지께서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어린마음에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기와집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지 할아버지 개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할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분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다. 우리 외할아버지의 여동생도 실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생사를 몰라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

서로 다른 사상, 이익…,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토를 몇 년간에 걸친 전쟁에 몰아넣고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와 우리 금수강산을 모조리 짓밟아야만 했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으면 안 되는 거였을까?

내 주위에는 아직 통일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통일? 그거 왜 해야 돼? 통일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불편할 텐데. 그냥

이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만약 자기 할아버지께서 전쟁 때문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북한에 계셔서 만나지 못 한다면 자기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훈장 하나가 전쟁과 이산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아닐까?





## ‘송환’을 넘어서 ‘통일’로

성광여고 2  
최혜진

2004년 봄, 부산에 갔다. 할머니 생신에 맞추어 간 주말 여행. 여행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일상생활의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감정의 출렁임을 맛볼 수 있다. 그런 감정의 출렁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짐을 느끼고, 작은 풍경에도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부산이 주는 이미지, 곧 바다와 하늘과 바람이 만들어 낸 ‘트임’에 기인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평소에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이고 유쾌함이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 바로 영화 <송환>이다.

<송환>은 평소 내가 즐겨보던 영화와는 많이 달랐다. 우선, 이 영화가 일반적인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점이다. 짜임새 있는 극의 형식이 아니라 현상적이고도 사실적인 문제를 죽 따라가는 전개방식이, 삶의 문제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영화의 내용이 조국 분단의 희생자, 비전향 장기수의 삶에 관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이 아닌 즉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 간첩에 관한 이야기여서 생소했다. 분단 국가의 국민인 탓에 내가 이념에 그만큼 민감했던 것이었을까. 영화를 보면서 그들 역시 시대와 이념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다. 단지 그들이 분단의 문제가 얽혀있던 시대에 태어났고,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사실도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다. 이러한 이념의 대립을 단순히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애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아하고 선해 보이던 조창손 할아버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송환을 앞두고 조창손 할아버지는 30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체포되었던 울산을 찾아가 죽은 동료의 뉘를 달래고, 그 동료의 가족에게 전해줄 흙 한 줌을 퍼가는 대목에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송환〉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을 솔직하게 반영한 영화다. 무겁지 않게 그러나 진지하게 시대를 증언한 영화로, 분단과 이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독이 어눌한 듯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감독의 음성 곳곳에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돋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3시간 남짓한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역사에 대한 조용하고도 치열한 관찰, 진지한 현실 성찰이 돋보이는 이 영화를 통해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인 ‘송환’, 그러나 그 되돌려 보내야 하는 문제가 단순히 포도들을 교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의 분단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만 노력해서는 극복할 수 없다.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또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정치나 경제, 군사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념을 초월한 한 민족으로서 동질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서로를 믿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오랫동안 단절된 세월에서 오는 고착화된 사고나 다른 언어, 생활 방식의 차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다.

통일을 위하여 나라에서 하는 일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대략 알고 있다. 남·북 간의 화합을 위해 친밀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좀 더 확대 시행하고, 육로통행을 보다 쉽게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학생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왕래를 자유로이하면서 각자의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민족 통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은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루기가 어렵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 학술교류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열린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민족 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매우 좋은 수단이므로, 오랫동안 안 금진 마음을 풀기에 편지만큼 좋은 매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경의선이 드디어 개통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 있던 일본 내 재일 동포들이 드디어 화해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린다.

영화 <송환>을 떠올리니 부산의 바다가 함께 오버랩 된다. 묘한 기분이다. 바다를 바라보면 무한한 세계를 향해 질주하고픈 자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여행을 통해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과 유쾌함, 이 둘과 겹쳐지는 영화 <송환>은 나에게 민족통일과 화합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평화적인 민족통일이 되면 UN본부 앞에는 태극기 대신 통일된 대한민국의 기가 펄럭이리라.

우리의 통일도 민족의 염원을 담아 평화적이고도 건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수상

#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옥현초 6  
안수완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두 손을 꼭 잡았고 떠나가는 이별의 버스를 부여잡고 외락 울음을 터뜨리고 슬픔을 못 이겨 쓰러지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해마다 유월이 오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 순국영령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올리고 조기를 게양하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안타까워하며 애태우는 모습들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메어온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한 민족으로 평화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알게 해준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벌써 60년이 되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우린 한 민족이다. 사회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마다 허리부위 어디에서부터 꼬부랑 할아버지의 허리띠 마냥 붉은 색으로 가로질러 그리는 남과 북의 경계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도 가까운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먼 길을 둘러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통일! 통일! 하면서도 입으로만 외치면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도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그리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루하루 학교를 다니는 내 모습을 돌이켜 보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전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하고 계시

는 군인아저씨,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도우며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생각이 든다.

6·25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시고 폭격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가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 국토는 폐허가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후손들을 위해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위력이 전쟁의 폭격위력보다 더 큰 평화와 희망의 위력인 것 같다. 그러기에 같은 형제끼리 전쟁을 하고는 아직도 등을 돌린 채 수십 년의 세월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한 핏줄의 나라 한 형제의 나라인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전쟁의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 이전에 전쟁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도울 길을 찾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억지로 부르짖지 않아도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은 찾아 올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우리가 북한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지구촌 구석구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툼과 전쟁이 아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의 허리춤을 꼭 두르고 있는 붉은 허리띠가 푸른 희망의 강줄기가 되어 방방곡곡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의 샘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여름이면 백두산 꼭대기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가고 겨울이면 한라산의 따뜻함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날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수상

##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천상중 1  
최선영

**아직도** 생생한 목소리, 아마 3년 전의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어머니, 제발 한마디라도 하세요. 큰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어머니…”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 10년 동안 앓아온 치매 증세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슬피하는 아들의 통곡 소리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서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원하시던 이산가족의 상봉의 꿈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노모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 눈만 멀뭇멀뭇 뜨고 있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솔직히 나는 매년마다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쓰고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포스터를 그리고 해보았지만,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웬지 모르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아마도 통일이 나에게서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많은 대중매체에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과 회담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워처럼 텔레비전에서 나온 장면 중 서로 잊지 못해서 눈물로 상봉하는 모습을 보니 통일이 왜 필요한지,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5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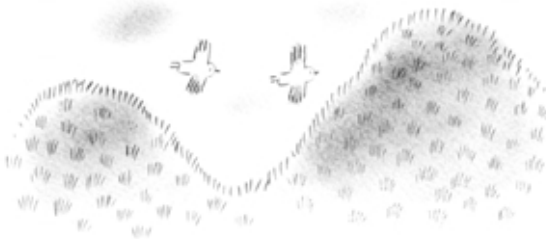
게 총을 겨누며 경계하였고, 그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지금은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같은 핏줄을 나눈 한 민족이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면서 50년 동안 대립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6·25 전쟁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

이제는 6·25 전쟁 때의 끔찍했던 일들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남한은 북한에게, 북한은 남한에게 좀 더 다가가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 생각처럼 통일이 된다면 우선 인구가 늘어나므로 경제시장과 생산력이 증대한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며 미군이 철수하며 국방비가 줄어들 것이다. 철수하면서 미군이 사용 중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군이 사용하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이 종전됨으로써 군사력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방비가 줄어들고 그 세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 이와 같이 많은 좋은 점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 문화의 차이 등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서로에 대해 인식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한 양측의 이산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번씩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통일을 위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임진각에 “누구나 자유로운 새가 되는 곳”이라는 광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다. 이 광장에는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없게 만들 것이다. 아무 때나 서로가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앞에서 말한 노모와 아들의 사연처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가 이젠 알아볼 수 없는 극한 상황과 같은 슬픈 일은 없게 만들

고 싶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할머니는 늙은 자식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주 크게 기뻐하셨을 지도 모른다.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산가족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있다면 그동안 가슴에 쌓아둔 슬픔과 그리움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세월이 지금보다 훨씬 더 흘러가게 되면 서로가 만나지 못 할 이산가족, 만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우리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며 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모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국민 모두가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할 때에는 누구나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할아버지의 눈물”

삼일여고 1  
박혜린

할아버지께서는 휴전선 가까이에 살고 계셨다. 근 1년만 이던가.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오랜만이네.”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문을 열자 이부자리 위에 앉아계시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다. 속사정을 모르고 할아버지의 외관만 보았다면, 정말 건강한 사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환한 표정이셨다. 할아버지 손에는 낡은 편지봉치가 들려있었다. 꼭 몇십 년이 지난 것처럼 모서리는 닳아 둥글둥글해지고, 조금만 잡아당기면 금방 찢어질 것만 같아 보였다.

“이거, 웬 편지들이예요?”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묻는 내게,

“아..., 옛날에 느그 할머니가 보낸 편지지.”라고 대답을 해 주시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글주글해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쓱쓱 쓰다듬으셨다.

“할아버지, 저 이제 다 쫓다고요.”

볼멘소리로 말하자 할아버지께서는 허허 웃고 마셨다.

할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셨는데, 할머니와 결혼하고 2년만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할머니는 이북으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이남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남에서 할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고 50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하셨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대놓고 볼 수 없어 슬금슬금 훑쳐보았다. 내

용은 알 수 없었지만 여기저기 보이는 눈물 자국과 편지를 계속 쓰다듬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할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기도 했다.

불편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밖에 나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다. 혼자 가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1년 만에 찾아왔는데 잘 헤쳐야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시고 나갔다. 할아버지께서는 휴전선 근처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가셨다. 휴전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다.

“저게 북한인거 맞제?”

“네.”

“손만 뺐어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는 손을 뺐으시며 안타까워하셨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조금 맺혀있는 듯 하더니 곧 눈물 한 방울이 땅으로 스며들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는 매일매일 오셨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몽클하기는 했지만, 그뿐이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보고 계신걸까. 할머니를 생각할까? 가족들을 생각할까? 전쟁을 일으킨 그들을 원망할까?

한달 후 병마와의 싸움에 진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식 날, 찾아오는 문상객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은 한달 전 보았던 그 웃음 그대로였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할 수 없었다. 영정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흐를 듯 말 듯 맺혔다. 좀 더 일찍 오는 건데. 그래서 금강산 구경이라도 시켜드리는 건데.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이유는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눈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던 그날, 철조망을 넘어 북한으로 가던 새를 보고 할아버지는 부럽다고 한참을 쳐다 보셨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와 똑같은 새가 잠시 밖에 나와 있는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생각한다. 새가 된 할아버지가 북한 하늘에서 마음껏 날갯짓하고 있을 것이라고….





# 외할아버지 어깨의 총 자국

화정초 5  
백예솔

저는 6·25 전쟁을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갔는데, 메리야스만 입고 계신 외할아버지 어깨에 상처가 쑥 들어가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외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응, 총 자국이란다.”

“총 자국이요? 왜요?” 하며 궁금하여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 길게 한숨을 쉬시더니 6·25 전쟁 때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50년에 할아버지는 18살이었단다. 안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난거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때 나도 가게 되었지. 총을 만져 보지도 못하였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던지...” 하시며 그때가 생각났는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또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으로 총 쏘는 것도 배우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인민군을 쏘았단다. 이 총 자국은... 우리 군이 잘 싸워 북한 땅까지 다 정복하였는데 나는 포로로 잡혔지. 포로를 잡으면 나무에 묶어 놓고 총으로 쏘아 죽였단다. 나도 눈을 가린 채 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쓰러졌단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죽어 있었고 나만 살아남은 거

야. 어깨로 총알이 스치며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중공군들이 그냥 가 버렸나봐.”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전쟁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피가 흐르는 어깨를 감싸쥐고 마을로 내려가 어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숨어서 하며 겨우 살아나고 있었는데, 또 중공군에게 붙잡혀 포로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남북한 포로를 서로 교환한다는 일이 생겨 그때야 남한으로 내려 올 수 있었지. 예술아! 내가 그때 죽었다면 우리 손자들 아무도 못 보았겠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쟁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밉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날씨가 안 좋으면 어깨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을 때 아빠가 외할아버지께 “장인어른, 금강산 구경 다녀오시죠?”

“허허, 북한 땅은 보기도 싫네.” 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요즘 우리 아빠는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을 쓰신 공책을 가지고 오셔서 책으로 만들려고 컴퓨터로 치고 계십니다. 얼른 책으로 만들어 저도 읽어 보고 싶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북한이 싫다고 하시지만 저는 북한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전쟁은 없으니까요.



## 우리들의 숙제

연암중 1  
성지윤

**내 취미**는 역사기행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여  
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주말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던 일들은 좋은 추억이 되었다.

탑 한 기, 부도 한 기를 보기 위해 산 속을 헤맬 때도 있었고, 바위에 새겨  
진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안개 가득한 날에 바위를 타기도 했다. 잔뜩 기대  
를 걸고 갔던 옛 절터에서 돌조각만 나뒹구는 것을 보아도 이제는 크게 실  
망하지 않을 정도로 자란 것도 여행 덕분이다. 이런 여행이 보물처럼 느껴  
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우리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  
런 자부심은 깊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으로 이어지  
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는 사이 언젠가부터 북한의 유적지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통일  
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 보게 될 북한에 있는 유적지들이 그리워지기도 했  
다. 고구려 무덤의 씩씩한 벽화를 직접 보게 될 그날을 꿈꾸고, 버드나무가  
축축 늘어진 평양의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였다.

하지만 연천, 철원 일대를 견학하면서 내 마음은 내내 무거웠다. 지금까  
지 내가 알고 있었던 역사의 그 어느 부분보다 가장 생생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여행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북한이  
과 놓은 제2땅굴 앞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수치다.”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어두운 구석에서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미로를 걸어가면서 소름이 돋는 섬뜩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까지 내가 간직하고 싶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얼굴이 그곳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낡은 쇠덩어리로 널브러져 있는 월정리 역의 기차 앞에서, 지금은 뼈대만 남아 흉물스러운 노동당사에서 슬픈 설명을 들었다. 그 이야기들은 여태껏 우리나라에 대해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싸우다가 죽어서 피가 개울이 되어 흘러내리던 처참한 역사의 현장, 그것이 동족 간의 비극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었다. 아직도 지뢰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노려보고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현실이 압담하고 우울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바로 한 핏줄을 이어온 사람들끼리 그렇게 감시하고 있는 그곳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슴 떨리게 하는 곳이었다. 그곳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도 아찔했다.

순간 나는 여태껏 다녔던 여행지와는 다른 그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곳은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었다. 상처가 있다고 도려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것이다. 무덤 속에 여기저기 남아 있는 출추는 고운 여인들이나 씩씩한 기상이 느껴지는 벽화는 분명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적인 모습도 바로 우리나라의 한 얼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만큼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되는 것도 깨달았다. 그와 함께 심각하게 새겨본 적이 없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연천, 철원을 다녀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 전까지는 무심히 보아 넘겼던 북한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남북한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만 해도 통일 의지

와 무관하지 않은 듯해서 뿌듯하다. 더불어 남북한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의견이 달라질 때면 안타까워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게 된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숙제가 아니다.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반쪽짜리 역사를 짊어지고 가야 할 민족의 숙제다. 전쟁으로 얼룩진 슬픈 과거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준령이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스크럼을 짜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고개일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우리는 가족입니다

무거고 1  
김소희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로 두 명의 아이가 사  
이 좋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두 아이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낯선 사람 두 명이 두 아  
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자며  
온갖 듣기 좋은 말들로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순진한 두 아이는 서  
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비  
슷했던 성격조차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친했던 둘은 이제  
서로에 대한 안부조차 궁금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워하고, 거부하며 무  
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두 아이는 똑같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  
내던 둘은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족처럼 지  
내던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  
나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둘은  
만났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 사람이 흐르  
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더군. 그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었어. 보고 싶었네. 친구..., 그때의 실수로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

랐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성장도 아니고, 국방력의 강화도 아닙니다. 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유 없이 도와주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북쪽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듯 같은 길을 보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이 때론 힘들고 괴로울 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걸어갑시다.

지금 남과 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고 꺼려하지 마세요. 단지 배운 것이 다를 뿐입니다.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로 만들지 맙시다. 원하지도 않은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더 아파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국기를 들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나라를 외치는 통일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듭시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갈등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한민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 경기도

08

- 하늘 높이 경적소리 울리며 ...205
- 내일도 맑음 ...208
- 어느 여름날의 꿈 ...211
- 통일이 오면 ...214
- 통일을 여는 대화 ...217
- 유서(遺書) ...220
- 단군의 후손이여 통일을 이루자 ...223
-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226
- 작은 불방울이 되어 ...229





# 하늘 높이 경적소리 울리며

성남수정초 6  
함채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즐기고 있는 저녁. 밖에는 어둠이 스르르 찾아와 대문을 푹푹 두드리고 지나갈 뿐입니다.

“엄마 경의선 열차가 뭐야?”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저는 엄마에게 여쭙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아나운서 언니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경의선 열차는 말이야, 우리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열쇠 같은 거야. 뉴스에서도 나왔잖아?” 경의선 열차와 동해선 열차가 5월 25일 날 운행된다는 소식을 듣자 제 마음속에서는 뿌듯한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핏빛의 과거에 하얀 새 빛을 비춰줄 희망의 빛을 찾았으니까요.

지난 56년 동안 서로 한민족끼리 친형제끼리 칼과 총을 겨누며 죽이려고 했던 비극의 전쟁. 6·25...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뉘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남한과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증오감으로 분단의식이 강해졌습니다. 서로 한민족인데..., 한 핏줄인데..., 하는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속에서 통일의 씨앗이 싹터갑니다. 서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말도 달라지고 생활 풍습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면’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북한에서는 ‘꼬부랑 국수’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북한말과 북한 노래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지요.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북한말을 찾으며 휘파람 노래를 불렀던 것에 재미가 붙어 한동안은 북한말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팔십 가지나 들어있던 북한말, 단어가 신기하고 독창적이라면서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워 넣던 북한말이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때 그렇게 재미있다고 등하고 길, 학원가는 길에도 불렀던 ‘휘파람’ 노래의 가사도 몸통이 잘려 버렸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죽은 사람만 해도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쪽을 지키겠다는 욕망만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과 경찰들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통일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푸른 강 맑은 산을 지켜왔던 대한민국에 핏빛 과거가 남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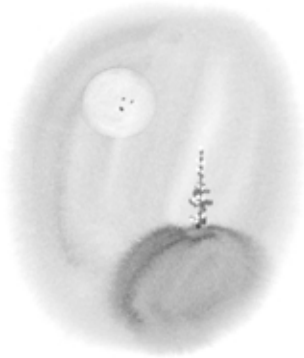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외할아버지 까지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 깊이 파묻혀 있는 전쟁 6·25로 인해 저희 할아버지도 소중한 친구분을 잃으시고 그 흔적으로 무릎에 총알이 깊게 박히셔서 잘 걸지 못하시고 6·25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설움을 앓고 계십니다. 흑백 사진을, 소중한 친구의 사진을 아직까지도 문지르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많이 닳고 손때가 묻었어도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경의선 열차와 동해선 열차가 달린다는 말에 기뻐하셨습니다. 56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들..., 이산가족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매일 그리움과 설움이 북받쳐 오르겠지요. 매일 말았던 가족들의 향기가 그립겠지요. 6·25 전쟁 당시엔 조그만 꼬마였던 아이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을 놓쳐 평생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시던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어느새 눈을 감았겠지요.

56년 간 만나지 못했던 아니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친형제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런 이산가족의 소원을 위해서라도 통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한 민족이었어요. 통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엄마, 아빠! 나 다시 한 번 북한말 찾아볼까?”

장난기 어린 말투로 말하는 채윤이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통일 기원의 새싹이 싹트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달린다는 경의선 열차와 동해선 열차! 의주까지 금강산 저 너머까지 멀리멀리 달려가 이산가족들의 또 6·25 전쟁에 목숨을 잃었던 군인들과 동포들, 경찰들의 통일 기원의 함성과 함께 경적소리를 하늘 높이 울리며 달려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핏빛의 과거인 6·25 전쟁의 아픔을 경의선 열차와 동해선 열차의 희망찬 경적소리로 인해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길 기원합니다. 경의선 열차와 동해선 열차가 통일의 열쇠가 되어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두 손을 모아 바라고 있습니다.





## 내일도 맑음

관인중 3  
이가애

“너희들, 다섯 시까지 반성문 세 장씩 써 놓도록 해. 중학교 3학년이라는 게 왜들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티격태격이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네네, 그 말 벌써 백 번도 넘게 들었다고요.’

선생님은 그녀의 외모를 더욱 알뜰하게 보이게 해주는 빨간 빨테 안경을 습관처럼 치켜 올리고는 그대로 상담실을 나가버렸다. 또각또각 듣기 싫은 구두 소리를 내면서….

나는 나와는 저만치 거리를 두고 앉은 리맑음을 힐끔 쳐다보았다. 항상 뒤편이 그리 열심히인지, 이미 그는 A4용지 한 장을 녀석의 성격처럼 반듯한 글자로 빼곡히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작년 겨울, 서투른 서울말을 쓰던 그가 하필이면 많고 많은 중학교 2학년 10개의 반 중, 우리 반으로 온 것이 잘못이었다.

마치 사투리를 심하게 썼던 아이가 서울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어색하게 서울말을 쓰던 리맑음.

어쩌면 난 그 녀석의 첫인사에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맑음 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누가 보아도 그 아인 틀림없는 북한 사람, 또는 조선족임에 틀림없었다. 가리려면 확실히 가리던가, 대체 ‘리’라는 성씨는 왜 바꾸지 않고 말한 것 인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쓸데없는 생각을 멈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반

성합니다.’라는 문구로 A4용지를 가득 메웠고,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그 녀석이 나에게 말을 걸어 왔다.

“왜 오늘은 자기 것까지 쓰라고 하지 않는 겁니까?”

허···, 나는 갑자기 반성문을 쓰던 손을 멈추고는 고개를 들었다. 녀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한···.

“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매일 그러지는 않았다고!”

내가 생각해도 양심에 찢리고 있다는 말투였다. 으···, 싫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지금 상황이 딱 그 짝이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갳게 어어 버린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녀석에게 말했다.

“물···. 그래, 물 가져다 줘. 나 물 먹고 싶어.”

“싫어요. 제가 태양 친구 신하입니까?”

녀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제 곧잘 서울 사람처럼 서울말을 하는 리طم음. 티격태격했던 시간만큼이나 녀석의 말숨씨-좋은 뜻이 절대 아닌-도 늘었다. 처음엔 가만히 날 쏘아보기만 했는데···.

“나랑 이제부터 친하게 지낼 거면···, 물 가져다 줘.”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정말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는 나조차도 모를 일이었다. 녀석도 나의 이런 말에 적잖이 놀랐는지 큰 눈을 깜박거리며 다시금 나에게 물어왔다.

“요새 농담도 했었나요?”

“농담이면 좋겠니? 눈 그만 깜박이고 물이나 가져다 줘.”

또다. 눈만 깜박이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한참동안 눈싸움을 하다가 둘 다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내가 갔다 올게.”

“그냥 제가 갔다 올게요.”라고 말하고는 녀석은 그렇게 나가버렸다. 그리고 난 재빨리 녀석의 반성문을 들고 죄지은 사람마냥 탁자 밑에 숨어 녀석이 올세라 얼른 반성문으로 눈을 돌렸다.

반듯한 학생의 반성문답게 내용도 그럭저럭 이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나는 마지막장 반성문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탈북자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사랑하는 조국을 버려서인지 항상 견원지 간처럼 싸우기는 하지만, 참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속내를 숨기고 자존심이 센 것이 저와는 정반대인지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탈북자’ 라는 꼬리표를 단 사람들을 똑같이 봅니다. 분명 ‘조국이 싫어서 떠났다거나, 살기 힘들어서’ 라는 이유로 우리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리맑음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을 사랑해서 떠났고 조국을 위해서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 싫어서 떠난 줄로만 알았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박혀서 텃세 부리고 괴롭히고….

역시 반듯한 아이라 반듯한 생각만 하고, 이름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다. 탁자 밑에서 나온 나는 녀석의 반성문을 다시 올려놓고는 나의 마지막 반성문을 채워 나갔다.

〈누구누구 같은 가슴 아픈 탈북자가 없도록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맑음이와는 사이좋게 지낼게요.〉

마지막 글자까지 쓴 나는 들리는 녀석의 발소리에 녀석의 반성문과 내 것을 같이 챙기며, 문을 열고 물 한 컵을 들고 오는 녀석과 함께 상담실을 나왔다.

“아…, 통일 됐으면 좋겠다. 그치?”

“통일되는 건 죽어도 싫다면서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을 거라고….”

“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물이나 내놔!”

“그럼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그, 그렇다니까!”

오늘따라 녀석의 귀엽게 웃는 모습이 참으로 맑은 햇살처럼 보였다.





# 어느 여름날의 꿈

사우고 1  
김지혜

“아빠, 돌아오실 때에는 꼭 제 선물사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린 소녀는 아빠의 거친 손을 붙잡고는 약속을 할 때까지 안 놔줄 배짱으로 매달렸다. 그는 이런 소녀가 사랑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허리를 숙여 소녀의 발그레한 뺨에 뽀뽀를 해주고는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도 해주었다. 그제야 소녀는 만족한 듯 아빠의 손을 놓았고, 뒤에 있는 엄마의 품에 안겨 점점 멀어지는 아빠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소녀는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다.

이것이 소녀가 생애 마지막으로 본 아빠의 뒷모습이었다.

아빠와 헤어진 지 5시간도 채 되지 전이었다. 소녀는 맑았던 하늘에 천둥보다도 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듣고, 번개보다도 더 눈부신 빛이 계속해서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하여 부엌에 있던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금방 안색이 창백해 저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 간단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와 놀았다. 엄마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와 말뚝에 묶여있던 강아지의 줄을 풀어주고, 어린소녀를 등에 업었다. 한손으로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 머리위에 올려진 짐을 받쳤다. 엄마와 소녀는 집에서 나와 큰 길 쪽으로 줄지어 가고 있는 다른 피난민들을 따라갔다. 한 3시간쯤이 지나서야 전철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몸이 너무 지쳐 전철이 올 때까지 나무 밑에서 쉬기로 하고 업었던 소녀를 내려주었다. 소녀는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듯 바닥에 발이 닿자마자 뛰어다니다가 옆에 있던 피난민 아이와 놀았다. 엄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건성으로 대답하곤 놀이에 전념했다.

얼마 후 전철이 도착했고, 소녀와 엄마는 짐을 챙기고 나서 전철을 타러 발걸음을 옮겼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으로 줄을 섰고 소녀와 엄마는 뒤에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타려고 했지만 탈 수가 없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황토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손에다 뭘 쥐고선 옆으로 쪽 서서 무릎을 반쪽만 꿇고 앉더니 좀 있다가 ‘탕!’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앞에 있던 사람들은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우수수 쓰러졌다. 그 순간 소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뛰면서 고개를 돌려 뒤쪽을 봤다. 잘은 모르겠지만 검고 차가워 보이는 물체에서 나온 콩알 같은 것은 놀라운 속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사람의 몸에 명중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다. 엄마는 소녀가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자꾸만 등을 밀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제 위험한 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엄마는 다시 뒤돌아 볼 수밖에 없었다. 앞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물체로 도망쳐 온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역시 ‘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소녀의 앞을 막고 뒤로 돌아 꼭 안아 주었다. 덕분에 소녀는 탕탕거리며 옆으로 지나가는 콩알을 보지 않아서 좋았다. 그리고 소녀의 검은 눈에는 엄마의 미소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엄마의 가슴에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본, 장미보다도 더 진한 붉은색의 액체가 퍼졌다. 엄마는 천천히 소녀 쪽으로 쓰러졌다. 그 뒤편에는 짙은 황토색의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엄마 쪽으로 겨냥했다. 소녀는 순간 동공이 커지며 뺨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목구멍에서 울리는 ‘엄마’ 라는 커다란 비명을 질렀다. 그러곤 소녀는 쓰러진 엄마의 등 위로 천천히 엮어졌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난 곳은 전철역도, 엄마의 등 위도 아닌 땀에 흠뻑 젖은 이불 안이었다. 소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올려 얼굴을 만져보았다. 어렸을 때의 보드라운 뺨이 아니라 거친 피부가 느껴졌다. 소녀는, 아니 여자는 아직 생생한 그 꿈에 취해 어느 것이 현실인지 알 수 없었으나 달력을 보고 나서야 오늘이 2010년 6·25일, 통일이 된지 2년이나 지난 날 인줄 알게 되었다.

“더워서 개꿈을 꿔나보군” 이렇게 말하며 안도의 긴, 긴 한숨을 내쉬던 여자의 한쪽 눈에선 눈물이 한 방울씩 맺혀었다. 여자의 볼을 따라 입으로 흘러들어간 눈물의 맛은 이때까지 먹어본 것보다도 더 짠 맛의 액체였다.





우수상

## 통일이 오면

하안복초 6  
전 예 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내가 아는 통일노래 가사이다. 하지만, 누가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통일’ 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

‘내가 너무 통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나는 해마다 ‘통일 안보 글짓기’ 를 할 때만 통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통일을 왜 해야 할까?’

하고 그냥 생각만 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한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통일은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당장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공부방으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설

새 없이 공부를 한답시고 시간을 보낸다.

언젠가 북한의 어린이 공연단이 서울에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통일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며,

“어찌 저렇게 연기를 잘 할까?”

하고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우리는 정말 통일을 원하고나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는 모두 한 목소리로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 전에서야 알았다. 우연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통일이 되면 당장 더 못 살게 되는데,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냥 이대호가 좋다는 것이다. 그분은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이신데, 엄마와 의견이 달라 가끔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신다. 나도 엄마와 같은 생각으로 통일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땅이 넓어지니까’ 또는 ‘이산가족이 만나서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정도만 생각했다. 그런데, 엄마께서 준비해 주신 ‘통일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고 더 많은 이유를 알게 되었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 하는 것들을 알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현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잠깐 멈추었을 뿐이다.

‘만약 남과 북이 다시 싸우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은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 등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살아남지도 못할 텐데, 얼른 평화 통일이 되어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또,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 아깝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점차 형편이 비슷해져 통일을 하는 데에 수월해진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살림이 조금 어려워져도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당장의 욕심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손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등 의견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 담쟁이가 서로 끌어주면서 벽을 넘듯이 우리도 서로 손잡고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게 보이는 것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의 개성공단에 우리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과거에 소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고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한다. 것처럼 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애쓰신 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을까?

남과 북이 서로 갈라선 지 벌써 반백 년이 넘으면서 언어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기에, '북한말 알아맞히기 퀴즈' 같은 프로그램은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하니 많이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통일이 되면 꼭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 금강산에 다녀온 아빠 친구분이 자기도 모르게 감격해서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나도 그 감격을 체험하고 싶다. 국방비에 들어갔었던 많은 돈을 사회복지에 쓰고, 세계에 우리 민족의 단합심을 보여 주며,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져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통일된 나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지 않은가? 통일노래처럼 어서 통일이 오기를 기도해 본다.





# 통일을 여는 대화

남사중 1  
이재은

옛날 해와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었다. 때마침 길을 지나가고 있던 나그네를 보고 그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힘이 더 세다고 인정하기로 하였다. 바람은 자기가 해보다 더 힘이 세다고 으스스대며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센 바람을 불었지만 바람이 세면 셀수록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더 꼭꼭 여밀 뿐이었다.

다음은 해의 차례였다. 해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바람과는 다르게 나그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었다. 그러자 바람에 옷을 여미던 나그네는 따뜻함을 느끼고 옷을 벗었고, 결국 해는 시합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고 해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해가 따뜻한 빛으로 나그네의 경계심을 풀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바람으로 다그쳤을 때에는 나그네는 오히려 추위를 느끼고 옷을 여몄지만, 해가 날씨를 따뜻하게 하자 그는 더위를 느끼곤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바람의 힘자랑보다는 해의 따뜻함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해와 바람'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친숙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통일'이라는 주제를 떠올릴 수 있다.

무턱대고 힘자랑만 하던 바람과는 달리 따뜻한 빛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긴 해를 남한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옷을 벗어야 할 대상인 나그네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빛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는 것, 이런 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한다.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평화통일의 방법이다. 하지만 식량지원과 농기계 지원 등을 비롯한 경제지원과 문화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그때문에 남한 주민들 중에는 도대체 왜 우리가 맹목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거냐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더러는 무력통일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나그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힘을 이용해 성급하게 옷을 벗기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서는 결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과 남한, 서로의 오해와 불신만 쌓여 갈 것이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50여 년, 반세기가 지났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이나 옷, 관심사, 생활모습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또 서로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은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잘 알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긴 세월 동안 마음대로 이야기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통일 그 자체에만 급급해 도대체 왜 도와야 하는 거냐는 차라리 무력통일을 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는 고위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대답이나 이산가족의 상봉 등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내용이 방송되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산가족도 아니고, 통일의 필요성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 특히 나와 같은 학생들은 통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는 만약 정말 통일이 되더라도 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북한 사람이라고 낮설게 여기고 어색한 웃음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잦은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고위급 관리나 이산가족에만 국한된 만남이 아닌 북한, 남한의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경계심을 풀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그네가 옷을 벗을 때,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의 빛이 보일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과 남한이 바람의 힘자랑보다는 해의 따뜻함과 서두르지 않는 지혜로 단혀 있는 마음을 움직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통일의 그날로 가야 할 것이다.





우수상

## 유서(遺書)

진성고 3  
임지현

1945년 8월 15일. 나의 조국은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다. 독립이 되면 민족을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38선 근처에서 울려 퍼졌던 외마디 총성은 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

나의 고향은 봄이 되면 개나리와 목련이 만개하던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제는 아무리 손을 뻗어보아도 닿지 않는 저 머나 먼 이북... 우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정답고 단란하게 살아가던 가족이었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내 둘도 없는 동무들이었는데, 우린 언제나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보냈었다. 나는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날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해방된 후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찬탁이니 반탁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뜨거운 우정만이 가득 차 있었던 동무들의 그 맑은 두 눈동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적대와 불신으로 혼탁해지고 있었다. 세상은 미쳐가고 있었다. 나라는 반으로 죽 갈라져 버렸다. 조선이란 이름아래 모두 하나 되어 일본에 대항했던 옛 기억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 무렵, 난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혼인을 열흘 앞두고 결국 전쟁은 터져버렸고 우리의 혼인은 영원히 미뤄져 버렸다. 집안의 맏아들이었기에 이 목숨 하나 건지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남겨둔

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내 반드시 살아남아 다시 돌아갈 것이다 굳게 다짐했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철조망은 나를 영영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고향을 향한 내 그리움은 흘러간 시간 만큼이나 내 뼈에 사무치고 또 사무쳐갔다. 나라도, 사람들도 점점 철조망 너머의 땅에 대해선 무관심해지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통일? 그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나라만 더 가난해진다고요.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같은 모습, 같은 언어. 우리는 한 민족이었으나 이젠 남보다 못한 남이 되어 버렸다. 그러는 동안 나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무의미한 기대와 그리움에 지쳐 하나 둘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산가족 상봉 소식에 몇 날 며칠을 걸려 힘들게 신청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그러나 냉혹한 그 순위라는 것은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오천만 국민 모두 찬탁, 반탁에 갈라졌었나? 모두 전쟁하기를 동의했었나? 정말 모두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기를 바랐던 것인가! 우린 이념, 사상 그런 것들 따윈 아무 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어야만 했는가! 몇몇의 더러운 정치적 야욕과 알량한 투표가, 시대가, 나라가! 내 가족과 동무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움에 아픔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다.

내 몇 년을 더 산다한들 아름다웠던 내 고향을 과연 다시 보게 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을 지속한들 희망이 없다. 내 죽으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만다면 복讎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테지. 그러나 내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차라리 육신이 죽어 영혼만 남게 된다면 그땐 철조망도, 총들도 나를 막을 수는 없겠지. 내 훨훨 날아 저 머나먼 복讎,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사무치게 그리웠던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 못 다한 생을

마저 누릴 것이다. 그 머나먼 옛날처럼. 아주 행복하게.

그럼구나..., 내 고향, 동무들,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그 옛날의 아름다웠던 날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전자상가의 투명한 유리창으로 커다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보인다. 사람들은 흘깃 그것을 보며 지나간다. 커다란 스피커에서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음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한탄강 하류에서 71살 이 모 씨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투신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자살원인은...」





## 단군의 후손이여 통일을 이루자

세종초 5  
정윤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삼형제이시다. 그런데 6·25 전쟁 때문에 외할아버지의 형님이 북쪽에서 넘어오지 못해 지금 남한에는 외할아버지와 동생만이 계신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북에 계신 형님을 항상 그리워하시며 형님의 생사를 알지 못해 애태우고 계신다. 우리에게 할아버지 형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늘 눈가에 눈물이 고이신다. 나의 외증조할머니이자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북쪽에 계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신다.

전쟁이 휴전된 지 53년이 흘렀다. 53년 동안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가슴 앓이만 한 가족이 어디 우리 집 하나뿐이겠는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이 휴전이 된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살게 될 줄 꿈엔들 알았겠는가?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북쪽에 계신 형님을 찾으시려고 이산가족 찾기에 신청을 하셨다. 그런데 얼마 전 나라에서 편지가 왔다.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순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편지였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하루빨리 할아버지 형님을 찾고 싶다고 하시며 또 목이 메셨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부터 온 편지를 가슴에 품으시며 나라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어 감사하다며 가슴 벅차 하셨다. 지금도 할아버지께서는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계시며 형님을 만날 날만 손뼉아 기다리신다.

나는 이런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왜 되어야 하

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나라에서도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젊었을 때 헤어져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 이산가족들…. 그래도 이름과 주소, 생김새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안타까웠다.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어 더 이상 가족이 떨어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주 우리 가족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마니산 참성단에 다녀왔다. 참성단까지 오르는 무척 힘이 들었다. 참성단에 오르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산에 오를 때보다 더 많아 어려워 이런 곳에 왜 왔냐고 오르는 내내 부모님께 불평도 했었다. 하지만 참성단에 올라 그 모든 힘들었던 것은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서해 바다가 보이는 참성단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단군이 여기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나 하는 생각도 했다. 참성단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단군의 후손으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힘든 산을 오르게 한 부모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6·25 전쟁으로 두 동강이 난 비극을 단군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다른 여러 나라의 침입이 있어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물리치던 민족이었는데…, 일제의 36년 통치 아래에서도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어 다시 나라를 되찾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른 생각으로 싸워 허리 잘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두 동강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양보하고 믿어주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국가로 다시금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겠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맘 때면 늘 이산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 하지만 올해는 독일 월드컵이 6월에 있어 세계가 축구의 열기로 하나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구호는 “대한민국 짹짹 짹짹”이다. 올해는 이 구호를 “평화통일 짹짹 짹짹”이라고 바꾸어 응원했으면 좋겠다. 붉은 악

마의 뜨거운 함성으로 하루빨리 통일이 오도록 말이다.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이산가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야겠다.

통일이 되면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외할아버지의 형님이 계신 북한으로 가서 북한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뛰놀고 싶다. 분단의 국가가 아닌 단군의 후손인 단일민족 통일국가가 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통일 구호를 힘차게 외쳐본다.

“평화통일 짹짹 짹짹”

“평화통일 짹짹 짹짹”





#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하탑중 1  
이다운

**며칠** 전 신문에 열여섯 살에 선유도에서 수영하다가 행방불명되었던 김영남 이라는 사람이 납북되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가족들은 익사한 것으로 알고 지내다가 1997년 탈북한 사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죽었다고 믿었던 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고 한다.

최근 오래전에 납북된 '메구미' 라는 일본 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일본 정부가 그녀의 남편인 김철준 이라는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가 바로 김영남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 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차라리 지구 끝 어디에라도 살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 데려오겠지만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없는 어이없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마 가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같이 신문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이런 나보다 더 슬퍼하셨다. 아들을 만나서 안아주고 싶고 밥을 해먹이고 싶다는 늙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혀를 찹찹 차셨다. 내가 어찌다 늦게 일어나 아침밥 한 끼 굶고 등교하면 안쓰러워 하루종일 맘이 불편한 게 엄마 맘이다.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 아들과 생이별을 하고 할머니가 되도록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겠는지 그 아픈 마음을 조금



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가 있어 헤어진 가족이 며칠씩 남북을 오가며 만나기는 하지만 그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가진 가족들은 더 큰 그리움에 시달린다고 한다.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 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시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게다가 모든 이산가족들이 다 상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한다. 우주 여행도 가능한 시대에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민족, 한 가족이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텔레비전의 일기예보 시간에는 늘 북한의 날씨도 전해준다. 다른 나라와 북한의 이름을 공동으로 불러야 할 때에는 늘 '북미', '북중', '북일' 등 북한의 이름을 앞에 불러준다. 이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러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리의 맘을 알아줘서 서로 통일에 대한 마음을 한 데 모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세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래 벌써 6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컴퓨터 하나로 세계가 동시에 연결되고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교통이 발달, 빠른 시간 안에 지구 끝에서 끝까지 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지도에서 얼른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라가 그것도 반쪽으로 갈려져 살고 있으니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땅도 좁은 까닭에 앞으로 자원이 풍부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가 경쟁력이 다소 불리한 입장이다. 하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어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려오고 보다 저렴한 상품들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의 국가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문제가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덜 생기고 가난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좋아질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여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한다면 배를 이용하여 빙 돌아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관광분야에서도 사람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된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잘만 활용한다면 국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익 되는 일이 많은데 왜 아직도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부모님 세대에도 통일은 온 국민의 소원이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일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헤어져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슬프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만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 다음 남북을 잇는 열차도 개통시키고 그 열차를 타고 남북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휴가철에 부산을 출발하여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 기차길을 따라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통일이 되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 애쓸 동안 우리나라는 편이 갈려 국방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해왔다.

어쩌면 우리 이웃나라들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의 힘은 뭉쳐져야 한다. 김영남씨 가족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신문에 나는 일이 없고, 지름길을 두고 빙 돌아 수출하는 일도 없는 완전한 하나의 나라가 될 그날을 그려본다.





# 작은 물방울이 되어

정발고2  
김 두 리

버스에 몸을 싣고 북쪽으로 향했다. 비무장지대 DMZ의 철창문이 열리며 그토록 가고 싶던 그곳, 북한에 다다랐다. 감격적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아픔이 내 마음속에서 출렁거렸다. 병정 인형같이 얼굴의 아무런 미동이 없는 북한군인들이 내가 타고 온 버스를 검사했다. 북한 사람을 보면 꼭 환하게 웃자고 다짐했던 내 결심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들의 얼굴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발을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가는 군인들의 뒷모습에는 북한의 억압된 삶이 내재되어 있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여정의 피곤함도 잊은 채 금강산에 올랐다. 하얀 눈으로 옷을 갈아입은 금강산은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난 그림 속 나그네가 되어 그곳을 거닐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같이 높게 뻗은 소나무, 그리고 그 위에 쌓인 눈이 설탕 뿌러지듯 곱게 뿌려져 있었다. 자연은 언제나 영혼의 풍부함을 사람들에게 안겨 주는 것 같다.

산을 내려와 북측 식당에서 북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근처의 숙소로 걸어가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군인들이 감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어 그곳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았다. 까까머리에 귀마개를 쓴 꼬마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불이 대추 알 같이 빨갛다. 갑자기 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두꺼운 잠바와 넘치는 음식들을 먹고도 끝없는 욕심만 부리는 내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웬지 모르게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

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어느새 그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나를 뻔히 쳐다보았다. 마침 군인은 날 발견하고 여기에서 얼른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난 아직도 그 아이의 눈을 잊을 수 없다. 초점 없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그 속에는 희망이라는 빛을 찾을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북에 있는 관광지들로 이동할 때면 군데군데 북한 주민이 사는 마을이 있었지만 벽에 가려져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정치가나 방송매체에선 50년 만에 처음으로 북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느니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떠들어대지만 북한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도 과거의 베를린 장벽과 같은 높은 벽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았다.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내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갔다. 영화나 신문에서는 북한을 주제로 어떻게 요리할지 고심하지만, 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권유로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보게 되었다. 촌스런 제목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내민 요덕스토리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난 앞장서서 엄마의 손을 잡고 뮤지컬을 보러갔다.

그 뮤지컬은 실제 북한의 1급 정치 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내용이다. 이 뮤지컬을 만든 연출가 또한 북한 수용소에서 목숨을 건 탈출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는 총살을 당하고, 북한의 그런 잔혹한 사회모습을 밝히고자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북한의 실상에 대해 뮤지컬이라는 예술적 도구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참상을 믿어주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입막음을 하는 유력자들에 의해 좌절을 겪어야 했다.

여기 실제로 10년을 요덕수용소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증언이 있다. 허기져 쓰러져 있다가 미풍에 깨어나지만 오직 그를 반기는 건 철창 사이로 보이는 요덕 병풍산의 흰 자작나무들이었고, 영양실조로 정신이 나간 아저씨는 오디 나무에 올라가 정신없이 뽕을 따먹다 나무에서 떨어져 깔깔대며 웃고 있고, 생체실험에 끌려가며 절규하는 비명소리는 수용소의 일상소리

가 돼버린다. 배고픔에 깨어나 바닥에 떨어진 오디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입에 처넣었을 때 군인들이 경멸하며 비웃었다는 이야기까지 실제 요덕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는 가려져 있던 북한의 실상을 보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금강산 여행에서 만났던 북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내 기억 속에서 부유했다. 파충류 같은 표정을 한 군인과 희미한 빛도 보이지 않는 아이의 얼굴, 그들에게 희망은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낭떠러지에서 썩은 한 가닥 동아줄을 잡고 있는 북한의 인권. 말로만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한 가닥 황금줄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통일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썩은 동아줄은 붙잡을 수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알고 있지〉라는 노래 가사 중 이런 구절이 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얼마나 오래 들어야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까?’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과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작은 물방울이 되어야 한다. 작은 물방울은 모여 하나의 강을 이루고 그 강은 언젠가 큰 바다가 될 것이다.





## 강원도

09

- 큰아버지의 선물 ...235
- 남북공감 ...237
- 꽃과 같던 할머니 ...240
- 민족의 상처 위에 통일 반창고를 ...244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247
- 금강산, 할머니와 나의 이야기 ...250
- 슬픈 할아버지의 기억 ...253
- "통일토피아"로 ...256
- 통일을 향한 발걸음 ...259







## 큰아버지의 선물

갑천초 6  
신윤진

나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할아버지, 할머니, 막내 고모부와 고모, 큰고모와 함께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다녀왔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가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출발하다 보니 잠이 덜 깬 상태에 약간의 떨기가 겹쳐 대전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피곤하였다. 약 3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현충원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묵념과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대전 현충원에는 큰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신다. 6·25 전쟁 당시의 전투에서 적군과 싸우시다 전사를 하셨다고 한다.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전사하시기 전에 군복을 입고 씩씩한 모습으로 서서 찍은 사진 속 큰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 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불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잘 실감나지 않는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쉽게 나라를 위해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나도 금방 자신이 서지 않는다.

이번 현충원에서 큰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하고 난 후 할아버지께서 들려 주신 큰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단순히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줄만 알았던 큰아버지의 이야기는 조국이 목숨보다 소중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큰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한 효자였다고 하신다.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와주셨고, 마을의 어려운 일도 내 일처럼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한다. 특히, 학교에 다니실 때는 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셨고, 나쁜 일을 보면 참지 않으셨다니,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사진 속에서 늘 같은 자세로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큰아버지의 모습은 어렸을 때의 모습과 같다고 하신다. 그 모습을 내가 가장 많이 닮았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에 담긴 송고한 뜻들이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현충원을 걸어 나오다 묘비를 붙잡고 우는 할머니를 발견하였다. 역시 할머니의 아들도 6·25 전쟁 중에 전사를 하였는데, 아직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며, 남북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였지만, 생사 확인이 안 되어 더 이상의 희망도 없다시던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이산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 되는 것이지만, 그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오고가면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남북 사이의 철조망도 점차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갑천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고생을 하였다.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활짝 뚫려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할 줄 몰라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현충일만 나라를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기릴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여야겠다. 그래야만 고속도로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큰아버지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으며, 그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에게 남기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큰아버지의 선물인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의 뜻을 받들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고속도로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리라.



## 남북공감

원주여중 3  
양려빈

“북한의 의무 교육기간은 11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하십시오.”

문제가 주어지기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설전이 벌어진다.

“11년 맞아.”

“아니야, 10년이거든?”

아이들이 우르르 편을 갈라 이동을 시작한다.

“5,4,3,2,1”

선생님의 구호와 함께 징이 울린다.

“정답은 O! 11년 맞습니다!”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교에서 실시한 ‘북한바로알기 OX퀴즈’에서 나는 첫 문제부터 탈락을 했다. 학교 홈페이지 학생자료실에 탑재한 북한의 생활상과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미리 공부해 와야 했는데 게으름을 부리다 그만 첫 문제부터 탈락을 한 것이었다. 퀴즈대회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남아있는 반을 순서대로 2개 반을 뽑아 통일사탕을 상품으로 준다고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조금 미안했다. 다행히 열심히 공부해온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반이 2등을 했고 통일사탕을 상품으로 받게 되었다.

체육관에서 실시한 퀴즈대회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서는 CD를 이용하여 울동을 곁들인 ‘경의선’이라는 노래를 배웠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노래였다. 통일이 되어 남북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해도 5분 안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책에 나오는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지어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남한의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 할 때 가장 걱정하는 '통일비용'의 문제도 분단이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지불해왔던 '분단비용'을 모두 합한 것에 비해 본다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 또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소모성 비용인 분단비용에 비해 통일비용은 물론 한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비용이라는 점, 통일은 우리 민족을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등..., 들고만 있어도 저절로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내용이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통일문제에 대해 한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당위성 위주의 접근은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았었는데 통일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청소년이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열게 한다는 접근은 나와 내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통일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TV에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면 1년 전에 비해 우리의 통일여건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그러나 우리의 통일여건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며칠 전 저녁식사시간에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경의선 철도 운행 무산'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하니 침울한 기분이었다. 부모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노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은 북한에서 정치하는 일부의 사람들일 뿐 북한의 모든 주민이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배경은 잘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오

는 듯하면 어느새 저만큼 멀어져 가는 그들이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손 내밀면 닿을 듯한 곳에 있으면서도 늘 멀게만 느껴지는 곳,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움을 느껴야 하는지….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겪으며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탈북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북한 주민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는 것 같은데 무엇이 우리의 하나 됨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

그러나 나와 같은 청소년에게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만나게 되는 날 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통일 한국어 사전 만들기 싸이트의 운영’은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물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 마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요즘 TV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상플러스의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성세대들에게는 신세대의 언어를, 신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의 언어를 접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 이해를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일 한국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출연하는 ‘세대 공감’이 아닌 ‘남북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상상해 본다.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 공감’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6월! 자칫 월드컵의 열기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진정 남북한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 꽃과 같던 할머니

석정여중합고 2  
전은자

“공비가 숨어도 모르겠다.” 막 외출할 준비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다. 여름을 맞을 새도 없이 안녕하며 봄이 떠나는 길목, 초록색 환희의 산들을 바라보며 아랫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전쟁, 화약 냄새 진동하던 역동의 세월들을 모두 보내신 할머니가 나를 보며 씩 웃으셨고 아마도 나는 ‘공비’라는 단어를 되새기며 아주 조금은 씩씩히 웃음 지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공비라는 말이 나와도 웃을 수 있는 세월에 감사해야 했을까, 아니면 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해야 했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다.

걸음을 옮겨 버스를 탄 후 익숙한 얼굴의 친구들 옆에 자리를 잡아 앉았다. 기차길과 나란히 잘 닦인 도로를 달리며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맑은 동강의 물줄기가 하염없이 이어져있고 물빛 속의 산 또한 흐르는 듯했다. 10분여 끝에 도착한 곳. 노인 전문 요양원이다. 그곳은 비단 버려진 노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삶이라는 것이 힘들어 더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보내야 했을 지금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 냄새가 나는 곳이며, 자식들이 찾아오는 주말만을 기다리며 돌아나가는 동강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머무는 곳이다. 묶어두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심한 자폐증 환자, 부서질 물건은 절대 두지 못하는 치매할머니들이 묶는 방, 그 모두가 웬지 슬퍼지는 오후였다.

두 번째 방문이었던 나는 조금 더 익숙한 동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니들께 식사를 먹여드렸다.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 몇 개 없는 이 사이로 흘러보내 드리면 아주 잘 받아 드셨다. “고맙다.” 건네주시는 그 한마디가 가슴속 더 깊이 박히는 아주 이상한 오후였다.

할머니들의 휠체어를 끄는 시간은 내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중 가장 좋아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오랜만이라는 듯 웃으시는 할머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빨리 가! 빨리 가!”

나는 늘 우연스럽게도 저 말만을 반복하시는 치매 할머니를 맡아 휠체어를 움직인다. 밟지 않게 보채시는 할머니께 “알았어요, 알았어요.” 몇 번을 말해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친구가 끄는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양손에 꽃이 한 가득이었다. ‘꽃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길지 않은 산책시간이 지나고 병원 복도 소파에 앉아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 중 한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오시더니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나와 아이들 모두 ‘공부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했지만 곧 일본 노래를 부르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니 금방 알게 되었다. 다름 아닌 일본어 공부였다. 노래를 부르시는 두 할머니 발밑에 앉아 박수를 치다보니 그 중 한 할머니는 아까 그 꽃을 좋아하시던 할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몇 마디 짧은 일본어를 배우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게 되었다. 농담도 나오게 되자 분위기는 봄날의 꽃들처럼 여유롭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고 어느새 할머니의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웃음이 참 예뻐던 할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일본에서 사셨다고 했고 꽃을 좋아하시던 그 할머니는 6·25가 끝난 후 남편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어 남으로 오셨다고 했다. “형제가 몇이세요?” 라는 나의 질문에 6남매라고 답해주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도 6남매예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살며시 웃으시는 할머니께 나도 모르게 금방 질문이 나오고 말았다.

“그럼, 할머니 형제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묻지 않는 게 나았을까? 순간 말을 멈추시고 손을 떨며 눈물지으시는, 꽃

을 참 좋아하시던 할머니.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 눈물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곧 통일이 되면 형제들 모두 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사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이산가족이었다. 직접 눈앞에서 이산가족을 보니 나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통일이, 나 살아 있는 동안 될까?”

할머니께서 내게 물으셨다.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정정한 모습이셨지만 할머니의 연세는 여든을 넘으셨고 정말로 할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통일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장담했다.

“그럼요! 할머니, 통일 될 거예요. 금방 될 거예요. 할머니 형제들 만나실 수 있어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내 말을 믿어주셨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다시 살며시 웃어 주셔서 감사했다. 덜컥 내려앉았던 나의 심장도 다시 제 자리를 찾은 듯했다. 사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말을 내놓자마자 금방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벽찬 듯 눈물을 흘려보내시는 할머니의 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친구들도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었다. 가슴이라는 것이 아팠으리라. 시대를 짊어질 젊은이로서 어깨가 무겁기도 했으리라. 지켜드리지 못할 약속이 될까 맞잡은 손이 조금은 떨리기도 했으리라.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의 모습으로 부모님 곁에 있는 나는 요즘 들어 부쩍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 생각 끝에는 항상 가족이란, 내가 칼을 쥐어도 내 곁에 설 사람들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러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인생의 2/3를 그리움으로 사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흔히 말하는 젊은이로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통일이라..., 통일이라... 몇 번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 할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이뤄질 수 있는 일이지..., 가슴이 답답해졌다. 잡초 한 포기 없는 너른 마당에 오랜 세월 전 선명히 그어진 칼자국처럼, 우리 민족의 눈물 샘 같은 3·8선! 3·8선을 넘은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 편히 그리



워하지도 못했던 할머니, 눌러 담고 눌러 담아도 부쩍 조금해진 마음에 눈물이 흔해진 할머니, 할머니와 맞잡은 손! 내가 나도 모르게 흐른 땀으로 다짐을 대신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아실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통과 땀으로 일군 땅. 그 안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가진 아들, 딸로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통일을 위해 배우고 배워 노력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 말이다.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우리 민족 다시 하나 되는 날, 좋아하시는 그 꽃을 들고 형제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우수상

## 민족의 상처 위에 통일 반창고를

유춘초 5  
이예람

**야호!** 오늘은 현장학습을 가는 날이다. 들뜬 마음에 내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만 맴돌고 있었다.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자, 새로운 빠알간 버스 2대가 학교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신이 나서 보는 친구들마다

“야, 오늘 현장학습가지?”

하고 가는지 알면서도 물어보았다. 내 질문에 그래도 친구들은 마냥 기쁘기만 한지

“그래, 그래. 오늘이 바로 현장학습이야!”

라며 웃음이 섞인 말투로 대답해주었다. 선생님들께서도 행복 가득한 미소를 얼굴에 머금고 계셨다. 선생님들도 아마 우리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우리들은 차례차례 버스에 올라탔다. 서로 짝지어 앉으니 버스가 부르릉~ 출발을 하였다.

“야, 야! 우리 철원 가는 거 맞지? 우와, 뭐가 있을까?”

예상대로 버스 안은 시끌벅적하였다. 철원에 가까워질 때마다, 아이들의 함성소리가 버스를 울렸다. 철원에 가기까지 꽤 긴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눈동자만큼은 말뚱말뚱 빛이 났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지금 가는 곳은 북한과 우리의 여러 전쟁, 죽음 등 아픈 기억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다녀오면 여러분이 직접 느낀 생각과 마음을 얘기해보

세요.”

이 말씀을 듣고 순간 우리는 알았다. 이곳만큼은 신나게 즐겁게 놀지만은 말아야겠다는 것을 벌써부터 느낀 것이다. 버스가 철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땀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넘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고석정이었다. 넓은 계곡과 멋진 절벽이 보이는 고석정에서는 아름다운 철원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자 나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고모부께서 얘기해주신 말씀을 떠올렸다. 젓가락으로 밥을 집었다 놓았다 하며 얼굴에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나를 보며 고모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람아, 북한 어린이들은 이런 밥을 먹는 것이 날마다 바라는 소원이란다. 북한어린이들의 모습을 아니? 사람들이 밥을 먹는 동안 식탁 옆에 붙은 밥 한 톨이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는 북한 어린이들 모습을 말이다. 이렇게 먹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지.”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며 북한 어린이들을 한번 떠올려보았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식탁 옆의 구석에 붙은 밥 한 톨을 떼어먹는 북한 어린이들. 생각만해도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난 왜 이렇게 칭얼댔을까? 난 스스로를 나무라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다.

‘북한은 지금 울고 있을 텐데. 북한은 지금 죽어가고 있을 텐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북한을 살릴 수는 없을까?’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였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제2땅굴이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이 굴은 휴전선을 지키고 있던 군인이 다이어마이트가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굴은 북한이 다이어마이트로 파왔는데, 도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땅굴로 들어가셨다. 땅굴은 어둡고 추웠다. 그리고 길고도 길었다. 걷고 또 걸으니,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철조망이 길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었다. 그 길로 계속가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철조망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죠? 대한민국에 그려진 금 하나를. 그런데 이제는 땅속에도 금이 그어져 있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창고를 붙여주시면 안될까요? 땅 속 깊이 위로가 되는 그런 반창고를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나도 반창고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고석정에서 마음속으로 질문하였던 북한을 살리기 위한 일도 바로 반창고를 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땅굴을 다시 되돌아오며 반창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착할 곳에 발을 내밀었다. 세 번째에 도착한 곳은 바로 북한이 보이는 곳, 승리 전망대였다. 망원경으로 앞의 땅들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땅이었다. 뒤죽박죽 나무들이 우거져있고 어지러운 숲이었다. 선생님께선 그곳이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다고 얘기하셨다. 지금은 그곳이 지뢰밭이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창고를 생각하였다. ‘반창고가 무엇일까?’ 나는 내 마음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빛나는 것이 있었다. 바로 ‘통일’ 이었다.

이제껏 6·25 전쟁으로 엮히고 엉키기만 했던 마음을 이제는 통일로 풀자. 굶어죽는 북한 어린이들을 되살리고 한 핏줄, 한 가족이면서도 서로 돌아왔을 우리를 다시 마주앉게 하여야 한다. 통일을 향해 가려면 아직 멀고 험하다. 하지만 내 작은 힘이지만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 북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보고, 통일 염원 달리기도 열심히 하며 먼저 북한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보내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아껴온 용돈도 성금으로 모으는 일. 결코 힘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통일’이라는 반창고는 우리 민족의 아픔 위에 비뚤어짐 없이 붙여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힘쓰다면 상처는 깨끗이 아물 것이다. 마음속에 오늘부터 멎진 다짐 하나 걸어본다. ‘민족의 상처 위에 통일 반창고를 붙이자!’ 라고.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도계여중 1  
최해리

아침부터 우리 가족은 분주했다. 오늘 평양에 놀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서 평양까지는 거리가 좀 있지만, 하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약 10분 후면 도착한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

“으음…, 평양 공기, 참 좋다!”

평양의 맑은 공기와 짝 펼쳐진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예술이다. 자연 환경과 더불어 발달된 도시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금강산에서 내려다본 맑고 깨끗한 해금강의 풍경,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연에 푹 빠져 있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야, 해리야! 일어나 늦었다. 나현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며?”

‘이게 웬일인가! 엄마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여기는 집이 아닌가?’

“엄마,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어제 평양에…”

그제야 나는 그 신기하고도 아름다웠던 자연경관, 맑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평양에서의 신났던 기억도 모두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평양을 꿈속에서 그것도 미래의 과학이 발달된 통일된 평양의 모습을, 꿈속에서라도 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신기하고 기쁠 뿐이었다. 어떻게 한번도 보지 못한 평양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혹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나도 모르게 왓지 들뜨게 되고 기분이 좋아졌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에게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산 가족들의 아픔의 소리, 지난 50여 년 간의 슬픔에 쌓여있던 사람들의 서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애국지사들의 가슴 아픈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다. 늘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한다.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이산가족들은 우리 곁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날의 가슴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하며 말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5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무려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을 것을, 그 긴 세월동안 한 가족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움과 함께 눈물이 아른거리며 통일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든다.

요즘 5·31 지방 선거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텔레비전과 거리 곳곳에서는 후보자들의 연설이 계속되고 유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 후에 당선된 후 나중에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것도 많이 보았다. 당선되기 전에는 “잘 하겠습니다.”, “부강한 도시를,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노력도 안 하는 몇몇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당은 당끼리 싸우고 이러다가 선진국으로의 갈 길은 멀기만 하고, 한 나라 국민으로서 화합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세월만 흘러가다 보면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아픔을 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나라의 발전은 국민과 정치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만 발전되는 것이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남한부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의견도 안 맞고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안보를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

6월 10일경이면 ‘2006 독일 월드컵’이 열린다. 어제는 평가전도 있었다. 거기서 나는 참 가슴 뿌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불

은 티를 입고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말이다. 2002년 우리 국민은 모두가 하나 되어 뜨거운 열정을 보냈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응원도 하고 모두가 기뻐했었다. 결과도 좋았다. 모두 한마음이 되니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리라. 이런 월드컵 정신으로 화합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통일은 훨씬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픈 기억을 가져다 준 분단이 일어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남과 북이 조금씩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 지난날의 상처를 잊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행복과 사랑만을 가슴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자.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향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가슴을 활짝 열어 보자. 그렇게 하나하나 노력해 간다면 통일은 금방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통일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로 뭉친다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이 되는 그날은 멀지만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일은 '한 그루의 나무' 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작은 새싹이지만, 우리는 거목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거름을 주고, 희망의 물을 뿌려주고, 믿음으로 키운다면 통일은 그다지 멀지만은 않은 일이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소리도, 통일이 되어 기쁜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도, 언제나 해맑은 우리들의 맑은 웃음소리도 모두 말이다. 저기 저쪽에서 들려오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차고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어, 온 세상이 행복과 기쁜 웃음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우수상

## 금강산, 할머니와 나의 이야기

춘천여고 2  
명소희

‘오늘에야 찾을 날 왔다! 금강산은 부른다.’

음악시간에 배운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한 구절이다. 이 노래는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유년 시절의 나의 기억에는 할머니가 크게 자리하고 계신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가면 구수한 할머니의 눈물 젖은 고향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다.

“야야, 매실주는 뭐니뭐니해도 고향 것이 최고디.”

하시면서 혀를 끝끝 차시는 모습으로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 할머니는 20살 조금 넘은 나이에 월남하셨다. 어찌나 발이 떨어지지 않던지, 집이 있는 그곳을 어림잡아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되돌아보며 고향과 하직을 하셨다고 한다. 월남하는 길에는 이곳저곳 시체가 나뒹굴고, 흐르는 강물에는 붉은 피와 함께 시신이 둥둥 떠다녔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들은 나와 내 사촌언니에게는 그저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였지만 할머니는 그 전쟁의 참혹함 앞에 애써 숨겼던 눈물을 비치셨다.

누구보다 맘이 곱고 여리셨던 할머니께선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을 TV로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내시기 바빴다. 어린 나와 나의 사촌언니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다소 의아해지기도 했다. 이제 비로소 어린 날의 철없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얼굴이 붉어진다.

“야야, 내 소원이 뭐 줄 아네?”



오랜만에 큰 맥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다. 그날은 마침 할머니께서 TV에서 방영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신 후였다. 식구들은 모두 쥐 죽은 듯 조용히 밥 먹기에 열중하던 중에 할머니는 단 한마디의 말로 어색한 상황을 흔들어 놓으셨다.

“글쎄요, 어머니,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큰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씀에 그냥 그렇게 응수하시면서 은근슬쩍 지나치려 하셨다. 그러나 분명히 할머니는 아까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시면서 갈피갈피 쌓아놓은 고향 생각이 뭉개구름이 피어나듯 일어났을 것이다. 어쩌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으신 것인지도 몰랐다.

“허허허. 매일매일 이렇게 매실주 먹는데 뭐이가 먹고 싶네?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냥 금강산 한 번 가보고 싶구나. 그거 언제쯤 갈 수 있네?”

하시곤 말없이 웃어 보이셨다.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늘 할머니의 소원이자라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땡땡거리시는 큰아버지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거론될 때면 늘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어쩌다 남의 나라의 이간질에 속아 한민족, 한반도가 ‘남이요, 북이요’ 하며 허리가 잘렸는지….

그런데 요즘은 통일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로 ‘통일 그까짓 거, 안하며 뭐 어때?’ 하는 식의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어쩌면 그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없기에, 북에 두고 온 집이 없기에, 북에 두고 온 추억이 없기에 통일의 문제를 더욱 쉽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후세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비극의 역사를 오래도록 안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월남하신 분들께서는 고향에 대한 한을 안은 채 이 세상과 이별을 고하셔야 한다. 더러 어떤 분들은 뒤늦게나마 금강산 관광으로 마음속의 한 맺힌 응어리들을 삭혀보지만 50년 세월의 그리움이 하루 이틀 발 디딤으로 다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는 금강산 관광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에 그리운 금

강산을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 한반도의 오랜 소원이었던 민족통일을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 꼭 이룩해야 할 것이다.

매년 돌아오는 6월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려 본다. 눈이 참 맑고 마음이 고우셨던 할머니의 모습. 이제는 사진과 머릿속 기억으로만 더듬어 본다. 그 맑고 맑으신 눈에는 고향의 모습을 한 가득 담으시고, 고향의 아련한 추억은 그 고운 가슴속에 담으신 채 눈 감으셨을 거라고... 사시사철 철따라 아름다움과 기쁨을 지키는 금강산,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 올라 할머니를 외쳐 보리라. 그리고 할머니와 나의 금강산 이야기를 후세에 이어가리라.





# 슬픈 할아버지의 기억

영월초 6  
안예나

“아가, 아직도 멀은 거? 얼른 틀어 봐, 어여!”

등교 준비로 바쁜 나에게 할아버지의 채근은 또다시 시작되었다. 난 어머니께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또 성화세요.”

내 방에서 손은 가방을 매만지고 눈은 시간표를 보면서 잊어버린 준비물이 없는지 분주한 시간, 할아버지의 어린애 같으신 성화에 나는 짜증 잔뜩 섞인 대답을 하였다.

“아가…”

할아버지께서 또다시 나를 부르신다. 난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면서

“어머니, 빨리요, 8번이요!”

하고 나는 ‘쿵’ 하고 닫히는 현관 문소리에 섞인 내 말끝을 거실에 던져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시작되는 할아버지의 똑같은 채근은 정말로 짜증스럽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다. 삼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나를 겨우 알아보시면서 깨어나시더니 시간을 건너뛰면서 기억이 띄엄띄엄 남게 되신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기억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셔서 그나마도 나와 동생 그리고 삼촌들을 겨우 알아보시는 정도까지는 회복하셨다. 그래도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KBS1 채널에서 하는 ‘아

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등교준비로 바쁜 나를 닦달하신다. 그 시간만 되면 난 어머니께 성질을 부린다. 편찮으셔서 그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참 준비를 하는 나는, 나도 모르게 볼멘 목소리가 된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께서

“우리 딸 학교생활 피곤하니? 아침에 할아버지 때문에 학교 지각했니?”

하시며 내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다. 난 뜨끔해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내 손을 잡으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매주 수요일에 보시는 아침마당에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코너가 있다고 한다. 헤어진 아니 잃어버린 형제, 자매, 부모를 찾는 사연과 함께 잊어버린 세월을 찾는 코너가 있다고 한다.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께서는 그것이 6·25 전쟁 때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나의 작은할아버지가 되셨을 분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셔서 그 시간만 되면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TV시청에 성화를 부리신다고 하신다. 아마도 몇 해 전 TV에서 나왔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인 줄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마 너도 전쟁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린다면 똑같은 걸.”

라고 하셨다.

그렇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고아이다.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과 무기로 같은 민족을 죽이면서 공산주의로 통일시켜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북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산가족을 찾으러 북으로 가고 남으로도 오고 금강산도 간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억은 남측 이산가족을 찾는 시간에 멈춰버리신 것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아마도 그렇게 찾던 작은할아버지를 찾아 북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을… 편찮으시면서도 TV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시는 할아버지가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얼른 통일이 되어야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기억 더듬을 시간이 되는 그 순간까지 북으로 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잠이 드신 할아버지의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손을 놓쳐 울고 있는 동생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 마음은 더욱 아팠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그 순간 별똥별이 '슈욱' 하고 떨어지고 있었다. 난 얼른 두 손 모아 별님에게 빌고 또 빌었다.

'할아버지가 평화통일이 되어 작은할아버지 만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게 해주세요!'





## “통일로피아”로

서석중 3  
이주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남북은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 방송은 ‘세계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통일을 알리는 긴급 뉴스를 방송하였다. 이념 갈등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 통일 이후 최대의 뉴스로 각국의 축하 물결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서럽고, 한스러웠던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우리의 통일은 이렇게 찾아왔다. 통일의 흥분도 어느덧 잦아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주역으로 역동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명절 때마다 금강산에서 뵈었던 큰할아버지를 통일이 된 지 1년이 지나서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낯설던 만남은 이내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것이 혈육의 정인가 보다. 아버지께서 사진기를 들고 말씀하셨다.

“자, 웃으세요.”

“육십 년 만의 만남이잖아요?”

큰할아버지가 내 동생을 부르신다. 동생은 쪼로록 옆에 다가앉는다. 큰할아버지께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으셨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 총을 잡았지.”

큰할아버지께서는 열네 살에 전쟁터에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셨다고 한다. 호주기의 폭격에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남쪽으로 피난 간 동생인 우리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에서 살고 계셨던 증조할머니께서는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우리 할아버지)이 남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좋아하셨지만, 북한 당국의 감시로 생활이 어려워져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 2002년, 증조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다가 눈을 감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 포옹했다.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 지난 일들은 천천히 얘기 나누시고 식사하세요.”

“이제 시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된장찌개, 생선, 늘어난 밥공기와 저분, 어른들은 안방에서, 평양에서 온 사촌들은 거실에서 우리와 마주앉아 즐거운 식사를 하며, 애기꽃을 피웠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아이들은 동생 방에서 게임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난리다. 휴대폰이 신기한지 내 눈치를 보던 사촌 여동생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전화걸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바탕화면 바꾸기, 위성방송 시청 등 갖가지 방법을 보자 몹시 부러워하는 눈치다.

“갖고 싶지?”

“응”

“조금 있으면 너도 가질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이번에는 ‘웃찾사’ 녹화방송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깔깔대고 웃었지만, 사촌 여동생은 우리들이 왜 웃는지 이해를 못했다. 연기자들의 몸동작은 그만두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특히 영어를 섞어 쓰는 국적 없는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이다.

지난 60년은 한반도를 둘로 쪼개 놓은 것만은 아니었다. 단일민족을 의식  
과 사고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단절시켜 놓은 것이다. 그동안 통일을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앞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는 통일세대인 우리의 몫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대폭 바  
뀌었고, 하루속히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통일과목도 한시적으로 생겼다.  
우리는 책을 읽고 독서토론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매년 상대  
지역에 수학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북쪽 주민들이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남북한이 손을 잡고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이산가족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주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경제 능력이 앞서 있는 우리들이 북쪽 주민을 도와주고,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통일도피아」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 통일을 향한 발걸음

강릉고 1  
최종휴

**며칠** 전, 언론매체에 '한국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다. 그 결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강정구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에는 '통일전쟁' 기고 글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되자 강정구 교수는 동국대 캠퍼스 안에 천막을 치고 강의 하기도 했다. 강정구 교수의 이러한 돌출행동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국가보안법 철폐논의가 한창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보도되었던 터라 남한 내 진보·보수단체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선거 때만 되면 슬며시 고개를 쳐드는 색깔공세도 이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한 몫했다.

이 사건은 남북한통일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념차이를 넘어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생각이 자유로워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 민주 국가이고 냉전시대는 이미 막을 내린 지 오래 되었다고 배우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 교수의 발언이 조금 시대를 앞서갔다는 감도 없지는 않지만 개인의 견해 차이조차도 존중

받을 수 없는 사회는 자유 민주 사회가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소위 자유○  
○연합, 민주○○청년회와 같은 간판을 버젓이 달고서는 빨갱이 물러가라  
며 이승만 정권시절의 무력흡수통일 논리를 펼치고 있으니 진정한 민족화  
합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통일 축구 경기 때에 목청껏 함께 내지르는 응원구호나 올림픽이  
나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때면 매번 볼 수 있는 남북한 동시 입장과 같은 풍  
경은 우리 민족에게도 화합과 평화의 봄별이 비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  
기에 충분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남과 북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잠수함과 무장공비 침투 등 얼마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 누가 이렇게 빨리 남과 북의 벽이 허물어져 가리라고 생  
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아주 먼 훗날의 얘기처럼 느껴지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인민군과 국군이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냈다는 내용의 ‘웰  
컴투동막골’이란 영화가 관객몰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북측 방문단이 남  
측의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경의  
선, 동해선 철도의 시범운영이 예정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측 모두 애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  
라 개성 관광의 시작, 남북 직통전화 개통, 내금강지구 관광개발 검토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이례적으로 93년 탈북한 인민군 출신의 새터민이 금  
강산 관광을 다녀왔다. 그는 금강산 관광길이 처음 열릴 무렵부터 그리운 고  
향 땅을 밟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성급한 행동이 남북 교류의 분위기를 해칠  
까 싫어 미루던 12년만의 귀향을 드디어 이룬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북에 가  
서 ‘민족 반역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남쪽 관광객들에게 마음을 열어  
가는 북쪽 주민들의 변화를 보며 평화 통일로의 나아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의 말에서 반세기를 갈라져 살아온 민족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겼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국제적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돕는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할 시대이다. 몇 해 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 때에 보여주었던 우리 민족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들이 모여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미래의 통일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비록 한때 서로의 가슴을 겨누고 적대시하였지만 지구촌이라는 세기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90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상호여행, 서신왕래, 방송교류를 활발히 하여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진영 간의 엄청난 소득격차로 인하여 서독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은 착실한 준비와 든든한 기반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한다.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돌아 치유되기 마련이다. 지금 한반도는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돌아나려는 때이다. 우리 모두 한반도에 평화통일이라는 새살이 돌아나도록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통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자.





## 충청북도

- 할머니의 슬픔 ...265
- 슬픔을 넘어서 ...267
- 통일, 우리가 해낼게요! ...272
- 허리 굽은 할머니 ...274
- 분단된 나라, 헤어진 가족 ...276
-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날까지 ...278
- 피난길에 생긴 일 ...281
- 눈물이 강이 되어 ...283
- 그리움..., 그리고 햇빛 ...286





## 할머니의 슬픔

백곡초 5  
황선유

또 6월이다. 우리 집 울타리에 새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마치 6·25 전쟁 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핏빛처럼….

“죽은 사람이 들판에 가을 벼단처럼 쓰러져 있었다. 여기도 저기도 죽은 사람… 정말 끔찍했었지. 그때 이 할머니는 군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만 숨어 있다가 야밤에 남으로 피난을 왔단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 일이 생상하신지 몸을 부르르 떠셨다.

“벌써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평생 통일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젠 틀렸나 봐.”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 텔레비전을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통일기차가 운행 된대요. 할머니 꼭 통일이 될 거예요.” 하고 위로해 드렸다.

나는 할머니의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해봐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대로 실감하질 못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슬픔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단은 우리 할머니처럼 이북이 고향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슬픔을 주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완전한 것들을 모아 하나로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그 말의 뜻처럼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 우리나라를 갈라놓았던 냉전시대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통일이 되지 못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면 북한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한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다고 한다. 너무 가난해서 어쩌면 스스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가 중요한 것이다. 힘이 약하면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넘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벌써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며 북한을 노리고 있다. 또 일본 역시 독도를 넘보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기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 앞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한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한때 분단된 나라였던 독일이 하나가 되어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한 것처럼 통일된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어 모두 뛰어나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픈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이제 그쳤으면 좋겠다.







## 슬픔을 넘어서

청천중 3  
이희정

작년에 우리 가족은 한창 흥행했던 ‘웰컴투 동막골’을 보러갔다. 그 영화의 이야기는 6.25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던 동막골에 우리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숨어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것이다. 처음에는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같은 민족임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친해지게 된다. 단순히 흥행하는 영화여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을 아름답게 그려냈다는 것에 매우 감동을 받은 영화였다. 나는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물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던 마을이 있었을까요?”

“글쎄…,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때는 워낙 혼란스럽고, 깊은 산속까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단다.”

할머니는 그때 생각이 나시는 듯 작은 한숨 덩어리를 내뿜으셨다.

“그때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웠지. 그때 할머니는 9살 난 어린아이였단다. 그때 생각을 하니 그 인민군이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를 따라가니, 둥그스름한 눈을 가진 9살의 할머니, 정옥이를 만날 수 있었다. 정옥이는 골목대장으로 불릴 만큼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산토끼를 잡겠다고 친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려던 정옥이의 눈에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차가 지나갔다. 그곳에는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는 죽기직전 아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겁에 질려있

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정옥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맨 끝에 타고 있던, 아직은 어린 티가 나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그때 그 청년의 눈이 왜 그렇게 슬퍼보였는지, 어린 정옥이는 알 길이 없었다. 그 순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네 오빠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전쟁이야! 전쟁이 터졌대요! 인민군이 남쪽으로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대요!”

전쟁, 그 두 글자를 정옥이는 알지 못했다.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고, 한민족을 둘로 갈라놓게 될 악마라는 것을… 그 말을 들은 정옥이는 집으로 급히 달려갔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다는데요?”

정옥이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집안으로 뛰쳐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썩색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내, 아버지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 군인들과 함께 문간으로 걸어 나오셨다.

“아버지! 어디가세요?”

“응. 금방 올 거니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커다란 군인 차에 몸을 싣고 마을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조그만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니는 불안에 떠셨다. 하지만 순진한 정옥이는 그저 점심때 남겨놓은 보리밥을 빨리 먹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정옥이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확실히 각인시켜준 사건이 일어났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정옥이는 다급히 뛰어가는 국군을 보았다.

“아니 클쎬, 저쪽 낙영산에 빨갱이놈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치러가는 거래유.”

“허이구, 쪼매만 늦었어도 우리 목숨도 부지 못할 뻔했네유.”

“그러게 말이예요. 이놈의 전쟁은 언제 끝날는지…”

빨래터로 가면서 주고받는 아주머니들의 대화였다. 도대체 저 산에 뭐가

있다는 걸까? 그때였다.

“과광! 팡! 탕탕탕!”

엄청난 천둥소리였다. 그러나 날씨는 맑았고, 천둥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정옥이네서 멀지 않은 산이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정옥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리고 정옥이는 한참을 할머니의 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총소리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다시 군복을 입은 국군아저씨들이 분주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빨리 인민군들을 찾아!”

인민군,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찾고 있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저렇게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다. 마을은 언제 총격전이 벌어졌었느냐고 시치미를 뚝 떼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어머니는 그만 저녁을 먹어야겠다며 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좁쌀을 꺼내러 가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다. 광에는 팔뚝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쓰러져있는 인민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으악! 누, 누구십니까?”

겁에 질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인민군은 급히 옆에 놓여있던 총을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셨다.

“아즈마이 동무! 조용히 하라우! 안 그럼 쏘겠어!”

인민군은 다친 팔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고,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정옥이와 할머니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인민군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무섭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면 그 즉시 총살이니 그리 알라우.”

정옥이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아저씨가 무서워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있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온화한 미소를 띠시며 조심스럽게 인민군에게 다가갔다. 인민군은 약간 놀라며 총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붉은 피가 흐르는 인민군의 팔에 손을 대셨다.

“이게 뭐요. 도대체, 쫓쫓쫓... 얼마나 아플꼬, 우선 이 상처부터 치료합

시다.”

인민군은 어안이 병병해서 할머니를 내려보았다.

“왜 이러기는, 팔 다쳤잖아. 우리 이것부터 치료하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리든지 말든지 합시다. 여기 이 징그러운 총은 좀 치우고, 응?”

할머니는 다친 인민군을 따뜻하게 감쌌다.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일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인민군도 이제는 어머니의 손길인 양 가만히 있었다.

“절대로 알리지 않을 테니, 자네나 들키지 말게. 애미야, 감자랑 고구마 좀 가져다 주거라.”

할머니는 광을 나가시며 어머니께 말씀하시고는 겁에 질려있는 정옥이를 품에 안으셨다.

“할머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 모든 게 다 전쟁 탓이지. 우리 아범도 저렇게 될까 무섭구나.”

할머니께서는 또 한 방울의 눈물을 내놓으셨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정옥이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할머니와 정옥이가 광으로 갔을 때, 인민군은 없었다. 그 대신에 광 바닥에 나뭇가지로 쓰인 글만이 비어 있는 광의 공허함을 달래줄 뿐이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씩씩히 웃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결국엔 갔구나. 아범 생각이 나서 그랬다. 우리 아범도 그 인민군처럼 쫓기고, 다친 몸을 이끌고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니?”

그렇게 인민군 아저씨가 정옥이의 광에 글을 남기고 떠난 지도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어린 정옥이는 이제 주름이 깊게 패인 할머니가 되어서 손녀인 나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그랬군요. 그래도 그 인민군은 착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매우 악독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건 사람들의 편견이란다. 인민군이라고 해서, 공산당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 우리는 한 민족인데 이렇게 혈통고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할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으셨다. 어쩌면 그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같은 피가 흐르는 우리들이 무엇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가, 어쩌서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 해야만 하는 사이가 되었는가? 다친 인민군에게 따뜻하게 다가갔던 정옥이의 할머니처럼,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한반도라는 꽃밭에서 하나라는 꽃이 활짝 피어서 그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 통일, 우리가 해낼게요!

일신여고 2  
육심지

“지금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흔들며 힘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한 팀이 되어 출전한 감격스러운 장면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평양에서 남한 가수들의 공연, 분유와 쌀, 소 등 대북물자지원,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의 만남...,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해, 텔레비전에서 ‘남북알아맞추기경연대회’ 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퀴즈프로그램을 합성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함께 퀴즈를 푸는 형식이었다.

‘북한에서 내는 문제인데 뭐!’ 라고 만만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았다. 그렇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있어야 맞출 정도로 어려웠다. 사실 무엇보다도 더 놀란 것은 문제가 아닌 문제를 풀고 답을 적을 때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내가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라.

예전에 북한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우리나라에도 못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왜 먼저 우리나라를 챙기지 않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나 역시도 그

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5월, 외할아버지 생신을 맞아 외갓집에 갔다. 그날,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포함한 친척들을 불러 모으셔서 6월이 다가오니 6·25 전쟁이 생각나신다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6·25 전쟁에 참여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자신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지 않으셨지만 주위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아픔이라 하셨다. 갑자기 하늘에서 울려대는 대포소리에 모두들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족의 손을 잡았는지 놓쳤는지의 감각은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되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자연스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생이별을 상상해보았다.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간다.'는 말도 못한 채... 생각만으로도 끔찍한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은 고통이 얼마나 더할까? 외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남측과 북측의 노력으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많다고 하셨다. 또한 앞으로 그러한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통일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뼈뚫하게만 바라보았던 통일이 새롭게 와 닿았다.

독일이 통일했을 때를 비추어 볼 때 남과 북의 통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던가?

일본이 왜 우리의 독도를 탐내고, 중국이 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가? 우리는 독도가 우산국 지증왕 때, 조선 숙종 때 우리땅임을 일본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평창에 고구려 유적들이 있다는 것을 앞에도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임에도 하나가 아닌 탓에 단결된 우리의 힘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에 맞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통일의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아닌 유일한 단일민족국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외할아버지, 우리가 해낼게요!



우수상

## 허리 굽은 할머니

봉명초 5  
이 청

**우리** 집 2층 구석진 방에 할머니 혼자 외롭게 사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허리가 굽은 채 노래도 안하고 큰 소리를 한번도 내지 않는 조용한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나 빈 곱, 빈 박스를 유모차에 싣고 고물상에 팝니다.

나는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집 2층에 사는 할머니께는 웬지 인사를 하기 싫습니다. 어느 날 허리 굽은 할머니의 가족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해졌습니다. 엄마께서 과일을 2층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2층에 가봤더니 할머니께선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없고 딱딱한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나머지 할머니께 왜 맛있는 것이 많은데 물에 말아 드시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할머니께선 북에 있는 가족들은 쌀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이 정도는 진수성찬이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께서도 나만한 손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허리 굽은 할머니가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싫어하고 잘 못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랑 친해졌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웃지 않으십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그동안의 걱정과 고생에 의해서 이곳저곳 모두 찌글찌글하고 까슬까슬 합니다.

지난 2000년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로 손 잡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통일을 시급하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 할머니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6년 전 약속했던 내용이 빨리 이루어져서 할머니의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할머니 입가에 웃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해주신 손자도 만나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산가족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할 때까지 할머니께서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사람들과 같이 뛰놀고 북한과 남한의 말을 적절히 사용할 때까지 우리나라 파이팅!





## 분단된 나라, 헤어진 가족

청주중 3  
김성모

내가 지금까지 가족과 떨어진 적은 많지 않았다. 거의 3일간 떨어져 있었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였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 늘 궁금해 하셨다. 3일만 못 볼 뿐인데, 부모님은 그것마저 불안해 하셨다.

작년 11월, 우리 누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어느새 8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보인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항상 강하게만 보였는데, 그때 처음 보았던 아버지의 약한 모습이였다. 나 또한 누나의 빈 공간이 크게만 느껴진다. 태어나서 단 한번도 다른 땅을 밟은 적이 없었던 우리였다. 누나는 항상 나에게 요리사, 조연자,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 내가 중학교를 들어와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것 역시 우리 누나였다.

그나마 우리 가족은 기약이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가끔씩 듣는 목소리에 안부를 살피며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약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다리는 이가 죽은 것도 아니다. 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우리는 이들을 이산가족이라 부른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번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기쁨의 장소에서 울고 있었다. 서로가 쓰는 말은 달랐지만 서로가 말하는 뜻은 같았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 마디가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게

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50여 년이 지났다. 우리가 보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도 모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간의 모습이다. 통일에 대한 발걸음이 지지부진한다면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남은 그들의 모습이, 이미 이산가족이란 단어가 무의미해진 우리 다음 세대에는 마음에 결코 와 닿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통일을 주장하겠는가? 언어도, 사고도, 생활도 달라져 버린 두 나라이다. 같은 민족이란 생각이 희미해져 버린 마당에 경제적으로 손해만 보는 통일을 그때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설사 통일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 갈라질 것이다.

즉,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30~40년이 그 한계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눈물 흘릴 시간도 30여 년이 끝이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길어 보이지만 이미 50년이 지났다. 하루빨리 합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누구나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교과서에서 통일을 한 세 나라, 독일, 예멘, 베트남을 배운다. 나는 그 중 이번에 월드컵을 치루는 독일이 부럽지 않을 수 없다. 10여 년 전에 통일하여 세계인의 축제까지 함께 치루다니... 4년 전 한·일 월드컵이 남·북한 월드컵, 혹은 통일 한국 월드컵이 되길 바랐던 나로서는 한없이 부럽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먹고 이뤄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2년 전 다시 돌아온 아테네올림픽처럼 다시 돌아온, 아니 새롭게 펼쳐질 통일 대한민국에서의 올림픽 혹은 월드컵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60여 년 전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를 헤쳐나 온 우리다. 세계엔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많지만 그 중 언어와 정신을 온전히 보존한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런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에 의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에게 제일 큰 고비는 통일에 대한 '결단' 뿐이다.



우수상

#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날까지

충북여고 1  
김 주 희

“식모엄마! 식모엄마!” 방안에서 책을 읽던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다. 현관에는 얼굴이 많이 탄 아저씨가 서 있었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이른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집안일을 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식모엄마’는 그 아주머리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하는, 탈북 난민이셨다.

“식모엄마 안 계시니? 밥 좀 먹으러 왔는데…”

TV에서나 들어본 북한말의 억양이 질게 배인 말투, 나는 겸연쩍게 웃으시는 아저씨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들어오시라고 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집에 가신 뒤였기 때문에 내가 상을 차렸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푸는데 아저씨께서 어느새 내 뒤에 오시더니,

“더, 더 많이, 더…, 그래 됐다.”

아저씨의 ‘더 많이’가 멈췄을 때, 나는 밥그릇에 담긴 밥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하루에 먹는 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 보였고, 일부러 큰 밥그릇에 췌는데도 밥그릇이 밥을 담고 있는 게 힘겨워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아저씨께서는 그 많은 밥을 10분 만에 다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시고 현관문을 나서셨다. 정말 짧은 만남이었다.

아저씨께서 나가신 후, 내 머릿속에선 밥을 몰래 먹던 습관 때문에 밥을

허겁지겁 드시던 아저씨의 모습과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겹쳐졌다. 낯설고 이상한 기분이 내 몸을 감쌌다. 한 민족이기에 웃음은 똑같이 정다웠지만, 한 민족인데도 밥을 먹는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부모님께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다. 아저씨는 정말 어렵게 남으로 오셨다고 했다. 북에 가족도 두고 오셨는데, 아저씨의 말씀으로는 '강냉이죽만 배불리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가족을 두고 남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저씨는 가족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거리신다고 했다.

비록 6·25 전쟁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산가족이 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내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통일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통일비용이 너무 막대할 것이라며 걱정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긴장상황으로 인해 많은 돈을 군대의 유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이것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며 인력의 손실이다. 오히려 통일비용은 미래의 자랑스러운 통일국가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통일의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통일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제도적, 법적으로도 통일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노동력이 조화되어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남쪽과 북쪽의 민족적이고 서구적인 문화가

어우러져 문화선진국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온 나라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의 그날이 오면 한 민족이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아저씨가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대해본다.





## 피난길에 생긴 일

참신초 5  
김 학 선

어둑어둑 길어진 그림자가 노을빛 옷을 입고 흔들흔들 춤을 추는 따뜻한 봄날, 할아버지, 할머니, 큰집 식구, 우리 가족 이렇게 대 식구가 즐거운 가족모임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두들 노래방으로 향했다.

들뜬 노래방 분위기는 생방송 가요대전을 보는 것 같았다. 순서대로 노래를 한 곡씩 하고 우리 가족의 막내인 동생 순서에 우리는 박수를 치다 말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유치원생인 남동생은 어디서 배웠는지 6·25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고 있었다. 너무 웃기고 기가 막혀서 온 식구가 배꼽을 쥐고 웃는데, 할아버지께서만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계셨다. 잠시 후 할아버지 눈가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한동안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할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 한 쪽에 웅크리고 앉아서서 한없이 창 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작은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때 증조할머니 등에 업혀 피난가던 중 총알이 귀를 스쳐 귓불 부분이 찢어져 버렸단다. 그때 증조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린 자식이 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아파하며 울고 떼를 썼을 텐데, 피난길에 특별한 약도 없고 들에 난 풀로 대충 지혈만 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고 한다. 상처는 더운 날씨에

끓어서 열이 나고 진물이 흐르기를 여러 번 반복 후에도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유증으로 작은 할아버지의 귀는 쪼그라들어 보기도 징그러웠다.

명절 때만 되면 작은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네. 우리 달덩이도…”

작은할아버지께서는 유난히 나를 예뻐해 주셔서 나만 안고 업고 다니셨다. 나는 등에 업혀 일그러진 할아버지의 귀를 볼 때마다 무섭고 징그러워 일부러 피하기도 했다. 작은할아버지는 키도 크시고 잘 생긴 외모에도 한 쪽 귀 때문에 사회생활도 적응을 못 하시고 자꾸만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셨다. 사랑하는 자식과 부인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가시다가 외로움에 못 이겨 목숨을 끊으려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모시고 오신 다음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평생 받아온 시선과 아픔은 모두 씻겨져 나가질 못했다. 얼마 후 작은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형인 우리 할아버지는 늘 동생을 가슴속에 담아놓고는, 긴 한숨을 쉬며 하늘을 쳐다보고 사셨던 것이다. 가족모임을 끝내고 할아버지 댁에 돌아왔을 때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계시는 작은할아버지 얼굴은 피난길의 상처를 잊은 아기 같은 모습이셨다. 살아 계실 때 철이 없던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드렸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할아버지를 보고 조금만 더 웃어드리고 가까이 다가가 손도 좀 잡아드렸다면 너무 기뻐하셨을 텐데….’

6·25 전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남겼고, 그리움을 남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이다.

오늘도 사진 속에는 원망하는 빛 하나 없이 해맑게 웃고 계시는 작은할아버지 모습이 먼저 눈에 띈다.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던 북쪽 고향땅에 지금쯤은 가서서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 다시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작은할아버지의 소원을 떠올려본다. 작은할아버지 소원대로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다본다.





## 눈물이 강이 되어

보은중 2  
김태운

햇살이 밝아 눈뜨기가 무서운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 산 너머에 있는 맑은 구름을 보며 나는 말한다.

“북에 사는 우리 예쁜 할머니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의 본래 고향은 평양이다. 하지만 6·25 전쟁의 발발로 할머니만 빼놓고 가족 모두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할머니는 집을 비우고 떠나실 수 없으시다며,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돌아올 때를 생각해 집만은 지켜야 하신다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남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으로 남아버린 3·8선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할머니와 우리 가족….

“아휴! 그때만 아이였어도…, 나만 같이 있었어도….

할멈, 내가 꼭 가리요.”

할머니를 못 본다는 소식을 전해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셨다. 할머니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적십자에서 추진하는 남·북 공동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게 되었다. 서로를 열싸 안는 그 모습은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 채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런 날이 오겠지’ 하며 나는 할아버지에게 조심히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우리도 저거 해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꾸 대신 쓴웃음을 지으시며 방을 나가셨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을 만지고 또 만지며 어디론가 무슨 말을 건네는 거 같았다.

구름이 아름다웠던 그날. 따르릉 따르릉 소리에 맞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만날 수 있대. 아직 할머니가 살아 계시데.”

눈물을 흘리시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할멈! 감사해요. 내가 꼭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할아버지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기도하고 달력에 날짜 표시도 해놓으셨다.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을 품에 안은 채 한없이 정신이 나간 듯 울다가 웃다가 하셨다. 약속된 날짜인 오늘, 우리는 아침 일찍 꽃단장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여러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가족만은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우리 가족을 에워싼 스산한 바람이 할아버지를, 아니 우리 가족의 마음을 싸늘히 식혀 놓았다. 기쁜 마음도 잠시 조금한 마음만이 내 가슴을 가득 메웠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우리는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 시간에 지치고 피곤에 지쳐 우리는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할머니를 결국 찾지 못했고 북측에 연락을 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전화로 소식을 받은 우리 가족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화 내용은 할머니가 하루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55년을 기다렸는데, 함께 했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조금 서둘러 찾았어야 했는데, 그리움을 쌓지 말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그땐 왜 몰랐을까? 그리움이 슬픔이 된다는 것을….

옛 상처에 얽매어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조차 난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침통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가슴속 깊은 샘에 묻어 놓고,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어서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더 늦기 전에 가슴속 한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그리움'이라는 허물을  
벗겨 버리자. 그리고 우리 모두 외치자.

“얼었던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 던지고 따뜻한 햇살을 가슴 가득 채워 한  
나라의 행복을 느껴보는 새날을 맞이하자고...”





# 그리움..., 그리고 햇빛

제천여고 1  
노송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던 날, 상봉회장은 그동안의 그리움과 애담을 대신해 눈물바다가 됐다. 반가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상봉회장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누구보다 가슴 벅차했던 곳이 있다. 시골 증조할머니 댁이다.

1912년에 태어나신 증조할머니께서는 올해 94세가 되셨다. 증조할머니께서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시고 시집을 오게 되시면서 서울로 오시게 되셨고 지금은 단양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뤄지던 날 증조할머니께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산가족들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 가슴 한편에서 밀려오는 그리움 때문인지 안타까움 때문인지, 그날 하루 동안 증조할머니께서는 진지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시고 눈가에 눈물만이 맺히셨었다. 나로선 증조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기만 할 뿐, 행동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증조할머니께서 이토록 슬퍼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증조할머니께서는 많은 이산가족 중의 한 분이셨다. 5남매 중 셋째, 3남 2녀 중 장녀신데 시집을 오시면서 형제들과 헤어지고 남북한이 나뉘지면서 만날 수 없게 되고, 이산가족 신청을 했지만 아직 생사조차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다.

남북의 분단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멀지 않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비록 60년이 넘는 세월에 이산가족의 수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분단의 고통은 아직도 남한 땅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울부짖고 목 놓아 외쳐 봐도

대답 없는 북녘 땅을 바라보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애통할 뿐이다.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라도 또, 남북의 대립으로 해마다 지출되는 상당한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시행한 햇볕정책인데 이 햇볕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상호교류하면서 독일처럼 피를 부르지 않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50년 이상이 흘렀다. 오랜 시간 분단되면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밝은 햇빛을 비추기 위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충청남도

- 2006 통일 인삼엑스포를 꿈꾸며 ...291
- 반쪽의 콩이 한 알의 콩이 되기까지 ...293
- 민들레 흙씨에 담은 내 마음 ...296
- 퍼즐 맞추기 ...300
- 더블 코리아의 힘 ...304
- 오랜 기다림의 끝 ...307
- 꿈은 이루어진다 ...311
- 내 조국 조선 사람들에게 ...314
- 통일을 원하지 않던 너에게 띄운다 ...317







# 2006 통일 인삼엑스포를 꿈꾸며

부리초 5  
길은경

오래전에 TV에서 경찰관 아저씨와 술에 취한 아저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술에 취한 아저씨가 대뜸 큰 소리로 경찰관 아저씨에게 물었다.

“당신 소원은 뭐요?”

“통일이요!”

“하하, 농담하시지 말고!”

“통일이요!”

“통일이 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 방송을 본 후 경찰 아저씨들이 정말 멋져 보였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대부분

“가족이 건강하면 그만이지요.”

라며 개인적인 일을 소원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공무원인 경찰관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에 뿌듯함을 느끼며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지개 같다.

지난 인삼 축제 때 가족들과 함께 인삼 전시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해마다 가보았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행사 내용이 다양해지는 것 같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장사꾼과 관광객,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생김새의 사람들을 보며 인삼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시장을 둘러보아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회화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서 신기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들도 함께 모여 즐거운 한마당을 펼치는데 가까운 곳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인삼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 먼 나라에서도 오는데 이웃사촌인 북한 사람들은 왜 올 수 없는 것일까?

인삼 전시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여러 지역 인삼의 종류와 생김새, 미국이나 중국의 인삼 표본을 보며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다. 북한도 우리나라 인데 개성 인삼은 전시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께 여쭙어 보았다.

“왜 북한 인삼은 전시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북한 인삼은 자유롭게 수입이 되지 않아서 전시할 수 없단다.”

‘남북을 대표하는 금산 인삼과 개성 인삼이 함께 전시되어 서로의 우수함을 뽐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산 인삼과 개성 인삼이 나란히 전시되고 다른 지방 인삼도 함께 전시되어 각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늘 높이 떠있는 풍선과 거리 곳곳에 꾸며진 안내판과 예쁘게 꾸며진 도로 곳곳을 보며 2006 인삼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멋진 국제 인삼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한다. 2006 통일 인삼 엑스포를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마도 희망사항일 것 같다.

통일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가 아니라 언젠가는 잡을 수 있는 무지개가 될 거라 믿는다. 통일 인삼 엑스포가 열리는 날, 북한 친구들과 농악대회에 참가하여 태평소를 신나게 연주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태평소를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 반쪽의 콩이 한 알의 콩이 되기까지

광흥중 2  
이영민

1학년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는 평상시 나의 일이다. 그날도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그때 갑자기 전 주에 낸 국어 숙제가 생각났다. 그래서 친구인 기태에게 국어 숙제를 메신저로 물어봤다. 기태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다.

“바른 말 고운 말 쓰기야. 우리 남한말을 북한말로 바꾸는 것도 있어.”

나는 가방에서 국어책을 꺼내 숙제로 해야 하는 단어를 보았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단어들을 보니 알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전혀 무슨 뜻을 지녔는지 감이 오지 않는 단어도 있었다. 특히 남한말을 북한말로 바꾸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어에 ‘북한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검색어를 써 넣었다. 아, 컴퓨터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다. 사진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다 찾아주니 나는 쓰는 것 밖에는 할 게 없었다.

난 국어책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처음에는 북한말에는 관심도 없이 베껴 쓰기에 바빴다. 그런데 적다 보니깐 왜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북한말을 알아가야 하는지,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 질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국어 시간이 되었다. 시작하자마자 국어 선생님께 북한말을 왜

배워야 하나고 좀 볼멘 목소리로 여쭙어 보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

“북한말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에요. 북한말은 우리 민족이 반으로 갈라져 북쪽에서 쓰고 있는 언어이고 남한말은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에서 표준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남쪽과 북쪽에서 쓰는 말이 너무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언어부터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니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유람’ 등 북한과 연결된 소식이 자주 나온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왜 계속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야 하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누가 다스리지? 대통령은 어디에서 나올까? 언어는 어느 쪽 말을 사용할까? 또한 현재 북한은 우리보다 못 사는데,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니 중학생인 내가 생각해 보아도 정말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았다.

막연하게 ‘통일, 하면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통일만 하려 하지 말고 우선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통일을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통일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가끔 뉴스에서 보면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지금 독일은 이런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어 하나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기원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여 통일이 되면 그만큼의 부담이 돌아오는데 왜 통일을 해야만 하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한 번쯤은 통일에 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힘써서

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어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 처음엔 짜증나는 숙제에 불과했지만 정말 나의 생각을 많이 바꾼 숙제가 되어 버렸다. 그래, 반쪽의 콩이 한 알의 콩이 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겠다.





# 민들레 홀씨에 담은 내 마음

서천여정보고 1  
지 하나

**봄, 봄**이다. 꽃들이 피어있고,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고, 창피하지만 춘곤증까지 나타났던 오늘은 봄이었다. 봄은 여기 이곳뿐만 아니라 저 휴전선 너머 북한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질 것이고, 똑같이 예쁠 것이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민들레 홀씨가 저 강 너머 어렵게, 어렵게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

계절까지 같은, 이리도 가까운 곳을 우리는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저 큰 바다 건너 미국에도 하루면 도착하는데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을 나는 물론이고 그곳이 고향인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까지 땅조차 밟아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1년 전 봄, 양양 산불이 났을 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하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곳도 우리의 3배나 되는 큰불이 났다는데, 하늘에는 땅처럼 휴전선으로 가로 막은 것도 아니지만 헬기로 도와줄 수도 없었다.

나는 양양도 양양이지만 그 안타까움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밖엔 없다고 한다. 나는 특별하고 유일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특별함은 왠지 찝찝한 특별함이다.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산다. 2주에 한번씩 뵙는 얼굴임에도 매일 보고 싶어 하고 생각나고 전화하는데 약 60년의 세월을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전화도 할 수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에 그리도 눈물 흘리며 반가워하고 또 곧 헤어짐에 슬퍼하는 그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을 때에 조금은 짐작이 갔던 그 느낌이 그 분들은 얼마나 클까? 상상조차 되질 않아 조금씩 가늠해 볼 뿐이다.

일년 전 우리 지역 최성용 아저씨께서 남북주민 어떤 한 분을 구출해 오셨다는 기사가 지역신문에 나온 적이 있다. 나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꼭 한번 뵙고 싶다. “나는 꼭 가야만 한다.”라는 북에서의 편지를 받은 아저씨께서는 자신의 일까지 제쳐두고서 이분을 구해오셨다는데, 이 기사를 읽고 참 몽클했다.

나도 학교생활을 해보지만 내 사정을 제쳐두고 다른 친구의 일을 도와주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짧지만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까지도 줬다. 이 같은 분이 있기에 우리나라 통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왜냐하면 북한에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이같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북한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직접 벌어서 살려니 참으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택배기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북한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사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몽클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한 아주머니는 크리스마스 때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큰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는 작고 사소한 것도 재미있다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러한 작고 사소한 행복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자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드문 것 같다. 탈북자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 자유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많아 귀한 줄 모르고 있고, 옷도 못 입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입어서 탈인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은 올 수 없단 말인가?

옛말에 ‘사돈의 팔촌이면 남이 없다.’ 라는 것이 있다. 생각해 보면 저 북의 사람들도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들이 힘들고 아파하면 걱정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미덕을 지녔다. 따라서 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해야 하는데 매체에서 접하는 저 강 건너 형편은 우리보다 현저히 힘들다 하니 내 마음이 좋질 않았다. 그렇지만 요즘은 북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많다는 소식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답이 안나오는 의문점이 있었다. 통일이 되면 사상은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물론 민주주의 사상이어야겠지만 펜스레 생각해 보던 문제가 풀어진 것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 덕분이다.

그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사회시간에 “자유를 맞본 사람이 과연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질문이었지만 이것이 나에게서 가슴이 탁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명쾌한 해답이었다.

사상이 불어집에 대한 위험성과 중독성 그리고 심각함을 심어주신 선생님께 지금이나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사상적인 문제 외에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긍정론에 속한다. 당연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7, 80년대에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한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이처럼 남한 사람들도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군 왕검의 한 뿌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다.

국어시간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그때 당시, 선생님께서 말하신 의도는 분명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지만 민족의 혈통이 영구적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백만 번 읊으신 말씀이고, 또한 통일에 대한 가장 타당성 있는 근거인 것 같다.

언젠가 한번은 나름대로 통일이 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고 내가 살고 있는 판교 냉면과 맛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엉뚱한 상상을 했었는데, 정말 그



리고 싶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라고 했다가 “너희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실망했는데, 역시나 중학교는 설악산, 고등학교는 제주도이다.

이젠 내 딸, 아들들은 수학여행을 금강산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땅, 우리의 땅을 막힘없이 둘러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난 북한 친구들의 문화어도 배워보면서 때문지 않은 순수한 우리말을 느끼면서 즐거워해 보고도 싶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한의 관광지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 주고 싶다.

한달도 채 안 남은 월드컵, 비록 북한은 아쉽게도 예선전에서 탈락했지만 제발 우리와 함께 한 경기장 좌석에 앉아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름, “대한민국”을 외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生) 것이다. ……] 라고 말씀하신 김구 선생님의 소원처럼 통일의 절대성과 운명을 생각하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로 아픔을 겪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통일의 열망을 모아 함께 하는 날을 고대해 본다.

생명의 새싹을 키운 봄날에 우리의 통일 열망과 우리 동포에 대한 따스한 마음을 민들레 홀씨에 담아 가까운 저곳까지 가서 뿌리리라. 따뜻한 봄기운에 그곳에도 그 기운이 느껴지리라 믿는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





우수상

## 퍼즐 맞추기

한내초 5  
김혜진

“여러분! ‘색동다리’, ‘거님길’ ..., 이런 말 많이 들어 봤나요?”

“들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국어 수업 시간, 선생님의 질문에 우리들은 술렁였다.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는 듯하나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이 말은 어느 지역에서 사용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서울말이요!”

“강원도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맞죠?”

“그럼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골든벨 퀴즈 대회라도 나온 듯 알아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그 답을 아는 친구가 없었다. 문득 나는 어제 예습했던 내용이 떠올랐고, 자신감 있게 손을 번쩍 들었다.

“북한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혜진이가 잘 알고 있구나. 이 말들은 모두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란다.”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은 다들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의기양양해졌다.

“와! 김혜진! 대단한 걸. 북한말도 다 아네. 혹시 너 북한 사람이었던 거 아냐?”

“으이구! 바보! 그것도 모르냐? 그 정도는 상식이야. 상식!”

“뭐라고? 이게 어떻게 상식이냐?”

“북한이랑 우리랑 같은 한글을 사용하잖아.”

나는 한껏 뽐내며 아는 척을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실은 나 또한 어제 예습을 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북한말에 대해 배웠다. 생소한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대충 그 뜻이 짐작 가는 낱말도 있었다. 평소 사용하는 낱말을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나온 칸에 북한 말을 써 넣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손기척’ 이 노크래.”

“주차장은 ‘차마당’ 이래. 너무 쉽다. 우리말이랑 비슷하잖아.”

모둠원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쉽게 알아맞혔다. 선생님께서 주신 시간이 끝나고 함께 맞춰보았더니 다 맞은 친구들이 많았다. 물론 나 또한 말이다.

국어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은 여기저기서 북한말로 대화하는 통에 시끌벅적하였다.

“연지야, 너 ‘색동다리’ 봤어?”

“응. 아주 어렸을 때 봤어. 너는?”

“나도. 아참, 우리 이번 현장체험 갈 때 ‘곽밥’ 같이 먹자.”

“좋았어!”

하루종일 친구들과 북한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은 너무 신났다. 시간은 날개가 달렸나보다. 벌써 6교시를 마치는 종소리가 들려온다. 오늘은 다른 친구들이 청소 당번이라 집을 향해 일찍 발걸음을 돌렸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덤지 않니?”

“별로 덤지 않았어요. 엄마 저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조사할 게 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손기척’으로 해 주세요.”

“‘손기척’? 그건 또 뭐니?”

“엄마도 모르셨어요? 노크를 북한에서는 ‘손기척’이라고 한대요. 신기하죠? 우리랑 말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번 현장체험 갈 때 ‘곽밥’도 꼭 챙겨주세요.”

“‘곽밥’? 그건 또 뭐니? 김밥 대신 약밥을 싸달라고?”

“도시락을 북한에서는 ‘곽밥’이라고 한대요. 엄마는 북한말을 정말 모르세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 예전에는 북한말 흥내라도 내면 큰일 났는데.”

엄마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곽밥’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시원한 주스 한잔을 마시며 컴퓨터를 켜고 ‘북한말’을 검색을 해보니 숙제 때문에 북한말을 물어보는 사람과 북한말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를 지식 검색으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낱말 맞추기 게임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나는 수업 시간에도 다 맞았으니 분명 이것도 다 맞힐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분도 못 되어 탈락되고 말았다. 내가 맞춘 단어는 채 열 개가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난 오빠와 함께 아이스크림 내기를 두고 북한말 맞추기 게임을 했다. 계속 내가 지자 옆에서 지켜만 보시던 아빠가 도와주셨고, 결국 엄마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

“아빠, 우리 나중에 북한말 알아맞히는 대회 나가면 일등 하겠죠?”

“그럼, 우리 가족이 당연 일등이지.”

가족과 함께 했던 북한말 게임은 너무나 즐거웠다.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 낱말들 속에 감춰진 힌트 때문에 더욱 재미있었다. 웬지 북한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 느낌이 들었다.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지금은 휴전선 아래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솔직히 나는 그 복잡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씀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서 북한도 우리와 같은 동포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퍼즐을 처음 샀을 때에는 그 모양이 제대로이지만 쏟아 붓는 순간 뒤죽박죽 섞여 버린다. 그래서 때론 원래의 그림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얼핏 보면 맞는 듯했는데 아닐 경우도 있다. 잘못 맞추었으면 다시 맞추어 보고, 그것도 아니면 맞출 때까지 계속하면 결국 원래의 그림이 완성된다.

남한과 북한도 이런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단번에 맞추려는 욕심에 전에는 없던 3·8선이 그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퍼즐 맞추기에 다시 도전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진 작은 퍼즐 조각이 모여, 모여 언젠가는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를 꿈꾼다.





우수상

## 더블 코리아의 힘!

대천여중 1  
전혜지

“**공동**경비구역을 공동번영구역으로, 평화를 위한 경제, 더블 코리아의 힘을 믿어요.”

이 광고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유난히 힘들게 느껴 지던 중간고사가 끝난 날, 전부터 즐겨 보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려고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화면에 나온 글이었다. ‘어, 공동번영구역이 뭐야?’ 라는 생각과 함께 왠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는 듯한 이 광고의 뜻이 궁금해졌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동경비구역과 공동번영구역이란 뜻을 찾아보았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던 공동경비구역이란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62km, 북한의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에 있는 비무장지대이며 판문점의 공식 명칭이라고 한다.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함께 경비하는 구역이라고 해서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동경비구역이 공동번영구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공동번영구역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아도 필요 없는 정보만 가득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 어른들께 여쭙 보았지만 공동번영구역이라는 뜻은 잘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공동번영구역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도 남한과 북한이 함께 바꾸어 나가는 구역인 듯했다. 그때 마침 내 머릿속에 광고 속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장면은 바로 판문점의 울타리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오고 가는 장면이다. 그 장면을 통해 공동경비구역이

공동번영구역으로 바뀌어 간다는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에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던 나는 단순히 이산가족 때문에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통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 해본 적도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볼 때도 그들이 서로의 이마에 있는 주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냥 안타까워 통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본 후 북측과 남측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며, 그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맞아, 통일은 이산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공동번영구역으로 바뀌어 통일된 우리나라를 상상해 보았다. 북한 개성 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베이트 인 코리아’ 원산지 표기가 부착되어 세계 속에 수출되어 가는 모습처럼 공동번영구역으로 바뀌어 가는 우리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았다.

언젠가는 뾰족뾰족한 철망과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는 무서운 군인도 없어질 것이다. 남과 북이 비무장 지대의 자연을 함께 누리며 서로 교류할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동안 한 나라 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살아온 세월을 이제는 두 배로 쌓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동안 나타내지 못한 두 배의 힘으로 세계 속에 바로 선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

30초의 짧은 광고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며,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광고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통일의 꿈을 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통일이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더 못 살게 된다는 친구들의 생각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북측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번영구역에서 남과 북이 통일의 꿈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경제 발전이다.

평화를 위한 경제, 바로 그것이 이산가족들에게는 분단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전쟁의 핵무기보다도 더 센 더블 코리아의 힘으로 평화를 위한 경제 사회를 이루고, 더블 코리아의 힘으로 이룬 하나의 코리아, 통일 대한민국을 그려 본다.







# 오랜 기다림의 끝

## 우공이산(愚公移山)으로 통일을 이루리라

복자여고 2  
박새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우리 민족은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강대국들의 이념과 이익에 가로막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1950년에 있었던 전쟁으로 남과 북의 장벽은 더 높아지고 단단해졌다. 55년이 넘는 지금까지 남과 북은 분단을 넘어서고자 노력해 왔고 그 와중에 여러 사연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면에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돌파해야 할 많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의 어떤 장애들보다 큰 장애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민족은 이미 만났고 더 만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친가, 외가 모두 남쪽이 고향이고 직계 가족 중에 전쟁에 참여한 이도 없어 북한에 대해 알 기회가 거의 없던 내가 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다. 한겨레 신문사에서 주최한 남북어린이여개동무 '안녕, 친구야'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북한의 내 또래 친구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같은 민족인 북한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나의 말에 어머니께서 선뜻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과 북한 친구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 출판사 '산하'에서 나온 북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남한의 동화 못지않은 맑음, 고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 친구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정서는 우리와 비슷했다.

꽃재비 이야기를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깊은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음식 타령하지 말아야지, 음식을 아껴 먹어야지, 물건들을 아껴 써야지 하고 마음을 곤추 세워 보기도 했다.

현대의 정주영 할아버지께서 소 떼를 몰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실 때는 마침 아산에 살 때여서 소 떼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볼 수 있었다. 그 트럭들이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할아버지의 장쾌한 모습과 꽃다발을 건 늙은 소들을 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땐 바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에 설레고 감격스러웠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는 눈물겨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정말 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통일에 대한 나의 관심은 중학교 3학년 때 교육청 주관의 통일에 대한 사이버 토론에도 참여하게 이끌어 통일 찬성론자로서 내 주장을 펴기도 했다. 통일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펴야 통일이 될 것만 같은 조바심으로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가며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2001년부터는 통일 후원 단체를 통한 북한 어린이들에게 종이 보내기 후원금을 내기로 약정하여 지금까지 보내고 있다. 내 간절한 소망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모두의 바람이라고 믿으며...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통일을 바라는 것은

첫째, 이산가족의 슬픔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갈라진 세월이 오랏수룩 남과 북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념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남과 북이 합해지면 국가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져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10위권 안에 들 것이란 자료를 통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봤다.

넷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통일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단의 모순을 극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통일은 돈으로 따져보아도 통일 비용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실 분단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뿌리게 된다. 지난 60여 년 동안의 분단 비용만 해도 이미 천문학적 숫자에 육박해 통일 이후 들어가게 될 비용을 훨씬 넘는 액수라고 한다. 통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만큼 분단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이버 토론에 참여했을 때 통일 교육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남한이 물질의 결핍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 물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말 한반도에서 역사를 같이 나누어 온 한 민족임을 느끼게 해 주는 말이다. 통일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감성과 정신을 빛나게 해 준다.

긴 호흡을 쉬며 절망하지 않고 통일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겠다. 통일에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하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20년 동안 기반을 다져나가다가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의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적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다. 통일부 장관께서 남북 장관회의 참석차 북한에 갈 때 “어떤 큰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의 우공이산을 화두로 가지고 가셨 듯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믿음을 갖고 북한과 교류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면 모든 일이 잘돼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문산-개성 간 도로공사, 남북이 한반도를 들고 함께 입장하는 운동 경기,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민간 차원에서 각종 물질적 지원 사업 등이 모두 우리의 믿음이 표출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믿음과 노력들이 있기에, 6월에 있을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 번째 방북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방북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잠깐 움츠려 있던 통일을 향한 의지가 힘차게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출되는 힘들을 꼭 껴안고 통일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또 한번 내디딜 수 있길 마음속 깊이 바라며, 우리 모두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을 향해 '우공이산'의 믿음을 갖고 전진해 가자.





## 꿈은 이루어진다!

이원초 6  
김보경

“대한민국, 짜짜짜 짜짜” 4년 전 2002 한·일 월드컵 때의 함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온 국민이 붉은 색 옷을 입고 텔레비전과 대형 모니터 앞에서 목청껏 외쳐대던 소리, 온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던 그 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8강 진출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한 판이 있던 날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들은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온 식구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었다. 특히 언니랑, 나랑, 동생은 붉은 색 티셔츠를 입고서 머리에 붉은 색 두건까지 쓰고는 이탈리아를 물리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언니,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언니, 우리가 8강에 오를 수 있을까?”

나는 자꾸 걱정스러워서 언니에게 묻고 또 묻고 그랬다. 그러면 언니는

“당연하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꼭 8강에 오를 거야.”

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 도중 관중석에 붉은 악마의 멋진 카드섹션이 눈에 들어왔다.

“AGAIN 1966”

나는 모르는 말이어서 아빠께 여쭙보았다.

“아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건 예전에 북한이 1966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격파했던 신화를 다시 한번 이루자는 뜻이라는 구나.”

라고 설명해 주셨다.

“아빠,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잘했어요?”

“그럼, 그때는 북한이 축구를 무척 잘했단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북한이 축구를 그렇게 잘했었는지 알게 되었다.

“아휴, 북한도 우리랑 함께 월드컵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께서는 얼굴까지 찡그리시며 안타까워하셨다.

나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1966년 월드컵 때처럼 이탈리아를 물리쳐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한민국, 짜짜짜, 짜짜”

어느새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 우리 팀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소리치고 우리 팀이 이탈리아에 밀릴 때는 “어떡해, 어떡해!” 하며 안절부절 정신이 없었다.

“와아”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응원을 해서 그랬는지 정말 우리 대표팀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난리였다. 그 와중에 나와 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있었다. 붉은 악마의 카드섹션의 그 문구처럼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겼듯 우리도 이탈리아를 이겼다. 우리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올해는 2006 독일 월드컵이 독일에서 열린다. 독일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 지금은 분단국가가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4년 전 월드컵을 치를 때에도 분단 국가였고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분단국가이다. 독일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통일을 이루어 북한이랑 함께 축구도 하고 같이 응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또한 북한이랑 남한이랑 통일을 이루어 언젠가는 독일처럼 우리도 월드컵

을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4강이 아니라 우승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나고 행복해진다.

좀 있으면 6월이 돌아온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들은 모두 축구를 기다린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가 국민들의 관심거리이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서는 월드컵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모두들 설레며 그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만은 않다. 왜 아무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 왜 아무도 이산가족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 통일이 되어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팀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싶다. 푸른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꿈은 이루어진다!”

4년 전 4강에 오를 때 정말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의 소원인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6월이 돌아오면 또 우리들은 4년 전처럼 거리에 나와 목청껏 응원을 할 것이다. 또한 나는 6월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나라가 되길 목청껏 응원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





# 내 조국 조선 사람들에게

연서중 3  
운 나 리

조선 사람들! 나 김구 라오. 우리의 조선 땅을 지키고 싶  
었소만, 결국은 저승으로 온 백범 김구 라오. 꿈에도 그리던 내 조국, 일제  
의 총칼 아래에서도 분연히 일어났던 내 나라, 내 땅이 아직도 두 동강난  
채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가슴이 저려 말문이 막히오. 내 조국, 내 땅, 내  
가 살던 그곳을 다시 한번 가고 싶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내  
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가슴을 친들 목 놓아 대성통곡한  
들 이곳, 저승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소.

조선 사람들! 정말 놀랬소이다. 놀랍게 변한 조국의 산천을 보고. 높은 빌  
딩과 수많은 자동차와 물질의 풍요 속에 '나'는 있으나 '조국'은 뒷전인 동  
포들의 모습을 보고... 배불리 먹고 여유를 즐길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오.  
두 동강나 피 흘리고 있는 내 조국의 모습을..., 잘라진 호랑이 허리에서 흐  
르는 눈물을... 오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의 조국이 이렇게 될 줄은 생  
각지도 못 했소. 난 말ियो, 광복이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소.  
간사하고 야비한 일본군이 물러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리라 생각했소.  
그런데 해방 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동포끼리 싸우더니, 외세에 무릎을  
꿇고,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란 말ियो? 사상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형제끼리 피 흘려 싸운 대가가 무엇이란 말ियो?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यो! 한 조국 한 핏줄 한 형제가 철천지원수가 되다니...

난 저승에서 꿈꿈이 생각해 봤다오. 조각난 내 땅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소. 서로 부딪치기만 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 나의 동포들, 그 마음부터 바꿔야 했기 때문이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소. 피를 나눈 한 형제, 오천 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우리 형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다니... 그 옛날 나라를 세운 단군 왕검, 만주에 고구려의 깃발을 꽂던 광개토대왕, 웅대한 기상으로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 민족 문화를 드높인 세종대왕의 용안을 바라볼 수 없었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소. 모두들 기원하고 있소. 월드컵 축구에서 보여주는 열기이상으로 조국통일의 꿈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눈물 흘리며 기원하고 있는 조상들의 마음을 잊지 마시오.

조선 사람들! 생각해 보시오. 세상은 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소.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힘이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요. 동포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노력해야 하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말이요. 하지만 무조건 통일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요.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요. 사상이라는 걸 몰랐을 때에도 우리는 잘 살았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기며 어울려 살았잖소? 공산주의를 외치던 동부유럽 국가들도 무너지고 지구상에 분단된 나라는 우리 하나뿐이러오.

오늘도 나는 한반도 우리 땅을 내려다보고 있소. 동쪽 끝 작은 섬 독도는 잘 있는지..., 민족의 정기 백두산은 영원한지... 국토는 하나인데 우리 동포들은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더 긴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단 말이요? 6·25 때 피난가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들, 분단의 철책 때문에 자식과 헤어진 허리 꼬부라진 팔순 노모는 아직도 눈물로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소. 오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소.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중단됐던 경의선이 다시 달려야 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오. 상처 난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명약은 가족의 사랑밖에 없으니까 말이요.

조선 사람들!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이것이 우리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일 듯하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오.

관심은 기적도 이룰 수 있다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픔도, 기쁨도 함께 어울려 부둥켜안으시오. 한 형제, 한 핏줄인 우리네, 서로를 상처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마시오. 경의선 철마를 재촉하고 금강산, 한라산 관광의 물꼬를 트고, 피맺힌 이산가족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 어울려 한 마당축제를 열기 바라오. 애정 어린 눈으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기 바라오. 나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선조들, 모두가 애타게 갈망하고 있소. 다시 한번 손잡고 통일의 그날까지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길 바라오. 진심어린 나의 충고를 저버리지 말게나.

조국의 하나 된 모습을 기원하는 백범 김구로부터





# 통일을 원하지 않던 너에게 띄운다

쌤블여고 2  
이 나 래

하얀 회칠로 단장한 일층짜리 건물. 기와로 이은 지붕과 널빤지를 이용해 만든 나무 굴뚝, 일정한 간격마다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창문, 나무 굴뚝 사이로 곳곳에 보이는 TV 안테나... 하모니카 집의 사진을 보다가 문득 네가 생각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도덕시간에 북한에 대해 배울 때 한 칸에 한 세대씩 산다는 하모니카 집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함께 상상하던 기억이 나.

“자, 그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작년 도덕시간, 선생님의 질문에 슬그머니 손을 들었던 너! 모두들 당연히 통일을 염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하나 둘 손을 드는 친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지 못했고, 분단된 현재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통일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더라. 나도 사실은 통일은 언젠가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관심을 갖고 북한 문화를 알아보거나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얼마 전 ‘북녘 일상의 풍경’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고 난 후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 그래서 너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

우리가 보는 북한의 사진들은 북한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며 방문한 지역과 엄격한 통제 아래 촬영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찍은 사진들이래. 그런데 ‘북녘 일상의 풍경’에서는 남한의 사진작가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어. 그 모습들이 너무 사실적이고

낮설어서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연료가 귀해서 겨울이면 집안보다 햇빛이 드는 바깥이 더 따뜻한 북한. 그래서 굳은 얼굴로 하모니카 집 담벼락에 기대어 햇볕을 쬐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특히 간식거리로 무를 먹는 두 소녀의 모습과 수지(플라스틱)신발이나 뒤가 다 닳은 형겔신을 신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은 충격적이었어.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겨우 5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에는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파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 책에 하모니카 집과 지방 도시의 아파트, 고급 표준주택의 사진이 있었는데, 셋다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 이름은 아파트고, 고급 표준주택이지만 우리의 피죄죄한 연립주택을 연상케 하더라. 협동농장의 문화주택 사진도 있었는데 채소류 같은 부식물을 가꾸게 되어 있다. 단독 세대로 구성된 이 주택에서는 가을 견이를 끌내고 집집마다 텃밭에서 일군 배추로 감장 준비에 한창이었어. 그 모습은 우리 남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단다.

북녘 '일상'의 풍경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이 많았는데, 나는 특히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깔끔하게 옷을 맞추어 입은 소년단이나 행진하는 모습,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사진은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었지만 그들의 신발, 옷, 주식과 간식 등은 지금의 우리와 너무 다르더라. 또 카메라가 낮설어서인지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밝게 웃는 얼굴보다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쨍그린 얼굴들이 더 많았어. 웬지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서 고난과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아 연민을 느꼈어.

간혹 보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두 다 모내기 전투예로!',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 라는 문구들은 나를 놀라게 했어. 아직도 북한 사람들이 저런 신념으로 생활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말이야.

103점의 북녘 일상의 풍경을 보여준 이 책의 사진가는 '사진에 담긴 북한의 외양은 얼핏 보면 우리의 1960, 70년대 모습처럼 보이지만, 나는 사

진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는 너무도 달라져 버린 북한의 일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라고 했어. 북한을 단지 사진을 통해 본 나도 우리와 너무 다른 그들의 생활 모습이 낯설고 어색한데 수천여 장의 사진을 직접 찍어온 그는 사진을 찍는 내내 기분이 어땠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북녘 일상의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니까... 너도 한 번쯤은 TV나 동영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지? 이산가족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을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은 짐작할 수 있지 않니?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거야.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옆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 핏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것은 내 동생 혹은 언니, 오빠를 모른 채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통일을 경제 발전의 측면, 인력과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생활과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랬고, 너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통일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북녘 일상의 풍경’을 읽으며 다시 한번 반성했어. 남과 북이 더 많이 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시간이 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봐. 그리고 다음 번에 또 누군가가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고 물으면 당연히 손을 번쩍 들 거지?



## 전라북도

- Why Two Corea? ...323
- 금강산 달님에게 빌어본 소원 ...326
- 두 바퀴에 통일을 싣고 ...329
- 헤어짐이 없는 그날 ...332
- 할아버지 이야기 ...336
-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어주소서 ...338
- 통일된 2020년도 우리 반의 모습 ...341
- 무관심은 이제 그만 ...344
- 우리가 심은 씨앗이 맺은 통일이라는 열매 ...346







## Why Two Corea ?

미륵초 6  
이재열

“Why Two Corea?”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루시고 80세가 다된 나이 많으신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외치셨던 이 말씀 “Why Two Corea?”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을 담고 있었는지, 동영상을 보는 내내 궁금하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안중근, 당신은 유관순!”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할아버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이런 할아버지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끌어내려는 직원들, 할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포일대에 많은 땅을 6·25 전쟁으로 집을 잃거나 피난 내려온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대가없이 나눠주셨다는 할아버지의 말씀,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 부끄러워서 신발을 걸코 신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도대체 ‘어떤 할아버지일까?’ 동영상을 보는 내내 궁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까지 했다.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외치는 장면을 보며, 끝내 할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반 여자 아이들은 소리 없이 훌쩍이기도 하였다.

동영상을 다 보고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외치셨던 “Why Two Corea?”의 의미를 물어보셨고 그 의미도 설명해 주셨다. ‘왜

한국이 두 개여야 하는가?', '왜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통일은 꼭 해야 되는가?' 등...,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통일이란 이 단어에 많은 사람들은 때론 안타까워하고 때론 눈물지으며 기뻐할지 몰랐다.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뉜 지 50년,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어리진 슬픔이 크다는 것을 예전에는 정말 몰랐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던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밝은 빛을 보게 된 광복! 그 기쁨도 잠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아니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전쟁을 통해 서로에게 울타리를 만든 지 50년이 훌쩍 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부모, 형제와 헤어져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 가족이 많이 생기게 되어 많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더욱 발전된 모습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꼭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합쳐 통일이 되면 어떤 기쁨이 찾아 올 수 있을까?

첫째, 남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이 철거 되어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둘째,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셋째,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넷째, 휴전선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으므로 생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이 서로 축구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 교류를 통해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이 함께 영화, 음악, 미술 문화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서 언젠가는 노벨상 등 많은 국제적인 상도 받을 수 있는

밋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더 이상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 기술, 정보 등 서로 좋은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래서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좋은 결과들이 기대 되는데 왜? 아직도 'Why Two Corea?' 이어야만 할까?

최춘선 할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6학년 도덕책에 나오는 통일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북한에 가는 소를 보시고 “저 소들은 나의 고향인 북한에 갈 수 있는데 나는 못가는 구나, 아···, 언제쯤 통일이 되어 나도 저 소처럼 나의 고향에 갈 수 있으려나?” 하고 말씀하셨다. 죽어서나 볼 수 있는 고향이 아닌 살아 생전에 꼭 고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꼭! 통일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를 시작으로 개성공단의 남북한 합작 냄비공장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통일 준비과정들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Why Two Corea ?' 가 아닌 'How made One Corea?' 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의 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최춘선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의 소망대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꼭! 하나 된 우리나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금강산 달님에게 빌어본 소원

군산중 3  
박해송

“여기가 가을 되면 단풍이 그렇게 좋나요?”

“여기는 단풍도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바위만 많이 보여서 그렇게 예뻐까 싶어서요.”

“남측엔 겨울에도 나무에 움납니까?”

구룡폭포 올라갔다 내려오던 중 앞서 걸어가던 북측 안내원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투명스레 대답했습니다. 나쁜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 봐 왔던 금강산과는 달리 온통 바위와 앙상한 나무만 보여서 어렵게 물어봤는데 고깝게 여기는 듯한 그 말투에 언짢은 맘이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안내원 언니 쫓아 열심히 걸었던 다리의 힘이 갑자기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무장화 신고 작은 도끼 하나씩 들고 하얗게 쌓여있는 눈얼음을 치우고 있는 언니, 오빠들을 만났을 땐 등산화에 완전무장하고 가는 내가 미안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면 “구경 잘하세요.” 하고 대꾸는 해주지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 하면 금세 화를 냅니다. 괜히 주눅이 들면서 울고 싶었습니다.

인도나 유럽 여행을 할 때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사진 한 장쯤은 기본으로 찍을 수 있었고, 우리와 체제가 다른 중국에도 편하게 얘기하고 편지 나누는 친구가 있건만 정작 같

은 말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과는 맘 놓고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다는 현실이 속상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를 괜히 통과한 것이 아닌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껏 다녀 본 어떤 나라보다 까다롭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운함도, 두려움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구슬픈 음악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연하는 언니 오빠들의 땀방울이 생각나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줄 하나에 언니의 몸을 걸고 그 줄에 오빠의 발 하나 더 걸고 하나 되어 나풀거리던 모습을 보고 목울대가 자꾸만 아파왔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공중재비해 날아오르는 언니의 손을 붙잡아 주던 오빠의 모습도, 그 오빠의 손에 의지하여 날아가던 언니의 모습도 눈물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손바닥이 아프게 손뼉을 쳤지만 남과 북, 우리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눈물이 났습니다. 공중에 대통령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한반도의 현실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카메라의 작은 불빛 하나로도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교예단 언니, 오빠들의 모습에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위태로운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언니, 오빠들처럼 남북이 하나 되어 공중재비하는 손 맞잡아주고 그 손 놓칠까봐 그물망도 펼쳐주고 하나 되어 세상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맞잡아 주는 손짓이 시작되긴 했지만, 내미는 손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잡으려는 손도 아직은 쭈뼛거리는 것만 같아서 맥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며 만물상 쪽 직벽 철계단을 오를 때엔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변 모습에 감탄도 했지만 그냥 오르내리기도 힘든 그곳에 길을 만들어 놓은 남과 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 되어 길을 만들고 건물을 지으며 어우러졌을 일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만물상을 다 보고야 말았듯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쩌려보고 방해하더라도 하나 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반백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으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닷길도 열리고 땅 길도 열려서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북측으로 통근버스까지 다니는 것이 현실이니,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마음 길도 훤히 열리리라 믿습니다.

금강산 호텔 앞마당에서 바라본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그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남측 우리 집에서 바라보던 그 보름달 모습과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달님! 다음엔 출입국 사무소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게 도와주세요.”, “안내원 언니랑 얼음길 정리하는 오빠들이랑 편하게 얘기하고 사진 찍을 날 빨리 오게 해주세요.”하고 빌었습니다.

달님은 아마도 제 소원을 모른 척하진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두 바퀴에 통일을 신고

전주고 1  
신 동 현

아! 잊을 수 없는 그날, 8월 8일. 제 6회 통일염원 자전거국토대장정의 아침이 밝았다. 4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참가한 나는 한 번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떠오르는 태양에 결의를 다졌다.

올해에는 임진각에서 전주까지 천리 길을 달리는 과정으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도내 대학생과 일반인, 그리고 5명의 중학생이 참가하여 다시 한번 통일을 노래하며 애교심과 애향심, 그리고 애국심을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출발의 아침 전주시청에서 출발선언을 하고 버스 편에 임진각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첫날부터 힘이 들 것을 예고하는 듯 거센 바람과 적지 않은 비가 쏟아졌고 기상이 악화하여가면서 본격적인 출발인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가 지나갔다.

잔뜩 구름긴 아침 통일공원에서 결의를 다지고, 간단한 기념촬영을 한 후 국토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이틀째 목적지는 우리나라의 중심지 수도 서울,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4회 때에는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싸우며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더 위험한 장애, 즉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와 거센 바람을 마주하며 달려야 했다. 결국 이 위험한 주행에서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정신없이 달리던 내가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자칫 대형 사고를 만들어낼 뻔하였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고 뒷사람들이 잘 피했지만,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단장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저히 오늘은 못 달리겠습니다. 벌써 힘들고 지쳐오니 오늘 하루만 차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한 번 넘어지고 다쳤다고 해서 두려워 하지마라. 여기서 멈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며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앞장서서 당당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

오산을 향하던 아침 그 어느 아침보다도 맑고 쾌청했다. 모두들 날씨가 좋아서인지 힘든 줄도 모르며 서로를 챙기고 힘차게 나아갔다. 오산에 도착하자 운동장에 모여 간단한 운동을 했고, 최대의 난코스인 독립기념관까지의 주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새 찾아온 다음 날 아침 쉽고 편하지 않은 날이 될 것을 말해주듯 하늘은 어두워져만 가고 덩달아 단원들의 얼굴에도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걱정을 날려버리듯 큰소리로 파이팅을 외치고 천안 독립기념관을 향해 페달을 힘껏 굴렀다. 힘겹게,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고 지쳐갈 무렵 드디어 저 멀리 무궁화가 드리운 독립기념관 광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설렘과 의욕으로 시작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국토의 절반을 달려왔다. 도착하자마자 모두 모여 어깨동무를 하고 애국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지나간 고생을 회상하며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였다.

그렇게 힘들던 날이 지나고 다시금 출발의 종소리가 울렸다. 목표지는 논산. 어느덧 거리는 점점 더 전주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햇살을 따가워져만 갔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굴하지 않고 개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인 통일을 위해 행진을 계속했다.

마지막 날의 출발,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 전주를 향하는 5박 6일. 때론 험난하고 위험했던 통일의 행진도 마지막이 될 오늘, 나이가 적든 많은, 여자이건 남자인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최후의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하였고, 낙오자도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처음 임진각을 출발하여 서울 땅을 밟았을 때 자신감을 얻었고, 천안 독



립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애국정신이 깃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에 벅찬 감격을 느끼며 절반의 성공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고, 발등에 물집이 잡히고 엉덩이 살이 찢겨지는 고통은 예삿일이었다. 거기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를 흘리고 걷기조차 힘든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누구도 포기하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목적을 위해 달리다 보면 나처럼 넘어지고 다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격려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남·북한 서로가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통일은 오고야 말 것이다.





# 헤어짐이 없는 그날

전주풍남초 6  
서해령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아버지의 기쁨에 찬 목소리..., 다른 가족들도 함께 손을 들며 만세를 외친다. 통일을 가상으로 한 통일 자작극 영화 ‘간 큰 가족’의 한 장면이다.

북쪽 땅에 처자식을 두고 남하하신 할아버지는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북쪽 식구들을 그리워하시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길 기다리신다. 그런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효성스런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 드리기 위해 가짜 통일 사기극을 펼친다. 그러다가 50억 원이라는 유산이 통일이 되어야만 상속이 된다는 유언장의 내용으로 인해 사기극은 더욱 더 가관이 되어 간다.

진짜로 통일이 된 것처럼 뉴스와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남북단일팀 탁구대회’가 열리게 되고 ‘북한 서커스 서울 공연’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가짜로 꾸민 것들이다. 난 자작극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다. 그 가짜 극에 바보 같이 속고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웃겼고, 할아버지를 속이려고 안절부절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이 코미디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에 나도 같이 눈물이 나왔다. 왜 그랬던 것일까? 모르겠다. 그냥 나도 마음이 아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렇게 고향과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화 속의 저 할아버지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면 좋겠다.’라는 생

각을 해보았다.

4학년 때의 봄이었는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보다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라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영화도 남북분단의 아픔을 그린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로 남과 북에 대치되어 형제끼리 총을 겨누어 싸워야만 했던 6·25 전쟁, 그로 인해 한 쪽은 가고 한쪽은 남게 되어, 서로를 그리워하고, 지워지지 않은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던 형제들…. 어렸던 나를 너무도 감동시켜 눈물나게 했던 그들의 형제애도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통일이라고? 솔직히 난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다. 북한 사람들은 무척 못살고 돈이나 쌀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았던 데, 통일이 되면 왠지 우리 남한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어쩔 땐 통일이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난 그리 궁금하지도 않았고,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북한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았던 게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영화 두 편이 그런 나를 바꿔 놓은 것만 같아 가슴 한편이 뿌듯해진다.

남북이 분단된 지 어느새 60여 년이 흘렀고, 한국 전쟁이 발발 한지도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북의 대치 상태는 그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었을 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은 여전히 변함 없으며, ‘이산가족’ 문제 또한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흔히 어른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표현하신다. 난 그 말의 자세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담임선생님 말씀으로 알게 된 내용이라면 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북한 어린이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머리로만 받아들였지만 도저히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 통일을 생각하면 항상 그랬다.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야겠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질 않

았다. 그런 나의 마음에 채찍질을 하고 움찔거리게 만들었던 게 바로 몇 편의 영화들이었던 것이다.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전쟁이나 분단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간 큰 가족’에서는 북에 두고 온 처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몸과 마음이 병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이념 문제, 정치나 경제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아직 나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서글픔과 애달픔, 가까이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어떤 것일지는 어렵듯이나마 알 것 같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그런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는 못 만나게 된다면 표현도 못할 만큼 많이 아프고 힘들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난 후 50년이 넘게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 갈 수 없어 아파하는 가족들이, 이산가족들이 너무도 많다고 한다. 이를 어찌나!..., 피를 나눈 가족이 몇십 년 동안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도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갖게 해줘서 보고픈 목마름을 어느 정도 없애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50년 만에 만난 반가움과 감격은 순간이고 바로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이들의 가슴은 얼마나 더 죄여들고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니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듯싶다. 이들의 50년 긴 세월 아픔에 대한 보상은 통일밖에는 없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시절에 헤어지게 되어 56년 생이별에 이젠 하얀 그리움의 서리가 머리 위에 소복소복 쌓인 모습으로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이 북한 땅만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라는 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산가족들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통일’ 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한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기원한다면, 북한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한다면 통일이 다가오는 보폭은 더욱 커지고 가까

워질 것이다.

이들의 아픔이 사라질 그날!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게 될 바로 그날! 두 손을 높이 들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러 댈 감격의 그날을 위해 나 또한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영화 속 할아버지의 기쁨에 들뜬 만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영화 속의 사기극이 아닌 진짜 현실에서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그렇게 기뻐하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할아버지 이야기

군산진포중 3  
장연주

**돌아가**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아이들도 많지 않았던 우리 동네에서, 할아버지는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셨다. 키가 유독 크셨던 할아버지 옆에 서 있으면, 아름드리나무가 옆에 서 있듯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의지의 대상이었다.

할아버지는 황해도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나셨다고 하신다.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25 전쟁이 터졌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남겨 놓으신 채 혼자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를 만나 3형제를 두셨지만, 할아버지는 가끔씩 할아버지의 어머니와 고향이 그리우셨던 것 같다.

그리움을 참고 이겨내며, 항상 들판 나무 같으셨던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약 6년 전,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이산가족 상봉이 전파를 타고 온 지역의 텔레비전으로 보내졌을 때였다. 그때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편찮으셔도 괜찮은 척하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눈물을 보이셨다.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시다가도, 다시 눈물 고이신 눈으로 쳐다보시고..., 아마 고향 생각을 하시는 듯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난 아직도 '북한' 과 '이산가족 상봉' 이란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의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두고 온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시고 미안해하셨을까? 그

런데 왜 나는 그때 할아버지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지 못했던 걸까. 아직도 후회만 남을 뿐이다.

하루빨리 북쪽과 남쪽 사이의 분단이라는 벽을 허물어버리고 싶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헤드리고 싶다. 이 땅 위에 할아버지와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산가족 상봉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미안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통일은 우리가 그날의 어리석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의 나이는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시간이 흘러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면, 분단의 아픔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분단의 아픔을 잊어버릴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의 후손들이 “그래그래, 통일하면 좋지. 그런데 안 한다고 나쁜 건 없잖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족 문화의 통합을 위해서도 통일을 외쳐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다. 언어에서부터 사고방식까지... 오랜 세월, 서로의 특성을 그대로 지녀 독특하지만 하나였던 우리의 문화는 어디로 갔는가? 단일민족, 단일민족! 크게 외치고 다녀도 남북이 땅 덩어리부터 문화까지 나뉜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5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 엄마·아빠는 통일을 간절히도 바라셨다. 우리 세대에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겠지만, 우리 세대에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다음, 그 다음 세대에서도 꼭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할아버지처럼 고통 받는 분이 없길 바라며, 통일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길 바라며...



우수상

##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어주소서

전일고 3  
송현민

“어느덧 아버지가 납북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벌써 스무 번째 봄과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봄바람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가만히 불러봅니다. 희미하게나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5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빨간 카네이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손짓합니다. 당장 달려가 아버지 가슴에 그 꽃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먼 곳에 계심을 알기에 ‘5월 8일’은 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지난 1987년 1월 15일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중석씨의 딸이 어버이날을 맞아 북에 계신 아버지께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눈시울을 적시게 하며, 누가 이토록 이산의 아픔을 한으로 응어리지게 했는지 답답할 뿐이다. 하루빨리 모셔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 바치겠다는 딸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만났다. 북한 평양의 순안 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하나의 조국 북녘 땅을 감회에 젖어 쳐다보며 탑승기에서 내려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접하며 악수를 나눈 순간, 우리 민족의 응어리진 남북 분단의 한과 이산가족의 아픔이 순식간에 녹아내린 것 같았다. 2박 3일 동안의 두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을 통해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



련하였다.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해상의 교전으로 전쟁의 위기감까지 느끼게 했으며, 지금은 북핵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냉각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정부 고위층의 솔한 만남과 막대한 경제적 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멀어지고, 분단의 아픔과 이산의 한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루 빨리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산가족 재회와 납북자 상봉을 위해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남북 한에 갈라져 있는 이산가족의 재회는 자신의 끊어졌던 혈육의 맥을 다시 잇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며,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 받은 민족의 정서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분단 상황의 장기화로 이들이 80~90세가 되면서 자연 사망이 급격히 늘고 있어 헤어진 가족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준단 말인가?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지내다가 잠깐 만나고 흐르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기약 없는 생이별의 아픔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분단의 장기화는 전 민족적인 공멸·공망의 위기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남북의 군비 경쟁을 동결 내지는 축소시키고, 우리 민족이 다함께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핏줄이 같고 언어와 문화가 같은 우리 한민족이 언제까지 둘로 나뉘어 공멸·공망을 재촉한단 말인가? 반세기 넘게 헤어졌던 북의 동생들을 만난 염용일(86세) 옹께서는 자신 때문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열을 금치 못했다고 하니, 이제는 한민족 모두 두 동간 난 허리를 하나로 묶어 서로 손을 맞잡고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에 올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해야 한다.

셋째, 두 국가 체제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역량의 소모 낭비가 너무 크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21세기는 강한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국제 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경제력이 향상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분단된 상황에서는 선진국의 눈치를 보게 되고 발목을 잡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수없이 노래를 불러왔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손을 잡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결코 멀리 있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민족 전체의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산가족과 남북자 가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 통일된 2020년도 우리 반의 모습

백석초 6  
장민주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일을 이룩한 날입니다. 모두 다 기뻐하는 모습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굳게 지켜서, 오늘의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신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일이 된 우리 반의 모습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반은 원래 13명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에 자리잡은 우리 학교 아이들과 재미있게 6학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일이 되어 우리 반에 새로운 아이 13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반 아이들은 잠을 설쳐가며 북한에서 온다는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이들과의 만남. 아이들은 우리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김새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아이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학교도 소개해 주고 공부시간도 알려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과 학교 규칙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우리에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수업시간에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게 되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같은 물건에 대해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북한아이들은 ‘얼음 보숭이’ 라고 하였고 도너츠를 ‘가락지 빵’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르긴 했지만 서로 재미있다고 깔깔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학급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말 하나로 만드는 통일’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잘 말해주었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우리는 우리말을 잘 살려서 쓰고 있는 북한 말을 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은 남한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남한 아이들은 북한 말을 배우고 북한 아이들은 남한 말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친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통일된 하나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말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죠.

또 우리가 겪은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생활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남한 아이들은 개인 물건을 가지고 경쟁하며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북한 아이들은 학용품도 공동으로 쓰고 자기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북한 아이가 남한 아이의 물감을 말하지 않고 써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북한 아이는 자기에게 없으니 그냥 썼다고 했고, 남한 아이는 내 것인데 말도 안 하고 쓰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은 사이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학급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말을 통일하는 것보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북한 아이들과 남한 아이들 서로의 입장을 모두 울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가 “나는 우리 마을에서 했던 대로 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동재산이 너무 당연하고 남한은 사유재산이 너무 당연하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한 아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없어졌고 북한 아이는 다른 사람 물건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더 완벽한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겠지요. 그리고 좋은 것은 두 가지 모습이 합쳐지니 더 아름다운 우리 반이 되는 거였습니다.

통일이 되니 참 좋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도 많지만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이 감동 받았다며 읽어주신 우리 반 아이의 일기를 읽으며 통일 후 우리 반의 모습에 대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요일 맑음

오늘 친구의 물감을 허락 없이 썼다. 나는 내가 원래 하던대로 행동한 것인데, 친구는 왜 마음대로 쓰냐고 나에게 말해서 나는 원래 내 방식대로 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다툼이 되었다. 그래서 학급회의 때 회의를 하였다. 아까 전 그 다툼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버릴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물감이 없어서 썼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니 나는 억울하였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냥 공동으로 있는 것을 같이 쓰곤 하였었다. 그런데 남한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펑펑 눈물이 나왔다. 펑펑 울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나와서 나를 위로해 주니 참 고마웠다.

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우리의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정말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이해해 보기로 노력하였다.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 날이어서 희망이 보이기도 한 날이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직은 힘들지만 정말 하나가 되면 멋진 우리 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진짜 통일된 우리 반 화이팅!!



# 무관심은 이제 그만

무주종 1  
박혜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가족을 만나볼 수 없다는 일이 우리들에겐 참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도 하나의 뉴스로밖에 와 닿지 않았었다. 아마도 나 자신이 당사자가 아닐 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대인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헤어짐을 겪어보지 않고 이별의 아픔을 아는 일이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실감나게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나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겪게 된 계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말의 어느 날 가족 등반으로 산엘 올라갔다가 나 혼자 떨어지게 되어 혼 줄이 난 경험을 했었다. 그때의 그 무서움과 외로움, 빠져린 그리움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연히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TV에서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난 비로소 깨달았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남과 북으로 나뉘어 버린 채, 가족을 볼 수 없는 아픔이 이런 것이구나….

산 위에서 외치면 들릴까? 통일의 외침이,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을 절규하는 피맺힌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가족은 그렇고, 일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그저 그들만의 것이어야 하는가?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 순간은 영원이고, 설렘이다. 다시 만나자며 흘렸

던 이별의 눈물은 그들의 상처로 벌써 오래전부터 식고 굳어버린 종유석과 같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이와와 헤어짐이 현실이라는 철창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서 눈물마저 앓아간….

우리에게도 가족을 잃는 슬픔이 온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서글픔에 한낱한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을 무관심으로 몰아넣지 말자. 더 이상 고통받을 것도, 서러울 것도 없는 메마른 눈에 눈물을 적셔주자. 이제 그들도 그들만이 아니라는 기쁨을 안겨주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해 주자. 하나이어야 하는 남과 북이 둘이라서 겪는 외로움은 이제 그만!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산가족들을 돌아보며 위로해 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이산가족에게도 힘든 나날이 조금이나마 견디기 쉬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슬피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이에 대해 아파할 줄 모르며, 슬피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말이다.

아직까지는 남한, 북한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한 민족이라 이르기엔 좀 어색함도 있지만, 좀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통일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빨리 통일이 되어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월드컵 운동장을 누볐으면 하는 맘 너무 간절하다. 나도 내 온 맘을 다해 힘을 합쳐 원래 하나였던 우리가 조화로운 사회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열심히 기원하고 소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믿음이 하나라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 우리가 심은 씨앗이 맺은 통일이라는 열매

장수고 1  
정혜원

며칠 전이다. 그날따라 눈이 일찍 떠진 나는 덕분에 아침 밥을 일찍 먹고 모처럼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 편안히 앉아 뉴스를 시청하던 나는 북한에 대해 전해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이었다.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는 나로서는 호기심이 생겼고 한민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다.

‘LG카드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장나라 북한 돕기 5억 선뜻’

한때는 이러한 선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적도 있었다. ‘남한에도 못 먹고 굶주리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고 말이다. 그러나 수업 시간을 통해 휴전선이라는 선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열강들의 편익에 의해 무책임하게 나뉘어져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은 허울만 한민족이지 마음은 이미 남이 되어버렸고 그 중에 나도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속절없이 기운이 빠졌다.

지금까지 나는 도덕 교과서에는 꼭 한 번씩 나오는 통일에 대한 단원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늘 있



는 진부한 질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답만을 남길 뿐이었다. 이산가족상봉 장면을 보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늘 겉으로만 그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뿐이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무심코 지켜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리고 있던 스케치북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누군가가 선을 그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그어진 쪽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쓸데없는 그 선은 지우개로 지우거나 지울 수조차 없이 심하게 그려놓았다면 다른 새 종이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 스케치북은 그 아이의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반으로 갈라진 채 살아온 반세기 동안 당연히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우리의 마음도 새 종이로 바꾸어 버리고서는 분단되기 전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애써보자. 그 생각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는 통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던 통일이라는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KOREA라는 한 이름 아래 손 꼭 붙잡고 함께 입장하던 그때 말이다. 그 이후 우리는 적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의 관계까지 발전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흘러고 있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그날, 이별로 겪어왔던 고통과 그리움은 만남의 행복으로, 그리고 서먹서먹한 우리의 사이가 친구사이로 지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도 친구 혹은 아는 사람과 싸운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과하기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가 쉽지 않았던 경험이 모두 있지 않은가? 하물며 한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이미 남남의 국가로 남겨진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두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먼저 흩어져 있던 남한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모은 뒤에 더욱 섬섬해지지 않게, 더욱 늦기 전에 북한에 먼저 화해를 제안한다면 우리의 사이가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사이,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좌우익의 이념대립이 사라진 시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공을 외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일관된 통일 정책을 통해 상호 간에 신뢰성을 공고히 하는 일도 우선 과제이다. 또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거나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통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며 통일이 곧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무엇이든지 돕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한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둠을 거두고 밝은 새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통일의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워야 할 때이다. 우리의 사랑, 도움, 이해 그리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통일이라는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선이 차츰차츰 의미를 잃어가 끝내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더는 불려지지 않는 날이 왔으면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붉은 악마의 함성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스포츠 강국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통일국가로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그날을 꿈꾸는 한 우리는 이미 통일 한국이 아닌가! “대~한민국!!!”



## 전라남도

13

- 함께 외치는 '대한민국' ...351
- 옷겨도 옷지 못한 이야기 ...354
- 나는 대한민국 국민 이명복입니다 ...357
- 57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360
- 조심스런 여행 ...362
- 할머니의 선물 ...365
- 생각의 벽을 허물자 ...368
-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 주세요 ...371
- 가슴 속의 통일 ...373





## 함께 외치는 '대한민국'

무안초 5  
유동완

며칠 전에 안산에서 큰이모 식구들이 오셨다. 작년 설에 보고 진짜 오랜만에 본 것이다. 우리가 안산에서 살 때에는 큰이모네 집은 내 집처럼 매일같이 드나들며 살았는데 아빠 직장 문제로 2년 전에 지금 사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말았다. 처음에는 너무 서운하고 슬펐다. 이모와 이모부는 물론 솔아 누나, 상아 누나, 준정이형 모두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런 사촌들을 드디어 만난 것이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게 좋으니?”

하시는 엄마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사촌 누나들과 형한테 줄곧 매달려 성가시게 굴었다. 나는 편식이 좀 심한 편인데 그날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반찬 투정 한 번 않고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이모네 식구들과 오순도순 TV를 보며 먹는 과일 맛도 다른 때보다 훨씬 달콤했다.

마침 TV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6월 말쯤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전에도 학교 방송이나 TV 뉴스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이니,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종종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뉴스가 귀에 또박또박 들리는 것이 참 희한했다.

“저렇게라도 해서 통일이 빨리 됐으면... 생이별한 이산가족을 봐서라도 꼭 그렇게 돼야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네 시간이면 언제든지 닿을 곳에 사시는 이모네 식구들도 바로 곁에서 매일 보고 싶어 이 야단인데, 50년을 넘게 억지로 헤어져 살아온 이 산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얼마나 그립고 슬플지 나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잠깐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 창원이를 생각해 보았다. 무슨 사연이 되었던 우리 식구 중 한 명이라도 헤어져 살게 된다면..., 하는 상상을 하니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한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해 주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편이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세계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한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북한에서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이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회 시간에 북한에는 우리보다 지하자원이 훨씬 풍부하다고 배웠다. 통일이 되면 비싼 원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어서 남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또 가장 경제적이고 깨끗한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한다. 남쪽의 기술력으로 아직도 수려함을 자랑하는 북한의 관광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피해도 줄이고 관광 수입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여태 개방을 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더욱 금금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금강산이라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스포츠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지금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그런대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잘하는 종목과 합쳐 열심히 땀 흘린다면 미국이나 중국 못지 않은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벌써부터 독일에서 6월에 열리는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엄청 기다려진다. 4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이루어냈는데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통일이 되어 남북 선수가 한 팀이 된다면 틀림없이 우승도 가능할 텐데….

문화적인 면에서도 통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하나의 글을 써왔던 남과 북이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니 언어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다. 분단이 되기 전에도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사투리가 있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언젠가 북한말의 뜻을 알아맞히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 스스로 깜짝 놀랐다. 지금과 같은 분단 상태로 마냥 시간을 흘려 보낸다면 머지않아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만나도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한 겨레, 한 민족이다. 어느 누구도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 독일이 통일을 한다고 할 때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다고 한다. 동독과 서독 간의 이질감이나 경제 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하지만 지금 독일을 보면 얼마나 빨리 서로를 이해하고 동화가 되었는가?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세계의 여러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조금이나마 치유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 월드컵 대회 때는 꼭 북한 어린이와 나란히 앉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고 싶다.



# 웃겨도 웃지 못한 이야기

장흥여중 2  
김한결

수십 년간 함께해 온 아내 앞에서 북에 두고 온 아내 타령만 하는 김할아버지는 북에 있는 아내와 딸을 만나는 것이 소원인 실항민이다. 가족들은 김할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뜻밖의 상황과 함께 50억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에 가족들은 남북 단일팀 탁구 경기, 통일 신문, 통일 뉴스, 북한 교예단 서커스와 같은 여러 가지 통일 상황을 조작하여 아버지를 속인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보았던 영화 '간 큰 가족'의 줄거리이다. 주인공들의 재미있는 표정 연기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탁구 경기, 열도당도 없는 통일 뉴스와 같은 가짜 상황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을 떠나지 않게 했다.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웃기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갖게 했다. 마지막 부분에 딸의 죽음을 알게 되고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은 한 번 더 아버지를 속이게 된다.

영화를 보는 내내 깔깔거리며 웃기만 했지만 마지막 장면은 아직까지도 내게 감명 깊게 남아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했던 장면이었다. 이렇게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나에게서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영화라 허구이고 상상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



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물론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표현하며 통일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의 한 장면만으로도 통일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헤어진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준다면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친구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가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잘 이해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TV에서 몇 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와 상봉 장면을 접한 적이 있다. 콧물과 눈물로 뒤범벅되어 서로를 꼭 끌어안는 장면이 수십 년을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그들의 한을 보여 주고 있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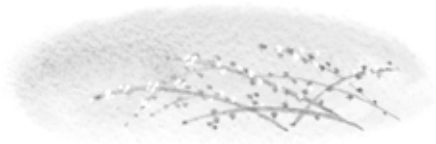
야영이나 캠프로 사나흘 동안 집을 떠나 있어도 집에 있는 가족들이 눈물나게 그립고, 쫓아다니며 짜증만 나게 했던 동생도 보고 싶어지는데 5, 60년 동안 헤어져 살면서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눈물과 기도로 보내야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지닌 아픔을,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주는 일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 아닐까?

국토가 분단된 지 60여 년, 한꺼번에 완벽한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으로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앞으로 서로 더 가까워져서 금강산뿐만

아니라 백두산, 묘향산까지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분단의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온 부작용으로 너무나도 커져 버린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해하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과 반평생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라 생각한다.





# 나는 대한민국 국민 이명복입니다

여수전자화학교 3  
이명복

매년 학기 초가 되면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반 친구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다. 이 시간이 다가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가슴은 쿵닥거린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이름은 이명복이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고 김치찌개를 가장 잘 먹어.” 여기까지 말하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해야 하는 말은 따로 있다. “그리고 나는 북한에서 왔어.”

사람들은 내가 북에서 왔다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과 우려가 반반인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결국 꼬리표처럼 이 말은 나를 항상 따라다닌다. 하기는 입장 바뀌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만약 북한에서 살 때 남한에서 온 누군가를 보았다면 나 역시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 같다.

나는 1987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14년을 살았다. 2003년도에 아버지와 함께 북에서 탈출했고 그 과정은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족은 1999년도에 형이 먼저 중국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경유한 후 남한에 정착했고 뒤 이어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내가 왔다. 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을 넘고 길고 또 길었고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북한 남양교도소로 이송되기도 했다. 나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까지 거쳐서야 간신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 동안 내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우리 반 친구들은, 아니 남한 사람들은 짐작이 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남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감격은 글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 내게는 죽음과 맞바꾼 생명과 같은 자유였다.

작문 선생님께서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과제로 내주셨다. 나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할머니가 생각난다. 우리 가족은 탈출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지 못했다. 북에는 나를 어릴 적부터 길러주시고 가장 사랑해주셨던 너무나 보고 싶은 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는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계실까? 이 생각만 하면 그저 눈물만 솟아난다. 통일이 되면 나는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가고 싶다. 내게 통일이라는 단어는 아프게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반 친구들을 둘러보면 다들 쓰악한 표정이다. 그 아이들은 할머니도, 부모님도, 동생도 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 와보니 사람들은 막연히 통일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지금 당장 통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나쁘다.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 것과 탈출하다 잡혀 죽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말 그대로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남한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상태이다. 두 사회가 아무 장치 없이 바로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통일을 하되 그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금보다 더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인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거쳐서 통일이 되면 좋겠다. 특히 민간인들의 교류는 정말 절실하다. 북에 가족이 있는 남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우리 할머니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몇 년이나 더 살아계시겠는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교류가 활발해져서 가족들끼리 생이별하는 아픔은 더 이상 계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 지갑에는 대한민국 신분증이 들어있다.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등록증”을 내가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내가 왜 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했을까? 남에서 태어났더라면 친

구들처럼 살았을 텐데...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나 나나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저 다른 지역에 사는 한 나라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은 반 친구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는 점이다. 내가 한 살 더 많은데 형이라고 잘 따라주고 수업시간에도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다시 설명해 주고 한다.

내 꿈은 회사원이다. 너무 평범하고 우습게 들리겠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가 나오는 회사원이 꿈이다. 내가 전자화학교등학교에 다니니까 작은 전자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공부는 잘 못하니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보다 더 원하는 꿈이 있다면 내가 취직해서 번 돈으로 할머니께 고기를 사드리는 것이다. 그때까지 꼭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그때까지 꼭 할머니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우수상

## 57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월평초 4  
김성경

4월 넷째 주는 주5일제로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TV 화면에는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엄시복 할아버지로 7남매 중 4형제가 북한에 누님과 어머니 등 가족을 두고 1948년 봄에 남한으로 오셨다고 했다.

곧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후 57년 동안 단 한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으며, 그곳에 두고 온 어머니와 누님들 생각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었다.

지금 나이가 84세, 그 할아버지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7남매 모여 앉아 사진 1장 찍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다. 또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는데 57년이 지난 오늘까지 부치지 못해 간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에 선생님과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 북한에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왜 해야 하냐고 궁금해 한 적도 있었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었다.

TV에서 볼 때 많은 노인 분들이 자신의 친족을 만나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슬프지 않았다. 나의 가족 중에는 북한에 두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부모님과 동생을 북쪽에 보내고 나 혼자 남쪽에 살면서 부모님과 동생의 생사도 모르고 57년 간을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5일 동안 외가에 계셨을 때 엄마가 보고 싶어 밤에 이불을 둘러쓰고 울었던 기억이 났다.

‘안되지. 안돼!’

고개가 살래살래 흔들어졌다.

엄시복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 7남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겠다.

올 6월에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또, 열차로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도 한다.

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쳤으면 좋겠다.





## 조심스런 여행

목포제일중 2  
손 효원

‘우리의 산, 백두산! 장엄한 산, 기슭의 여기저기 나무와 풀, 계곡과 언덕, 물소리, 바람소리 생생하게 와 닿는 친근한 느낌이 이곳 역시 우리의 강산, 겨레의 터전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한쪽엔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기다리는, 마냥 우리의 곁에 남은 역사처럼 빠가 시렸는지 녹이 슬어버린 기찻길. 눈을 감고 철도 끝을 바라보다 내 마음은 건너편 북한 땅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마구 달려갔다.’ 지난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야, 서둘러!” 오늘은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삼촌을 따라 견학을 가는 날.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최초의 남·북 공동 사업이다. 난 아침 일찍 도시락을, 삼촌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로 갔다. 난 처음 가보는 북한이라, 북쪽에 간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다.

의정부에는 개성으로 가는 유일한 통근버스가 있다. 버스에 올라타자 이념과 사상이 다른 한 곳에 간다는 두려움이 날 사로잡았다. 비무장 지대에 이르자 시퍼런 총을 들고 서 있는 국군들이 보이고 건너편엔 북한 군인들도 보였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군인들을 보자 휴전 상태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살벌한 긴장감에 온몸에 소름이 돌아 올랐다.

북한 출입구에서는 출입증을 제시하라는 북한 사투리가 들려오고 주변의 여러 군인들이 버스를 둘러싼 채 조사하였다. 우리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눈



빛에 난 죄를 진 사람처럼 고개를 움츠리고 기다려야 했다. 한 겨레, 한 나라인데 자유롭게 오갈 수 없고 출입증이라는 불신의 물건을 만들어 조사하고 조사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개성에 도착할 때까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을 보았다. 남한의 모습과 어쩐지 달라 보였다. 시끌벅적하고 시간을 다투며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과는 다른, 단조로우면서도 조용한 모습이었다. 한 겨레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감시하고 다투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다툼일까? '60년이 넘게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음을, 온 겨레가...' 생각할수록 답답하였다.

드디어 개성공단에 도착하였다. 남한의 여느 공단과 다를 바 없었다. 두리번거리며 삼촌을 따라 다녔다. 삼촌은 기술을 북측 직원에게 설명하시고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논하셨다. 북한 직원들은 군인들처럼 정렬하여 움직였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쪽의 노동력과 서로 하나로 조화되어 일하고 있는 모습은, 나중 통일이 되고 나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해졌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직원들은 휴식시간을 허락받았다. 쉬는 사람 없이 모두 별 말이 없이 맡은 일을 하는 모습은, 자유롭게 각자 알아서 일을 하는 남쪽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이었다.

삼촌은 싸가지고 온 도시락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북쪽 아저씨들과 이야기기를 나누셨다. 하지만 자유스럽거나 자연스럽지 못했다. 너무 조심스러웠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마찬가지였다. "통일이 되면 서로 도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도, "남쪽에 헤어진 어머니가 그림다." 는 말도, "분단이 되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곧 우리는 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분단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앗아 갔다.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통일의 분위기가 성숙해져가는 것 같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은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다. 답답하게 휴전이라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많은 상처가 자라고

있다.

삼촌은 해가 채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였다. 통근버스에 오르는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저 멀리 보니 북한의 그 아저씨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셨다. 출발하는 버스 위에서 난 차창 밖으로 종일 답답했던 마음을 쏟아 버리듯 “나중에 만나요.” 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여행은 끝났다.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잠부터 자고 눈을 떠보니 오늘 일이 마치 한밤중에 꾸 꿈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든다. 나는 이 여행의 조심스럽고 불안한 분위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이나 하나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말한다. 어리석은 60년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대포와 폭탄을 사 모으고 죽이겠다고 겁주면서 60년이 넘도록 반복했던, 그 미친 짓을 멈춘다면, 진정으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멀지 않은 날, 우리의 끊어진 철도에 맺힌 불신과 고통의 녹은 다 씻어질 것이다. 경의선 열차를 타고 남·북을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푸르고 깨끗한 우리의 하늘에 감사하면서, 너무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어 쓰러질 것 같은 마음이 아닌, 자유롭게 기쁘고 편한 마음으로 보이는 누구하고라도 이야기 나누면서 내 조국 북녘 땅을 여행하고 싶다.





## 할머니의 선물

공산고 1  
김효진

오늘도 여전히 달빛이 어스름히 고개를 내밀 때쯤 할아버지는 부듯가에 홀로 앉아계셨다. 6·25 참전용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듯 왼쪽 팔이 없었다.

“할아버지, 뭐해? 또 할머니 기다려?”

6살배기 철수가 귀여운 걸음걸이로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우리 강아지 일찍 일어났구먼. 그래, 이리오렴. 할머니도 기다리고, 할머니가 양손 그득히 담아올 선물도 기다리지.”

“와! 선물? 그게 뭐야?”

“아가, 궁금하니? 그 선물은 말이야…”

천지를 뒤흔드는 폭격소리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 집집마다 인민군의 흔적으로 폐허가 되버린 마을. 실어리 마을을 정복했다는 인민군의 깃발이 하늘을 가렸다. 온통 붉은 세상이 된 것이다.

농투성이 만도와 그의 처, 순애 그리고 8살 난 아들은 행복했었다. 실어리가 정복되기 전까지는, 농투성이 만도가 총칼을 든 의용군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8살배기 아들에게 보여줄 삼천리금수강산 고운 자태를 물려주지 못한 채, 해방이 되어 비로소 자신의 나라를 갖게 된 만도는 그렇게 한을 삼키며 전쟁터로 끌려갔다. 꼭 살아 돌아오마. 이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자. 눈 안 가득 아련한 슬픔을 애써 감추고 한 약속이 이리도 생생한데 순애는 어디 있는가?

사상과 이념이 지배하는 현실을 부정하며 외면하고 아무리 벗어나고자 발버둥쳐도 결국 만도는 총 칼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 순애와 그의 분신, 아들이 기다리므로...,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같은 핏줄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만 했다. 밤마다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내 아우님의 원망, 밤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내 동무님의 분노,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찌 할 수 없는 그들의 무기력한 탄식이 만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만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도망침으로써 미칠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기에 그는 참고 또 참을 뿐이다. 그저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속으로만 곱씹어본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동자로 '꼭 살아 돌아오세요. 이 자리에서 당신 돌아오는 날 맞난 빈대떡 부쳐 기다릴 터이니...' 하고 이별하던 순애와 상황의 심각함과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눈치챈 모양인지 때를 쓰지도 않고 자신이 엄팔 지키겠다고 자랑스레 말하던 만도의 사랑스런 아들..., 어찌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칠 소냐. 그저 이 험난하고도 적막한, 피로운 상황을 빨리 마치게 해 달라는 기도뿐! 만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예성강을 넘어 부산으로 향하는 만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칠곡 같은 공포를 체험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철통같은 경계를 해야 할 만도는 삼일 밤낮으로 따라다니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깜박 잠이 들었다. 꿈속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세계였다.

[싱그러운 바람 내음을 타고 봄이 왔다. 평온하고, 아늑한, 안락한 그곳. 순애와 만도 그리고 8살 난 아들의 눈부신 미소. 그때 평온하기만 했던 푸른 잔디에 붉은 하늘이 뒤덮이더니만 이윽고 8살 난 아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불길한 꿈 내용에 만도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깰다. 그때 만도에게 날아온 세발의 탄환. 만도는 왼쪽 어깨와 손목에 총을 맞고 나머지 한 발은 가까스로 만도의 심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갔다. 끊어질 듯한 고통과 좌절감에 만도는 기억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행히도 어느 노부부의 눈에 띄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알이 깊게 박혀 출혈이 심

해 결국 왼쪽 팔을 어깨부터 잘라냈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그 느낌, 허망하고도 절망감, 상심에 빠진 만도이다. 하지만 노부부에게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에 만도는 다시금 희망을 품어본다.

“아따 그 미국인가 하는 그 거시기가 뭐를 해버려 갖구, 전쟁이 끝났다네.”

“아니, 이 할망구야. 전쟁이 끝나긴 무신. 아직 그 머시기야 전쟁을 잠시 쉰다는 거 말야. 휴….,그래 휴전이라드만.” 대충 이랬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민군이 후퇴한 지금, 3·8선을 경계로 철조망 사이 험상궂은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는 상황.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전쟁은 끝났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의 뜨거운 재회만이 남았다. 팔 하나를 국가에 헌납하여 놀랄 순애와 아들이겠지만 살아 돌아 왔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만도였다. 그런 만도의 앞에 다시 저주스러운 현실이 놓여졌다. 실어리 마을 한복판에 3·8선이 그어지고 철조망이 쳐진 참담한 현실, 게다가 하필 자신만 왜 남한에 있는 건지. 만도는 방황하고 저주하고 체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50여 년이 흐른 지금, 만도는 섬 마을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6살 철수와 살고 있다. 가없는 처지끼리 가족이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소독해나가는 중이다. 만도는 가장 가깝고도 먼 땅. 손만 뻗으면 닿을 그곳, 북쪽 실어리 마을을 안타까운 눈으로 고요히 바라보며, 사연을 담은 파도가 저쪽 실어리 마을의 순애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순애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70여 년을 살아온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져온다던 선물이 뭐야? 응?”

“철수야, 그건 말이다. 남한, 북한이 아닌 진정한 한반도 우리의 국토를 자유로이 드나드는 날이란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북한만의 인민 공화국, 남한만의 대한민국이 아닌 배달민족의 한 나라를 갖는 것…”

“우와! 철수도 기도할 게. 빨리 할머니가 그 선물 들고 올 수 있게.”

“……”

만도는 이제는 습관이 되버린 자신의 왼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린 초점으로 동이 터오는 북녘의 하늘을 응시한다.



# 생각의 벽을 허물자

돌산중앙초 6  
김 한 샘

얼마 전 엄마를 따라서 남산동에 위치한 수산물 시장에 간 적이 있었다. 시장에서 생선을 구경하느라 한참 신이 났던 나는 우연히 새로 좋게 만들어진 다리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리에는 차들이 길게 가로막고 주차가 되어 있어 다른 차나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게 보였다. 엄마께 여쭙보았더니 우리가 돌아보고 있던 시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수산 시장인데 좁고 주차시설도 부족해 시장상인들 중 일부 사람들에게서 넓은 곳으로 시장을 옮기자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리 건너편에 넓은 땅을 매입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뜻이 다른 사람들은 구 수산시장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남은 상인들은 구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다리를 넘어서 새로 지어진 수산시장에 갈 수 없게끔 차로 다리를 막아놓았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다리가 마치 우리의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민족은 한 핏줄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의 차이로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분단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해야 한다. 또,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난 사람들은 헤어진 이산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슬프게 살아야 한다. 언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말이다. 그것뿐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지금 강대국에 비해 턱없이 약하다. 그래서 강대국의 쌀 수입 개방 요구 등을 힘없이 받아 들이는 현실이다. 그런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기술과 자원이 어울려져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한 것에 대한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는 고집은 자신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결국 우리나라나 북한 두 나라 모두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세계가 평화의 분위기로 함께 살아가자는 지구촌 시대에 서로의 생각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함께 잘 살게 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둘째, 우리 모두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많은 시간 떨어져 살아오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도 많은 준비를 하지만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통일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의 벽을 다시 쌓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를 포함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려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국어시간에 북한의 말을 찾아서 배우고 도덕시간에는 분단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요즘 학생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온 국민이 가져야만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같은 모습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 생각의 벽인 휴전선 때문에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만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생각의 벽이 허물어지고, 생각의 벽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 주세요

나주동강종 2  
김보림

아침에 교실에 들어갔는데 내 책상 위에 작은 약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무슨 약이지?’ 하며 읽어보니 “마음 따뜻, 머리 맑은 약”이란 약 봉투 안에 ‘항상 행복해지는 약, 빠근한 몸 풀리는 약, 총명해지는 머리 맑은 약, 다정하게 말해지는 약, 마음이 따뜻해지는 약’이 들어 있었다. 아기자기한 그림에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릴 위해 준비해 주셔서 우리 반은 하루종일 행복했다. 다음날 친구들이 오늘은 약 없냐고 하니까 약을 과다 복용하여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웃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약이 있다면 나는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나눠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이산가족이다.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자원이라든지, 잘 관리 되어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라든지, 군사비 절약이라든지..., 이런 많은 좋은 점 때문에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산가족들 때문이다. 분단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산가족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가?

요즘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 수는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을 만나려고 몇 개월 동안 밤낮없이 기다리고 울고 걱정하

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을 찢는 그런 잔인한 상황을 계속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서 통일이 되어 보고 싶을 때 보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것은 이산가족이 누려야 할 자유이다. 이산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많이 슬플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할 때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도대체 ‘통일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말로만 통일, 통일하자고 하지 통일이 될 날이 언제쯤일지 짐작도 못하는데, 통일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통일을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통일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또 눈에 확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게 통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표시해 놓고,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며 분단국가라는 이름으로, 남측과 북측이라고 나누어 부르며, 점점 다른 문화와 생활로 바뀌어 변해 버리는 것. 그건 안 된다 고 말하기 전에 다른 나라 보기에다 창피한 일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측과 북측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과 수업시간에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북측을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다. 요즘은 많은 식량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가까워졌으니까 이 때 망설이지 말고 통일을 하자. 이산가족에게 아픔을 준 6·25 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아픔을 덮는 약이 있어야 한다. 이산가족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은 딱 하나, 바로 통일이다. 이 약을 모든 이산가족에게 나눠 주자. 그런데 이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전쟁을 일으킨 우리밖에 없다. 이제 이산가족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약, 통일을 주세요.



## 가슴 속의 통일

여수충무고 1  
김성진

**한 몸**이 위와 아래로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한 잔의 차가 물과 기름처럼 층이 나누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둘로 나뉜 몸처럼, 층이 생겨 버린 물과 기름처럼, 서로 많은 점들에서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 거리에 나와 다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과거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서로를 낯설어하며 심지어는 불안해 하고 외면까지 하는 우리가 되었는가? 우리의 분단 현실만 보고 “아직도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며,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 것’ 이라면서….

분단 후, 남북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이중간첩’, ‘태극기 휘날리며’는 대표적인 예이다. 남녀의 사랑과 격렬한 싸움 장면이 가려 혹시 남북분단의 비극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은 심리상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것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주의 깊게 보거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에게 진정 통일과 분단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지금 이산가족으로 고통받는 이가 자신의 친척일 수도, 전쟁으로 불구가 된 이가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일 수도 있다. 모두가 나의 친척이고, 모두가 나의 가족이다. “사돈의 팔촌까지 따지면 남이 없다.”와 같은 속담이 있지 않은가!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데 생사조차도 알 수 없어서 불안해 하며 눈물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가가 축축해진 적이 있었다. 그냥 눈가만 축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들을 만난 듯

기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라는 증거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기던 모습을 누구나 그리워한다. 누가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상처를 남겼을까?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1년 전 나는 금강산 관광을 갔다 왔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흥정을 하는데 북측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 개발되지 않은 자연과 순박한 주민들의 표정은 묘한 대비가 되었다. 아울러 특히 삿대질을 ‘손가락 총질’이라고 부르며 사용할 수 없었고, 식당 종업원들의 억양이 우리와 많이 달라 알아듣기가 힘들기도 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남측 안내원들에게 딱딱했던 군인들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는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다는 안내원의 말을 듣고 역시 같은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년 넘게 따로 살아온 우리였지만 친근감을 느끼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한겨울에 북한 동포들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안타까웠다. 우리는 세탁기로 손쉽게 하는데 그 추운 강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니 내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았다. ‘우리 모두 잘 살아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 의문이 앞섰다. 서로 도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측의 노동력과 만나 현재의 개성 냄비 같은 산업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 또한 엄청난 것이다. 우리 남측만 해도 빈부격차가 엄청난데,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어떨겠는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독일의 통일 방법도 조만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로 관광하고 대화로 웃으며 차이를 극복해 새로운 공통점을 만들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절대 핵이나 무력 등의 위협적인 매개체를 소재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년에 1개씩 생산이 가능하다고 영국의 연구소는 발표하였다. 경의선과 동해 북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남북 횡단 철도가 유럽까지 뻗어나가면, 핵무기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변덕스러운 북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일원이 되어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하지만 통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도 아니다. ‘한 가지의 일은 백 가

지, 천 가지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백 가지 중 반 이상은 이미 이뤘다고… 그것은 2000년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른 많은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 구체적인 예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통일염원과 동질감을 느끼는 모습들도 또 다른 예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 마음이 4강 신화를 이루었듯 멈추지 않고 가는 남과 북의 통일된 한마음이 선진문화대국의 신화를 온 누리에 퍼뜨릴 것이다. 기쁘다, 통일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하다, 나만이 아닌 모두가 기뻐하며 감동의 눈물을 짓는 통일이 반이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 경상북도

14

- 우리 가족들의 작은 통일 ... 379
- 향숙과 마라톤 ... 381
- 소녀의 손수건 ... 384
- 우리는 한민족 ... 389
- 우리 만날 날을 기다리며... ... 392
-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고향 ... 394
-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 397
- 작은 전쟁의 아픔 ... 400
- 통일을 위한 청소년들의 각오 ... 402







## 우리 가족들의 작은 통일

효령초 6  
이현아

저녁 식사 후, 우리 가족은 TV 앞으로 모였다. 외국의 신문기자가 북한의 평양거리를 찍은 사진이었다.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나는 북한의 내 또래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갔다. 북한 어린이들은 우리 보다 못 먹고, 못 입는 것 같았다. 북한 아이들의 옷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거의 같은 옷이었다. 천은 헤어지고 많이 지저분하였다. 내가 입은 옷은 예쁘고, 색깔도 알록달록하다. 또 옷의 종류도 원피스, 바지, 티셔츠, 치마 등이 있고 모양도 짧고, 길고, 두껍고 여러 가지의 옷들이 있다. 그런데 TV를 통해 북한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저런 옷이 있었나? 할 정도였다. 얼마 전에 별로 안 예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라고, 엄마에게 막무가내로 떼를 썼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북한 어린이들이 보기 좋고 예쁜 옷을 입고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옷이라도 보내 주고 입어보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전에 대구에 있는 고모 댁 아파트에 가보니 우체통 같이 생긴 초록색 헌 옷 수거함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아직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이 들어 있었다. 나는 관리소 아저씨께 여쭙어 보았다. “아저씨, 이 수거함의 옷은 어떻게 하나요?”, “그 옷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인단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금방 마음이 환해졌다.

“그러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이 옷을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느 기업에서 북한에도 이 옷을 보낸다고 하던데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이리로 가져와.” 하시며 아저씨께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우리 집의 옷이라도 하나씩 모으기로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안 입는 옷을 모으기로 하자.” 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라면 박스 몇 개를 가져 오셔서 ‘사랑의 옷’ 이라고 쓰셨다. 먼저 내가 안 입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말렸다. 양말까지도 챙겼다. 그 다음 동생 옷을 정리할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동생 옷은 깨끗하게 있어서 그냥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겨울 옷은 두꺼워서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게 하였다. 세탁비는 좀 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옷을 박스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누가 이 옷을 입을지 몹시 흥분되었다. 이 옷이 빨리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가족 옷을 다 싸고 나니 우리 반 친구들이 잘 안 입는 옷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먼저 수진이에게 가서 옷을 좀 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그런데 수진이는 지금 언니와 옷을 같이 입는다고 미안하지만 못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정이에게 물었더니 마침 동생이 작은 옷이 1개 있다고 이틀쯤 지나면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1개나 2개씩 모두 옷을 준다고 했다. 친구들이 너무 너무 고마웠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준 옷을 모아 옷이 없는 북한 아이들에게 줄 것을 상상해 보았다. 북한 아이들이 이 옷을 보면 엄청 좋아 하겠지? 내 옷을 북한 아이들이 잘 입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옷을 통하여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이미 작은 통일은 된 것 같았다. 이런 마음이 북한 땅에 점점 퍼져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 향숙과 마라톤

성남여중 3  
이은송

아침부터 포항에 있는 큰댁을 방문하기 위해 가족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향긋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낄 때쯤에서야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지만 희망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마라톤 경주라도 하는가 봐요.”

“포항시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것이란다. 다른 지역에서도 통일 기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포항에서는 몇 해째 계속해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단다.”

아버지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희망찬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 이해가 갔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 조금 놀라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나 역시 같은 국민으로서 뿌듯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이 단순히 남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도착점까지 달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할 때쯤에 큰댁에 도착할 수 있었다.

큰댁을 들어서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끼리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큰어머니께서는 베란다로 향하시더니 기르시던 식물에 물을 주셨다. 평소 식물에 관심이 많던 나는 큰어머니 곁으로 가서 여러 식물들을 둘러보는 중 특이한 향이 나는 식물에 관심이 갔다.

“큰엄마, 이 식물 이름이 뭐예요? 특이한 향이 나요.”

“그건 ‘향쭉’ 이라고 하는데 여러 용도로 쓰이는 요긴한 식물이란단다. 혹시 향쭉의 꽃말을 알고 있니?”

“음, 모르겠어요.”

“향쭉의 꽃말은 ‘평화’ 란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좋을 텐데...”

말끝을 흐리시던 큰엄마는 통일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큰엄마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듯 했다. 큰엄마의 애잔한 감정이 나에게까지 잔잔히 퍼져 올 때쯤, 큰엄마는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떼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말 씀하셨다.

큰엄마의 어머니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 중 한 분이셨다. 큰엄마의 어머니는 피란 중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을 잃어버린 채로 남쪽으로 넘어와 큰엄마의 아버지를 만나 새롭게 가정을 꾸리셨다고 한다. 막내 동생의 조그마한 손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에서인지 동생의 생사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움 때문인지 큰엄마의 어머니는 막내로 자라온 큰엄마를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이 예뻐하셨다고 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큰엄마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유난히 좋아하시던 향쭉의 독특한 향을 맡고 계시던 모습이 떠오르고,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다고 하셨다. 큰엄마는 전쟁 이후로 고향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한 채 북쪽 하늘만 바라보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6월 25일이 다가오는 요즘에는 더욱 보고 싶고 그리워진다고 하셨다. 큰엄마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나의 눈시울이 붉어져 올 때 큰엄마는 통일 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의 문제로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많이 안타깝다고 하셨다. 비록 지금은 휴전선으로 한반도가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구별 없이 모두의 몸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며, 동일 민족이라

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물론 큰엄마의 말씀처럼 예전보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남북 퀴즈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거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게 될 때면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가슴이 따뜻해져 올 때가 있다. 큰엄마께서 남북이 통일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계신 모습을 본 나는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함께 변화하는 것이 통일을 향한 길이겠지. 그리고 그것은 너희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란다.”

큰엄마의 말씀에 나 역시 통일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큰엄마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오전에 실시한 마라톤 대회 시상식을 하고 있었다. 마라톤과 통일! 그리고 보니 마라톤과 통일은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과 그리고 한 선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1위를 한 선수처럼 우리들이 통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달음박질을 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로 도우며 최선을 다할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코끝에는 ‘평화’라는 꽃말을 가진 향쭉의 냄새가 아득하게 번져갔다.





# 소녀의 손수건

-휴전선에서 고생하실 삼촌께-

점촌고 2  
홍주연

**충성!** 안녕하세요?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려 고개를 들 어보니 어느새 다가온 따가운 햇살 아래서 긴팔과 반팔 얇은 면의 길이 차 이가 이렇게 다른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해 주네요. 덩달아 더위 많이 타시는 삼촌이 연신 땀을 흘리시며 물을 들이키실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 주연이에요.

며칠 전 동생이 숙제를 해야 한다며 빌려온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았는데, 오늘도 휴전선에서 분단의 아픔 을 가슴깊이 새기실 삼촌의 생각이 더욱 낮았어요. 그런데 감동의 여운이 깊어서 그랬을까요? 꿈도 잘 꾸지 않는 제가 의미 있었던 꿈의 메시지를 삼 촌께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삼촌, 지금부터 제 꿈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저는 어느 공간 속에 서 있었어요. 웬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요. 시간이 지나자 어느 소녀가 나타났는데, 꼭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소녀는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공간이 뒤틀리면서 깨어졌고 저는 소녀와 함께 어느 시골 마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 골은 평안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길 듯한 시골이 아닌, 무언가가 할퀴고 간 뒤의 참혹함과 사람들의 슬픔만이 가득한 시골이었어요. 저는 깜 짝 놀라 소녀를 바라보았죠. 소녀는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따라

오라는 손짓을 보인 후, 쓰러진 짐들 사이에 세워진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 쓰레기장을 지날 때 나는 냄새보다 더 역겨운 악취가 제 코를 찔렀고,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제 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아이들의 어미로 보이는 한 여성이 피로 덮여진 채 누워 있었어요. 여성은 끊어질 듯한 숨을 헐떡거리며 아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잇는 듯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여성은 그만 아이를 붙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윽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제 옆에 있던 소녀는 여성을 한번 보고는 그 움막을 나갔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소녀를 따라 나갔지요.

“저 아이들 엄마가 뭐라고 한거니?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여긴 어디니?”

저의 쏟아지는 질문에 소녀는 아까보다 더욱더 슬픈 표정을 짓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내어 제 앞에 펼쳤어요. 그 손수건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수 놓여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의 허리에는 뼈기가 박혀 피가 흘렀고, 호랑이는 매우 괴로운 듯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의 눈물 위엔 195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1950? 호랑이는 왜 이런 모습으로..., 설마, 지금이 1950년대 6·25 전쟁시대?”

전 놀란 듯이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다시 한번 슬픈 미소를 짓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순간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어지럽더니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 제가 꿈에서 본 것이 정말 6·25 전쟁이 일어난 후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곳은 너무 슬펐습니다. 6·25 전쟁의 암울함은 수업시간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의 눈에서 흘러내렸던 물방울이 제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눈을 뜨자 보인 큰 건물들과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은 제가 주로 그리던 미래의 모습과 흡사했어요. 소녀의 모습은 아까의 슬픔은 잊어버린 듯 환히 웃고 있었어요. 소녀의 웃음에 동화되어 저도 밝게 웃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큰 최첨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 건물이 뭐지?’ 생각하던 차에 소녀는 제 손을 잡아 이끌고 아이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의 모습은 정말 놀랍고 새로웠어요. 여기 저기 꽃나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청소기를 든 로봇이 이리 저리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평양’이라는 뜻을 가진 방으로 들어갔고, 소녀와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둘씩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 앉자마자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책상 위로 가상 이미지가 떴고, 이미지가 뜨는 동시에 남자 한 분이 교실로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아이들의 어투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 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던 우리 표준어였고, 다른 한 쪽은 텔레비전으로만 보고, 들어왔던 북한의 말투였어요. 툇이 높고 딱딱 끊어지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축구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북한 아이들이 ‘직접 발차기’ 라고 하자, 책상 이미지에는 프리킥을 하는 동영상과 함께 밑에 프리킥의 설명이 떴습니다. ‘프리킥을 북한 사람들은 직접 발차기라고 하는구나.’ 고 생각하는 찰나 소녀는 다시 그 교실을 나갔고, 저 역시 소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냥 스쳐간 느낌이었을까요? 다른 공간으로 넘어와 기뻐하던 소녀의 표정이 순간 쩡그렸던 것은... 그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오자, 저는 의문점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온 거니? 아까 그곳은 교실이지? 하지만 뭔가 이상한데, 아이들이 쓰는 말은 틀림없는 한글이었는데 말투가 달랐어. 왜 그래? 날 여기로 데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니?”

저의 다급한 질문에 소녀는 재촉하지 말라는 듯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다른 손수건을 꺼내 제게 보여 주었어요. 손수건에는 전과 같이 호랑이가 수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췌기에 박혀 피를 흘리며



울던 호랑이는 온테간데 없었고,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즐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랑이와 함께 웃었죠. 순간 '1950'의 숫자가 생각이나 손수건의 가장자리를 보았더니, 어라? 숫자를 대신해 물음표가 수 놓여 있었습니다.

“어? 여기 물음표는 무엇이니?” 그때, 전 처음으로 소녀의 미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긴 우리의 미래야. 아까는 알다시피 우리의 슬픈 역사, 6·25 전쟁 때이고… 물었었지? 아이들이 쓰는 말투가 다른 이유를. 이곳은 통일 직후인데, 아직 언어 문제는 해결치 못했어.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우리는 각기 다른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손수건의 물음표는 너희에 따라 달려있단다, 너희에 따라 달려있단다.”

소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때 전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우리에 따라 달려있다?’ 그건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일의 시기가 결정된다는 말일까요?

삼촌!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과거와 미래의 호랑이를 저에게 보여 주며 울고 웃던 소녀의 표정 하나하나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소녀가 끝까지 해주지 않았던 답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역시 삼촌의 말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예전에 ‘느낌표!’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신동엽 아저씨와 남북 아이들이 함께하던 퀴즈 프로그램이 생각나요. 퀴즈는 북한 방식으로 출제되었는데 그 방식이 남한과는 매우 달랐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제대로 맞추지 못한 남한 아이들이 회를 거듭함에 따라 맞추는 문제 수를 높여가는 것을 보며 대견스러워 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를 만난 후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생각해 대신 분들께도 박수를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발자국씩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헤어진 시간은 오십 년이 넘어 서로 각기 다른 나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우리는 노력하니까요. 제 꿈에 나타났던 그 학교의 풍경을 그리며 생활하니까요.

그리운 삼촌!

오늘도 휴전선 너머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운가요? 그 너머 사람들은 우리 처럼 활기찬 모습을 하고 있는가요? 너무 궁금해요. 이번 방학 때는 삼촌을 만나러 가족들과 함께 가겠어요. 삼촌이 항상 보셨던 아름다움을 저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건강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럼 이만 줄일 게요.

충성!

자랑스러운 삼촌 조카, 주연 올림.





# 우리는 한민족

영천초 6  
박다솜

지난 4월에 나는 어린이 적십자 단원으로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해 4박 5일 동안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하게 되었다. 북한 방문을 위해 전국에서 70여 명이 선발되었는데 각 도에서 초, 중, 고등학생 각 1명씩 3명과 교사 1명이 뽑혔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초등학생 대표로 내가 뽑힌 것이다.

처음에 선생님께 내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기쁨 반, 걱정 반이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싶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북한은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절도있는 걸음걸이를 하며, 이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 같았다. 늘 '위대한 장군 김정일 장군...', '위대한 혁명이...' 라는 이상한 말만 늘어 놓는 마치 기계 인간과도 같아 보였다.

걱정어린 마음도 잠시 '적십자 대표로 가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였다. 친구들도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그래서인지 한편 마음이 우쭐하기도 했다. 북한으로 떠나는 전날은 밤새 잠도 오지 않았다.

첫째 날, 서울에 들러 북한에서 조심해야 할 많은 것들을 교육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을 북측, 남한을 남측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가리킬 때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북한에서

는 손가락질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교육을 받는 내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은 같은 나라이지만 분단이 되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인데,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다른 뜻과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은 아침 식사를 한 뒤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하였다. 한 시간쯤 지나 드디어 금강산에 도착하였다. 금강산은 듣던 대로 아름다웠으며, 바위며 봉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명산이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중에 살짝 의문이 들었다. 내가 금강산에 오기 전인 5학년 때 ‘금강산’이라는 노래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봉우리가 일만 이천 개일까?”

그리고 산을 조금 더 오르니 맑은 계곡이 있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 물을 마시면 십년이 젊어진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집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떠올랐다. 그래서 난 얼른 내가 마시던 물을 부어버리고 그 계곡물을 받았다. 정말 뿌듯했다.

금강산을 오른 뒤 해금강호텔에 들러 잠시 쉬 다음, 저녁때에는 북한 학생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모두 식탁에 앉고, 북한 대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뒤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북한에서는 접대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음식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덜어 주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북한 아이들은 절대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로 효선이, 미선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나는 그것이 조금은 기분이 나빴지만 북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다.

4박 5일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내가 느꼈던 문화의 차이나 생활의 차이를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첫째, 우리 남한에서는 학교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니는 학교를 초등 학교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한다. 우리와 다른 학교 이름과 학교를 다니는 학년이 다른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둘째, 우리 남한에서는 ‘아줌마, 아저씨’를 아주 친숙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줌마, 아저씨’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낱말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남한에서는 좋은 표현이나 행동이 북한에서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동방예의지국이란 명칭을 얻을 만큼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예의 바른 민족성을 지닌 나라로 인정받아 왔고, 작지만 큰 나라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사상과 이념이란 벽으로 인해 다른 민족인 것처럼 분단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북한 방문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북한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으며, 이것은 소중한 기억이 되리라 생각된다. 느낀 점이나 추억 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남아서 좀 서운하긴 하였지만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꼭 통일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 서운함을 잠시나마 달래본다.

통일이 되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나 제주도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들으면 그냥 재미있게 느껴지듯이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흔하게 들을 수 있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같은 역사책을 보며 같은 날짜에 방학을 하고, 여름휴가도 북한 쪽 날씨가 여기보다 시원하니까 금강산이나 백두산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분명 북한친구도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한민족, 한 핏줄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영원히 잊지 못할 금강산도 분명 우리 땅이며 다시 금강산을 볼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본다.



우수상

## 우리 만날 날을 기다리며...

상주여중 1  
류진솔

사랑하는 북쪽친구 희망이에게 안녕? 난 상주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진솔이야.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오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없어질 수 있다.' 란 말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장 염원하시던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야. 난 책에서 이 말을 보았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 이 말을 마음속에 되새길 때마다 분단의 슬픔을 느낀단다.

년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기억하니? 남과 북의 선수단들이 손을 맞잡고, 입가엔 미소를 가득 담고, 동시입장을 했었잖아. 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느낌을 못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해. 갈라져있던 한 민족이 함께 동시입장을 하다니..., 그 순간, 그 선수들은 정말 짜릿한 행복을 느꼈을 거야. 나도 너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금강산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6·25 때, 북에서 내려오셨어. 이 할머니처럼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통일이 될 날을 기다릴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분단의 아픔은 한 민족에게, 한 핏줄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작년 겨울방학 때, 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갔었어.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먼 곳에 있는 줄만 알고 있던 곳이 눈앞에 아주 가까이에 있더라구. 임진강이 흐르는 풍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

말 난 언제 그곳에 갈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또 남쪽엔 통일공원도 있어. 가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기념물이 굉장히 많이 있대. 우리 통일이 되면 함께 통일공원에 가보지 않을까? 같이 가서 역사도 돌이켜 보고, 반성도 하고 참 좋은 견학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 것은 경제, 문화, 교육, 정치,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래. 경제적인 면을 예로 들면 통일이 된 직후, 소득차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한 민족의 의지와 노력으로 '경제위기'라는 큰 산을 넘으면,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산을 넘음으로써 그 동안 뿌려놓았던 불신의 씨앗을 거두고, 믿음의 씨앗을 새로 뿌려서 자라고, 자라면 '하나'란 큰 나무가 되어서 한 민족으로써 높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거야. 또 북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하지만 그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 통일이 되면 남쪽의 기술력으로 북쪽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지난 시드니올림픽 때처럼 다정하게 함께 입장도 할 수 있고, 또 남쪽의 선수와 북쪽의 선수가 서로 협동해서 함께 경기를 치루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야. 또 이산의 아픔을 겪었던 한 핏줄, 한 가족이 다시 만나서 이산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정을 싹틔워 갈 거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흥분으로 마음이 벅차올라.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하지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아주 많이 중요한 것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한 민족의 불타는 의지와 마음이야. 이런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통일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 통일이 되면 3·8선이 끊어진 곳에서 한반도를 그린 깃발을 들고,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만나자. 꼭이야. 우리가 만날 날까지 건강해. 우리가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2006년 5월 23일  
희망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남쪽친구 진솔이가



##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고향

김천여고2  
이은지

“나 있지, 토요일이 외할아버지 팔순이라서 서울 올라 간다.”

친구가 무심코 자랑삼아 내뱉은 말에 우울해진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어진다. 외할아버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래서 나에게 세상엔 없는 단 어처럼 느껴지는 그 말. 나와는 생에서 인연이 닿지 못했는데도 막연히 그리워지는데 엄마는 일찍 여윈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더 애가 탈까하는, 어리지만 속 깊은 마음을 가진 나는 이제껏 엄마에게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입 밖으로 궁금했던 것들이 나오려 하면 다시 삼키고, 또 삼키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 가끔씩 외동딸인 자신을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 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곤 했다.

텔레비전에서 6·25 전쟁과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던 날이었다. 나는 전쟁세대도 아니고 주위에 이산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천천히 말문을 여셨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외할아버지의 얘기였다. 예전에도 할아버지가 북한사람이셨단 말은 들었지만 왠지 보통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내 나이일 때, 그러니깐 약 30년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셨다. 젊은 시절에 남한으로 내려와 다신 한 줌의 고향 흙조차 느끼지 못하고 남과 북



의 경계 없는 하늘로 떠나신 할아버지... 엄마에게서 들은 할아버지의 생애는 연속극의 줄거리처럼 느껴질 만큼 애절하게 와 닿았다.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청년시절까지 그곳의 한 마을에 사셨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뛰어난 글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비록 남들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글재주는 없을지라도 글을 좋아하고 망상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취향은 할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그날. 전쟁이 일어나 할아버지는 남하하게 되었고, 그때 북한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셨다. 북에 있을 때나 남에 있을 때나 늘 밝고 긍정적으로 지낸 그는 자신이 어려울지라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던 분이셨다고 한다. 게다가 말쑥한 외모로 주위에서 인기도 꽤 있으셨다고 후에 외할머니께서 덧붙이셨다. 내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곤 엄마 서랍 속의 빛바랜 사진 속 희미한 미소뿐이지만 하나의 판에서 찍어낸 듯 엄마와 닮으셨기에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점점 좋아하게 된 처녀와 성실하고 적극적인 그녀에게 빠진 청년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두 분은 담배 가게를 꾸려나가며 아이 셋과 함께 비교적 풍족하게 사셨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외동딸과 공부, 운동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항상 우등생이었던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야 마땅할 할아버지는 가끔씩 알 수 없는 어두운 표정을 짓곤 하셨고, 이따금씩 이북의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면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옷소매가 젖어들었다는 것이다. 비록 남에서 처자식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항시 그의 가슴 한 귀퉁이에는 두고 온 고향과 그곳에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이 자리 잡고 사라지질 않았으리라.

남한의 하늘을 바라보며 북한의 땅을 그리고 품었던 것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실향민의 딸, 채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 소녀, 지금의 나의 엄마. 그녀는 갈 수도 없는 친가에 대한 막연한 설렘을 명절마다 가슴에 품었다 한다. 그리고 지금도 할아버지를 낳은 그 땅을 밟고 싶어 한다.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던 엄마의 얼굴이 이북의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

지의 옷소매가 그랬던 것처럼 물기에 어려져 갔다.

그렇게 가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할아버지는 젊을 적에 일어서기 위해 힘든 일 마다 않고 쉴 새 없이 달려오셔서인지 엄마 나이 20살도 되기 전에 폐암을 앓으셨다. 엄마는 이승에서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숨쉬는 것조차 거추장스러워 하며 아픔 속에 몸부림치시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지 머리를 좌우로 내흔드셨다. 땅에서처럼 허리가 잘리지 않은 푸른 저 하늘에서는 남과 북의 두 가족을 보며 행복한 웃음만 짓고 계실 거라고 애써 엄마는 믿고 계셨다.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텔레비전을 올려다보니 이미 우리가 보고 있던 6·25 전쟁과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자취를 감추고 애꿎은 화장품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웠다. 전쟁세대도 아니고 이산가족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남북분단을 남의 일처럼 여겨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나를 생각하니 이 다음에 할아버지를 뵈면 면목이 없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았기에 남북이 통일이 되든 계속 이렇게 분단 상태를 유지하든 자신에겐 아무 이득도, 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산가족을 포함한 일부 계층만 목청껏 통일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승리를 위해 여기저기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칠 때에 “남북통일”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외친다면 우리 민족이 열렬히 갈구하던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곁으로 와 빙그레 웃어 보일 것이라 나는 믿는다.



##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

박곡초 6  
이은지

나는 오늘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남북 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대회'를 보았다. 북한에서 문제를 내고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새롭고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형식이어서 즐거 본다. 북한 친구들은 문제를 척척 푸는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답을 적지 못한 채 찢절때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이것은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라고 진행자가 말했다. 그 말이 가슴 아프게 들렸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지 않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문화의 차이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의 아픔은 국토의 분단과 아울러 수많은 이산가족의 가슴에 슬픔이 간직된 채 5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아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나니 한 달 전 간암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6·25 전쟁의 한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잔잔한 미소를...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다가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가 되신 후 고생, 고생하시며 지금의 할머니를 만나 안정을 찾으셨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과 고향이 생각나시면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시곤 하셨다. 그 사진에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족이 있다.

“시영아, 할아버지는 이 사진만 보면 6·25 전쟁이 생각난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때의 끔찍한 상황이 말이다. 겨우 13살이던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남으로 내려오다가 밀고, 밀리는 북새통에 가족을 잃게 되었지. 총소리의 공포, 배고픔, 혼자가 된 슬픔과 불안, 정말 기가 막히고…”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면서 내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소들은 좋겠다. 나도 못 가는 내 고향 땅을 밟으니 말이야.”

몇 년 전 트럭을 타고 북에 보내지는 소를 보면서 부러워하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헤어진 가족이 못내 아쉬운 듯 두 손으로 사진을 꼭 껴안은 채 돌아가셨다. 고향에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말이다. 하늘나라에서는 고향 땅을 마음대로 다니시며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날이면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주위에는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바로 알지 못하고 말로만 통일을 외치는 친구들이 있다. 나도 할아버지의 슬픔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면 통일의 필요성도 중요성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볼 때나 남북한 생각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를 느낄 때나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과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인 것이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먼저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한 화합의 응원처럼, 금강산에서 개최된 ‘열린 음악회’에서 남북한 가수가 한데 어울려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면처럼 이미 트여진 물꼬를 계속 터 나가야 할 것이다. 계속적인 이산가족의 만남, 수해나 사고로 인한 북한 돕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등 하

나씩, 하나씩 물꼬를 틀 때 우리의 통일도 한걸음씩, 한걸음씩 앞당겨질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나도 통일이란 걸음에 함께 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남을 생각하고 베풀면서 더불어 생활해 나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국토도 하나, 마음도 하나, 정신도 하나 되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말이다.





## 작은 전쟁의 아픔

소천중 3  
김효선

그날도 역시 시끄러웠다.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몇 되지 않는 아이들끼리 또 싸운 것이었다. 그것도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로 편을 나누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아이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따지며 말을 했다. 그에 맞서 남자아이들도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몸부림쳤다. 그러던 중 때마침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았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것은 끝났지만 그때부터 우리들의 작은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다.

1교시 수업을 마치자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여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끼리 모였다. 그리고는 서로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흉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해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흉을 봤으면 보았지, 화해하기 위해서 소곤거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다.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며칠 동안의 생활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그때 분단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수업을 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이들과 같은 분단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찬반의견을 내세우는데 여자아이들은 찬성, 남자아이들은 반대로 편이 또 갈라졌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막 내세우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고 결국은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 계속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나무라셨다. 선생님의 꾸지람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였다. 서로 눈을 흘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우리가 정말 한심했다.

“너희가 한 것, 우리에게 좀 보여줘.”

남자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보여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자아이들의 말을 못들은 척 무시했을 텐데, 이번에는 선생님의 꾸지람도 있었던 터라 그냥 순순히 보여주었다. 한두 번 말이 오가고 나자 우리는 언제 싸웠냐는 듯 금방 친해졌다. 직접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그 전쟁 또한 서로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었다. 처음에는 북한은 북한 사람들끼리, 남한은 남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홍보며 어떻게 잡아 먹을지 생각하다가 지금은 서로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6·25 전쟁, 비록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기도 했지만 한반도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작은 전쟁에 불과하다. 같은 반에서 일어난 작은 싸움처럼 말이다. 그 작은 전쟁의 피해는 적지 않다. 작지만 너무 심하게 싸운 탓이었다. 이산가족, 부족해진 자원, 약해진 나라 등 눈으로 보이는 그런 아픔 말고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아픔은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컸다.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도 선생님과 같이 화해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 스스로 그 싸움의 원인을 찾고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친구들끼리 싸우고 나면 우정이 더 강해진다고 한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일 것이다. 우리의 싸움도 화해하고 나면 우리를 더 끈끈하고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만 그 싸움을 너무 오래 끌어서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분명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도 직접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북녘 하늘이 오늘따라 더 푸르게 보인다.



# 통일을 위한 청소년들의 각오

울진종합고 3  
이소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통일'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참혹하고 끔찍한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고, 경제의 눈부신 꽃을 피운 시대 속에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라는 서로 해체된 상황의 인식을 잘 할 수 없고, 이미 휴전된 상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전의 세대와 같이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마음 속에 잘 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그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지나친 무관심과 무지가 후세에 통일을 이룩하는 데 큰 취약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의 병합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성세대가 통일을 이루기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즉, 통일의 열쇠를 풀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미래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인식, 그리고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통일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성세대만큼 통일에 대한 개념과 사랑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은 우리들에게서 이미 타국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속에 국가와 민족에 대한 결속력과 통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반대로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다는 것과 반세기 동안 수많은 역사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피와 살을 나눈 한 민족이란 당위성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북한은 의외로 우리의 일상생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문화와 언어는 언론매체를 통해 그 사상과 정서가 알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평양냉면과 같은 북한의 떡거리 또한 한국인에게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남한 곳곳에서 북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욱더 애정을 가진다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통일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 나라가 분단되면서 생긴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해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현재 북한과 남한과의 언어는 그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원인은 북한은 외래어조차 고유어로 바꿔 우리말을 지키고 있지만 남한은 무분별한 외래어의 유입으로 인한 언어 차이의 이유와 어언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언어의 종류가 서로 양극화가 되었다.

하지만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북한을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각 지방마다 고유한 사투리가 있듯이 북한의 언어 또한 동질하다고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문화는 어느 것이 높고 낮은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수준이 더 높다고 해서 북한의 문화

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진정으로 북한을 포용할 수 없고 남한과 북한이 평등해 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문화와 언어, 정서 또한 훌륭하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통일은 정치인들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끄는 것일 뿐이지 국가의 의견을 발산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들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과 북한의 언어를 배우는 것,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 등 우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얼마든지 많은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글로써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앞으로의 통일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주체가 우리들이라는 점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진실이 아닐까?

통일은 대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차후의 사회와 통일을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런 의식 없이 무조건 통일을 주장한다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 아닌 위태롭고 잘못 쌓아올린 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북한에 대한 불신과 닫힌 마음을 환하게 열고 통일을 이룰 주역으로서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구성원과의 화합이다. 그 화합을 이루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조그만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그 화합을 만드는 데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나, 둘씩 서로를 알아가며 노력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통일은 우리들 곁으로 서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다가올 것이다.

## 경상남도

15

- 백두산으로 가는 구름 ...407
- 이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요? ...409
- 탈북후, 그들은 행복한가? ...412
- 두산이에게 쓰는 편지 ...414
- 슬픈 솜바꼭질 ...416
- 탈북자 ...419
- 백두산 ...421
- 플라나리아 대한민국 ...423
- 엄마, 탈북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425





# 백두산으로 가는 구름

대암초 6  
박보라

**백두산**하면 우리는 TV나 책에서 본 천지 사진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웅장한 명산 중의 명산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나름대로의 백두산을 그려본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도를 닮은 백두산 호랑이가 생각나는데 그 씩씩하고 힘찬 자태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엿볼 수도 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두산의 정기를 받으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백두산을 뒤로 한 채, 남한으로 피난을 와야 했다. 요즘, 이산가족 상봉을 하며 울부짖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화면에 자주 비친다. 아직 함께 가족으로서 같은 집에서 회로에락을 나누며 살 순 없지만, 50년 동안 못 본 얼굴을 마주하고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는 게 그들에겐 무엇보다 큰 행복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철도연결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목포에서 북한 신의주, 그리고 저 먼 시베리아까지 연결된다고 하니, 이 철도를 연결하는 공사가 완공되면 동북아가 공동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철도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완공되어 이 철도를 따라 기차를 타고 백두산까지 가 보고 싶다. 그래서 웅장한 숲을 보고 싶고, 맑은 물에도 손 담궈 보고 싶고, 그 깨끗한 공기도 가슴이 터질 만큼 마셔보고 싶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단 우리와 북

한은 무력을 이용해 통일하는 것이 아닌 협상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한 독일을 통일 할 때에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하기 전, 통일을 했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니 통일을 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북한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백두산의 기운으로 함께 붉은 악마로 하나 되어 응원을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4강은 물론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일이 되어 1966년엔 8강까지도 갔었던 실력 있는 북한과 4강 신화를 이룬 우리나라가 단일팀으로 월드컵에 출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지금으로선 이루어 질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일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고, 국방비가 적게 들어가 그 만큼의 국방비를 통일을 하여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북쪽 주민들에게 지원해주어 함께 발전하여 부강한 나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정말 백두산에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를 수 있겠지. 그리고 백두산과 비무장지대는 둘도 없는 생태관찰 공원이 되어 있을 테고, 우리나라를 둘로 긋고 있던 3·8선은 녹슨 채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겠지.

통일!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높고 높은 백두산 가는 하얀 구름에 가득 실어 보낸다.



## 이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요?

봉림중 2  
문혜진

“우리나라는 원래 호랑이 모양으로, 토끼 모양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의식을 꺾으려고…”

국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선을 국사책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눈길이 멈춰선 국사책의 어귀에는 호랑이 모양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용맹스럽게 앞발을 쳐들고 커다란 울음소리를 세상에 알리려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자태였지만 그 눈빛만은 슬퍼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제게 말했습니다. 잘려진 허리를 이어달라고…, 끊어진 민족을 합쳐 달라고…, 과연 그 말처럼 용맹함이 깃든 호랑이의 허리에는 하나의 선이 영원히 끊기지 않을 듯,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동강난 호랑이의 모습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슬픔과 할머니의 눈물을 기억케 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북에 아들을 두고 오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할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항상 아스라히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으려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신청을 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시고 감기지 않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또, 저의 할머니께서는 전쟁 때 미군의 배를 타고 거제도도 피난을 가셔서 2년 뒤, 부산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저에게 고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곳, 할머니의 추억과 웃음이 남아 있는 곳, 꿈속에

서 조차 가물거리는 그곳, 함경남도를 그리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시절 행복했던 기억들과 더불어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통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막연히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첫째, 안전과 국방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쟁의 불안감도 적어지고 국방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 북한의 지하자원과 그로 인한 경제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는 많은 양의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 지하자원을 남한의 기술력과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입니다. 금강산, 백두산 등의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관리해 관광지로 조성하면 지하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그 네 번째는 인구증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 출산율 문제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명의 성인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해 고령화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하게 되면 인구문제가 해결되어 고령화 사회를 더디게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고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미워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함께 살며 이해해 주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역시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또래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글짓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저이지만 학교나 통일부에서 나서서 다음 세대를 짚어질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통일도 그리 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북한을 위해 쌀이나 소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통일에 대한 글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며 각자의 방법으로 통일 퍼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철도연결 등의 일 외에도 민간차원의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정보를 이용, 다가올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역시 북한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같이 입장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북한 사람들의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독일처럼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독일처럼 단결되고 조화로운 모습을 뽐낼 것입니다. 통일은 더 이상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요. 이 과제를 해결할 때의 주의 점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통일이나 흡수 통일은 상처를 더 멀어지게 하고 문화적 이해에도 부적절하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꼭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웃음이 가득한 통일퍼즐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노래가 남한에서 당연한 듯 울려 퍼지고 더 이상 남북이 아닌 하나로 거듭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불타는 통일의 불꽃을 보았기 때문이죠. 둘로 나뉜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 한 마리의 완전한 호랑이가 세계에 용맹스러움을 떨치길 기대해 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거든요. 이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요?’



## 탈북 후, 그들은 행복한가?

거제옥포고 1  
옥은정

몇년 전, 북한은 충격적인 동영상 공개했다. 그 문제의 동영상은 사형수들을 공개처형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사형수들의 표정,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총에 맞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다름 아닌 탈북을 시도한 죄, 탈북을 도운 죄였다.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볼 수 있었던 나는 그들을 처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살인, 또는 강도짓을 저질러서가 아닌 단지 탈북을 시도한 것, 그리고 탈북을 도왔다는 것이 사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동영상을 접한 해외 언론들은 북한을 야만국가라 표현하며 그들을 비난했다. 나 또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생긴 또 하나의 의문점,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까지 남한 땅을 밟고 싶어 하는가? 통일 시범학교를 다니던 나는 북한관련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탈북 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큰 꿈과 기대만 가지고 무작정 남한에 온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과는 다른 정치체제, 이념, 사상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도박장을 찾았고 그들은 대부분 돈을 잃고 남한 땅에 걸었던 꿈도 잃어버린 채, 방황의 세월을 보내며 죽어 갔다. 물론 성공한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

었다. 남한의 체제에 잘 적응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던 안락한 가정을 꾸리며 자유롭게 살아갔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수이며 부푼 꿈을 안고 남한에 왔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가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탈북자들에게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그 돈을 도박, 사기 등으로 날리는 일이 허다해지자 보조금을 줄였다고 한다. 탈북자들에게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남한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한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한 탈북자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북한에서 꽤 상류층에 속했으나 동생이 술에 취해 김일성 국방위원장에 대한 욕을 하는 바람에 그의 일가족 모두가 잡혀갈 상황에 놓여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은 북에 남겨둔 채 남한으로 넘어 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북한은 참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개그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흉내를 내도 웃음으로 넘기고 별다른 제재가 없는 남한과는 달리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일가족 모두가 잡혀간다니... 남한과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진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이 달라진 것도 다 50년이라는 분단의 시간 때문이니 하루빨리,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화합과 평화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수상

## 두산이에게 쓰는 편지

창원동산초 6  
김보경

백두산에게, 안녕, 백두산! 난 한라산이야.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우린 갈라진 한반도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슬픈 일이야. 난 너무 외로워. 너의 천지에는 물이 잘 고여 여러 생물들이 많이 살지만 내 백록담에는 물이 자주 말라서 가끔씩이나마 말동무가 되어 주던 작은 생물들도 이젠 거의 보이지 않아.

요즘 환경 공해도 날 괴롭히지.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하늘의 친구 구름에게 말을 전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그 시대에 말이야. 그때 정말 좋았지. 너의 나라에도 얼마 안가 뿌연 하늘이 찾아올 것 같다.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쨌거나 빨리 만나고 싶다. 내 친구 백두산아!

그런데, 너희 북한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남한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 뭐 통일을 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해 한반도가 내전에 휘말릴 거라나? 난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기본 견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듣기로는 우리 남한에서의 민주주의는(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던데...) 사람들이 자기가 번만큼 쓰는 거래.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말이야. 어렵게는 사유재산 인정이라고 하더라. 너희 공산주의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똑같이 소득을 분배하는 거래. 난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 아마도 민주주의 제도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문제지만, 공산주의는 무조건 소득이 같으니 게으름 부리는 직원이 생겨날 것 같다고 말이야.

아…,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는 게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 번진 것 같다. 참, 가끔 내 등을 타고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하지 뭐니. 거의 없지만…. 내가 품은 호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 영롱함 그 자체라니깐. 너의 등을 타고 등반하는 사람들도 있지? 간혹 가다가 너의 정상까지 오른 사람들의 얼굴을 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에 성취감에 가득 찬 얼굴, 역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의지가 대단해. 그 의지로 통일을 밀고 나간다면 꼭 이룰 수 있을 텐데. 저번에, 화창한 어느 날, 아빠 손잡고 등반해 정상까지 오른 정말 기특한 아이를 보았어. 아, 맞다. 너의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구나. 난 네가 높아서 항상 열등감을 느끼곤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 하하…. 어쨌든 그 꼬마는 나에게 말을 걸었어.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 난 그 꼬마 아이와 대화를 했지. 그 꼬마는 백두산 등반이 꿈이라더군. 백두산, 훗날에 그 꼬마 아이가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줘. 그리고 내 얘기도 빠트리지 마라.

비둘기가 비밀로 하하고 했지만…, 사실, 어제 회색빛 깃털을 가진 비둘기 한 마리가 나에게 날아왔었어. 네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 너도 무척 심심해한다고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더라고 하던데? 네 몸에 붙어사는 이끼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비밀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어. 대강 통일을 바라는 내용이라고만 알아둬.

아…, 비가 온다. 축축하게, 네가 있는 그곳은 지금 날씨가 어떠니? 만약 그곳에도 비가 온다면….

분단의 아픔을 우리 너와 나, 백두산과 한라산도 느끼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 휴…, 언제쯤….

이 편지는 비둘기에 맡길게. 이 편지를 보는 즈엔 난 또 새로운 편지를 쓰고 있을 거야. 그럼 이만 줄일게. 난 자나 깨나 널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럼 안녕, 백두산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우수상

## 슬픈 숨바꼭질

참녕여중 2  
최 별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태극기의 붉은 빛과 푸른빛이 묘하게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심이 스피커가 되고 열정이 마이크가 되어 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냅니다. 두 손을 모아 내는 ‘ 짹짹 ’ 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어 울려 퍼지면, 작은 축구공은 힘찬 비상을 시작합니다. 6월입니다. 다시 한번, 온 나라를 붉은 빛으로 물들일 6월이 왔습니다.

무더운 찜통더위마저 잊고, 중계방송 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로 ‘대한민국’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을 한숨을 연거푸 내쉬는 그가 있습니다. 그에게 6월은 축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6월의 끄트머리의 어느 날, 전쟁을 알리는 포성이 울리는 순간, 그에게 6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TV에서 북쪽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월드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소리에 눈치 없는 나는 또 내 생각을 풀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북한과 통일해서 좋을 게 무엇이냐고….

나의 말에 그는 내 머리에 꿀밤을 놓더니, 이내 살짝 웃습니다. 웬지 모를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담아서… 그러면, 못난 나는 세수하러 들어간 그를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수한 물을 비워 내듯 북쪽에 대한 그리움을 몇 번이고 비워냈을 그의 어깨 너머로 지난날, 암울했던 그때의 기억이 스냅사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6월 25일. 여름의 문턱에서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던 군화들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해 오던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라,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얼굴에 정신이 팔렸던 군인들은 무기를 챙기기 바쁩니다. 바로 그날이 분단을 암시하는 시초가 될 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레 시작된 전쟁은 당황한 국민들에게 피난민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줄 줄이 이리저리 피난민의 행렬 사이로 그가 보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그의 얼굴이, 그의 사연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앞 다투어 폭격을 맞는 이웃집을 보면서도 자신은 이 집에 남아야 한다며 완강하게 버티시던 그의 어머니..., 좌불안석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어서 피하라는 눈망울을 보냈던 여동생과 누나..., 절벽 끝자락에 가족을 두고, 혼자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픕니다. 자신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버텼던 어머니의 눈에도 한 줄기 슬픔이 흘러내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가족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한강 위로 길게 뻗어있는 다리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꼭 잡고 있던 아내의 손이, 남편의 손이, 아이들의 손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졌던 1초가 이렇게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휴전선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가슴 아픈 분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아니 우리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숨바꼭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통일에 대한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통일...,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남과 북 사이의 넘어서지 못 할 장벽이 된 휴전선이 없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통쾌해집니다. 가끔씩 TV에 나오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져 있어야 할까? 같은 민족으로서 우정을 과시하고 있어야 할 우리들이 왜 이리 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알아낸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도 분단국가라는 수식어를 지워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고 불평할 것

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갈라져 있다고 마음마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란히 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내일을 기약하며, 신발 끈을 동여 맵니다.







## 탈북자

창신고 1  
유강혁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내려오는 거야? 지금 우리 남한의 인구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뉴스에서 탈북자란 단어를 초등학교 때 듣고 친구들과 함께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더 똑똑해 보이려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위에서 제가 중얼거렸던 것처럼 ‘탈북자’라는 단어에 대해 강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언급하면 ‘공산주의’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듯이 ‘탈북자’라는 말이 ‘간첩’ 정도로 들렸답니다. 탈북자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었다고, 그들이 왔다면 결코 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지기를 싫어했던 저는, 뭐든지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저에게 부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날은 어머니와 함께 당시 흥행하고 있던 영화인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영화관을 밝히고 있던 조명들은 꺼지고 우리들은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소문대로 그 영화는 우리 엄마를 비롯한 저의 눈시울을 붉혀 주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물어 보셨다는 엄마의 말에 공감하며 그날 저녁 일기를 쓰면서 가장 떠오르는 말은 ‘한민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날따라 안타까워 보

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의 단절이 맞겠네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던 ‘탈북자’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친구가 학교에서 신문을 보다 어떤 사진을 가리키며 막 웃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커다란 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중국 내의 제3국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의 기사였습니다. 그때의 기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탈출한 자와 탈출하지 못한 자가 서로 혈연 관계였다는 것을 보며, 어렸을 적 잠시나마 그들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간간히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들이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탈출했는지 그들의 울부짖음과, 가족과 헤어진 것에 대한 절규를 보면서 지금의 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탈북자’라는 말을 대신하여 ‘새터민’이라는 말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가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좀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시작하는 통일의 노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도 이러한 정부의 뜻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한 민족임을 깨닫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 백두산

밀성초 6  
권 아영

오늘도 하늘은 푸르다. 마음도 뚫리고 나의 하루에 활기를 주는 푸르름….

이 푸르름이 언제까지나 머물 곳으로, 난 백두산을 꼽는다. 먼 북쪽에서, 항상 그 장엄한 모습을 잃지 않는 백두산!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산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쉬었다 같 그곳, 높다높은 백두산! 초록 빛 물결이 지난 세월동안 한없이 흐르며 조국을 노래하고, 우리의 얼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흘러왔었다. 그렇게, 백두산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기에 바빴던 한심한 우리를….

지그시 눈을 감고 연초록의 나무 잎사귀를 붙잡으면, 그때마다 들려오는 땅의 속삭임이 좋았다. 눈앞엔 웅장한 백두산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죽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알미운 휴전선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뿜어낸 6·25 전쟁, 그 직후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눈 휴전선! 한 핏줄, 한 민족을 반으로 나눈 휴전선도 싫지만, 더 아쉬운 건 지금 휴전 중이라는 것이다. 전쟁으로 가족과 떨어진 사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총부리를 겨운 사람 등 이들의 아픔이 언제 다시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것에 나도 슬퍼온다. 쑥대밭이 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나뉘어가는 곳이 되고, 전쟁이 남긴 충격은 매우 컸다. 빼와 가족만 남아 양상해진 어린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나의 모습과 차이가 났다.

이 땅덩어리의 북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백두산. 전쟁의 아픔은 백두산도 함께 나누었고, 함께 울었다. 그 넓은 가슴 가득히, 고통도 슬픔도 안아주고 싶었던 백두산이 아니었을까? 드넓은 그 대지 위에서 평화롭게 손을 맞잡는 것을 백두산은 바라지 않았을까? 내가 아주 어릴 적, 우리나라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반쪽으로 나뉜 땅에 서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선로도 있었지만, 나머지 반쪽은 전혀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난 곧바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지도가 반쪽뿐이야!”

깜짝 놀란 나에게 엄마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반으로 나뉜 것하며 이산가족, 휴전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난 알게 되었다. 또, 백두산이 있을 방향을 보며 다짐했다.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굳세게 바라겠노라고….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아이고, 내 자식 새끼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눈물로 하염없이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 기쁨의 눈물, 지난날들의 눈물을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처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 마음 깊숙이 맺혀있던 응어리도 다 후련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더 간절히 통일을 바라게 되기도 했다. 한없이 높고 높은 전쟁을 원망하는 목소리와 휴전선에 슬퍼하는 그 마음, 언제쯤 통일이 와서 모두 함께 웃는 그날이 올까?

다시 또 북쪽을 바라보게 된다. 고통에 찌들었을 그분들도 생각하게 된다. 지금의 우리에게 커다란 벽이 앞을 막고 있는 듯하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많이 흘렸다고 느낄까? 희생은 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괜찮다고 웃을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날, 통일이라는 두 단어가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날.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백두산을 생각하며, 난 다시 또 한번 다짐한다.

통일이 되는 그날을 바라겠다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 플라나리아 대한민국

참원봉림중 3  
윤이나

과학시간에 배운 플라나리아는 둘로 나누어져도 살아감에는 지장이 없다. 하나의 몸에서 만들어졌지만 각각 다른 생명체가 되어 살아간다. 플라나리아에 대해 배우며 꼭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벌써 50여 년을 플라나리아처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돌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청소년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40%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떨어진 지 50년도 넘은데다 통일을 할 경우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도 어마어마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없어도 잘 살수 있다.’ 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이미 잘라져 버린 실은 새로운 실처럼 깔끔히 묶어서 쓸 수 있을까?

반대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면 국방비를 줄인다는지 혹은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니까 라는 대답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런 대답은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상업적인 대답으로 들린다. 물론 통일을 해서 나라의 발전도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하나 잇고 사는 동안 이산가족의 눈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이 늘어간다. 일주일 아니 삼일의 짧은 수학여행을 가도, 보고 싶은 게 가족이고 소식이 궁금해 매일 전화하는 게 가족이다. 한달도 일년도 아닌 50년을 넘게 떨어져 살았다. 전화라도 아니 소식만이라도 들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는 게 이산가족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얼굴에 늘어난 주름처럼 그들의 마음엔 그리움이라는 주름이 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북한사람들은 빨갱이라 칭했고, 도깨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북한사람도 우리와 똑같네! 라는 말을 했던 사람도 보았다. 우리 한국인의 기억 속엔 전쟁은 단지 지난 전쟁과 같이 더 이상 북한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 것을 모른다면 내 물건을 가지고 주인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동질감을 느끼며 같이 기뻐하고 운다. 올림픽에 동시입장을 하고, 북한과 다른 나라가 대결할 때는 북한을 응원하기도 한다. 북한이 어려우면 대북 물자 수송을 하기도 하고, 이번 월드컵에도 남한이 위성방송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쪽에선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통일은 필요 없는 존재로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북한도 남한도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관심을 부탁하지 않는다. 꽃에 앉은 나비를 보려 성급히 가까이 다가가면 나비가 날아가 버리듯 성급하고 갑자기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마음으로 먼저 하나 되어 모두가 바라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먼저 독일처럼 통일보다도 면회소 설치를 하거나 교환학생을 보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로의 나라말을 엮어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것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 입으로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외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반으로 나누어진 플라나리아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아니 꼭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끊어진 실을 다시 엮으면 새 실이 될 수는 없지만, 더욱 전보다 조심해 끊어질 확률이 줄어들게 할 수는 있다.



## 엄마, 탈북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참원용호고 3  
김슬기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책에서 이러한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러니까 남한만을 생각해 볼 때 서울은 분명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우리나라의 북쪽에 서울이 위치해 있다는 이 말 속에는 북한을 ‘우리’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단의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분단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가 바로 탈북자가 된 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전쟁의 흔적과 이념의 대립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남한 그 어디에서도 전쟁 당시의 참혹한 상흔과 황폐했던 국토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고통은 역사 교과서에서나 등장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는 아직까지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상흔으로 남아 있다.

황석영의 소설 ‘한씨 연대기’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분단된 남과 북에서 한영덕이라는 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상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남과 북에 의해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한영덕에게는 혜자라는 딸이 하나 있다. 아버지의 고통스

러운 삶과 죽음을 지켜본 그녀가 바로 전쟁과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의 인물이다. 소설은 한영덕의 딸, 혜자를 통해서 분단된 현실의 비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통스런 현실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분단은 극복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탈북자는 바로 분단에 의해 고통 받는 우리의 형제요, 한 민족이다.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남북자나 이산가족들 또한 분단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다. 이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통일이다. 인간적이고 평화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일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 수준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문화적 이질성을 이유로 들면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경제로 인해 가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문화적 이질성의 이면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한 민족으로서 쌓아온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면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삼국이 통일된 이후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하나 된 역사에 비해 분단된 50년 남짓의 시간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당연한 것이다. 가장 당연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다.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와도 상관이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문제로까지 떠오르는 지금, 한 민족인 우리가 우리의 살과도 같은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해결책이다. 남과 북 서로가 어떤 계산도, 거리낌도 없이 선뜻 화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한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탈북자



를 포함해서 분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서울이, 우리 국토의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다.

나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데리고 백두산에도 가고 한라산에도 가고 싶다. 우리의 북녘 땅과 남녘 땅을 가로지르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싶다.

“엄마, 탈북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탈북자’ 라는 단어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 제주도

16

- 나에게 새로 생긴 소원 한 가지 ...431
- 노랗게 익어가는 마음 ...434
- 혈관 속에 흐르는 ...437
- 꿈꾸며 사랑하며 ...440
- 우리 모두 하나 되어 ...442
- 나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444
- 이유없는 전쟁 ...446
- 돼지야, 돼지야 쑥쑥 자라거라 ...448
- 통일한국의 반쪽, 북한 ...451





# 나에게 새로 생긴 소원 한 가지

동남초 5  
이 봉 훈

“오늘도 열심히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저녁을 준비하  
시던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누가요?”

“옆집 할아버지 말이다. 매일 저녁에 앞마당에 나와 ‘우리의 소원은 통  
일….’ 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그 순간 난 귀를 쫑긋 세워서 옆집 할아버지의 노래 소리를 들어보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할아버지의 떨리는 듯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동네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옆집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부리부리한 눈이  
무서워 나는 마주 칠 때마다 도망치듯이 피해다녔다.

“왜 그 노래만 부르죠? 다른 노래도 많은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니…  
참 웃기는 소원이 아닌가요? 나의 소원은 새 롤러스케이트를 사는 건데.”

며칠 전부터 롤러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졸랐던 내가 콧방귀 끼며 엄마에  
게 소리쳤다.

“할아버지 고향이 개성이잖니. 아마도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거야. 50년 넘게 고향에 못 가시다니 너무 안 되셨어.”

순간 나는 사회시간에 배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떠올랐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부하에게 죽음을 당한 선죽교와 옛 고려궁터인 만월대  
가 있는 곳이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다니…. 그렇게 멋진 곳을 50년 동안 못

가다니 조금은 슬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난 할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이 생각이 났다. ‘왜 그렇게 성난 사자의 얼굴을 하고 계실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다.

며칠 후 나는 새로 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신나게 마을 공터에서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 등 뒤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옆집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것이었다.

‘하필 이럴 때에 옆집 할아버지를 만나다니,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야.’ 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순간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시더니 성난 사자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다쳤니? 어이구, 발목이 심하게 아프겠구나.”

“아야!”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도와주마.”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서 구했는지 나뭇가지와 손수건으로 나의 발목을 감싸주셨다. 그리고 “무서워도 조금만 참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빠와 엄마를 부르러 바쁜 걸음으로 가셨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오해했나보다. 저렇게 다정하신 분이데...’ 라고 생각하였다.

부러진 다리가 나아 다시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자 엄마께선 할아버지 댁에 부침개를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할아버지가 많이 무서웠다. 그렇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침개를 들고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뉴스에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나를 보는 할아버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셨다.

“나도 개성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어. 그런데 모두 죽었다는구나. 이젠 그곳에 가 봐도 만날 식구가 없구나.”

“.....”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할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하였다. ‘할아버지 언젠간 개성의 맑은 하늘과 선죽교랑 만월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라고….

그때처럼 할아버지가 슬퍼 보인 적이 없었다. 너무도 외로워 보였다. 할아버지의 소원이 왜 통일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 나에게도 새로운 소원 한 가지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통일!

그날 이후로 나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필요 없는 3·8선을 그어놓고 서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바람이, 구름이, 새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도 마음대로 고향집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다. 내 마음속에 통일이라는 가장 큰 소원을 빌고 있을 때 통일은 빨리 올 것이다. 통일이 빨리 오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 회담의 횡수를 늘리고 북한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통일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꼭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성을 가보고 싶다. 이왕이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서…, 그리고 외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할아버지 조금만 힘내세요. 개성의 맑은 하늘과 구름, 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우수상

# 노랗게 익어가는 마음

제주대사범대부설중 2  
김제성

“엄마, 할아버지 지금쯤 도착하셨을까요?” “글쎄, 마음만은 벌써 도착하고도 남으셨겠지요?”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죽기 전에 먼데서라도 이북 땅을 밟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며 70년 세월 간직한 눈동자에서 훔치시던 한 방울 눈물이….

그냥, 그토록 기다리고, 가고파하셨던 금강산 여행을 가시던 날, 할아버지는 이북 땅을 밟아 볼 수 있다는 감동에 잠까지 설치셨다. 하지만 북한이 고향도 아니신데 그때 왜 그곳에 가고파 하셨는지 영문을 잘 몰랐다.

할아버지는 이번 여행뿐만 아니라 유난히도 북한에 관심이 많으셨다. 북한의 소식이 들리기만 해도 TV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몇 해 전부터는 북한에 굴이나 당근 등을 보내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솔직히 처음엔 할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북한으로의 여행도, 식량 전달도 모두…, 적어도 혼자 간직하셨던 70년 세월의 사연을 듣기 전에는….

일요일이었다. 이른 새벽 나는 간곡한 할아버지의 외침에 눈을 뜨고 말았다.

“할아버지, 또 굴 따러 가요?”

“이번엔 300컨테이너를 보낼 생각이란다. 허허”

항상 감귤 수확 철이 되면 할아버지께선 분주해지신다. 농장에 손해를 보



면서도 왜 그리 북한을 도와주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피약별 아래서 농약을 하시고, 좋은 감귤 열리라고 꽃을 하나하나 따고, 새벽부터 밤까지 따고 날라서 얻어지는 그 귀한 꿀을 돈도 나오지 않는 북한으로 보내시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말이다.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공기가 머리를 닦아 주었다. 그 가운데 점점 채워져 가는 컨테이너를 보시며 뭐가 그리 좋으신지 할아버지의 입가엔 일이 끝날 때까지 기왓장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다. 웬지 모르게 그날따라 더욱 궁금해졌다.

“할아버지, 왜 손해만 보게 북한에 이런 좋은 꿀만 보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선 묵묵히 하늘을 보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가슴 벅찬 이야기 한편을 들을 수 있었다.

“옛날에 말이다. 이 할아버지에겐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다. 둘도 없는 단짝이었지. 우린 커서 서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며 나날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어.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단다. 어느 날 친구가 북쪽에서 고기를 좀 잡아 보겠노라 하곤 그쪽으로 갔지. 그 시절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며칠 집을 비우기는 예사였기에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단다. 이틀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대포와 총소리! 전쟁이 일어났지. 2년 남짓의 그 무서웠던 전쟁이 남긴 것은 허리가 동강난 채 친구와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야 하는 생이별뿐이었다.”

난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슬펐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전쟁을 일으킨 그들이 많이 밋고 원망스럽단다. 하지만 그들보다 전쟁의 피해자가 더 많기에 굶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북의 소식을 듣고 친구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우리 모두가 전쟁의 피해자인 것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비참하고 슬펐다.

나는 북한이 가난하고, 기술과 발전 면에서도 떨어지고, 늘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게다가 우리와 총을 겨누고 언제 또다시 싸워야 할지 모르는 적이었기에 싫었다. 통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통

일 이후 일어날 여러 문제들이 끔찍할 것 같아 미리 두려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지 어언 60년.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아오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버린 세월, 그 상처를 조금 이나마 씻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만남과 화합뿐이라는 것을 나는 할아버지를 통해 깨달았다.

“아빠, 언젠가 할아버지도 친구를 찾고, 두 나라도 서로 되찾을 수 있겠죠?”

“그럼. 바라면 이루어지니깐 언젠가 그 일도 먼 훗날의 추억으로 남겠지.”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잠자리에 누웠다.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그 상처는 통일이라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내 마음도 할아버지와 함께 노랗게 익어 그곳에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감귤농원에선 새로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꽃이 다시 노랗게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 맘처럼!





## 혈관 속에 흐르는

제주외국어고 2  
홍주영

나는 고향을 잃어 본적이 없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두 달쯤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왔으니 어쩌면 고향을 떠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두 달은 향수 같은 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래서 나는 ‘그 리운 내 고향, 아! 언제면 다시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하는 종류의 시를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디오에서 구슬픈 목소리의 성악가가 그런 노래를 부를라치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나이다.

잃어버린 어머니, 언니나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는 잔소리와 심부름에 시달릴 바에야 약간 떨어져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이니 말 다 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긴 해도 그건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전쟁도 물론 겪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총을 본 적조차 없다. 요란한 포성과 화약 냄새는 영화 속에서나 존재할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주위의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라곤 엄마가 6살일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전부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지레 겁을 먹고 피난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외할아버지,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피난 다녀온 할아버지를 골려주실 정도로 담이 크셨던 외할머니. 하지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외할아버지의 피난이야기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서 거의 평생

을 살아온 나에게, 한 번도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는 북한 어린이보다 옆 동네의 소년·소녀가장이 더 애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보면 통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죽기 전에 밟아야 할 고향땅이나 북에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닌 나에게 통일이란 것은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이다. 이렇게 나는 통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뻔뻔한 생각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내 피는 속일수가 없나보다. ‘통일하든 말든’ 하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를 때면 피부터 끊어 오른다. 올림픽에서 북한과 남한의 선수들이 손을 꼭 잡고 행진하는 사진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흐른다. 북한을 바다 건너 미국보다 먼 나라로 생각하면서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일은 내 혈관 속에 흐르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 적도 없는 북한 땅을 그리워할 수 있고, 당장의 이해관계로만 따져보면 이득은커녕 해가 되는 것이 더 많은 통일을 우리가 소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해마다 열리는 통일 백일장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고향을 잃고 슬퍼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 된 자격으로 통일을 노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나처럼 북한, 통일과는 아무런 친분도 없으면서 통일을 부르짖을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제 거의 외울 정도다. 이산가족, 실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인도적인 이유, 민족의 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그런 사막 같은 이유들은 아무래도 좋다. 국가와 민족 따윈 어떻게 되어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설득력도 발휘할 수 없다. 내 경우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유들은 정치인들에게나 어울린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통일을 간절히 염원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것은 내 혈관 속에서 살아 숨쉰다.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서도 말라죽지 않고 자라나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다.





## 꿈꾸며 사랑하며

광명초 6  
고아람

그녀석이 교실에 들어섰다. 또 싸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내 짝 한얼이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그 녀석과 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책상 사이에 그어진 굵직한 선을 가리키며…,

“너, 여기 넘어오면 죽어. 이 자식아!” 라고 욕을 해대며 어느덧 전쟁은 시작되었다. 서로의 욕설과 샷대질이 오가기 시작하며 싸움은 격해졌다.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다. 결국 올 게 온 것이다. 선생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얼음, 불놀이’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얼어버렸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친구끼리도 이렇게 다투는데 어찌 남북이 통일 될 리가 있겠니?” 라고 하시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다.

나는 속으로 ‘아, 왜 그것 하나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참고, 한얼이를 배려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였다.

현재 남과 북의 상태도 한얼이와 나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얼이와 내가 책상 가운데 금을 그어놓고 ‘으르렁’ 거리는 것이나,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나와 한얼이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어서 싸우듯이, 어른들도 배려를 하지 못해서 싸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나도 한얼이와 싸우거나 다투기 싫다. 다정하게 말도 하고 싶고, 사이좋게 놀고 싶다. 하지

만 막상 얼굴을 대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한얼이와 함께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얼이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아, 한얼이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 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나도 다정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나와 한얼이처럼 남·북한 사람들도 속으로는 우리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면서, 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보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내가 TV에서 남한과 북한에서 정치하는 할아버지들이 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 할까 하고 답답해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얼이와의 사소한 일마저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나를 되돌아보면서,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은 정말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마음을 건넨다면 한얼이도 나처럼 마음을 열 것이고, 나와 한얼이가 마음을 연다면 우리 반 모두가 마음을 열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마음을 활짝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송이의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많은 토양, 물, 햇빛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꽃을 기르는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다.

지금 성급하게 통일! 통일! 하며 서두르는 것 보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일을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자연스레 통일이라는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수학여행으로 백두산도 가고 싶고, 함경도에 가서 함흥냉면도 먹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나이 어린 나도 알고 있다. 나에 대한 사랑, 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커져 우리 모두에 대한 사랑이 될 때까지 나는 항상 꿈꾸고, 꿈꾸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외쳐본다.

“통일의 꽃이여, 피어나라! 얍!”



우수상

## 우리 모두 하나되어

한라중 3  
김형석

지금은 21세기, 모든 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 사회이다. 외모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는 이 나라 한 구석에서 살고 있다. 슬픔을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한 채...

우리나라의 비극은 몇십 년 전 일제 강점기의 끝 무렵에서 시작된다. 일제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은 참혹한 생활을 살아왔고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 독립을 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한, 북한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여 남과 북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신경전을 펼쳐왔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남한과 북한의 사이는 점점 회복해 가는 추세이다. 남·북 정상 회담과 수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3·8선으로 두개로 나뉘어진 이 나라, 이 땅! 이 점이 바로 문제이다.

6·25 전쟁 당시 월남, 월북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날이 든다. 아무리 이산가족 상봉이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만나지는 못하고 있고 요즘은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개방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우리는 통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실 통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교류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또한 국가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떨어진 가족과 만남의 기회를 주는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남과 북에서는 이산가족을 모두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서로를 이어주고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국가에서는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 우리의 소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16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TV와 책 등으로 우리의 분단에 대해 많은 것을 접해 보았다. TV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 실제로 눈물을 흘렸고 수도 없이 통일에 대한 토론들도 학교에서 해왔으며 느끼는 점도 많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아주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50년이 되도록 놓아두던 이 고통과 상처들을 이제 씻어내고 치료해야 한다. 국기, 국가 그리고 양국의 다른 문제들은 천천히 서로가 도와가며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고 보면 통일은 아예 물 건너가고 완전히 다른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안 좋은 경우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통일이라는 것은 단지 두 나라가 분단되었다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이해해주고 사랑하며 정신적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통일이다. 꼭 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상처를 입었다. 분단은 한적한 곳에 치는 천둥번개 같은 불행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있어 희망이자 꿈, 소원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남과 북한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가 최고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며 매일 생각해 나간다. 내가 3·8선을 자를 수 있는 톱이라면, 내가 저 나뉘어진 나라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새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원하고 원했으면 노래로까지 만들어졌겠는가! 그 만큼 소중한 통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밀며 해결해야만 한다.

50년이 지나면서 겪어온 고통과 상처들을 하루빨리 씻어내고 자유로운 새처럼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의 땅을 날아다니고 싶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수상

# 나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애월상업고 2  
고현주

“탕!” 1950년 초여름의 어느 날, 허공을 가르는 한 발의 총성. 그 소리는 곧히 잠들어 있던 새벽을 깨웠고, 우리는 그 소리로 형제들의 피를 마셨다. 선하다 섰던 눈을 살기만이 가득한 눈으로 바꾼 채로 형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서로를 경계했다. 그때의 그 살기 어렸던 눈이, 고통 속에 피 흘리던 형제의 모습이, 형제를 향했던 그 총성이 50여 년의 철탑바퀴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방금 전의 일인 것처럼 눈에 선하다.

“제 2차 이산가족의 상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

앵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난 신경질적으로 TV채널을 돌려버렸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렇지만 소식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그런 가족을 만나는 순간인데…, 보나마나 뻘했다. 진짜 어머니가 맞느냐고, 누나가 맞느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온통 질문뿐인 모습이나 말을 잊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서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뻘한데, 괜히 마음 아프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 잊지 못한 채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할 것이면서, 대체 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마치 5천 년 역사 따위는 없다는 듯, 서로 분단됨을 원했을까? 결국 아파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상처와 그리움뿐인 걸 알았을 텐데…, 이해하기 힘

들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속의 내가 너무 부끄러워졌다. 남한과 북한, 서로 한 걸음씩만 물러섰다면 그 찬란히 빛나던 여름을 붉은 선혈과 잿빛 가득한 하늘로 맞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한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꼭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야 했을까?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서럽고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나는 그날의 고통은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한 채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그 사람들은 하루가 십년 같을 만큼, 힘이 들고 그리운 마음이 가득할 텐데, 난 그 고통은 모른 채 그들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다니,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다시 이산가족 상봉모습을 보여주던 곳으로 채널을 돌렸을 때, 한 할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을 또 다시 울렸다.

“엄마, 꼭 살아야 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처럼 날 잊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요. 우리 통일이 되면 그때 꼭 다시 만나요.”

그냥 봐도 족히 90은 되어 보이는 노인에게 한 할아버지는 혼잣말하듯, 그러나 노인이 꼭 재회의 날까지 살아있을 것이란 확신에 찬, 그리고 믿음 가득 찬 눈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두 노인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확신에 찬 아이들의 눈을 선한 눈매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주름 가득했던 노인은 과연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 그 방송을 본지도 어느 덧 몇 해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또 다시 가슴 한구석에서 울컥하며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 같다.

통일되면 당장은 어렵고 충돌도 많을 테지만, 난 그들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어릴 적 배웠던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 노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졌다. 난 그날의 고통은 평생 모르고 지내겠지만, 그날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날의 모든 슬픔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잠시 떨어져 있을 뿐, 우리는 틀림없는 형제이니까.



## 이유없는 전쟁

광양초 6  
최지원

**현재** 나는 나의 소중한 친구와 냉전 중이다. 먼저 말을 걸지 않고 그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바랄 뿐이다. 그야말로 이유 없는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말 바보 같고도 어이없는 우리를 빗댄 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또 같은 땅에서 지울 수 없는 선만을 죽 그려놓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막기 위해 애쓰는 남한과 북한에 빗댈 수 있다. 이유 없는 전쟁을 하던 우리네 오십오 년 역사를 깨끗이 치워내기 위해 우리는 서로 타협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네의 오십오 년간의 현실이다.

사건의 원인은 특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버린 한 마디였다. 무섭게 그 말이 내 가슴속에 화살같이 꽂혔고, 다시 빼내도 깊이 자국남아 영원히 쓰라릴 상처만이 남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분단국가 역사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차마 떠나는 길조차 보지 못해서 눈에는 눈물과 함께 아른거리는 부모형제들의 그리움, 한 민족임에도 서로 총을 겨누던 고통만이 우리의 가슴속에 흉터로 남았다.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을 전쟁의 쓰라림과 함께...

얼마 전, 무심코 달력을 보다가 쓰인 문구에 눈이 간 적이 있었다. 그 말은 '고지가 바로 앞인데 당신은 왜 손을 뻗지 않는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미안함이 다시 나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정말 난 바보 같은 아이였던 것이다. 이것처럼 남북은 현실을 깨닫고 서로 협상 중이다. 물론, 통일은 좋은 것이다. 헤어진 가족과 만나고, 또 인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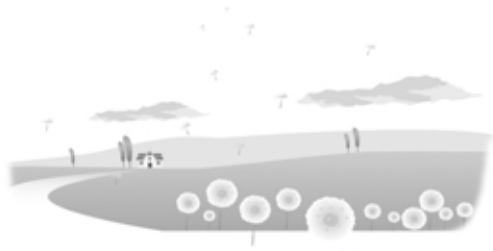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바늘과 실처럼 단점도 따라온다. 힘겹게 통일을 이룩하여도 서로 총을 겨눴던 생각만 하면 정말 한민족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그에 회사에서는 북쪽 사람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대접을 한지도 모른다. 어찌면 말이다.

전쟁이 끝났다. 다시 말하기를, 난 그 친구와 화해하고 나서 웃음이 다시 돌아왔다. 즉, 단점은 내 활짝 지은 미소에 묻혔다는 얘기지.

통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유 없는 전쟁보다는 평범하더라도 조금 더 웃음을 머금을 기회가 많이 있는 평범한 사회가 좋으니까, 모두 그럴 것이라고 난 믿는다.

구름은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의 통일의 식도 점점 세월 따라 변해간다. 조금 더 행복한 나라를 위해 우리는 통일을 재촉한다.

통일문제는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다. 마음으로 푸는 문제가 우리네 통일이다.





# 돼지야, 돼지야 쑥쑥 자라거라

대정중 1  
문지현

우리 집은 조그맣고 색노란 돼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 돼지는 다른 새끼 돼지들처럼 귀엽다거나, 예쁘지는 않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지도 않고 그저 텔레비전 옆에 가만히 앉아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는 자투리 동전을 먹고 살 뿐이다. 이미 짐작은 했겠지만 사실 그 돼지라는 것은 우리 집의 조그맣고 색노란 돼지 저금통이다.

마루에 들어서면 언제나 텔레비전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설령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돼지는 언제나 행복하고 배부를 것이다. 찢랑거리는 동전뿐 아니라, 한 겨례의 믿음과 사랑까지도 먹고 사는 배 큰 돼지이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돼지 저금통일 뿐인 이 녀석이 옆구리에는 동전과 더불어, 민족의 사랑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다. ‘북녘농민들에게 못자리용 비닐을 보냅시다.’ 나는 처음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왜 비닐을 보내자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내게 설명해 주셨다. 나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마음이 차차 북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물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말씀에 따르자면 북한은 공장을 많이 돌릴 수 없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미국이 석유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의 강대국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사례를

가끔 뉴스에서 본다. 그럴 때 나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왜 저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거지? 자신들은 누구보다 풍족하게 살면서…, 다른 나라가 잘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욕심쟁이일까?; 하지만 내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말꼬리를 흐릴 때 엄마는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북한은 추운 날씨에, 못자리 비닐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겹쳐 자꾸자꾸 굶주림을 겪는 사람들이 느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북한의 주식은 쌀이 아닌 고구마와 감자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남쪽의 ‘우리 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북녘에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북한이 쌀농사를 수월히 지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겨레라는 이름으로, 지금통에는 동전을 하나 둘 쌓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 둘 쌓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돼지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남녘과 북녘이 정말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 나는 제일 먼저 북녘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한반도 가장 남쪽에 살고 있는 남쪽의 친구와,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북쪽의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가끔 북녘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 제주 사투리로 요망지고 빨라진 아이들이 떠오른다. 아마 텔레비전에 가끔 얼굴을 비추는 북녘의 아이들은,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재능도 많은 아이들이었기에 그럴 것이다.

그런 멋진 아이들이 내 친구가 된다면 나는 아마 우체통 수북이 편지를 보낼 것이다. 한반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날아 내 북녘친구에게 전해질 편지… 아마 그 편지는 ‘언제나 너에게 한 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너의 남쪽 친구가. 나의 북쪽친구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겠지.

이렇게 가슴 벅찬 나의 꿈들이 우리 집의 노오랗고 조그마한 돼지 덕분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돼지가 쭉쭉 자랄 수 있도록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동전과, 더 많은 사랑을 먹일 것이다. 소중한 못자리 비닐로 바뀌어 북녘에 전해질 이 돼지, 사람들은 이 돼지를 들고 한 지붕 아래서 토닥토닥 싸우기만 했던 북쪽의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겠지. 그러면 이 돼지는 남쪽 사람들의

화해의 마음을 북쪽 방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서로 조심스럽게 왕래하다 보면 언젠가 북녘과 남녘은 모두 문을 활짝 열어 서로를 감사하고 용서하며 또한, 사랑할 것이다.

오늘처럼 이슬비가 내리는 날, 내일의 무지개를 열어갈 한민족, 한 겨례를 위한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조그맣고 샛노란 우리 집 돼지에게 사랑을 먹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한겨레의 사랑을...







# 통일한국의 반쪽, 북한

신성여고 3  
진 유 라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 더구나 그 대상이 같이 살던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이 상황을 겪게 되면 슬픈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군대 입대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 2년 동안 자기아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시는 수백 명의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걱정되어 쉽게 발을 못 떼는 아들, 그곳에서만 해도 헤어짐의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 헤어짐의 기간이 2년이 아닌 평생이라면? 서로의 사이가 가시 달린 철물로 가로막혀 있어 군대처럼 면회도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못 만나고 끝내 마음을 접는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한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등등이 작은 지역, 작은 한반도에서만 보이는 사람들이다. 남북분단,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물론 경제적, 정치적 폐해도 만만치 않지만 나는 이것들보다 각자 사람 마음의 감정적 폐해가 더 심하다고 느낀다.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경계선이 그어진 지가 오십 년이 넘어서인지 감정의 골도 그만큼 커져 갔다. ‘북한은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히면서 남북 간의 통일을 불평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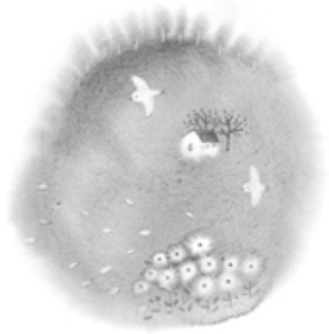
하지만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가까운 미래에서 가질 조금의 힘겨움만 생각하고 후대에 누릴 큰 기쁨까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우선, 찢길 대로 찢긴 이산가족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

통일이 될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기뻐할 사람은 가족이 찢어진 사람들이다.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서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통일이 되면 서로의 문화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무리 한민족이었다 해도 갈라진 동안의 세월 때문인지 많은 차이가 생겼다. 서로의 문화를 느끼면서 차이는 줄이려 노력하고 비슷한 점에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손바닥이 한 쪽만 있으면 '짜' 하는 박수 소리를 낼 수 없듯이 한반도에 홀로 남은 유일한 남북분단 국가인 남한도 큰 박수 소리를 내기 어렵다. 나머지 한쪽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바로 남한과의 유일한 한 핏줄, 북한이다. 아무리 남북 간 회담이 빈번하게 결렬되고 또 서로의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비슷한 언어, 비슷한 얼굴, 비슷한 문화를 가진 서로 다른 나라이다. 작은 물방울과 또 다른 작은 물방울이 합쳐지면 큰 물방울 하나가 만들어지듯, 각각 개인의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모여서 통일된 모습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2006 제11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 산문집

---

초판인쇄일 2006년 10월 4일

초판발행일 2006년 10월 9일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디자인 · 인쇄 현프린트

전화 02) 2273-7142

---



